

울수군
고장사기와 드림
마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소

울수군
고장사기와 드판

[일러두기]

1. 본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관할인 5읍 7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읍·면과 마을은 <가나다>순으로 편집하였으며, 지명(골짜기와 들판) 역시 <가나다>순으로 편집하였다.
 2. 본고는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1980), <경남편(II)>을 저본(底本)으로 하였으며, 말미(末尾)의 각종<참고문헌>에서 관련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발췌·인용하여 첨가·수록하였다. 특히 이유수의 『울산지명사』(1986)와 강길부의 『땅이름 울산사랑』(2002), 『울주군지』(2002)와 울주군의 <4읍8면지(2001~2002)> 등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3. 기존의 4읍8면지에서 발췌·인용한 내용은 번잡(煩雜)함을 피하기 위해 일일이 개별 세주(細註)를 달지 않았다.
 4. 같은 지명이라도 현지에서 불리는 이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명도 모두 나열하였다.
 5. 각 지역에서 해당 지명(골짜기와 들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마을은 ‘없음’으로 표기하였다.
 6. 여러 지역에 잇대어져 있는 골짜기와 들판은 처음에 나타나는 지역에서만 설명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동> ‘○○골’ 참조”로 명기(明記)하였다. 또한, 같은 마을 내의 중복되는 지명은 “<○○동(리)>의 <○○○>편 참조. 이하 ‘○○○’도 같다.”로 각주(脚註)에서 설명하였다.
 7. 한글과 한자 표기가 서로 다른 지명들은 ‘한글[한자]’로 명기하였다.
※ 예)갓골[冠谷], 채봉골[假葬谷], 큰들[大坪], 침밭들[葛田坪], 못[堤·池], 논[畚]등.
 8. 기존 문헌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일부 조사가 부실하였거나 오류로 판단되는 내용은 다른 문헌자료와 상호 대조·확인하는 등의 엄정한 고증을 거쳐 바로잡았다.
 9. 선행연구에서 서술한 된소리[硬音] 표기는 의미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순화된 표기로 조정하였다. ※ 예) 뽕당골→뽕땅골.
 10. 각 지명의 소재지는 확인이 가능한 지번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11. 본고에 기술되는 지명 중 울산지역의 특성상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그 지명이 소멸되었거나 형상이 변화된 것도 있으나 필요에 따라 모두 실어서 살펴보았다.
 12. 저본(底本)으로 한 『한국지명총람』의 각주 표기와 설명은 일괄적으로 생략하였다.
 13. 본 조사에서 누락이 되었거나, 또는 설명이 다르게 된 부분이 있다면 훗날 또 다른 연구자의 수정·보완을 기대한다.
-

[발간사]

울산은 유난히 산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서쪽으로 밀양시와 청도군, 북쪽으로 경주시, 남쪽으로 양산시와 접한 울주는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준령(高山峻嶺)이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울주군에 있는 많은 산에는 할머니 치맛주름처럼 뻗어 내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들은 다시 땅 위에 풍성하게 들판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잡은 사람들은 골짜기와 들판에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오롯이 품고 있는 자연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바뀌어 산이 깎여 나가고, 아스팔트가 산속의 수많은 오솔길을 뒤덮는 가운데도 골짜기와 들판의 이름은 계속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주군 골짜기와 들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관할인 5읍 7면의 골짜기와 들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같은 지명이라도 현지에서 불리는 이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명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문헌 자료를 통하여 골짜기와 들판을 확인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곳은 현지에 나가 주민들로부터 구술을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울주군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역으로 넓은 곳이었으니 그 작업 또한 방대하였습니다.

단순히 골짜기와 들판의 이름과 위치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명을 표기하고, 그 행정구역의 내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에 있는 골짜기와 들판이 몇 개 있고, 일일이 이름이 붙은 연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함으로써 자칫하면 지루해질 내용에 흥미를 더했습니다.

이 책은 울주의 골짜기와 들판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자연의 삶의 조화를 소개한 인문지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 집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채은 선생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소중한 자연 유산인 골짜기와 들판에 대한 기록의 산물로 널리 읽혀지길 바랍니다.

2018.9

울산발전연구원장



[목차]

■ 들머리	6
1. 범서읍	9
2. 언양읍	25
3. 온산읍	41
4. 온양읍	57
5. 청량읍	73
6. 두동면	96
7. 두서면	115
8. 삼남면	135
9. 삼동면	144
10. 상북면	161
11. 서생면	180
12. 웅촌면	194
■ 부록	213
들판의 전통문화	215
골짜기와 들판의 현황	216
울주군의 연혁	217
■ 참고문헌	220

[들머리]

울산광역시(蔚山廣域市)는 우리나라의 동남부에 위치해 있다. 시의 동쪽은 동해를 접하고,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북도 청도군·경상남도 밀양시와 접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치슬령을 경계로 경상북도 경주시와, 남쪽으로는 정족산·대운산을 경계로 부산광역시 기장군·경상남도 양산시와 접하고 있다.

울산은 삼한시대 진한(辰韓) 12개국 안의 한 부족사회로 웅촌(熊村)의 검단(檢丹)에 있던 우시산국(于尸山國)에서 지명의 유래를 찾고 있다. 우시산국의 시(尸)는 이(履)의 약자(略字)이기도 하며, 이두에서 ‘ㄹ’로 많이 표기되는데 ‘우’와 ‘시’를 합하면 ‘울’이 된다. 따라서 우시산국, 우불현(于弗縣), 우풍현(虞風縣), 울주(蔚州) 등으로 지명이 계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은 본래 울주가 변한 지명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하곡현(河曲縣)”은 신라 파사왕 때 굴아회촌(屈阿火村)을 빼앗아 현을 설치한 곳인데, 경덕왕이 고친 이름으로 지금의 울주이다.”라는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고려에서 울주군으로 고쳐 현종 9년(1018)에 방어사를 두었고 태조 6년(1397)에 비로소 진(鎭)을 설치하고 병마사(兵馬使)로서 지주사(知州事)를 겸하게 하였는데, 조선 태종 13년(1413)에 진을 폐지하고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로 고쳤다.”라고 하여 태종 13년(1413)에 비로소 울산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려 태조가 그 고을 사람 박윤웅(朴允雄)이 공(功)이 있다고 해서 동진(東津)과 우풍(虞風)의 두 고을을 가져다가 합쳐서 흥려부(興麗府)로 승격시켰다가 뒤에 낮추어서 공화현(恭化縣)을 만들었고, 또 지울주사(知蔚州事)로 고쳤다.”는 기사가 있다.

임진·정유재란(1592~1598) 때의 공(功)으로 선조 32년(기해, 1599)에 울산도호부로 승격하고 병마절도사 겸 부사를 두었다. 광해군 9년(1617) 10월부터 울산도호부사 단독체제를 유지해오다가 고종 32년(1895)에 울산군으로 개칭하였다. 1962년 6월 울산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울산시 관할외의 지역은 울주군으로 개칭·편입되었다. 울주군은 1991년 1월 법률 제4274호로 울산군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 1월 법률 제4801호로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주군으로 개칭되었다. 1996년 2월 1일 울주군 관할 언양면과 온산면이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97년 7월 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었고, 울주군은 울주군으로 개칭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속되었다. 2001년 3월 1일에는 울주군 언양면과 범서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2018년 4월 1일(조례 제1060호, 2018.3.22.) 청량면이 울주군 신청사 소재지로서 읍으로 승격하여 중·남·동·북구 등의 4개 구(44개 동)와 1개 군(5읍 7면; 118리)을 관할하고 있다.¹⁾

우리 울산은 중·남구를 중심으로 하여 울주군·북·동구에 산재한 크고 작은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다. 동으로는 경주의 토함산, 동대산과 잇대어진 무룡산, 북으로는 경주 남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치슬령, 두서의 백운산, 서쪽으로는 가지산과 신불산, 언양의 고현산, 청량읍 울리의 문수산, 남암산, 남쪽으로는 정족산, 대운산, 우불산 등이 있다. 특히도 울주군은 서쪽으로 밀양군과 청도군, 북쪽

1)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 「한국지명유래집」〈울산광역시〉편.

으로 경주시, 남쪽으로 양산시와 접하고 있는데, 해발 1,000m를 넘는 산악 군(群)이 그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곳곳의 크고 작은 산에서 뿜어 내리는 지형의 특성상 수많은 골짜기와 들판들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골짜기와 들판들은 농경시대였던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었으며, 관광지와 교통로로서의 주요한 역할도 하여 왔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이러한 골짜기와 들판들은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 등의 산업화 또는 도시화 과정에서 깎여나가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거나, 아니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곳도 많다. 비록 그들의 형상은 없어졌으나 이름은 옛 그대로 남아 있거나 보존되어 아직도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지명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말미암아 현대 문명의 뒤편길로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골짜기와 들판들을 조사하여 향토사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조사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역(5읍7면; 756.06km²)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우선 문헌자료²⁾를 위주로 하고 특별히 현지조사의 필요가 있는 곳은 현지에 나가서 주민으로부터 구술을 받아서 채록·기술하였다.³⁾

골짜기

골짜기[谷, valley]의 사전적(字典的) 의미는 “두 골[谷] 사이에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곳”으로, ‘계곡(溪谷) 또는 골짜구니’라고도 한다. 골짜기는 너비보다도 길이가 현저하게 길고, 그 속으로 하천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 모양은 침식영력(浸蝕營力), 암석의 성질, 침식윤회(浸蝕輪廻)의 시기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성인(成因)에 따라 침식곡(浸蝕谷), 구조곡(構造谷)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 유년곡(幼年谷), 장년곡(壯年谷), 노년곡(老年谷)으로 구분된다. 또 산맥의 방향과의 관계에 따라 종곡(縱谷)과 횡곡(橫谷)으로, 땅 위에 존재하는 경우와 바다 속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육지의 골짜기와 해곡(海谷) 등으로 구분된다.

침식곡은 하천·빙하 등의 외적 영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형성 초기에는 비가 내리는 때만 물이 흐르는 건곡(乾谷)을 이루다가 점차적으로 깊이 패어서 곡저(谷底)가 지하수면에 이르면 항상 물이 흐르는 계곡이 된다. 건조지역에서는 강우 시에만 흐르는 간헐하천, 즉 단속하천(斷續河川)을 이루는 계곡이 많다. 곡빙하(谷氷河)는 지반을 깊이 깎아 U자곡을 형성한다. 곡빙하의 곡두(谷頭)에는 빙식(氷蝕)으로 이루어진 카르[Kar; 圈谷]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계곡이 발달하는 초기에는 하천이 하각작용(下刻作用)을 하여 V자형의 계곡을 만들고, 곡상(谷上)에는 폭포나 급류가 많은 ‘유년곡’을 이루게 된다. 또 굳은 암석지역에서는 양쪽 기슭이 거의 수직적인 벼랑을 이루는 협곡(峽谷)을 만든다. 침식이 진전되어 어떤 시기에 이르면 곡저에서 폭포나 급류는 소실되고 평형하천을 이루게 되며, 하각작용보다 측방침식(側方浸蝕)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골짜기의 너비가 넓어져서 범람원을 이루게 되면, 드디어 하천은 사행(蛇行)하게 된다. 이 시기의 계곡을 ‘장년곡’이라고 한다. 다시 침식이 진전되면 골짜기는 현저하게 넓어지고 하천은 더욱 완

2) 『한국지명총람』9, <경남편(II)>, 한글학회, 1980; 『조선지리지자료』, 조선총독부, 1911; 『울산지명사』, 이유수, 울산시·울산문화원, 1986; 『울주군지』(상·하, 2002); 울주군 <4읍8면>의 각 읍·면지, 2001~2002; 『울산남구지명사』(2009), 『울산중구지명사』(2014).

3) 박채은, 『울산의 고개 그리고 문화』,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2015.

만하게 곡류하여 넓은 계곡을 만드는데, 이 시기를 ‘노년곡’이라 한다.

구조곡은 지구 내부의 영력, 다시 말해서 단층과 습곡작용을 강하게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단층에 의해서 내려왔거나 또는 단층의 파쇄대(破碎帶) 부분이 빠른 속도로 침식되어 요지(凹地)를 이루게 되면 계곡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단층선에 따라 형성된 계곡을 ‘단층곡’이라 한다. 또 습곡 향사부(向斜部)의 요지가 그대로 계곡을 이루고 있는 것을 ‘향사곡(向斜谷)’이라고 하고, 배사부가 침식되어 계곡을 이룬 것을 ‘배사곡(背斜谷)’이라고 한다.

산맥의 주향(走向)과 거의 평행하게 뻗은 계곡을 ‘종곡’이라 하고, 산맥의 주향을 거의 직각으로 가로지르는 계곡을 ‘횡곡’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육상에 발달한 각종 계곡을 총칭해서 육지의 계곡이라고 하며, 해곡과는 구별된다. 해곡에는 대륙붕에 발달한 것과 대륙 비탈면에 발달한 것이 있으며, 전자는 육지의 계곡이 침식되어 이루어진 것이 많으나, 후자는 육지와 관계없이 발달한 것이 많다.

계곡은 예로부터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협곡이나 빙식곡 등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관광지를 이루는 곳이 많다. 또한 곡저의 경사와 협곡의 지형을 이용해서 댐이 건설되어 수력발전이나 농업용수 공급, 또는 지역민들의 식수원(食水源)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⁴⁾

들판

‘들판’의 사전적 의미는 ‘들(坪, 野)을 이룬 벌판’이라고 한다. 또는 ‘벌판, 평야’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field’이다. 본래 ‘땅’ 또는 ‘산’의 의미인 ‘들’에서 나온 말로 보고 있는데, 같은 계열의 말로는 ‘도랑’, ‘뜰’, ‘두렁’, ‘두둑’ 등이 있다. ‘논밭을 풀 수 있는 넓고 평평한 땅’의 뜻을 갖고 있다.⁵⁾ 다시 말해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주는 농경지가 조성된 곳이 들판이다. 이런 들판에는 물이 있어야 한다. 선사시대를 비롯한 고대 유적도 대부분 물가에 있다. 물이 있어야 인간을 비롯한 만물들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농경지는 천수답(天水畓)이 대부분이었다. 농사를 오직 하늘의 뜻에 맡겨야만 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이 수리안전답(水利安全畓)이다. 천수답이 하늘에 의존하는 농사라면 수리안전답은 강과 저수지 관정(管井) 등으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논을 말한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논에 물을 끌어 올리는 무자위(=수동 양수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수차(水車)라는 기구이다. 지금은 전기를 이용한 양수기(모터펌프)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밭작물 역시 ‘스프링클러’라는 현대식 시설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한편, 들판 위아래의 곳곳에 골짜기나 도랑(실개천)을 타고 내려온 물을 가두는 저수지나 보(洑)를 막아 농사를 짓고 있음은 큰 활용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영농이 하늘만 쳐다보는 현실이다.⁶⁾

4)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5) 『지명유래집』,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7, 165쪽.

6)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원구
고갯사기
와
드판

1. 범서읍

凡西邑



구영리 구뚫들



구영리 문곡골



구영리 지골



굴화리 굴화들



굴화리 꿀안골



굴화리 물탕골



굴화리 배나무골



두산리 연동안골



사연리 사일앞들



사연리 대밭골



사연리 서당골



사연리 송충골



서사리 앞골들



서사리 우리골



입암리 설못들



입암리 입암들



중리 문고개골



척과리 우리골



천상리 대밭골들



천상리 큰골

1. 범서읍 (凡西邑, 77.16km²)

『동국여지승람』《울산군》편 〈고적〉조에, “범서부곡(凡西部曲)은 군 서쪽 25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굴화역은 군 서쪽 15리에 있고, 옛 하곡현(河曲縣)의 유지(遺址)가 있으며 입암연(立岩淵)과 언양 경계는 군 서쪽 20리에 있다고도 했다. 또 『홍려승람』(1937)에는 ‘범서면은 군 서쪽에 있으므로 범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길부는 『울주군지』(2002)에서, 범서면이란 ‘신라시대 범서부곡이 있던 지역이므로 범서면으로 칭한다.’라는 후대의 잘못된 기록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범서(凡西)란 ‘범서부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울산지방의 발상지요 수천 년 동안 울산의 수읍(首邑)이었다. 이 지역이 울산고을에서 대체적으로 범(凡) 서부(西部)에 위치한다.’는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범서는 본래 상고시대부터 구라, 굴아화, 화곡, 홍려, 용화, 울주 등으로 불려온 울산의 발상지이며 오늘의 울산이 성장해온 요람지(搖籃地)였다.

범서면 굴화리 일대는 진한부족연맹때에 굴아화촌(屈阿火村)이었다. 신라 제5대 파사왕이 이를 취하여 처음으로 현을 두어 굴아화현이라 하였다. 경덕왕 16년(757)에 현의 이름을 고쳐 하곡현(河曲縣)이라 하였는데, 일명 하서(河西)라고도 불렀다. 고려 태조 때 흥례부(興禮府)로 되면서 고을의 치소(治所)가 화성동 쪽으로 옮겨가고, 신라 일대를 통한 현치(縣治)가 여기에서부터 끝이 났다. 고려 후기 또는 조선 초에는 한동안 범서부곡으로 되었다가 이로부터 해방되어 범서촌이 되고, 뒤에 범서면이 되었다.⁷⁾

삼호(三湖), 무거(無去), 다전(茶田), 운곡(雲谷), 신안(新安), 신리(新里), 내사(內沙), 사랑(沙良), 관문(關門), 성저(城底), 연동(燕洞), 척과(尺果), 용연(用淵), 구영(九英), 점리(店里), 망성(望星), 옥곡(旭谷), 중리(中里), 곡연(曲淵), 사일(泗日), 입암(立巖), 평천(平川), 천상(川上), 대동(垜洞), 괴정(槐亭), 백천(柏川), 굴화(屈火), 장검(長劍)의 28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상부면의 길촌동(吉村洞) 일부와 경북 경주군 외동면의 반자동(盤子洞) 일부를 편입하고 난곡(蘭谷), 말정(秣亭)의 2개동을 부내면으로 이속하였다. 무거, 다운, 서사, 두산, 척과, 구영, 망성, 중리, 사연, 입암, 천상, 굴화의 12개리로 개편·관할하였는데, 1962년 5월 10일 울산시 설치에 따라 무거, 다운 2개리를 울산시에 넘겨주어서 10개리가 되었다. 2001년 3월 1일 울주군 조례 제226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쪽은 북구 농소동과 중구 다운동, 남구 무거동, 남쪽은 청량읍과 삼남면, 서쪽은 언양읍, 북쪽은 두동면과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접하고 있다.

· 구영리 (九英里, 구영)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서 굴화현(울산)의 병영이 있었으므로 구영(舊營)이라 하였는데, 1894년(고종 31)에는 구영동(九永洞)과 점리(店里)로 나누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점리동(店里洞)을 병합하여 구영리라 하였다. 곧 범서산성 아래에 있으므로 옛 병영(兵營)이라는 뜻의 ‘구영

7) 『울주군지』(하), 울주군지편찬위원회, 2002, 1036쪽.

(舊營)'이라 하였다가 지금은 구영(九永)을 거쳐 구영(九英)으로 바뀐 것이다.

[골짜기]

- 갯골[冠谷] : 구영리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 범서초등학교 구영분교 아래이다.
- 거시골 : 도장골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이름이 없다 하여 불린 지명이다.
- 논골 : 갯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다.
- 덕골 : 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도장골 : 구영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장 안처럼 깊숙하고 아늑하다.
- 동백이골 : 도장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동쪽골 : 중촌(中村)⁸⁾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는 동쪽골못이 있다.
- 문곡골 : 구영리 54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밤밭골 : 점촌과 구영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많았다.
- 분통골 : 점촌의 북쪽, 분통골못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쌍골 : 구영리 166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샛들골 : 구영리 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처녀(애기씨, 액시)가 죽은 묘가 있다 하여 '액시(애기씨)미골'이라고도 하며, 큰액시미골과 작은액시미골이 있다.
- 서남골 : 구영리 55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솔밭골 : 구영 동북쪽의 중촌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솔밭이 있다. 즉 구영리 산30번지 서북쪽 일대이다.
- 안골 : 중촌의 안골짜기 마을이므로 안골이라 한다. 이곳에는 안골못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內谷(안골, 九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잔밭골 : 안골못 위에 있는 골짜기로, 구영리 614번지 일대이다.
- 재궁골 : 중촌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화의 은진 송씨 재궁(齋宮)이 있었던 곳이므로 '재앵골'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지리지』에 齋宮谷(九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절골 : 구영리 강당(江堂)⁹⁾의 북쪽 골짜기로, 옛날에 절이 있었다.
- 중더미골 : 구영리 64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지골 : 구영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구영리 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채봉골 : 대리의 동·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텃골 : 중촌에서 안골로 가는 골짜기로, 옛날에 독가촌이 있었다.
- 통배기골 : 대리의 서쪽 갯골과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광해군 때의 중 성지(性智)가 이곳도 명지라 하여 두 골짜기에 온통 말뚝을 박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烏幕谷(가막골, 九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구못들 : 구못¹⁰⁾ 밑에 있는 들판으로, 구영리 1031번지 일대이다. '구영들', 또는 '대리앞들'이라고도 한다.
- 동쪽골못들 : 동쪽골못¹¹⁾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새못들 : 새못¹²⁾ 밑에 있는 들판으로, 구영리 307번지 일대이다.

8) 중촌은 구영과 점촌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중마을'이라고도 한다. 점촌[店洞]은 구영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9) 강당은 구영리 백룡담에 있는 정자이다. 백룡담의 동북 벼랑에 울산부사 이정인이 입암정을 지었으므로 이곳을 강당(江堂)이라고도 한다. 입암리에서는 선바위 일대의 조그만 마을 이름으로도 되었다.

10) 구못은 구영 북서쪽에 있는 못으로, '구영지(舊營池), 구영지제(仇永旨堤)'라고도 한다.

11) 동쪽골못은 동쪽골에 있는 못으로, 동쪽골은 중촌마을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촌마을은 구영과 점촌(店村)마을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12) 새못은 점촌 동쪽에 새로 생긴 못이다.

- 신답들 : 대리마을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택지조성으로 형상이 없어졌다.
- 옥밭밧골들 : 점촌마을과 구영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 구영에 병영(兵營)이 있을 때 병영에 딸린 감옥이 있었다 한다.
- 중들 : 중촌에서 안골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구영리 540번지 일대이다. 경지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

• 굴화리 [屈火里, 구불, 구벌, 굴아화, 굴아불, 굴아벌, 굴화]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서 태화강이 굽게 흐르는 벌판이므로 구불·구벌 또는 굴아벌·굴아불·굴아화·굴화라 하여 울산의 옛 고을 굴아화현이 있었다. 세종 때와 예종 때는 굴화(屈火)와 장고암(長古岩)으로 갈라져 있었고, 정조 때는 장검리(長劍里)와 굴화리로, 1894년(고종 31)에는 역리(驛里)와 장검이라 하였다. 1911년에는 굴화, 장검(長劍), 백천(栢川), 괴정(槐亭)으로 세분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들을 병합하여 굴화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장골 : 자방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골안골 : 장검¹³⁾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영리 187번지 일대이다.
- 굴방골 : 굴방우¹⁴⁾가 있는 골짜기이다.
- 대밭골 : 굴화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머구나뭇골 : 물탕¹⁵⁾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탕골 : 물탕이 있는 골짜기로, 굴화리 589-5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沐浴谷(槐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배나무골 : 굴화리 57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梨木谷(비나무골, 屈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분딧골 : 예수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썬골 : 불썬방우¹⁶⁾가 있는 골짜기이다.
- 상아골 : 장검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상어처럼 생겼다 한다. 굴화리 16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象牙谷(槐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안골 : 굴화리 63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연깃골 : 홍골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예수골 : 진땃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狐谷(여히골, 屈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원내골(院內谷) : 백천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시대 굴화원(屈火院)의 안골이라는 뜻일 것이다.
- 자방골 : 장검마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안골 : 백천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골’로도 부른다.
- 중산골 : 장검마을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승려(僧)의 시체를 불살랐다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僧燒谷(중산골, 屈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3) 장검은 백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14) 굴방우는 굴화 남쪽에 있는 바위로, 바위 밑에 굴이 있다.

15) 물탕은 백천 서쪽에 있는 악수터로, 바위틈에서 물이 새어나와 탕을 이루었는데, 땀띠에 약효가 있다 한다.

16) 불썬방우는 골안 동쪽에 있는 바위로, 그곳에서 불을 켜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빌었다 한다.

- 진땃골 : 배나뭇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찬물(물)내기 : 굴화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찬물이 났다 한다.
 - 큰골 : 자방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허장골 : 백천못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烏川谷(栢川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佛堂谷(長劔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굴화들 : 굴화에 있는 들판으로, 태화강변에 위치해 있다.
 - 마른사리 : 굴화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乾坪(屈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생기들 : 기숙등 앞에 있는 들판으로, 이 들판의 북쪽 굴화천을 해연[蟹淵, 게못]이라 하고, 건너편의 산을 기숙등[蟹宿嶺]이라 부른다. 이런 이름들은 모두 생김새가 마치 살아있는 게[蟹]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¹⁷⁾
 - 수정들 : 수정(秀亭)¹⁸⁾ 아래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水井坪(屈火洞), 水亭坪(槐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안골들 : 『조선지리지자료』에 內谷坪(栢川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장관들 : 백천(柏川)¹⁹⁾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將板坪(槐亭洞), 長嶺坪(屈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행교들 : 굴화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울산 향교에 달린 들판이다. 지금의 문수고등학교 일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鄉校坪(屈火동)’으로 조사되어 있다.
 - 흥골들 : 큰골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道溫前坪(長劔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石巖前坪(長劔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두산리 (斗山里)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인데, 정조 연간에는 관문리(關門里)였으나 1894년(고종 31)에 관문과 연동(連洞)의 두 마을로 되어 있었다. 1911년에는 관문동(關門洞)이 관문(官文)과 성저(城底)로 갈라지고 연동은 그대로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관문동, 성저동(城底洞), 연동(燕洞), 척과동(尺果洞) 일부를 병합하여 두산리라 하였다. 두산(斗山)은 산협(山峽)을 뜻하는 ‘두뢰’를 나타내는 말로 보고 있다.²⁰⁾

[골짜기]

- 깨밭골 : 삼거리(三巨里)²¹⁾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논도골 : 두산리 4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17) 강길부, 『땅이름 울산사랑』, 도서출판 정도, 2002, 128쪽.

18) 수정(槐亭)은 굴화 남쪽에 있던 마을이다.

19) 백천은 굴화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참나무가 무성하였으며 앞에 냇[川]이 있다.

20) 『울주군지』(하, 2002), 1040쪽.

21) 삼거리는 두산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세 갈림길에 있다.

- 돈독골 : 발전²²⁾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딘막골 : 연동(燕洞)²³⁾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먹골 : 왕걸²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두산리 823번지 일대이다. 골짜기 밑에 먹골못이 있다.
 - 배산골 : 산숯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산숯골 : 구룡(九龍, 큰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골 : 두산리 산397번지의 북쪽과 산407번지의 남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서당골 : 구룡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고 하나 그 흔적이 묘연하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西堂谷(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소부골 : 새터²⁵⁾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송아골 : 왕걸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골 : 연동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연동앞골’로도 불린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內谷(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어덕골 : 배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우릿골 : 새터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해룡골 : 왕걸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흥골 : 꾀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高飛喃谷(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南山谷(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道泊谷(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陳沓谷(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삼걸들 : 삼거리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三溪坪(燕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큰마들 : 대촌못 밑에 있는 들판으로, 두산리 535번지 일대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門前坪(燕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春橋坪(방아다리들, 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田坪(밭들, 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沙汰坪(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架谷坪(燕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深山坪(斗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망성리 [望星里, 망성, 망승]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예종 때는 망상리(望相里)라 하였다가 정조 때는 옥곡(旭谷)의 단일마을이 되기도 하였다. 망성 또는 망승이라고도 하였는데, 1894년(고종 31)에는 중리(中

22) 발전은 배산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23) 연동은 관문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제비가 나는 형국이라 한다. ‘燕飛洞’이라고도 한다.

24) 왕걸은 두산리의 큰말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말[九龍]은 관문 남쪽에 있는 마을로, 일제 때 구룡소(九龍沼)가 있었다. 옛날 어느 임금이 자고 갔으므로 왕골이라 부르던 것이 ‘왕걸’로 변했다 한다.

25) 새터는 대신마을 동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대신마을은 두산리에 있는 마을이다.

里)에 속했다가 1911년에 자립한 마을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옥곡동(旭谷洞)을 병합하여 망성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감나뭇골 : 새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았다.
- 둔구덕이골 : 옥실[旭谷]²⁶⁾마을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성리 437-2번지 일대이다.
- 물방아골 : 옥실마을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성리 산114-1번지 일대이다.
- 불땅골 : 옥실마을의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성리 295-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佛堂谷(旭谷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비상골 : 옥실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비상(砒霜)이 났었다 한다.
- 새장골 : 망성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를 불리던 점(店)이 있었다. 쇠점골이 새장골이 되었다.
- 서각골 : 옥실마을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성리 385-5번지 일대이다.
- 서당골 : 감나뭇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書堂谷(望星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옥실골 : 옥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은골 : 서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입질골 : 옥실마을의 입구에 있는 골짜기로, 망성리 248번지 일대이다.
- 한실재골 : 옥실마을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성리 산80번지 일대이다.
- 황골 : 옥실마을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성리 산380-2번지의 북쪽 끄트머리일대이다.

[들판]

- 무옥들 : 문고개²⁷⁾ 밑에 있는 들판으로, '문곡들'이라고도 한다.
- 봉답들 : 망성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옥천들 : 옥실(옥곡)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사연리 (泗淵里)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 조선 정조 때는 사일리(沙日里)와 곡연리(曲淵里)로 되었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곡연 단일마을이었다. 1911년에 다시 곡연과 사일(泗日)로 갈라졌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일동과 곡연동을 병합하여 사연리라 하였다. 사연(泗淵)이라 함은 사일(泗日)의 '사(泗)'와 곡연(曲淵)의 '연(淵)'을 딴 이름이다.

[골짜기]

- 내릿골 : 배나뭇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대방골 : 사연리 22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도트뭇골 : 사일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도투마리처럼 생겼다 한다.
- 못안골 : 사일못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6) 옥실은 망성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옥곡(旭谷)'이라고도 한다.

27) 문고개는 망성 동쪽에서 구영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방아까지골 : 못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디딜방아의 다리처럼 생겼다 한다.
 - 배나못골 : 사일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배나무가 있었다.
 - 새미골 : 못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었다.
 - 서당골(1) : 방아까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 사연리 산46번지 서쪽 일대이다.
 - 서당골(2) : 곡연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송청골 : 안마실²⁸⁾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언양읍 반연리 세연마을과 경계인 사연리 산52-1번지 서북쪽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崇忠谷(曲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정골 : 반연리와 경계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사연리 269-1번지 일대이다.
 - 해미기골 : 해미기²⁹⁾가 있는 골짜기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碑谷(曲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가망못들 : 곡연마을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언양읍 반연리 가망못[烏池]의 물을 댄다.
 - 가장징이들 : 가장못 밑 강정들 남쪽 냇가에 있는 들판으로, 사연리 555번지 일대이다.
 - 강정들 : 곡연마을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江亭坪(曲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넓넷들[廣川坪] : 곡연마을 앞, 가장징이들 남쪽 냇가에 있는 들판으로, ‘광연들[廣淵坪]’이라고도 한다. 두 골의 물이 이곳에서 합수되므로 들판이 넓다. 사연리 331번지 일대이다.
 - 대방골들 : 가망못들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대방골³⁰⁾ 앞이 된다.
 - 사일앞들 : 사일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사연리 69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泗日坪(曲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사일웃들 : 사일마을 위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새창만리 : 가망못들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新基坪(曲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鋤乙坪(曲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서사리(西沙里)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 조선 예종 때는 시보리(施保里)로 불렸던 마을이다. 정조 때는 외사량리(外沙良里)와 내사량리(內沙良里)로 갈라졌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다시 신리(新里), 내사(內沙), 사랑(沙良), 신안(新安)의 4개 마을로 갈라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리동, 내사동, 사랑동, 신안동의 각 일부와 상부면의 길촌동 일부를 병합하여 서사리라 하였다. 이때 남은 각 마을의 일부는 신안동은 다운동에, 사랑동은 척과리에, 내사리는 중리로 이속하였다.

[골짜기]

- 가장골 : 서사리 93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갓안골 : 우리골못 위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골짜기로, 골짜기 입구가 높고 좁은데 비해 안쪽에

28) 안마실은 곡연 서쪽 안에 있는 마을이다.

29) 해미기는 서당골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30) 대방골은 가망못들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작은 분지를 이루고 있어 6.25한국전쟁 때 무장공비(빨치산)들의 둔거지(屯居地)였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冠內谷(갓안골, 內沙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개안골(開眼谷) : 들꽃학습원 동쪽으로 통과하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산시 중구와 범서읍의 경계에 있다. 현지인들은 안골[內谷]이라 부르는데, 이곳 북쪽에는 약수터가 있다. 이곳 약수는 피부병은 물론 특히 눈병에 좋아 눈이 맑아진다 하여 ‘개안골’이라 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또한 ‘개암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비린내 나는 고기 등을 먹고 이곳을 찾는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빨간 실뱀이 나타나서 물을 맞지 못하도록 개암(개염=시샘) 부린다 해서 불린 지명이라 한다. 주변에는 개안사(開眼寺)라는 사찰이 있다.
- 금정골 : 서사리 124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金昇谷(沙良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논골 : 우리골 안쪽에 논이 있는 골짜기이다.
- 띠뿌골 : 우리골못 바로 못 미쳐 왼편으로 갈라진 골짜기로, 서사리 863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茅田谷(새밭골, 內沙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못골 : 재응골(쟁골) 맨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는 쇠부리터가 남아 있다.
- 문고개골 : 서사리 908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가장골과 연이어서 있다.
- 매재골 : 서사리 39-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배나무골 : 문고개골 못 미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사리 941번지 일대이다.
- 범등골 : 서사리 15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虎入谷(범든골, 沙良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부디발골 : 들꽃학습원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정골’과 접해 있다.
- 부양골 : 재응골(쟁골) 못 미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쇠부리를 했던 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休王谷(부양골, 沙良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산소골 : 우리골 서남쪽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이다. 서사리 896번지 일대로, 이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山水谷(內沙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성지골 : 외사마을 서쪽 척과천 건너 ‘고장등’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聖智谷(沙良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신거실골 : 서사리 5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안골 : 부디발골과 겹치는 곳에 있는 골짜기로, 밑에 ‘안골들’이 있다.
- 어봉골 : 외사마을 북쪽 끝 범든골 상류 척과천변 일대의 골짜기로, 이곳 절벽바위 밑에는 큰 웅덩이가 있어 물고기가 많았다 한다. 특히 ‘붕어’가 많다 하여 불린 지명이라는 설도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魚鳳谷(어봉골, 沙良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억목골 : 옛날 임진란 때 억만(億萬) 군사가 머물렀다고 전해오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億萬谷(억목골, 內沙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우리골[于里谷] : 서사리 652-3번지~83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이 안에는 ‘띠뿌골, 갓안골, 움박골’ 등의 골짜기들이 있다.
- 움박골 : 우리골못에서 북쪽으로 뻗은 골짜기로, 이곳에는 참나무가 많아서 숲을 굽기도 하였다 한다.
- 장생골 : 서사리 245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장승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長生谷(沙良澗)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재응골 : ‘쟁골’이라고도 하며, 서사리 561-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정지골 : 서사리 76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천등골 : 거진뱅이의 물출출과 이어지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淸道谷(천등골, 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튀기밭골 : 서사리 77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추주막골 : 우리골 안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 팔밭골 : 팔밭[火田]을 했던 골짜기로, 옛 제당과 당산나무가 있었던 곳이다.
- 한대바골 : 내사마을에서 군도 11호선을 따라 구영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행정구역은 중구 다운동 관할이다.

『조선지리지』에 門岩谷(문방우골, 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桃木谷(복숭나무골, 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紫岩谷(불근방우골, 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嘶駟谷(沙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店谷(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芍藥谷(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韓道谷(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拒戰坊谷(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楸子谷(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紫陽谷(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紫芝谷(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道務谷(內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앞들 : 척과천변에 있는 들판으로, 서사리 497번지 일대이다.
- 앞골들 : 서사리 39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에 馬墓坪(말미들, 沙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魚鳳坪(沙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王墓坪(沙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鳥海坪(沙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입암리 [立巖里, 선방우, 입암]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서 선바위가 있으므로 선방우 또는 입암이라 하였는데, 조선 정조 때는 진목리(眞木里)와 입암리(立岩里)라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는 평천동(平川洞)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911년에 다시 분립하여 입암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평천동, 곡연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입암리라 하였다.

[골짜기]

- 눈골 : 입암리 산2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도둑골 : 빗골짜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동산골 : 입암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빗골짜 : 진목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빗돌로 쓰이는 돌을 캐냈었다 한다. 입암리 산18-3번지 일대이다.

[들판]

- 도둑들 : 입암리 983-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모래들 : 진목(眞木)³¹⁾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모래가 많았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勿川坪(立巖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못밑들 : 입암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못이 있었는데 그 밑이 된다.
- 불밧골들 : 입암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새밭굼 : 진목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새(풀)가 많았다.
- 설못들 : 입암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설못[鋤池]³²⁾의 물을 댈다. 설못의 서북쪽에 있으며, 입암리 245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鋤乙坪(立巖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외들 : 마을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입암리 306번지 일대이다.
- 윗들 : 진목마을에 있는 들판이다.
- 이방들 : 마을 남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입암리 351번지 일대이다.
- 입암들 : 마을 북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입암리 46번지 일대이다.
- 작답들 : 마을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입암리 474번지 일대이다.
- 진목들 : 진목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입암리 22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雄鷄岬坪(立巖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중리 (中里)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정조 때 내지지리(內知止里)와 외지지리(外知止里), 옥곡리(旭谷里)로 갈라져 있었다. 1894년(고종 31)에는 망성동(望星洞)과 옥곡동(旭谷洞)까지 분립하여 나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내사동(內沙洞) 일부를 병합하여 중리라 하였다. 중리(中里)라 함은 망성까지 관할하였을 때 지지(知止)와 망성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 되므로 그렇게 불렀다.

[골짜기]

- 감나무골 : 중리 64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柿木谷(감나무골, 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권천내골 : 중리 61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들판골 : 썩 들어앉은 골짜기로, 중리 602번지 일대이다.
- 문고개골 : 중리 492-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매골 : 중리 385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31) 진목은 입암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참나무가 울창하였다. '진목정'이라고도 한다.

32) 설못(鋤池)은 입암 남쪽에 있는 못이다.

- 새정골 : 중리 산197-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新店谷(새덤골, 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장안골 : 중리 470~48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정지골 : 지지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正止谷(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지지골 : 중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知止谷(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뒫들 : 중리 아랫마을 뒤에 있는 들판이다.
- 새방들 : 중리 236-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참나무정들 : 중리 41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眞木亭坪(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큰들 : 공부암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중리 107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籠岩谷坪(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척과리 [尺果里, 자과, 척과]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자[尺]처럼 생겼으므로 자과 또는 척과라 하였다 하는데, 조선 정조 때는 자과[尺果]의 단일마을이었다. 1894년(고종 31)에 척과(尺果)와 용연(用淵)의 두 동으로 갈라져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연동(龍淵洞), 사랑동(沙良洞) 일부와 경북 경주군 외동면 반자동(盤自洞, 盤洞) 일부를 병합하여 척과리라 하였다.

[골짜기]

- 남뱅이골 : 척과(반용)저수지 북쪽 우리골에서 갈라진 세곡(細谷)이다.
- 수왕곡 : 척과리에 있는 골짜기로, '시왕골'로도 불린다. 척과리 산310번지의 북쪽과 산316-1번지의 남쪽 사이 일대로, 위에는 왕산(王山)³³⁾이 있다. 신라 경덕왕이 동래에서 온천을 할 때 여기 어 머물러 주민들이 길을 치웠다 한다. 그래서 임금을 모신 자리라 하여 시왕동(侍王洞)이라 하였고, 뒷산을 왕산이라 하였다. 왕산에는 석단유지(石壇遺址)가 있었다 한다. 시왕동이 변해서 지금은 수왕곡이 됐다.³⁴⁾ 『조선지리지』에 休王谷(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앵두밭골 : 앵두나무밭이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櫻桃田谷(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어덕골 : 척과리 갈매진[蠶山津]³⁵⁾에서 마주보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어덕이라는 사람의 논이 있다 하여 그렇게 부른다. 또 그 위에는 시부골이 있다. 시부는 시부기를 뜻한다.³⁶⁾
- 옥녀봉골 : 척과리 반용마을 서남쪽 옥녀봉에 있는 골짜기이다. 흔히 옥녀(玉女)같은 미색을 띠었다 해서 불린 이름이다.³⁷⁾ 『조선지리지』에 玉女峰谷(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33) 왕산은 신라 경덕왕이 산 아래 시왕동에서 머물렀다 해서 부른 이름이다.

34) 강길부, <전계서>, 151쪽.

35) 갈매진은 척과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마을 동편에 있는 산의 생김새가 잠두(蠶頭; 누에머리) 같은 데서 유래되었으리라 본다. 잠(蠶)의 고훈(古訓)이 '갈'이며, 갈매지와 같은 용례를 아래에서 볼 수 있다. 갈모(蠶頭峰·加乙頭)(서울), 한편 진(津)은 '나리'로서 내(川)의 별칭이며, 내륙지방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강길부, <전계서>, 150쪽.

36) 강길부, <전계서>, 152쪽.

37) 강길부, <전계서>, 152쪽.

- 우리골[于里谷] : 반용저수지의 위아래 골짜기로, 척과리 8번지 일대이다.
- 중잡이골 : 새각단 뒤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범이 승려를 잡아먹었다 한다.
- 탑골 : 반용저수지 왼쪽에 탑이 있던 골짜기이다.
- 팔발골 : 척과리 중촌(中村)³⁸⁾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척과천의 원류가 이곳에서 여덟 갈래로 흘러내린다 하여 불린 지명이다.
- 큰골 : 『조선지리지』에 大谷(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木果田谷(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山林谷(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水淸谷(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楫長谷(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細筆谷(가는붓골, 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瓦谷(계와골, 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新店谷(새덤골, 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鷹幕谷(매막골, 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보덕들 : 척과리 홍상골³⁹⁾ 앞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에 보덕사(保德寺)라는 절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保德坪(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앞들 : 새각단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척과리 1097번지 일대이다.
- 중배이들 : 척과의 넘덕등 아래 새각단 왼편에 있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에 古社坪(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九龍坪(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石坪(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細筆坪(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後坪(尺果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高陽坪(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上同坪(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後坪(龍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천상리 (川上里)

본래 울산군 범서면의 지역으로서 천상동이라 하였는데, 조선 정조 때는 천상리의 단일마을이었다. 1894년(고종 31)에 천상, 평천(平川), 대동(垜洞)의 3개 동으로 갈라져 있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동, 평천동 일부를 병합하여 천상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사래골 : 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천상리 산89-1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가사래골뚝이 있

38) 중촌은 척과리 반용마을의 가운데 있는 자연마을이다.

39) 홍상골은 척과리에 있는 마을로, 옥녀봉(玉女峰)의 늘어진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지형이 옥녀의 붉은 치맛자락에 해당된다고 한다.

다. '가사래(내)'의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 거시내골 : 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과부네미영밭골 : 괴방웃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과부의 미영밭(목화밭)이 있었다.
- 괴방웃골 : 괴방우⁴⁰⁾가 있는 골짜기이다.
- 굴방웃골 : 굴방우⁴¹⁾가 있는 골짜기이다.
- 까자넷골 : 병사골못⁴²⁾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재가 많았다 한다.
- 피약나뭇골 : 못안⁴³⁾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대밭골 : 피약나뭇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이 있다. 대밭골못 위아래 골짜기로, 천상리 907번지~1023번지 일대의 긴 골짜기이다.
- 도라짓골 : 연지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천상리 산173번지의 북쪽 일대이다.
- 돼지네밧골 : 재물쏘⁴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막골 : 까자넷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맛골'로도 불린다.
- 맵개(맷개)골 : 과부네미영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사골못의 밧개(맷개; 물넘기)가 있다.
- 못안골 : 평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사골못(어림지못) 안이 된다. 천상리 863번지 일대이다.
- 미영밭골 : 수리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목화밭이 있었다.
- 밤나뭇골 : 막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배비장넛골 : 이사네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범등골 : 연꾸대이⁴⁵⁾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병사골 : 대동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산골'로도 불린다. 천상리 560번지 일대로, 병사골 못(어림지못) 밑이 된다.
- 불땅골 : 삼밭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佛堂谷(垵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삼밭골 : 채전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수리집골 : 수리방우⁴⁶⁾가 있는 골짜기이다.
- 쉼네갯골 : 호박쭈⁴⁷⁾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시리듬골 : 시리듬⁴⁸⁾이 있는 골짜기이다.
- 열기듬골짜 : 열기듬⁴⁹⁾이 있는 골짜기이다.
- 연꾸대이골 : 장티만당이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연점골[점골] : 미영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연점(鉛店)이 있었다 한다.
- 연지골 :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납[鉛]이 났었다 한다. 천상리 산979번지 일대이다.
- 예사내골 : 연짓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40) 괴방우는 바가지등때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바가지등때는 도라짓골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바가지처럼 생겼다 한다.
41) 굴방우는 대동마을 서쪽에 있는 바위로, 밑에 굴이 있다. 대동마을은 천상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대나무가 많았다 한다. '맷골, 죽곡'이라고도 한다.
42) 병사골못은 병사골에 있는 못이다.
43) 못안은 평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사골못 안쪽에 있다. 평천(平川)은 천상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44) 재물쏘는 중의논골 남쪽에 있는 소(沼)이다.
45) 연꾸대이는 장티만당이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장티만당은 찌개장넛골 북쪽에 있는 산이다.
46) 수리방우는 예사내골 남쪽에 있는 바위로, 수리가 집을 짓고 살았다 한다.
47) 호박쭈는 수리방우 남쪽에 있는 소(沼)이다.
48) 시리듬은 열기듬골짜 남쪽에 있는 더미이다.
49) 열기듬은 범등골 남쪽에 있는 더미로, 엮은 것처럼 울퉁불퉁하다.

- 외녹골 : 대동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이사네밭골 : 피약나뭇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정선땃골 : 방아가짓등⁵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중의논골 : 밤나뭇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계장나골 : 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봉방골짜 : 지봉방우⁵¹⁾가 있는 골짜기이다.
- 진골(1) : 거시내골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 진골(2) : 배비장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등때골 : 진등때⁵²⁾가 있는 골짜기이다.
- 집골 : 불땅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기와를 굽는 집이 있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垡谷(垡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찌개장땃골 : 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채전밭골 : 초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초당골 : 대동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 : 대밭골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흙골 : 줄밧등⁵³⁾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가분땃들 : 윗땃(들)과 아릿땃(들) 사이에 있는 들판이다.
 - 당만디들 : 송현의 당만디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堂田坪(川上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대밭골들 : 피약나뭇골 남쪽에 있는 대밭골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에는 대밭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竹田谷坪(川上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망앞들 : 솔고개 밑에 있는 들판으로, 천상리 458번지 일대이다.
 - 못밧들 : 못안(골)에 있는 들판이다.
 - 못안들 : 못안에 있는 들판이다.
 - 아릿땃들 : 대동마을 아래쪽에 있는 들판이다.
 - 오막땃들 : 평천마을 어귀에 있는 들판이다. ‘오말땃들’이라고도 한다.
 - 웃땃들 : 대동마을 위쪽에 있는 들판이다.
 - 짜땅(당)말리 : 대동마을 동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큰골들 : 큰골 아래에 있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에 雄鷄岬坪(川上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黃亭子坪(垡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50) 방아가짓등은 진등때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다.

51) 지봉방우는 범등골 북서쪽에 있는 바위이다.

52) 진등때는 돼지네밧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다.

53) 줄밧등은 큰산 동쪽에 있는 등성이므로, 줄지어 선 묘가 있으므로 그렇게 불렀었다. 큰산은 평천 북쪽에 있는 큰 산이다.

원구
고갯사기(와)드관
르

2. 언양읍

彦陽邑



구수리 구수들



구수리 등골



다개리 미륵등들



대곡리 사학(고하)골



동부리 숲뒀들



반곡리 참생이들



반곡리 망태골



반곡리 이랫샛골



반송리 반송들



즐기나미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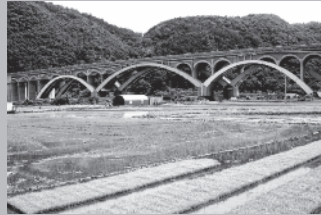
반연리 골안골



반천리 대청들



반천리 소머기골



어음리 니리미들



직동리 까구당들



직동리 참샘이들



직동리 추성들



직동리 고든골



송대리 화장골



태기리 못밀들



태기리 태기양골



평리 만밭들

2. 언양읍 (彦陽邑, 68.78km²)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길천리 지화(知火)에 치소(治所)를 두었던 거지화현(居知火縣)이 치소를 옮기면서 현(縣)의 이름을 헌양현(獻陽縣)으로 바꾸어 고현산의 남쪽인 지금의 언양읍(동부리)으로 치소를 옮겨왔다. 언양면은 본래 상북(上北)과 중북(中北)의 두 면으로 갈라져 있었다. 고종 때의『언양읍지』(1899)에 상북면은 송북(松北), 북부(北部), 남부(南部), 어음(於音), 반송(盤松), 천소(泉所), 부제(釜堤) 등의 7개동을, 중북면은 대곡(大谷), 고하(庫下), 다개(茶開), 직동(直洞) 등의 4개동을 관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북면의 반곡, 천전(川前), 다개(茶開), 태동(台洞), 기지(機池), 직동(直洞), 남동(南洞)의 7개 동리와 중남면의 평리(平里) 일부, 울산군 두동면의 대곡동, 천전동 일부와 울산군 두서면 구영동(九英洞), 차동(次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언양면이라 해서 울산(울주)군에 편입되어 동부, 서부, 어음, 남부, 송대, 반송, 반천, 반연, 반곡, 대곡, 다개, 평리, 대기, 직동의 14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삼남면의 구수리를 편입하여 현재 15개리가 된다. 1996년 2월 1일 울산시〈조례〉 제210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어 언양읍이 되었다. 동쪽은 범서읍, 남쪽은 삼남면, 서쪽은 상북면, 북쪽은 두서면과 두동면에 접하고 있다.

• 구수리 [九秀里, 구늬, 구수]

본래 언양군 삼동면의 지역으로서 늪과 숲이 있으므로 구늬 또는 구수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작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구수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삼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언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구수리가 되었다.

[골짜기]

- 덕골 : 구수리 산20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등골 : 구수리 57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무동골 : 구수리 산18-1번지 서쪽과 산21-2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무동안골 : 무동마을 안쪽인 구수리 42번지~197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 물막골[勿幕谷] : 둔기에서 구수의 물막고개로 가는 골짜기이다.
- 물뱀골 : 구수리 산162-1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범골 : 구수리 산118번지와 산118-2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비늘티골 : 작은비늘티골(구수리 산236-1번지 남동쪽 일대)와 큰비늘티골(구수리 610번지 일대)이 있다. 대암제에서 삼남면의 경계를 따라 서북으로 가는 골짜기이다. ‘티’는 ‘고개’ 또는 ‘고원(高原)’을 뜻한다.
- 서당산골 : 대암마을 앞 동쪽 강(남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 구수리 산

158-2번지 서쪽과 산160-2번지 동쪽 사이 일대이다.

- 수리동골 : 구수리 산18-1번지 서쪽과 산21-2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일안골 : 물막골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동골 : 구수리 31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채봉골 : 구수리 56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충골 : 대동(대암)에 있는 골짜기로, 구수리 323번지 일대이다. 이 골짜기와 관련하여, ‘옛날에 충신(忠臣)이 피신한 곳이라는 설과 지형의 모양이 춤을 추는 듯하다 하여 춤곡이라 하다가 훗날 충골로 변한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설이 전해온다.
- 큰골 : 구수리 산273번지 남쪽 일대와 구수리 산286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구수들: 구수리 82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산수들: 구수리 115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살수들’이라고도 한다.

• 남부리 (南部里)

본래 언양군 상북면의 지역으로서 언양현청(彦陽縣廳)의 남쪽이 되므로 남부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남부리라 해서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남부리가 되었다.

[골짜기] ; 없다.

[들판]

- 어음들: 어음사거리 서편에 접해 있는 들판으로, 남부리 38-1번지 일대이다.
- 장대조산(將臺造山): 조산배기⁵⁴⁾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다개리 (茶開里)

본래 언양군 중북면의 지역으로서 시내가 많으므로 다계(多溪)라 하였는데, 다계가 다개(茶開)로 변한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울산군 두서면의 차동 일부를 병합하여 다개리라 해서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다개리가 되었다.

[골짜기]

- 동력골 : 갈밭⁵⁵⁾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맹매깃골 : 맹매기방우⁵⁶⁾가 있는 골짜기이다.
- 못골 : 갈밭 뒤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골못이 있다.

54) 조산배기는 남부리에 있는 마을이다.

55) 갈밭(葛田)은 새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로, 갈(葛)이 많았다 한다. 새마을(신리)은 다개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이다.

56) 맹매기방우는 굴떡 서쪽에 있는 바위로, 맹매기(갈새) 집이 있었다 한다. 굴떡은 고래섬 위쪽에 있는 마을로, '굴다개 또는 상리(上里)'라고도 한다.

- 못안골 : 다개동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다개리 564번지 일대이다.
- 무제당골[舞祭堂谷] : 연구못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미륵골 : 고래섬⁵⁷⁾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다개리 산95번지와 산96번지 북쪽 사이 일대이다.
- 산밭골 : 영구골 남쪽(다개저수지 밑)에 있는 골짜기로, 다개리 산160번지 일대이다.
- 산성골 : 굽막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다개리 산124번지 일대이다. 돌로 쌓았던 옛 성터가 있다.
- 시흥골 : 다개리 100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영구골 : 고래섬 서북쪽 고현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연고사(連高寺)라는 절이 있어 '연구골'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연구못이 있다.

[들판]

- 다기등들 : 다개못 밑에 있는 들판이다.
- 독정들 : 굽다개 하천 서쪽 상북면 지내리 신리마을로 넘어가는 산 밑에 있는 들판으로, 다개리 496번지 일대이다.
- 뒷고래새들 : 고래섬마을 뒤에서 뒷골못 아래의 갈밭 뒤쪽에 있는 들판이다.
- 뒷골들 : 굽다개 뒤쪽에 있는 들판으로, 다개리 64번지 일대이다.
- 미륵등들 : 미륵골 아래, 새말에서 갈밭으로 넘어가는 중간지점 약간 높은 곳에 있는 들판이다. 다개리 824-3번지 일대이다.
- 신경들 : 1986년 경지정리 때 신경못을 폐지(廢池)한 곳에 일궈진 들판이다.
- 오룡골들 : 굽다개 동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대곡리 [大谷里, 한실, 대곡]

큰 골짜기가 되므로 한실 또는 대곡이라 하였는데, 본래는 경주 외남면의 대곡리와 언양현 중북면의 대곡리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언양 중북면의 반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곡리라 해서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대곡리가 되었다.

[골짜기]

- 가장골 : 북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꽃밭골 : 가장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꾸릿골 : 서원마실⁵⁸⁾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꾸불꾸불하다.
- 내릿골 : 서원마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백달(닭)골 : 대곡 동북쪽, 한실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곡리 100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명당의 묘 자리가 있는데 풍수가 깊이 파지 말고 묻으라 하였으나 깊이 파 보니 물이 나며 흰 닭이 나와 날아갔다 한다. '백계동(白鷄洞)'이라고도 한다.
- 버드나뭇골 : 내릿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57) 고래섬은 새마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고래가 났었다 한다.

58) 서원마실은 반구마을 서쪽에 있는 마을로, 반고서원이 있었다. 반구마을은 반구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반구산은 서원마실 서쪽에 있는 산으로, 거북이 었드린 것처럼 생겼다 한다.

- 북골 : 수암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맷골 : 대곡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불무처럼 생겼다 한다.
- 사학골 : 대곡리 947-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반곡리>의 '사학골' 참조. 한자어로 '死鶴谷' 또는 四鶴谷이라고도 한다.
- 소망골 : 대곡리 12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소암골 : 절골[寺谷]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곡리 산85-1번지 일대이다. '수암골'이라고도 한다.
- 신달골 : 백달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압실골[鵬谷] : 서원마실 앞에 있는 골짜기로, 오리가 내려앉은 형국이라 한다.
- 옥류동 : 반구마을 동북쪽, 즉 한실로 가는 길가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쯤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마한 골짜기이다. 대가 많아서 '대나무골'로도 불렸다.
- 웅태골 : 대곡리 산289번지 북쪽과 산293번지 남쪽 사이 일대의 골짜기이다.
- 위릿골 : 버드나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군바위골 : 대곡리 산6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절골 : 한실[대곡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곡리 160번지 일대이다. 절이 있었다 한다.
- 주누골 : 대곡리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짜기의 벼랑 아래에는 찬물샘이 있다.
- 초막골 : 대곡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후릿골 : 서원마실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동대실들 : 동북당(=동대실)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대곡리 773번지 일대이다. 여기서 '대실'은 '한실'과 같은 말로, 동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서대실'(마을)도 있다.
- 소암들 : 소암골에 있는 들판으로, '수암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水岩坪으로 조사되어 있다.
- 절골들 : 절골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寺谷坪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放鵬坪으로 조사되어 있다.

• 동부리 [東部里, 읍내, 군내, 성내]

본래 언양군 상북면의 지역으로서 언양현청(彦陽縣廳)의 동쪽이 되므로 동부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동리를 병합하여 동부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동부리가 되었다.

[골짜기] ; 없다.

[들판]

- 남문거리들 : 남문태(터)⁵⁹⁾ 근처에 있는 들판이다.

59) 남문태는 동부리 227-1번지에 있는 옛 남문 터이다.

- 돈밖들 : 돈밖고개⁶⁰ 밑에 있는 들판이다. ‘동문의(東門外)’라고도 한다.
- 동문거리들 : 동문태(터)⁶¹ 근처에 있는 들판이다.
- 북문거리들 : 북문태(터)⁶² 근처에 있는 들판이다.
- 봉밖들 : 봉밖⁶³에 있는 들판이다.
- 서문거리들 : 서문태(터)⁶⁴ 근처에 있는 들판이다.
- 성안들 : 언양읍성 안에 있는 들판으로, 동부리 286번지 일대이다.
- 숲덧들 : 동부리 43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약 100년 전부터 우거진 포플리숲 뒤에 있는 들판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⁶⁵

• 반곡리 (盤谷里)

본래 언양군 중북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예종, 정조 때는 다개리(茶開里)에 속한 듯하다. 고종 때는 언양군 중북면 고하동(庫下洞)이었다. 1911년에 반곡(盤谷)으로 고쳐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울산군 두동면 천전동 일부와 두서면 구영동 일부를 병합하여 반곡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반곡리가 되었다.

[골짜기]

- 각시골 : 반곡리 산24번지 남쪽과 산22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간치골 : 사학골[死鶴谷, 四鶴谷]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대롱골 : 고하⁶⁶와 진티[進峴]⁶⁷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대롱처럼 생겼다 한다.
- 망태골 : 고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망태처럼 생겼다. 반곡리 268번지와 96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사학골[四鶴谷] : 고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학골[死鶴谷], 상아골, 사악골, 사낙골, 산악골, 고하골’이라고도 한다.
- 새집골 : 사학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샘이 있고 늪지대에 연못이 있다 하여 ‘새지골’이라고도 한다.
- 서당골(1) : 반곡리 219번지 일대(고하마을)의 골짜기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
- 서당골(2) : 진티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
- 아랫새지골 : 반곡리 4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안골 : 반곡리 30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장식골 : 국도 35호(지금의 ‘반구대로’)에서 진현마을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로, 길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60) 돈밖고개는 돈돌매기 북쪽 언양읍성의 동문 밖에 있는 고개로, 언양에서 경주로 가는 길에 있었다. 돈돌매기는 동부 동쪽에서 돈밖고개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형이 돌아앉아 있는 것 같다 한다.

61) 동문태는 동부리 276-3번지에 있는 언양읍성의 동문 터이다.

62) 북문태는 동부리 221-1번지에 있는 언양읍성의 북문 터이다.

63) 봉밖은 동부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 언양읍성의 북문 밖이 된다. ‘북문밖 또는 북문외(北門外)’라고도 한다.

64) 서문태는 동부 북쪽 동부리 327-1번지에 있는 언양읍성의 서문 터이다.

65) 강길부, <전계서>, 328쪽.

66) 고하는 반곡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사창터 아래쪽이 된다.

67) 진티는 고하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반곡리의 진티는 윗진티와 아랫진티가 있다.

[들판]

- 광천들 : 고하와 평리 괴말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광천(廣川)이 흐른다. ‘강천들’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광천보(廣川湫)가 있다.
- 덧들 : 고하 뒤쪽에 있는 들판이다. 이곳에는 덧들보가 있다.
- 만바데들 : 언동마을 서쪽 황감 동쪽못[黃監東池]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이 지역에서는 제일 넓은 들판이다.
- 새엿들 : 고하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반곡리 312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새엿들보가 있다.
- 연봉지들 : 언동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옥동들 : 반곡리 527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으로,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다.
- 참삼(새미)들 : 고하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반곡리 860번지와 893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참삼(새미)보가 있다.

• 반송리 (盤松里)

본래 언양군 상북면의 지역으로서 반송나무가 있으므로 반송이라 하였다. 조선 정조 때는 반송이 늘어졌다 하여 반어리(盤於里)라 하였다가 고종 때 반송으로 고쳐졌다. 1911년에는 반소(盤所)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반송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반송리가 되었다.

[골짜기]

- 가무골 : 장촌(張村)⁶⁸⁾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무곡(歌舞谷)’이라고도 한다. 춤을 추고 노래하는 골짜기이다. 그 내력은 알 수 없다.
- 골안골 : 공촌(孔村)⁶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반송리 359번지 일대이다.
- 깨발골 : 공촌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깨발이 있었다. 반송리 729번지 일대이다.
- 당수나무골 : 동제의 대상인 당수(堂樹)가 있는 골짜기로,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에 당제를 지낸다.
- 뒷골 : 반송리 92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서당골 : 가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
- 소정골 : 깨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신기술골 : 반송리 산138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옷발골 : 들판⁷⁰⁾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옷나무가 많았다.
- 외발골 : 반송하리의 셋갓⁷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외발이 있었다.
- 즐기니미골 : 반송하리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반송리 1050번지 일대이다. 골짜기가 깊고 길다 하여 ‘질기딤이’라고도 한다.
- 질등골 : 외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등성이 위에 길이 나 있다.

68) 장촌은 반송 서쪽에 있는 마을로, ‘반송상리’라고도 한다. 장씨들이 처음 마을을 이루었다 한다.

69) 공촌은 장촌 동쪽에 있는 마을로, 공씨(孔氏)가 최초로 마을을 개척하였다 한다.

70) 들판은 호박소 서쪽 덩 밑에 있는 소(沼)이다.

71) 셋갓은 동네빠든 북쪽에 있는 산으로, 숲이 많다. 동네빠든은 반송 북쪽 버덩에 있는 밭이다.

- 황사(새)골 : 반송리 86-2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효성 언양공장 앞(남쪽)이다. 뒷산에 황새가 많이 와서 놀았다 하여 ‘황새골’, 또는 그 지역의 토질이 황사질(黃砂質)이라 하여 ‘황사골’로도 불린다.

[들판]

- 모래들 : 반송리 15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반송들 : 반송리의 장촌 앞에 있는 들판으로, 반송리 575번지 일대이다.

• 반연리 [盤淵里, 반호, 반연]

못이 있으므로 반호(盤湖) 또는 반연(盤淵)이라 하였다. 조선 예종 때는 옹곡리(瓮谷里)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며, 정조 때는 언양군 상북면 천소(泉所)에 속한 듯하다. 1894년(고종 31)에는 상북면에 속한 부제리(釜堤里)로, 1911년에는 반호리로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반곡리, 동부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반연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반연리가 되었다.

[골짜기]

- 가매골 : 가막못⁷²⁾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가마솥처럼 생겼다 한다.
- 갓골짜 : 툫골⁷³⁾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골안골 : 세연마을 서편에 있던 골짜기로, 반연리 산33-3번지 일대이다.
- 깨밭골 : 아릿옹태⁷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깨밭이 있었다.
- 논골 : 송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다. 반연리 산157번지 동쪽 일대이다.
- 벼미(범)터골 : 찬물내기⁷⁵⁾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벼미 많았다.
- 벼락수골 : 반연리 산209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빗골[礮谷] : 송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정무공 최진립(崔震立)의 묘소가 있다.
- 서나못골 : 툫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나무가 있었다.
- 송골 : 가막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시덤밭골 : 툫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옹골골 : 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우물이 있다.
- 장골 : 가막못안 서북쪽(직동리)에 있는 골짜기로, 장골1지와 장골2지를 중심으로 동·서간 길게 뻗어 있다. 반연리 215번지 일대와 254번지 일대이다.
- 진논골 : 반연리 19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질골 : 툫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찬물내기골 : 작은옹골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우물이 있었다.

72) 가막못은 툫골 남쪽에 있는 못으로, 흙이 검은 색깔이다. 한자어로 '오지(烏池)·부제(釜堤)·부지(釜池)'라고도 한다.

73) 툫골은 반연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①토굴이 있으며, 토끼가 많았다 한다. ②앞에 굼소가 있다. 굼소는 옷청소와 아릿청소 사이에 있는 소(沼)이다.

74) 아릿옹태는 반연 동북쪽에 있던 마을로, 사연담 축조 때 없어졌다.

75) 찬물내기는 작은옹골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찬물이 솟아난다.

- 큰골 : 질골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톱곡골 : 반연리 283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토질이 좋아서 가마터가 있었다 한다.

[들판]

- 장골들 : 장골못 아래에 있는 들판이다.

• 반천리 (盤泉里)

본래 언양군 상북면의 지역으로 천소리(泉所里)라 하였다. 1911년에는 천상(泉上)과 천소로 갈라졌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천소리와 반호리, 반송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반호와 천소의 이름을 따서 반천리라 하여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반천리가 되었다.

[골짜기]

- 고무(곰)재골 : 반천리 81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남녘골 : 반천리 산168-5번지 남동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독촉골 : 반천리 산123-2번지 서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분무골 : 반천리 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맷골 : 살쭉⁷⁶⁾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시골 : 살쭉 북쪽, 반송리와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삼밭골 : 샘소 서북쪽(뒷산)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삼[麻]을 재배하던 밭이 많았다. 반천리 340번지 일대이다.
- 소먹이골 : 반천리 산129-5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여우골 : 반천리 99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이에골 : 반천리 101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진산애골 : 반천리 1012번지 일대이다.
- 큰골 : 미연1리의 고무재마을에서 고무재못으로 들어가는 큰 골짜기이다.
- 현디골 : 살쭉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바위가 여기저기 솟아 있어서 머리에 현디[중기]가 난 것 같다 한다. 반천리 산204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대청들 : 대청보(大廳狀)⁷⁷⁾의 물을 대는 들판으로, 반천리 120번지 일대이다.
- 모래들 : 반천리 샘소에 있는 들판으로, 강가에 있어 들판의 바닥이 모래이므로 그렇게 불린다.
- 신기들 : 반천리 61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집앞들 : 살쭉[살썩, 미연] 앞에 있는 들판이다.

76) 살쭉은 고무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살썩, 미연[米淵]'이라고도 한다. 고무재[雄峴]는 샘소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샘소[泉所]는 반천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샘이 크고 물이 많이 난다.

77) 대청보는 반송리의 공촌(孔村) 앞에서 반천리에 걸쳐 있는 보(狀)이다. 대청(大廳)같이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다. 공촌은 반송리의 장촌 동쪽에 있는 마을로, 공씨가 개척하였다. '반송중리'라고도 한다.

• 서부리 (西部里)

본래 언양군 상북면에 속한 북부리였는데, 언양현청(彦陽縣廳)의 서쪽이 되므로 서부라 하였다. 1911년 언양 읍내를 동·서·남·북부로 갈라 서부동이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상리(路上里)를 병합하여 서부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서부리가 되었다.

[골짜기]; 없다.

[들판]

- 부리보들 : 방천미기⁷⁸⁾ 서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부리보(浮里洑)⁷⁹⁾의 물을 낸다.
- 성바깨들[성박들] : 방천미기 북쪽에 있는 마을인 성바깨에 있는 들판이다. 또는 '서문밖에들'이라고도 한다.

• 송대리 [松臺里, 소디, 송대]

본래 언양군 상북면의 지역으로서 소디 또는 송대라 하였는데, 조선 예종 때는 송도리(松道里)라 하였다가 성종 때는 송동(松洞)이라 하였다. 고종 때는 송북(松北)이라 하였다. 1911년에는 송대(松臺)로 고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대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송대리가 되었다.

[골짜기]

- 능골 : 능골[陵谷]⁸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위열공 김취려(金就礪)의 묘가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능골이라 한다. 송대리 87번지 일대이다.
- 못안골 : 송대리 7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박골 : 송대리 산 25번지 서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옷바웃골 : 능골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요왕골 : 송대리 333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골 : 작은장골(송대리 산15번지 일대)와 큰장골(송대리 산14번지와 산15번지 사이)이 있다. 위열공 김취려 태지유허비 뒤쪽에 있다.
- 화장골 : 송대리 산45-3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없다.

78) 방천미기는 서부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서쪽에 방천이 있다.

79) 부리보는 방천미기 서쪽에 있는 보(洑)로, 상북과의 경계에 있다. 불[火]에서 비롯된 부로산의 이름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혹은 새의 부리처럼 생겼다고도 한다.

80) 능골은 안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골[內谷]은 송대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와우형(臥牛形)의 산이 있는데 그 안쪽이 된다.

• 어음리 [於音里, 너리미, 나리미, 어음]

본래 언양군 상북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널처럼 생겼으므로 너리니, 나리미 또는 어음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남면의 평리 일부를 병합하여 어음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어음리가 되었다.

[골짜기]

- 고무재골 : 어음리 산1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나(니)리밧들 : 나리미[어음리]에 있는 들판으로, 어음리 210번지 일대이다.
- 땡갯들 : 어음상리 뒤편에 있는 들판으로, ‘땡갱이들’이라고도 한다. 어음리 377번지 일대이다.
- 돌보들 : 나리미 동쪽에 있는 돌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불썸방우들 : 불썸방우⁸¹⁾가 있는 들판이다.
- 요도들[蓼島-] : 조산배기⁸²⁾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양쪽으로 냇물이 흘러 섬처럼 되어 있다. 1937년 7월에 발간한 『언양면세일반(彦陽面勢一斑)』에 수록된 요도에 관한 설화를 소개한다.

설화

어음마을은 신라 때 6조(朝) 대신(大臣)이 거주하여 신라 조정 80리 길을 경주의 조신(朝臣)들이 내왕하던 곳이다. 신라 말기에 이르러 재상(宰相)인 나 승상(羅丞相)이 이곳을 요도라 칭하였다. 그런데 신라 때의 수도는 양부(梁部)·사랑부(沙梁部)·본피부(本彼部)·모량부(牟梁部)·한기부(漢岐部)·습비부(習比部)의 6부(部) 외에 소읍(小邑)과 전원지역이 포함된 넓은 지역을 관할하였다 한다. 이러한 왕경의 영역은 고려가 설치하였던 경주와 대체로 같은 넓이로, 수도의 방위를 목적으로 한 6기정(畿寧)이 이 지역 안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궁성과 관청이 몰려 있었던 중심지 이 외에는 각부 귀족들이 모여 사는 소읍이 기내(畿內)에 있었으니, 신라 왕경은 지금의 경주시와 인근 지역이 좀 더 포함된 넓은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언양면세일반」의 6조신 거주설은 신빙성이 있으며, 요도가 신라 때의 관사가 있었던 곳이라는 설도 그럴 듯했다.

요도는 1376년(고려 우왕 2)에 정몽주(鄭夢周) 선생이 성군 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있을 때 이인임(李仁任) 등의 배명친원(排明親元) 외교정책을 반대하다가 유배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때 울주의 요도로 귀양가라는 명을 받고 울주에 와서 그 섬을 찾았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한 섬은 없었다. 그러나 언양현에 요도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더니 과연 거기에 있어 그곳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한다.⁸³⁾

- 어음들 : 어음리 6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조산끝(백이)들 : 조산배기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어음리 81번지 일대이다.
- 중두리들 : 나리미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중우두리’라고도 한다.
- 지계들 : 어음리 35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81) 불썸방우는 중두리들 서쪽에 있는 바위로, 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한다.

82) 조산배기는 어음리 나리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인공적으로 쌓은 조산(造山)이므로 ‘조산배기’라 한다.

83) 강길부, <전계서>, 348~349쪽.

• 직동리 [直洞里, 고등골, 직곡, 직동]

본래 언양군 중북면의 지역으로서 곧은 골짜기가 되므로 고든(등)골 또는 직골[直谷], 직동이라 하였는데, 1911년에는 직동과 남동(南洞)으로 나누어졌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남동리, 기지리(機池里) 일부를 병합하여 직동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직동리가 되었다.

[골짜기]

- 고든골 : 직동리 산83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곧은골, 고등골’로도 불린다.
- 가재골 : 호룡바윗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직동리 산130번지 일대이다. 가재가 많이 서식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당골 : 직동리 48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동네골 : 작은동네골(직동리 4-5번지 일대)과 큰동네골(직동리 5-2번지 일대)이 있다.
- 못안골 : 직동리 119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배나뭇골 : 외골⁸⁴⁾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직동리 산133번지 남쪽 일대이다. 돌배나무가 많았다 한다.
- 병막골 : 고등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직동리 9-3번지 일대이다. ‘백마골’로도 불린다.
- 불맷골 : 신흥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산죽으로 화살을 만드는 불매간이 있었다.
- 사기박골 : 직동리 12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살대백이골 : 직동리 산128-1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로, 경부간 고속도로 동쪽의 살대배기뭇밭에 있다. ‘살대배기들’도 있었으나 고속도로 언양분기점 지역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 새뭇골 : 직동리 45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새사골 : 직동리 24-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샘골 : 직동리 산80-1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서나뭇골 : 외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나무가 있었다. 직동리 117번지 일대이다.
- 윗골 : 직동리 365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기왓골[와곡], 잣골’이라고도 한다. 신흥마을의 한 자연마을이다.
- 정개뽕골 : 윗골 동쪽 옹태로 넘어가는 산 고개에서 동남쪽 200~300m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신흥마을의 한 자연마을이었다.
- 진다리골 : 감내마을 입구 일대의 골짜기로, 다리가 있는 이곳의 땅이 비가 오면 질퍽거린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 추성골 : 직동리 산131-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현골 : 직동리 11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호룡바윗골 : 호룡바위⁸⁵⁾가 있는 골짜기이다. 직동리 감내거렁 동쪽 갯비알산의 정상에 있었던 바위로, ‘화랑바위’라고도 한다. 그것은 신라 때 화랑들이 놀러 와서 놀았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 가운데 2.5m가량의 높은 바위가 있고, 그 둘레에 4~5m 간격으로 낮

84) 외골[瓦谷]은 고등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기와를 굽던 기와막이 있었다.

85) 호룡바위는 외골 남쪽에 있는 바위로, 화랑들이 놀던 곳이라 한다. ‘화랑바위[花郎岩]’라고도 한다.

은 바위가 둘러싸서 마치 시중을 드는 것 같았다 한다. 1974년에 송전 철탑을 세우면서 이 바위를 깨뜨려 석축 자재로 사용하고 말았다. 이 화랑바위에서 동북쪽으로 늘어진 골짜기로, 직동리 산137번지와 산131-9번지 사이 일대이다.

- 황사깃골 : 직동리 3-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곧은골들 : 직동리 445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고등(든)골'로도 불린다.
- 관정들 : 관정⁸⁶⁾마을에 있는 넓은 들판이다. 한편 이 들판을 관정평이라 하여 위열공 김취려의 묘에 딸린 들판이었다는 설도 있다.⁸⁷⁾ '직동들'이라고도 한다.
- 까꾸당들 : 직동리 61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살대백이들 : 직동리 154-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안들 : 고등골[직동리] 서쪽 안에 있는 들판이다.
- 참샘이들 : 직동리 767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으로,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다.
- 추성들 : 외골[瓦谷]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직동리 207번지 일대이다.
- 큰못밑들 : 직동리 99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털못들 : 직동리 737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틀못들'을 말한다.

• 태기리 (台機里)

본래 언양군 중북면의 지역인데, 조선 예종 때는 옹곡리(瓮谷里)였다. 정조 때는 대곡리와 직동리에 속했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직동리에 속한 듯하며, 1911년에는 기지동(機池洞)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태동리(台洞里)와 기지리 일부를 병합하여 태기리(台機里)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태기리가 되었다.

[골짜기]

- 가장골 : 산막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든 소를 격리시키기 위해 막을 쳤으며,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개박골 : 틀못⁸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개의 밥그릇처럼 생겼다 한다. '개박골 또는 꺾발골'이라고도 한다. 작은꺾발골(태기리 산53번지와 산54-1번지 사이 일대)과 큰꺾발골(태기리 산57번지와 산59번지 사이 일대)이 있다.
- 골밭골 : 당서남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태기리 595번지 일대이다. 틀못 밑이 되며, 밭이 있다.
- 기목골 : 태기리 모산⁸⁹⁾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귀목[훼나무]이 있었다.
- 기미골 : 태기리 아랫마을에서 반곡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는 기미골못과 태

86) 관정은 새각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들 북판에 수풀이 있어서 정자와 같았다 한다. '신리', '수문술배기'라고도 한다. 새각단은 전거리 남쪽에 있는 새로 된 마을로, 소나무가 있었다. 전(정)거리는 새각단 북쪽에 있는 마을로, ①평리의 점말 어귀이다. ②앞뒤 쪽에 밭이 많았다. 평리의 점말은 고지(庫旨)와 반곡리 고하(庫下)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고중(庫中)'이라고도 한다.

87) 강길부, <전계서>, 351쪽.

88) 틀못은 태기리에 있는 못이다.

89) 모산은 태기리에 있는 틀모산을 말한다.

기리 공동묘지가 있다.

- 당서남골 : 중리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독도골 : 태기리 37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뒷골 : 태기리 47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맹막골 : 틀못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명매기(칼새) 집이 있었다.
- 모상골 : 경부간 고속도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태기리 666-2번지 일대이다. 하행선 언양휴게소의 고속도로 건너편(동쪽)에 있다.
- 물래장골 : 태기리 옹태에 있었던 골짜기로, 물이 폭포가 되어 흐르는 곳이라 하여 불린 지명이다. ‘물배기골’이라고도 한다. 사연담에 수몰되었다.⁹⁰⁾
- 반구대골 : 태기리 201번지에서 409-1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길게 뻗어 있다.
- 배나뭇골 : 틀못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다. 태기리 516번지 일대이다.
- 배추밭골 : 태기리 31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백마골 : 기지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태기리 548번지와 산212번지 일대이다. 지형이 백마가 누워있는 형상이다.
- 범골 : 장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호두혈(虎頭穴)의 명당이 있다 한다. 태기리 295번지 일대이다.
- 산막골 : 배나뭇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든 소를 격리시키기 위해 막을 쳤었다 한다. 태기리 365번지 일대이다.
- 새이지골 : 기목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상여집이 있었다. 울산 방언에 ‘상여=새이’이다.
- 새창골 : 골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여우골 : 태기리 산158-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우막골 : 탕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든 소를 격리시키기 위한 우막(牛幕)이 있었다.
- 장골 : 태기리 260-2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작은장골(태기리 323번지~328번지 일대)과 큰장골(태기리 516번지 일대)이 있다. 작은장골은 용래소류지 밑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 중리골 : 개박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질동골 : 태기리 산148-1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초막골 : 우막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태기골 : 태기리 28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태기양골 : 태기리 산17번지와 산19번지에 걸쳐 있는 골짜기이다.
- 탕장골 : 개박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택정골’이라고도 한다.

[들판]

- 못밑들 : 틀못 밑에 있는 들판으로, 태기리 693번지 일대이다.
- 앞들 : 태기리 51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평리 [平里, 평지, 평리]

본래 언양군 중북면의 지역으로서 평지(平地)로 되었으므로 평지 또는 평리라 하였다. 고종 때는 다개리에 속한 마을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다개리 일부를 병합하여 평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언양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은 언양읍 평리가 되었다.

[골짜기]

- 독정골 : 평리 63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뒷골 : 평리 64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못안골 : 점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직동리 가꾸당못⁹¹⁾ 안쪽이 된다.
- 오룡골[五龍谷] : 평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다섯 마리의 용이 살았다 한다.

[들판]

- 강청들 : 평리 476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광천들’이라고도 한다. <반곡리> ‘강청들[관청들]’ 참조.
- 고중들 : 평리 20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다리등들 : 원평마을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평리 684번지 일대이다.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다.
- 만바대들 : 괴말[庫旨]⁹²⁾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평리 145번지 일대이다. ‘만밭들’이라고도 한다.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다.
- 오룡들 : 평리 296-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황감들 : 황감못(1·2) 위에 있는 들판이다.

91) 직동리 감내[坎川] 서북쪽에 있는 못으로, ‘ㄱ’자 지대에 위치하여 있다. ‘까꾸댕이못, 까꼬당못, 가고지(加古池)’라고도 한다. 감내[감내거렁]는 직동리 고등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92) 괴말은 평지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사창(社倉)이 있었다.

원구
고갯사기와
드관

3. 온산읍

溫山邑



덕신리 큰부처골



덕신리 작은부처골



삼평리 구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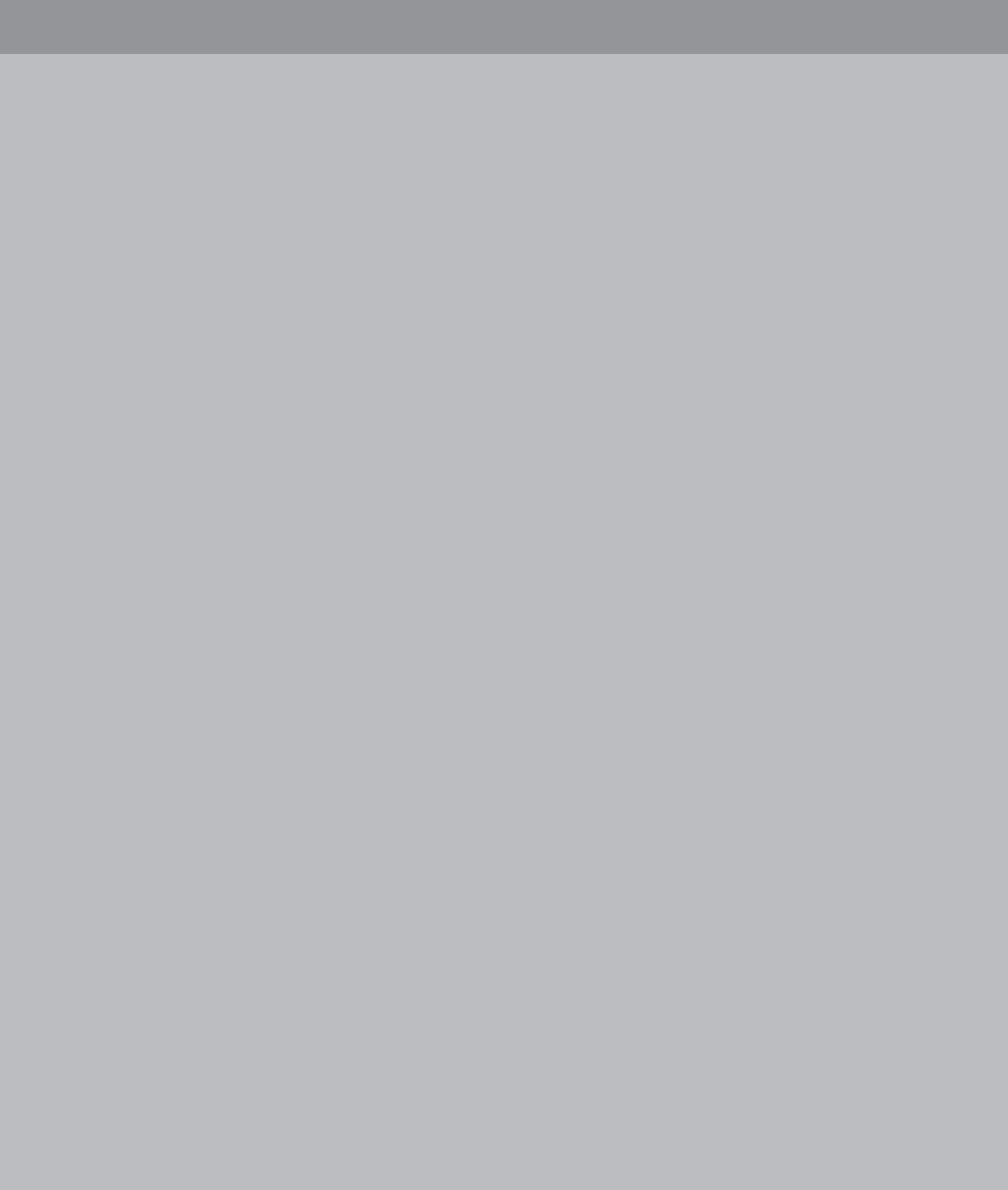
삼평리 내회들



삼평리 상회들



삼평리 중동들



3. 온산읍 (溫山邑, 38.42km²)

온산(溫山)은 예부터 온수(溫水)가 많이 솟아나온 곳이므로, 그로 인해 생긴 이름이다. 본래 울산군의 지역으로서 온양면이라 하였다가 온양면에서 나누어지면서 청량면의 여러 지역을 편입한 것이다. 1887년(고종 24)에는 온북면(溫北面)이라 하였고, 1911년에는 화산(華山)과 삼평(三平)의 땅을 나누어 온산면이라 하였다. 이는, 곧 온양면에서 '온(溫)'을 따고 '산(山)'을 그 받침[地名語尾]으로 한 이름이다.

기산(其山), 내동(內東), 석당(石堂), 상회(上回), 내회(內回), 하회(下回), 강회(江回), 종동(種洞), 우봉(牛峰), 원봉(元峰), 신원(新元), 야동(也東), 남동(南洞), 산남(山南), 송정(松亭), 보내(湫內), 대안(大安), 이진(梨津), 월천(月川), 당포(唐浦), 월상(月上)의 21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청량면의 사방(土方), 목도(目島), 산하(山下), 송암(松岩), 처용(處容), 신지(新只), 학동(學洞)의 7개 동리와 온북면의 산성동(山城洞)을 병합하여 화산(華山), 삼평(三平), 우봉, 강양(江陽), 원산(元山), 대정(大亭), 이진, 당월(唐月), 방도(方島), 산암(山岩), 처용의 11개리로 개편·관할하였는데,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8호에 의하여 온양면의 덕신리(德新里)와 청량면의 용암리(龍岩里), 학남리(學南里) 등 3개리를 편입하였다. 1987년 1월 1일 용암리를 청량면에 다시 돌려주었다. 1996년 2월 1일 울산시 조례 제210호에 의하여 온산면에서 온산읍으로 승격하여 현재 13개 법정동리를 관할하고 있다. 동쪽은 바다, 남쪽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서쪽은 온양읍, 북쪽은 청량읍에 접하고 있다.

• 강양리 (江陽里)

조선 후기까지 강구리(江口里)라 하다가 1894년(고종 31) 강회동(江回洞)과 하회동(下回洞)으로 나누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강회동과 하회동을 병합하여 강양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강간골 : 강구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강씨들의 논배미가 있어 불린 지명이다. 강가네골이 줄어서 강간골이 된 듯하다.
- 강회골 : 강양리 22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못안골 : 봉웃골못⁹³⁾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피남골[山南谷] : 봉화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⁹⁴⁾. 그 뜻은 알 수 없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매나무골(江回洞)로 조사되어 있다.
- 보호골 : 강회⁹⁵⁾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하산봉수대가 있었던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라 하여 봉화골[烽火谷]이라 하였다. 이것이 변하여 보호골이라 한 것이다.

93) 봉웃골못은 봉우골에 있는 못으로, 하산봉수대 밑이 된다.

94) 강길부, <전계서>, 365쪽.

95) 강회는 강양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마을 앞으로 회야강이 흐른다.

- 봉웃골 : 강회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봉우골(江回洞)로 조사되어 있다.
- 불성골[佛聖谷] : 하회마을의 뒤편 북서 방향으로 불성사(佛聖寺)가 있는 골짜기이다.
- 새탁골 : 하회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새(풀이름)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성짓골 : 강양리와 우봉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강양리 30-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聖智谷(下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외늬골 : 강구마을의 나룻터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첫 번째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외내골(江回洞)로 조사되어 있다.
- 우직골[牛池谷] : 하회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강양리 660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芋芝谷(下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개논골 : 강양리 81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大谷(江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齋宮谷(下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강양들 : 강양리 12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하산뭇밭들 : 하산뭇⁹⁶⁾ 밭에 있는 들판이다.
- 하회앞들 : 강양리 84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에 뉘뉘들(下回洞)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둔전들(下回洞)로 조사되어 있다.

• 당월리(唐月里)

조선 정조 때의 기록에는 당포리(唐浦里)라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는 당포동과 월천동(月川洞)으로 나누어졌고, 1911년에는 월천동에서 나뉜 월상동(月上洞)도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월천동, 당포동, 월상동을 병합하여 당포와 월천의 이름을 따서 당월리라 하였다. 현재 온산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행정마을은 없어지고 법정마을명만 남아있다. 강양리에 편입되어 있다.

[골짜기]

- 마산골 : 당포(唐浦)⁹⁷⁾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보호골 : 강양리와 경계가 되는 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화산으로 통하는 골짜기이므로, 봉화골이 보호골이 되었다. <강양리>의 ‘보호골’ 참조.
- 봉웃골 : 당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강양리 봉우산 위가 된다.

[들판] : 없다.

96) 하산뭇은 봉웃골에 있는 뭇으로, ‘하산지(下山池), 또는 봉웃골뭇’이라고도 한다. 하산뭇수대 밑이다.

97) 당포는 당월리에 있는 마을로, 임진왜란 때 격전지였다.

• 대정리 (大亭里)

1894년(고종 31)까지 대안동(大安洞)과 송정동(松亭洞)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1년경에는 본내동[本内洞, 뒤에 보내동(湫内洞)]이 나누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정동, 보내동, 대안동을 병합하여 대안과 송정의 이름을 따서 대정리라 하였다. 현재 온산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행정마을은 없어지고 법정마을명만 남아있다. 화산리에 편입되어 있다.

[골짜기]

- 고래등골 : 대정리에 있던 골짜기로, 온산공단 부지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 마산골 : 대안(大安)⁹⁸⁾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산(馬山) 밑이 된다.
 - 성골 : 대안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예수들골 : 대정리에 있던 골짜기로, 온산공단 부지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 지득골 : 대정리에 있던 골짜기로, 온산공단 부지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 집앞골 : 대정리에 있던 골짜기로, 온산공단 부지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 『조선지리지』에 陰地谷(大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松溪谷(松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둔전들 : 조선시대 대안 앞 들판이 둔전이였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둔전들(大亭洞)로 조사되어 있다. 일부 지도에는 ‘준연들’로 등재되어 있다.
- 섬들 : 대안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섬이었다. 『조선지리지』에 島坪(大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덕신리 (德新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북면의 지역으로, 조선 정조 때의 기록에 신경리(新庚里)라 하였고, 1894년(고종 31) 당시엔 덕동(德洞), 신경, 반장(泮長)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1년에는 덕동, 신경, 오산(吾山)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오산동, 덕동, 신경동을 병합하여 덕동과 신경의 이름을 따서 덕신리라 하여 온양면에 편입되었다가 1975년 대통령령 제7818호에 의하여 온산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울산시 조례 제210호에 의하여 온산면이 온산읍으로 승격하여 온산읍 덕신리가 되었다.

[골짜기]

- 감대사골 : 오산(吾山, 鰲山)⁹⁹⁾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금산골 : 신밤 서쪽에 있는 산인 금산에 있는 골짜기로, 덕신리 1016번지 일대이다. ‘금장골[錦藏谷]’로도 불리며, 약수터가 있다.
- 깎치골 : 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98) 대안은 대안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앞에 내[川]가 있었다. ‘신천(新川), 신천대안(新川大安)’이라고도 한다.

99) 오산은 ①신밤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자라처럼 생겼다 한다. 신밤은 덕신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신경(新庚) 또는 신배미’라고도 한다. ②오산 앞쪽에 있는 산이다.

- 담밭(배)골 : 신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담배 밭이 있었다. 덕신리 25번지 일대이다.
- 대밭골 : 신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나무 밭이 있었다.
- 못안골 : 신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었는데 그 안쪽이 된다.
- 모시밭골 : 울벌에서 내동 쪽으로 향한 산등성이 아래의 골짜기로, 모시밭이 있었다 한다.
- 못촌골 : 덕동¹⁰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반장골[長谷] : 신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덕신리 4-1번지 일대이다. 반장은 덕신리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그 내력은 알 수 없다.
- 배나못골 : 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다.
- 봉상골 : 덕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부채골 : 오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부처가 있었다 한다. 덕신리 731번지 일대이다. 옷부채골과 아릿부채골로 나뉜다. 『조선지리지』에 大佛谷(큰부채골, 呑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새갓비알골 : 점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새 말뚝갓이 있다.
- 솔방골 : 감대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덕신리 646-4번지 일대이다.
- 싱싱이골 : 울벌[鳴蜂]¹⁰¹⁾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마실골 : 덕신리 81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약물골 : 못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이 났다 한다.
- 어븐골 : 살건네¹⁰²⁾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영남골 : 솔방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영남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덕신리 175-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令南谷(新庚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용산골 : 덕신리 111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옷밭골 : 신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옷나무가 있었다.
- 울벌딛골 : 울벌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부채골 : 덕신리 67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점골 : 신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웅기점이 있었다.
- 정골[正谷] : 덕동마을 끝에서 남창~울산 간 도로와 만나는 곳까지의 도로가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는 첩첩산중에 골곡이 없고 넓고 편편한 길이 있어서 이곳을 바른 골짜기로 불렀다 한다.
- 줄골 : 신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줄이 많이 났다 한다. 이곳에는 줄골못과 줄골들이 있다.
- 진밭골 : 오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참나못골 : 덕동 앞에 있는 골짜기로, 참나무가 있었다.
- 큰골 : 우무정고개 남쪽의 깊고 넓은 골짜기로, 칙을 캐기 위해 많이 찾던 곳이다.
- 평개골 : 덕신교를 지나 우무정고개 중턱에서 오른쪽 등산로 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목이 울창하고 험한 산기슭에 있으며 약간의 공터가 있다.
- 피밭골 : 동쪽의 솔방골과 북서쪽의 부채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호패골 : 울벌 앞에 있는 골짜기로, 벌이 살았다 한다.

100) 덕동은 오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101) 울벌은 신남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벌이 나는 것 같다 한다.

102) 살건네는 덕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 내에 연어살을 쳐 놓고 연어를 잡았는데 그 건너가 된다.

『조선지리지』에 古同谷(德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굴목들 : 마당멀리들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屈木野(新庚洞)로 조사되어 있다.
 - 날끝들 : 신남[신경, 신배미] 동쪽 산날 끝에 있는 들판이다.
 - 덩들 : 신남 동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마당멀리들 : 신남 남쪽에 있는 논인 마당배미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막대들 : 신남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연어살막이가 있었다.
 - 모래논들 : 굴목들 서쪽에 있는 논들로, 모래가 많다.
 - 버드나무들 : 못안골에서 연어정에 이르는 곳의 산비탈 평지의 들판이다.
 - 사당못들 : 덕신리 95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삼밭들 : 신남강에서 반장고개 아래까지 떠나려 온 모래무지가 넓은 전지를 형성한 곳이다. 이곳에 삼[麻]을 재배한 밭이 있어 삼밭들이라 하다가, 한때는 박하 재배를 하여 '박하들'이라 하기도 하였다. 지금의 무궁화아파트 일대이다.
 - 새벗들 : 오산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덕신리 709번지 일대이다.
 - 오못들 : 덕신리 78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五毛野(吾山洞)로 조사되어 있다.
 - 울벌앞들 : 울벌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장건너들 : 덕신리 109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점앞들 : 점앞골에 있는 들판이다.
 - 줄골들 : 줄골에 있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에 沙建野(살건내들, 德洞洞)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竹田坪(新庚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방도리 (方島里)

본래 울산(울주)군 청량면의 지역으로, 1720년(숙종 46)이래 목도리(目島里)로 불려왔다. 정조 때는 목도리와 해리(海里)로 갈라졌다가 1810년(순조 10) 다시 목도리로 합해졌다. 1894년(고종 31)에는 목도, 사방(四方), 장지(長只)로 나누어졌고, 1911년에는 목도, 사방, 장기(長基)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방동과 목도동을 병합하여 방도리라 해서 온산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온산공업단지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행정마을은 없어지고 법정마을명만 남아있다. 학남리에 편입되어 있다.

[골짜기]

『조선지리지』에 莫谷(土方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갈밭들 : 사방동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갈밭이 있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갈여밭대들(土方洞)로 조사되어 있다.

- 뒫들 : 장터¹⁰³ 서쪽 뒤에 있는 들판으로, ‘장터뒫들’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뒫들(目島洞)로 조사되어 있다.
- 목도뒫들: 목도 뒤에 있는 들판이다.

• 산암리 (山岩里)

본래 울산(울주)군 청량면의 지역으로, 1764년(영조 41)에는 산하리(山下里), 육리[陸里, 길리], 달포리(達浦里)로 갈라져 있었다. 정조 때에는 산하, 달포, 공기(恭器)로, 1810년(순조 10)에는 산하와 달포로, 1864년(고종 1)에는 산하, 달길[達陸], 달포, 점리(店里) 등으로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산하동과 송암동(松岩洞)을 병합하여 산암리라 해서 온산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온산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행정마을은 없어지고 법정마을명만 남아있다. 학남리에 편입되어 있다.

[골짜기]

- 감나무골 : 산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남양 홍씨들의 집성촌으로 마을이 있었다. 감나무가 많았다 한다.
- 막골 : 산하¹⁰⁴ 남쪽에 있는 마지막 골짜기이다.
- 발골짜 : 솔개[松浦]¹⁰⁵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밭이 있다.
- 새미골 : 산하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泉谷(새미곡, 山下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설방골 : 새면당¹⁰⁶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오목골 : 산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대가 오목하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大谷(큰골, 山下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粉得谷(山下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後谷(松岩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못밧들 : 오목골못¹⁰⁷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前坪(山下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삼평리 (三平里)

조선 정조 때 내회야리(內回夜里)와 외회야리(外回夜里)라 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신회(新回), 종동(種洞), 내회(內回), 상회(上回) 등의 네 마을로 갈라졌다. 1911년에는 종동, 내회, 상회의 세 마

103) 장터는 목소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목소리마장 부근이 된다. 목소리는 방도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104) 산하는 대덕산 밑에 있는 마을로, ‘사나뱅이, 산하방’이라고도 한다.

105) 솔개[松浦]는 ①달포 동남쪽 이진리와와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솔개 위쪽이 된다. 달포(達浦)는 산암리에서 중심 되는 마을로, 앞에 개[浦]가 있다. ‘송암동’이라고도 한다. ② 솔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③달포 동남쪽에 있는 개[浦]로, 소나무가 울창하였다 한다

106) 새면당은 발골짜 서쪽에 있는 산이다.

107) 오목골못은 오목골에 있는 못이다.

을로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상회동, 내회동, 종동을 병합하여 삼평리라 하였다. 이 마을의 유래를 ‘날 때도 태평, 장래도 태평, 늙어서도 태평을 바란다.’는 뜻에서 삼평(三平)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지명상에 나타나는 ‘평(平)’과 ‘평(坪)’은 모두 평평한 들판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삼평은 상회, 내회, 종동의 세 마을을 합한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골짜기]

- 대밭골 : 삼평리 127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다락골 : 삼평리 28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도덕골 : 삼평리 125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도독골(種洞)로 조사되어 있다.
 - 독너맷골 : 종동¹⁰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독(독) 너머에 있다.
 - 들넘어골 : 삼평리 57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마산골 : 종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산 밑이 된다. 삼평리 8번지 일대이다.
 - 못안골 : 상회¹⁰⁹⁾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방울골 : 종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레방아가 있다. 삼평리 254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水舂谷(種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벌패깃골 : 종동 북쪽 펄에 있는 골짜기로, 삼평리 207번지 일대이다. ‘벌팽이골’이라고도 한다.
 - 조개넙골 : 종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다리골 : 종동 서북쪽의 큰다리가 있는 골짜기이다.
 - 황새골 : 종동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조선지리지』에 半長谷(듬들골, 上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佛仙谷(種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구터앞들 : 구터¹¹⁰⁾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내회앞들 : 내회¹¹¹⁾ 앞에 있는 들판으로, 회야강변 일대이다. 삼평리 1404번지 일대이다.
 - 뒷골들 : 삼평리 100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모상갯들 : 상회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모래가 많다.
 - 상회앞들 : 상회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용광들 : 삼평리 733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회야강변에 있다.
 - 용화들 : 삼평리 527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회야강변에 있다.
 - 종동앞들 : 종동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펄개들 : 종동 앞 펄에 있는 들판으로, 삼평리 504번지 일대이다.
- 『조선지리지』에 염동들(種洞)로 조사되어 있다.

108) 종동은 삼평리의 종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109) 상회는 삼평리 위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회야강이 흐른다.

110) 구터는 종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부터 집터가 있었다.

111) 내회는 상회 남쪽에 있는 마을로, 강양리의 하회 안쪽이 된다.

• 우봉리 [牛峰里, 소당개, 우봉개, 소당포, 우봉]

우봉산 밑이 되므로 소당개, 우봉개, 소당포, 우봉이라 하였던 곳이다. 1894년(고종 31)까지 당포동(唐浦洞)에 속한 마을로, 1911년에 나누어져 우방(牛方)이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우봉리라 하였다. 현재 온산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행정마을은 없어지고 법정마을명만 남아 있다. 강양리에 편입되어 있다.

[골짜기]

- 봉웃골 : 우봉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강양리의 봉화산 밑이 된다.
- 성주골[聖智谷] : 우봉 서쪽에 있으며, 당월에서 진하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흠치골(牛峰洞)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조선지리지자료』에 陳及坪(牛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원산리 (元山里)

1894년(고종 31)에는 신원(新元), 야동(也東), 산남(山南), 신안(新安)의 네 마을로 되어 있었다. 1911년 신원, 원봉(元峰), 산남, 야동(野洞)으로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원봉동, 신원동, 야동동, 산남동을 병합하여 원봉과 산남의 이름을 따서 원산리라 하였다. 현재 온산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행정마을은 없어지고 법정마을명만 남아 있다. 화산리에 편입되어 있다.

[골짜기]

- 감나뭇골 : 산남¹¹²⁾ 서쪽, 마산고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다.
- 건너골 : 감나뭇골 북쪽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골새이골 : 신원¹¹³⁾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굴뚝골 : 원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대평골 : 평야라고 할 정도로 넓은 골짜기이다. <화산리>의 '대평골' 참조. 『조선지리지자료』에 大坪谷(山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덩굴 : 산남마을에서 서북쪽으로 산성마을에 접한 골짜기로, 반장골 옆인 삼평리 산6번지 일대이다.
- 두방앗골 : 산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래등과 성곡 사이의 서쪽에 있다.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있다 하여 '두방골'이라고도 한다.
- 덧골 : 산남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마산골 : 산남 서쪽 마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馬山谷(山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12) 산남은 원봉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산의 남쪽이 된다.

113) 신원은 원봉 서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 모자릿골 : 원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원(水源)이 좋아서 가뭄에도 모(못)자리를 할 수 있다.
- 물방골 : 성골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비가 올 때는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물방울을 뿜기며 흘러내린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 부챗골 : 삼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부처가 있었다.
- 불땅골 : 부챗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佛堂)이 있었다.
- 불썬안골 : 감나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한다. 이곳에 있는 논을 ‘불썬안골논’이라 한다.
- 사브라골 : 대평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평골 옆을 흐르는 작은 개울을 경계로 하고 있다.
- 삼밭골 : 월성대(月城臺)¹¹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원산리 695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산박골(也洞洞)로 조사되어 있다.
- 성골[城谷] : 인근 화산리의 산성(山城)에서 뻗어 내린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城谷(山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시밤골 : 신원 서남쪽의 시밤논이 있는 골짜기이다. 시밤논은 시비기(물구덩이)가 많은 논을 말한다.
- 안골짜 : 월성대 남쪽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內谷(山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원봉골 : 원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줄밭골 : 신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줄이 많았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줄밭골(新元洞)로 조사되어 있다.
- 통새밧골 : 고래등¹¹⁵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통새미¹¹⁶가 있다.
- 해달논골 : 시밤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 논이 모양이 해달[물개]처럼 생겼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근동골(也洞洞)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빠든들 : 덧불넘¹¹⁷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빠든(버덩)에 있다.
- 청량골들 : 신원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옛 청량면과의 접경지역 끝이 된다.

• 이진리 [梨津里, 배나리, 배진, 이진]

조선 정조 이래 지금까지 불려온 마을로, 배나리(루), 배진, 이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진리라 하였다. 옛날에는 배를 대는 나루[津, 나리]가 있었는데, 훗날 변하여 배[梨]로 바뀌었다. 현재 온산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행정마을은 없어지고 법정마을명만 남아있다. 화산리에 편입되어 있다.

[골짜기]

- 등너머골 : 마을 뒤 절터골 넘어 공동묘지에 이르기 전에 있는 여우골과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

114 월성대는 산남 서쪽에 있는 대(臺)이다.

115 고래등은 산남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고래처럼 생겼다.

116 통새미는 통새밧골에 있는 통처럼 생긴 우물이다.

117 덧불넘은 덧불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덧불은 원봉 뒤쪽에 있는 불[沙場, 沙濱]이다.

고 있는 골짜기이다.

- 무솔개 : 배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솔개 밀이 되며 물이 많다.
- 물방골 : 마을 서쪽 송정마을에 접한 곳으로, 이진과 대안, 달포, 송정마을 주민들의 화장터로 이용되던 곳이라 하여 ‘화장골’로도 불렸다.
- 물방앗골 : 배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진에서 산암리 달포로 넘어간다. 옛날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 애수골(여우골) : 마을 뒤 공동묘지 옆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많이 서식했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예슈방우골(梨津洞)로 조사되어 있다.
- 절터골 : 배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두골, 점터골’로도 불리며 절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황새골(梨津洞)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松浦谷(솔개골, 梨津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없다.

• 처용리 (處容里)

본래 울산(울주)군 청량면의 지역으로서 신라 때 처용이 바다 가운데서 나온 바위, 곧 처용암이 있다 하여 처용리라 하였다. 조선 정조 때에도 처용리라 하였고 1864년(고종 1)에는 신기리(新基里)와 처용리로, 1894년(고종 31)에는 처용동과 신지동(新只洞)으로 갈라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지동, 학동동(鶴洞洞, 學洞洞)을 병합하여 처용리라 해서 온산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온산공업단지에 편입되어 이주함에 따라 행정마을은 없어지고 법정마을명만 남아있다. 학남리에 편입되어 있다.

[골짜기]

- 도박골 : 피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백장골 : 처용리 32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부채골 : 피안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얇은 부채가 있었다.
- 석두골 : 처용리 산18-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애수골 : 처용리 산 5-1번지 동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진섬골 : 신기[新基, 새마을]¹¹⁸⁾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학동마을 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지섬골(新基洞)로 조사되어 있다.
- 집너머골 : 신기 북쪽 집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집느매골(新基洞)로 조사되어 있다.
- 팡디골 : 처용마을 뒤편의 깊고 긴 골짜기로, ‘핑등골(핑등골의 방언)’이라고도 한다. 처용리 310-1번지 일대이다.
- 피안골 : 처용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빙고(氷庫; 얼음창고)가 있었다 한다. 빙곳골이 피안골로 변한 것이다.¹¹⁹⁾ ‘피영골’로도 불린다.

118) 신기는 처용 동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119) 강길부, <전계서>, 393쪽.

[들판]

- 백장골들 : 석독걸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백정이 살았다 한다.
- 석독걸들 : 자갈채¹²⁰ 서북쪽 바닷가에 있는 들판으로, 나룻배를 대는 돌로 쌓은 독(뚝)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깃돌리들(處容洞)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後坪(新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학남리 (學南里)

본래 울산(울주)군 청량면의 지역으로서 1720년(숙종 46)경에는 거남리(巨南里)라 하였다. 그 후 영조~순조 때까지 같은 이름으로 내려왔으며, 1864년(고종 1) 거남, 회학(回鶴), 회남(回南)의 3개 마을로 나누어졌다. 1911년에는 회학, 거남, 회남, 진호(眞湖)의 4개 마을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회남동, 거남동, 진호동, 회학동을 병합하여 회학과 거남의 이름을 따서 학남리라 하였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8호에 의하여 온산면에 편입되었다. 1996년 2월 1일 울산시 조례 제210호에 의하여 온산면이 온산읍으로 승격하여 온산읍 학남리가 되었다.

[골짜기]

- 개방웃골 : 질매재¹²¹ 북쪽에 개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로, 학남리 453번지 일대이다.
- 구리싱이골 : 회남¹²²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구터골 : 임진왜란 때 김해 김씨들이 피난하여 숨어 살았다고 하는 골짜기이다.
- 궁근다리골 : 거남¹²³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도가닛골 : 회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뒷골 : 회학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뒷골못과 뒷골논이 있다.
- 막골(莫谷) : 학남리 367-2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莫谷(學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모시밭골 : 거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시밭이 있었다 한다. 모시밭골못 밑에 있으며, 학남리 392번지 남쪽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葍田谷(學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무내미골 : 구리싱이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보듯골 : 회학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봉웃골 : 거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밋골 : 거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랑배미골 : 사랑산(射郎山)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산치밭골 : 진동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송아치밭골'이라고도 한다.
- 새터골 : 회학 동쪽에 새로 된 골짜기이다.
- 서당골 : 회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
- 솔방골 : 거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솔뱅이(솔개, 수리) 집이 있었다. '수리골'이라고도 한다.

120) 자갈채는 ①자갈채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②밭채 동북쪽에 있는 불[濱]로, 자갈이 많았다.

121) 질매재는 ①질매재 밑에 있는 마을이다. ②회남 서쪽에 있는 고개로, 지형이 질매(질마) 형국이다.

122) 회남은 회학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회학(回鶴)은 거남(巨南) 동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학 형국이다.

123) 거남은 학남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신압골 : 학남리 548-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안막골 : 학남리 7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약미골 : 피부병에 좋다는 약수가 나는 골짜기로, '양미골'로도 불린다.
- 영남골[嶺南谷] : 솔방골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학남리 811번지 일대이다. 옛날에 영남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 진골 : 함박재¹²⁴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 진등골 : 회학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 진매골 : 학남리 400-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진밭골 : 거남 서쪽에 있는 긴 골짜기로, 학남리 93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長田谷(學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피밭골 : 쇠말뚝을 박았을 때 땅속에서 피가 솟아났다 하여 불린 지명이다.
- 황새골 : 진등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신밭골'이라고도 한다.

[들판]

- 갈바대들 : 회남 서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갈대가 많았다.
 - 구텃길들 : 새터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돌보들 : 돌보¹²⁵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회남뒷들 : 학남리 400번지 남동 일대의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에 莫谷坪(學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화산리(華山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산면의 지역인데, 1894년(고종 31)경 산성(山城), 석계(石溪), 석당(石堂), 기산(岐山)의 4개 마을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1년에는 석당, 기산, 내동(內洞), 산리(山里)의 4개 마을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기산동, 내동동, 석당동과 온북면의 산성동을 병합하여 화산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난골 : 소골못¹²⁶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건들골 : 산성아랫못¹²⁷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건돌빼기'라고도 한다.
- 관터골 : 내동¹²⁸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산성의 관(館)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 구장터골 : 내동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귀밤밀골 : 괴바우¹²⁹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124 함박재는 거남 서쪽에 있는 고개로, 지형이 함박꽃처럼 생겼다 한다

125 돌보는 진등골 북쪽에 있는 돌로 된 보(狀)이다.

126 소골못은 소골에 있는 못이다.

127 산성아랫못은 산성못 아래에 있는 못이다.

128 내동은 석당(石塘, 石堂) 북쪽 안에 있는 마을이다.

129 괴바우는 화산리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괴내기(고양이)처럼 생겼다.

- 대평골[大平谷] : 산성 남쪽 원산리와 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화산리 462번지 일대이다.
- 돌다리골 : 대정리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돌당의 아랫마을 앞쪽과 산성의 불근등 아래편이 되는 곳으로 흐르는 개천을 건너는 돌다리를 놓았으므로 그렇게 불렀다. 산성의 성안 골에서 마을을 거쳐 이곳까지 이르는 넓은 골짜기이다.
- 몽낙골 : 불(뽕)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민지네골 : 해냇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반장골[長谷] : 산성 서쪽에 있는 동피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벌피오골 : 해냇골 서쪽, 삼평리와 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땅골 : 실근논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佛堂)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佛堂谷(山城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사부락골[砂富羅谷] : 대평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그곳의 샘물이 시그럽다(시다) 한다.
- 산성골 : 산성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화산리 487-2번지와 49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새들지골 : 사부락골 남쪽 삼평리와 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성안골 : 생시넝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성의 안쪽이 된다.
- 소골 : 돌당¹³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소처럼 생겼다.
- 신밤골 : ‘덕신로’의 남쪽 변에 인접한 골짜기로, 화산리 1219-2번지 일대이다. ‘덕신소골못’ 서쪽에 있다.
- 실경논골 : 반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실경(시렁)처럼 높은 곳에 논이 있다. 큰실경논골과 작은실경논골이 있다. ‘실근논골’로도 불린다.
- 아이장골 : 뽕비알¹³¹⁾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죽은 아이를 많이 묻었다 한다.
- 위터골 : 산성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마을이 있었다 한다.
- 조피골 : 산성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기뻐하는 벼 대신 조와 피를 심었다 해서 불린 지명이다. “죄피골, 죄피전골”이라고도 한다.
- 출발골 : 내동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해냇골[蟹羅谷] : 몽낙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烏木谷(內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蒲田谷(內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고랫들 : 산성¹³²⁾ 앞에 있는 들판으로, 바닥이 깊었다. 『조선지리지』에 古乃野(山城洞)로 조사되어 있다.
- 기산앞들 : 기산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내동앞들 : 내동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돌다래들 : 솔두막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돌다리가 있다.
- 동피들 : 산성 서쪽에 있는 작은 산(동피) 밑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獨埋坪(山城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30) 뽕당(석당)은 산성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뒤쪽에 돌이 많다.

131) 뽕비알은 왕징등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가팔라서 오르내리기가 힘이 든다 한다. 왕징등은 산성 남쪽에 있는 높은 등성이이다.

132) 산성은 화산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남쪽 산에 옛 성터가 있다.

- 못밧들 : 소골못 밑에 있는 들판이다.
 - 보건네들 : 돌당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보(洑)가 있는데 그 건너 쪽이 된다.
 - 생시님들 : 산성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솔두막들 : 산성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솔이 많다.
- 『조선지지자료』에 馬山坪(內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원구
고사기(와)드관
로

4. 온양읍

溫陽邑



고산리 시비갯골



내광리 옹당골



발리 솔밭들



발리 허들



발리 내방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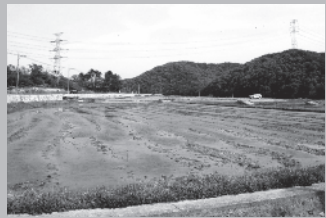
발리 성짓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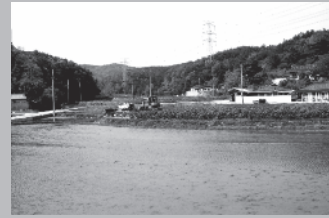
발리 탐골



삼광리 중광들



삼광리 큰들



삼광리 뒷골



삼광리 항방골



외광리 귀지들



외광리 셋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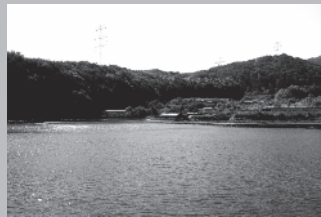
외광리 신미들



외광리 하들



외광리 교동골



외광리 조동골



운화리 물밭들



운화리 잔상들



운화리 도통골



운화리 부안골

4. 온양읍 (溫陽邑, 63.94km²)

본래 울산군의 지역으로서 온북면(溫北面)이라 하여 고사(古沙), 고산(高山), 망화(望化), 산양(山陽), 오산(吾山), 덕동(德洞), 신경(新庚), 상서(上西), 하서(下西), 중서(中西), 서호(西湖), 동평(東坪), 공동(公東), 중광(中光), 내광(內光), 구암(九岩)의 16개 동리를 관할하였다. 어느 때부터 온양면으로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786년(정조 10)본 읍지(邑誌)에 온양면이란 기록이 보인다. 그 전 임진왜란 때는 남면으로 불렸던 곳이다. 그 한참 후인 1899년(광무 3)의 읍지에는 온남(溫南), 온북(溫北)으로 갈렸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온남면의 외광(外光), 귀지(貴旨), 대운(大云), 대안(大安), 태화(台化), 발리(鉢里), 장동(長洞), 신지(新只), 공서(公西)의 9개 동리를 병합하여 온양면이라 해서 고산, 망양(望陽), 덕신(德新), 동상(東上), 남창(南倉), 삼광(三光), 내광, 외광(外光), 운화(雲化), 대안(大安), 발리(鉢里)의 11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8호에 의하여 덕신리를 온산면에 넘겨주어서 현재 10개리가 된다. 2001년 3월 1일 읍지(邑誌) 제226호에 의하여 읍으로 승격되어 온양읍이 되었다. 동쪽은 온산읍, 남쪽은 서생면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서쪽은 양산시 웅상지역, 북쪽은 웅촌면과 청량읍에 접하고 있다.

• 고산리 (高山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북면의 지역으로서 1894년(고종 31)경 고사동(古沙洞)이라 하였고, 1911년에는 고사동과 고산동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사동과 고산동을 병합하여 고산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갓(갯)골새 : 안고산¹³³⁾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말림갓이 있다. 고산리 110번지 일대이다.
- 굴앞골 : 쟁잇골¹³⁴⁾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산굴(高山窟¹³⁵⁾ 앞이 된다.
- 너털골 : 고산리 196번지 일대이다.
- 대밭골 : 안고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이 있었다. 고산리 292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竹田谷(대밭골, 古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독사골 : 반청배미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못우에골 : 안고산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문등골 : 흥골 어귀에 있는 골짜기로, 문등이가 살았다 한다.
- 미넘어골 : 고산리 52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반청배미골 : 중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매골 : 웅기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산리 445번지 일대이다.
- 삼밭골 : 고산리 218번지와 36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三幕谷(古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새골 : 고산리 103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133) 안고산은 중말 서남쪽 안에 있는 마을로, '내고산, 고사동'이라고도 한다. 중말(중마을)은 고산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134) 쟁잇골은 불맷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재애골, 재일골'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기와를 구운 곳이다.

135) 고산굴은 쟁잇골 앞에 있는 동해남부선의 기차굴이다.

- 송장골 : 순농골못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고산리 177번지 일대이다.
- 순동골 : 고산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산리 57번지 일대이다.
- 시비깃골 : 고산리 710번지와 산11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시비기(물구렁)가 많았다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是北谷(시비기골, 古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운덕골 : 안고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재일골 : 중고산에 있는 골짜기로, 기와를 구웠다.
- 점골 : 중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웅기점이 있었다. 고산리 332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店谷(古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개골 : 안고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조개처럼 생겼다 한다. 고산저수지 동북쪽에 있으며, 고산리 17-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趙介谷(古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중말앞골 : 중말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장골 : 안고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장암이란 암자가 있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知庄谷(古沙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짐골 : 고산리 12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흥골 : 시비깃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흙을 댔다 한다.

[들판]

- 굴앞들 : 웅기문화공원과 웅기박물관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고산리 456-2번지 일대이다. 동해 남부선 철로변에 있다.
 - 구무고개들 : 고산리 70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남산내들 : 안고산 남쪽 등성이(남산내)에 있는 들판이다.
 - 너더리들 : 안고산 동쪽에 있는 넓은 들판이다.
 - 누룽지들 : 고산리 63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모래들 : 고산리 33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큰들 : 안고산 동쪽에 있는 큰 들판이다.
 - 험밭들 : 안고산 동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內野(안들, 古沙洞)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過南野(古沙洞)로 조사되어 있다.

• 남창리 (南倉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북면의 지역으로서 울산군의 남쪽 창고인 사창(社倉)이 있었으므로 남창이라 하였다. 정조 때는 창동리(倉東里)와 창서리(倉西里)라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온북면의 공동동(公東洞)과 온남면의 공서동(公西洞)으로 갈라져 있었으나 1911년에 공동동은 공동(公洞)이라 고쳤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를 합하여 남창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불맷골 : 남창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冶谷(불매골, 公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남창들 : 남창리에 있는 들판으로, 남창리 115-1번지 일대이다.
 - 중보들 : 남창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중보(中淤)¹³⁶가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荏田坪(깨밭골들, 公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島野(섬들, 公東洞)로 조사되어 있다.

• 내광리 [內光里, 안청광, 내광]

본래 울산(울주)군 온북면의 지역으로서 청광골 안쪽이 되므로 안청광 또는 내광이라 하였다. 조선 정조 때 내광리라 하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중광동(中光洞)에 소속된 마을이었으나 1911년에 내광으로 분립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암(九岩, 벌바우)을 병합하여 내광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대밭골 : 내광리 9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독새밭골 : 내광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독사(毒蛇)가 많았다 한다. 내광리 438번지 일대이다.
- 매깃골 : 내광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이라 한다. '매주골'로도 불리며, 내광리 526-1번지 일대이다.
- 명화지골 : 내광리 5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물청골 : 내광리 50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배나못골 : 못안골 남쪽에 있는 보명사(寶明寺) 앞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다.
- 불평골(1) : 절랫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佛堂)이 있었다 한다. 지금의 대불암 서북쪽으로, 내광리 733번지 일대이다.
- 불평골(2) : 지금의 휴휴사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내광리 780번지 일대이다.
- 새방골 : 옥수골[玉水谷]¹³⁷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생이방우¹³⁸가 있다.
- 서목골(鼠目谷) : 보명사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의 형태가 쥐의 눈 같이 생겼으므로, '쥐눈골' 또는 '쥐눈골'이라고도 한다.
- 안터골 : '광청로'(웅촌 방향) 서편(좌측)에 있는 골짜기로, 내광리 산470번지 일대이다.
- 어양곡밀골 : 어양곡¹³⁹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오양골'로도 불린다. 내광리 433-3번지 일대이다.
- 옥수골 : 내광리 325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옥수정'이라고도 한다.
- 용당골[龍塘谷] : 내광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양산시 용당리 옆이 된다. 이곳에는 양산시 용당리로 넘어가는 용당고개가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龍塘谷(內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장토골 : 내광리 19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절랫골 : 보명사 어귀에 있는 골짜기로, 내광리 217번지 일대이다.
- 점랫골 : 어양곡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죽전골 : 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나무 밭이 많았다.
- 중농골 : 내광리 126번지, 154번지, 37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참나무징이골 : 내광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참나무가 있었다.

136) 중보는 남창들 북편에 있는 보(淤)이다.

137) 옥수골은 내광 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맑은 물이 흐른다.

138) 생이방우는 새방골과 양산시, 울주군과의 경계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상여처럼 생겼다.

139) 어양곡은 대밭골 서북쪽에서 웅촌면 대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춘요골 : 내광리 산85-2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함박동골 : 내광리 산94-4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불당곡들 : 내광리 34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앞들 : 내광리 644-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치밭이들 : 내광리 35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柿木坪(감나무들, 公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九岩野(內光洞)로 조사되어 있다.

• 대안리 (大安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남면의 지역으로서 대안동이라 하였는데, 조선 정조 때는 사안(四安), 고종 때는 사안(士安)이라 하여 온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연안(延安)과 사안을 합하여 대안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가는골[細谷 : 상당(上堂)¹⁴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안리 677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가는골 못[細谷貯水池]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細谷(士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거든골 : 대안리 28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명산지골 : 대안리 32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범대골 : 다래비술¹⁴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양이 범 머리처럼 생겼다 한다.
- 산막골 : 대안리 산73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임진왜란 때 피난하여 막을 치고 살았다는데서 불린 이름이다.
- 삼밭골 : 대안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안리 304-2번지 일대이다.
- 소똥골 : 큰골웃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를 많이 매어두므로 쇠똥이 많았다.
- 큰골안골 : 대안동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로, 큰골아릿못과 큰골웃못이 있다. 이곳의 못을 통틀어 ‘큰골안못[大谷貯水池]’이라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大谷·池谷(士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학새골 : 대안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학의 목처럼 길고 좁다. ‘항새골’로도 불리며, 대안리 609-2번지 일대이다.

[들판]

- 너드리들 : 대안리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너들’이라고도 한다. 대안리 107-2번지 일대이다.
- 넓은들 : 대안 서남쪽에 있는 넓은 들판이다.
- 대안들 : 너드리들과 넓은들 사이에 있는 들판이다.
- 마당아랫들 : 대안의 동쪽 발리에 걸쳐있는 들판으로, 대안리 36번지 일대이다. 발리 북쪽들까지도 마당아래(리)라고 부른다. 서낭당에는 마당이 있었으므로, 이 마당 아래 또는 앞에 있는 들판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¹⁴²⁾
- 밤밭들 : 넓은들 서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밤나무가 많았다.

140) 상당은 대안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141) 다래비술은 벼락디미 북쪽에 있는 산으로, 형국이 다래비(다리미)처럼 생겼다 한다. 벼락디미는 큰골안골 서쪽에 있는 산으로, 벼락디미가 있다.

142) 강길부, <전계서>, 412쪽.

- 적은모리이들 : 큰골아릿못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작은 들판이다.
 - 큰모리이들 : 큰골아릿못¹⁴³⁾ 서남쪽 모퉁이에 있는 큰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於加野(土安洞)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魚頭野(土安洞)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越堰野(土安洞)로 조사되어 있다.

• 동상리(東上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북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정조 때 상서포리(上西浦里)와 하서포리(下西浦里)라 하였으나 1894년(고종 31)에 동평(東坪), 상서(上西), 하서(下西), 서호(西湖)의 네 마을로 갈라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상서동, 중서동, 하서동, 서호동, 동평동을 병합하여 동평과 상서의 이름을 따서 동상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피(깨)밭골 : 상서¹⁴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깨밭이 있었다.
 - 대밭널골 : 하서¹⁴⁵⁾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이 있었다.
 - 땅물골 : 동상리 2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덩골 : 동상리 5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미영밭골 : 동평¹⁴⁶⁾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미영[목화]밭이 있었다.
 - 부영이밋골 : 외봉터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비릿골새 : 당버덩¹⁴⁷⁾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비훗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飛玉谷(上西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서호골 : 서호¹⁴⁸⁾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옥골'이라고도 한다.
 - 선너매골 : 동평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선밤골 : 동상리 61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성짓골 : 남창 삼거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聖知谷(東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안골 : 하서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외봉터골 : 동평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외봉[假葬]을 했다 한다.
 - 용방골 : 하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방쭈¹⁴⁹⁾가 있다.
 - 우무정골 : 동상리에 있는 골짜기로, '우문정(牛文亭), 운무정(雲舞亭)'이라고도 한다.
 - 진밭골 : 동상에 있는 골짜기이다.
 - 채봉골 : 중서마을 뒷산에 있는 골짜기로, 채봉을 했다 한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二誣夫谷(이화랑니집골, 上西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鷲飛谷(재비골, 下西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於分谷(下西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43) 큰골아릿못은 대안동 서쪽에 있는 큰골안골 아래에 있는 못이다. 큰골못도 있다.

144) 상서는 동상리에서 중심 되는 마을이다.

145) 하서는 중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146) 동평은 상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147) 당버덩은 상서 북쪽에 있는 버덩으로, 서낭당이 있었다.

148) 서호는 하서와 중서 사이에 있던 개[浦]로, 지금은 들판이 되었다. '서포(西浦)'라고도 한다.

149) 용방쭈는 용방골에 있는 소[沼]로, 용이 등천(登天)하였다 한다.

[들판]

- 건넛들 : 하들[下坪] 남쪽 건너편에 있는 들판이다.
 - 뒷들 : 동상리 105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상서들 : 남창중학교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동상리 825번지 일대이다.
 - 서곶들[西浦坪] : 서포 앞에 있는 들판이다. 원래는 하서와 중서 사이에 있던 개[浦]인데, 지금은 들판으로 되었다. 동상리 492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西浦野(東坪洞)로 조사되어 있다.
 - 폰곶들 : 하서 앞에 있는 들판으로, 폰개[용두레]로 물을 댔다 한다.
 - 하서들[下坪] : 동상리에 있는 들판으로, 동상리 246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하들보[下坪泐]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下野(아리들, 下西洞)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古乃野(고래들, 上西洞)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寒來坪(東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망양리 (望陽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북면의 지역으로서 1720년(숙종 46)과 1765년(영조 41)에는 청량면에 속한 소들리[所等里]였다. 정조 때에 온양면으로 옮겨서도 역시 소들리[所等里]라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는 산양동(山陽洞)과 망화동(望化洞)으로 갈라졌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망화동과 산양동을 병합하여 망양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가문골 : 망화¹⁵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구시골 : 셋비탈¹⁵¹⁾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구시(구유)처럼 생겼다 한다.
- 기개밀골 : 귀개재¹⁵²⁾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논골 : 선사윗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다. 큰논골과 작은논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小農谷(山陽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다릿골 : 우골새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대(地帶)가 높다.
- 대부골 : 망양리 65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도장골 : 기개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장 안처럼 깊숙하고 아늑하다. 망양리 592번지 일대이다. 큰도장골과 작은도장골이 있다.
- 등잔골 : 사양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괘벽등화형(掛壁燈火形)이라 한다.
- 못안골 : 원골[院谷]¹⁵³⁾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방아골 : 사양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삼밭골 : 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한다. ‘산박골’이라고도 한다.
- 생이골 : 망양리 36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선사윗골 : 셋비탈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선사윗골과 작은선사윗골이 있다.
- 옷밭골 : 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옷나무밭이 있었다 한다.
- 왕돛골 : 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왕두골, 왕디골’로도 불린다. 망양리 584번지 일대이다.

150) 망양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망화사라는 절이 있었다.

151) 셋비탈은 사양 남쪽에 있는 산이다. 사양은 망양리에 있는 마을로, ‘산양(山陽), 소동(蘇洞)’이라고도 한다.

152) 귀개재는 사양에서 고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153) 원골은 터설 서쪽에 있는 마을로, 원집이 있었다 한다. ‘원말’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旣豆谷(望化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용금소골 : 망양리 산11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우골새 : 망화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인비골 : 망양리 67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장골 : 우골새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절릿골 : 망화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화사라는 절이 있었다.
- 짝골 : 짝골못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양리 695번지와 70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화성골 : 망양리 산112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뺨드기 : 망화마을의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망양들 : 망양리 35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망화들 : 망양리에서 중심 되는 마을인 망화(望化)에 있는 들판이다.
- 못들 : 원골에 있는 들판이다.
- 사양뫓들 : 사양보¹⁵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加文野(望化洞)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大湫野(컨보들, 山陽洞)로 조사되어 있다.

• 발리 [鉢里, 바리, 발방]

본래 울산(울주)군 온남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바리처럼 생겼으므로 바리 또는 발방이라 하였다 한다. 정조 때는 단일마을이었으나 1894년(고종 31)에는 발리와 진동(進洞)으로 갈라져 있었다. 1911년에 진동을 장동(長洞)으로 고쳤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동을 병합하여 발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갈밭골 : 진동¹⁵⁵)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갈밭이 있었다.
- 내방골 : 발리 북쪽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 대골 : 발리 80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대밭골 : 선양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이 있었다.
- 도둑골 : 새판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둑이 숨어 살았다 한다. 발리 892번지 일대이다.
- 동샛골 : 발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두꺼비바우골 : 발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두꺼비처럼 생겼다 한다.
- 물용골 : 발리 1106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물한골’이라고도 한다.
- 발리성골 : 발리 20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부영이골 : 진동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부영이가 살았다.
- 새판골 : 지샛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를 파냈다 한다. ‘새골’로도 불리며, 새골못 동쪽인 발리 70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鐵板谷(鉢里洞)·金谷(鉢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성깃골 : 웃선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생면과 인접해 있다.

154) 사양보는 망양리의 자연마을인 사양(山陽, 蘇洞) 앞에 있는 보(湫)이다.

155) 진동은 선양골(善良谷)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긴 골짜기에 위치하였다. ‘진골’이라고도 한다. 선양골은 바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웃선양골 마을과 아릿선양골 마을이 있다.

- 소골 : 발리 73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솔밑골 : 발리 224-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솔터골 : 발리 93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얼골 : 발리 86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재피골 : 발리 120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절랫골 : 선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발리 1089번지 일대이다.
- 지셋골 : 발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기와를 구웠었다 한다.
- 쪽제비골 : 선양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탑골 : 발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9층탑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塔谷(鉢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학우남골 : 선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학이 많았다.
- 흥골 : 발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흥을 댔다 한다.
- 황새골 : 새판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梵王谷(鉢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書堂谷(鉢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마당아리들 : 발리의 북쪽에 있는 들판과 서쪽 대안과의 경계에 있는 들판으로, 대안의 서낭당 마당아래 또는 마당 앞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¹⁵⁶⁾ 『조선지리지』에 場下坪(鉢里)으로 조사되어 있다.
- 발리들(1) : 발리 65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발리들(2) : 발리 5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상봇들 : 상보(上洑)¹⁵⁷⁾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선양들 : 선양골에 있는 들판이다.
- 솔미깃(밑)들 : 중봇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발리 250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松美坪(鉢里)으로 조사되어 있다.
- 윗들 : 발리 1147-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중봇들 : 중보(中洑)는 하들 동쪽에 있는 보이다.
- 진들 : 발리 91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하들[下坪] : 발리 동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槐海坪(鉢里)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삼광리 (三光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북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정조 때 중광리(中光里)라 하던 마을이나 1894년(고종 31)에 중광동, 신지동(新只洞)의 두 동으로 갈라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광리와 온남면의 신지동 전부와 외광동(外光洞), 귀지동(貴旨洞)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삼광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156) 강길부, <전계서>, 421쪽.

157) 상보는 중보(中洑)의 북쪽에 있는 보(洑)이다.

[골짜기]

- 고래골 : 두들[두평]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광창골 : 불광산 아래에 있는 맑은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이다.
- 금정골 : 백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금정골뚝 남쪽에 있으며, 삼광리 300번지 일대이다.
- 대감밧골 : 춤밧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감의 묘가 있다.
- 대밭골 : 위귀지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광리 82번지 일대이다.
- 뒷골(1) : 삼광리 61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뒷골(2) : 삼광리 187번지와 26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막대골[莫大谷] :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막대기처럼 길다 한다. '박대골'이라고도 하며, 삼광리 335번지 일대이다.
- 미구지골 : 위귀지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광리 85-1번지 일대이다.
- 방천골 : 산골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보꽃모퉁이골 : 삼광리 10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땅골 : 구암(九岩)¹⁵⁸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
- 사그장골 : 방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산골넘 : 신철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산숯골 : 고래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솔밭넘[松田] : 삼광리에 있는 골짜기로, 소나무가 많다.
- 신철골 : 산숯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용숯(수)골 : 뿔당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쏘가 있다. 중광소류지 위에 있으며, 삼광리 산 211-1번지와 212번지 동남쪽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龍沼谷(中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절뚝골 : 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절골'로도 불리며, 삼광리 산71-1번지 남쪽 일대이다.
- 점골 : 신기와 새마을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도자기를 구웠다고 한다.
- 정상골 : 삼광리 43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춤밭골 : 별방우¹⁵⁹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 : 딘봉재¹⁶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향방골 : 삼광리 42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구암들 : 삼광리 77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두들[斗坪] : 용숯골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새마들 : 새마들소류지 남쪽과 태봉사 북쪽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삼광리 450번지 일대이다.
 - 신기들[新基坪] : 하방(下坊) 동남쪽에 새로 된 들판이다.
 - 중광들 : 삼광리 79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큰들 : 별방우 북쪽에 있는 큰 들판으로, 삼광리 152번지 일대이다.
- 『조선지리지』에 後坪(뒷들, 中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58) 구암(九岩)은 중광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바위가 많다. 중광(中光)은 삼광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159) 별방우는 하방(下坊) 남쪽에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어서 '주막마을'이라고도 한다. 하방은 중광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160) 딘봉재는 대감밧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팔라서 오르내리기가 힘이 든다고 한다.

• 외광리 [外光里, 발청광, 외광]

본래 울산(울주)군 온남면의 지역으로서 청광곡 바깥쪽이 되므로 발청광 또는 외광이라 하였다. 조선 정조 때와 1894년(고종 31)에는 외광, 귀지(貴旨)의 두 마을로 갈라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외광의 일부와 귀지동 일부(아래귀지)를 병합하여 외광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가리점골 : 웅골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래정골’이라고도 한다. 나무그릇을 만드는 점(店)이 있었다. 외광리 826번지 일대와 산162-3번지, 648번지 일대 등 두 곳이 있다.
- 갈밭골 : 진등대¹⁶¹⁾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건는들골 : 교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교동골 : 교동곡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외광리 64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校洞谷(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노리미골 : 외광리 2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텃넘골 : 분골[粉谷]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텃 너머가 된다.
- 덧골 : 교동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등재골 : 외광리 산158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못안골 : 교동못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반짓골 : 갈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뱀골 : 외광리 83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분골(1) : 교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흰 흙이 나므로 그렇게 불렀다. 이곳에 마을이 있었으나, 광복 후 혼란기에 흩어져 없어졌다.¹⁶²⁾ 『조선지리지자료』에 粉谷(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분골(2) : 상말¹⁶³⁾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외광리 814번지 일대이다.
- 불땅골 : 갈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佛堂)이 있었다.
- 선바위골 : 외광리 21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立岩谷(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¹⁶⁴⁾
- 숲골 : 외광리 20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시삼골 : 상말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웅골골 : 상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었다.
- 작은골 : 외광리 34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작은조개골 : 외광리 1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점골 : 외광리 178-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조동골 : 교동곡저수지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외광리 318번지 일대이다.
- 큰 : 외광리 291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 큰조개골 : 외광리 28-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터골 : 외광리 산162-2번지 동쪽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161) 진등대는 교동 서쪽에 있는 긴 등성이이다. 교동(校洞)은 새각단 남쪽에 있는 마을로, 향교가 있었다 한다. 새각단은 평광(平光) 서북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평광은 아릿귀지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가장 평안하게 사는 곳이었다 한다. 아릿귀지[下貴旨]는 외광리의 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162) 강길부, 〈전계서〉, 427쪽.

163) 상말은 교동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164) 입암골[立岩谷, 선바위골]의 선바위는 새미바우 남쪽에 서 있는 바위이다. 또한, 새미바우는 교동 서쪽에 서 있는 바위로, 바위틈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조사되어 있는 좌암골[坐岩谷]의 좌암(坐岩)이 앞에서 언급한 ‘새미바우’로 추정된다.

『조선지지자료』에 朴大谷(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竹田谷(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坐岩谷(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귀목들 : 새각단 앞에 있는 들판으로, 귀목(해나무)이 있었다.
- 귀지들 : 아릿귀지 앞에 있는 들판으로, 광천천 옆이 된다. 외광리 119번지 일대이다. 『조선지지자료』에 貴旨坪(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봉답들 : 교동(校洞) 앞에 있는 들판으로, 천수답이 있다.
- 분골들 : 분골¹⁶⁵⁾에 있는 들판이다.
- 새엣들 : 상말과 삼광리 사이에 있는 들판이다.
- 신미(기)들 : 외광리 442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남창천 남쪽변이 된다. 『조선지지자료』에 新只坪(새각단들, 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큰들 : 외광리 550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남창천 남쪽변이 된다.
- 하들[下坪] : 교동 아래쪽에 있는 들판으로, 남창천 남쪽변이 된다. 외광리 446번지 일대이다. 『조선지지자료』에 下坪(外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운화리 (雲化里)

본래 울산(울주)군 온남면의 지역으로서 정조 때와 1894년(고종 31)에는 대운동(大云洞)이라는 단 일마을이었다. 1911년에 대운동과 태화동(台化洞)으로 갈라졌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운동과 태화동을 병합하여 운화리라 해서 온양면에 편입되었다. 2001년 3월 1일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온양읍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감나무골 : 바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있었다.
- 고무정골 : 갈난새미¹⁶⁶⁾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무딸기 나무가 많았다.
- 광대골 : 운화리 83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금계골 : 운화리 산159-8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지자료』에 金鷄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기동골 : 음달¹⁶⁷⁾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아랫기동골(운화리 249번지 일대)과 웃기동골(운화리 284-2번지 일대)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其磴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기세골 : 운화리 737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 긴지밭골 : 상대(上大)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내원암계곡 : 내원암은 운화리 1312번지에 있는 사찰이다. 북쪽(운화리 산159-8번지)에서 사찰 서쪽을 거쳐 아래쪽으로 쭉욱 펼쳐진 운화리 산157-1번지 일대의 골짜기를 내원암계곡이라 한다. 이 골짜기는 깊고 청량한 계곡 속의 수려한 연못과 폭포, 한번 누워보고 싶은 반석들을 품고 있는 비경이다. 이곳에는 영남 제일의 명당인 내원암이 있다. 해발 742m의 대운산 정상에 서면 울산의 전경과 동해를 바라볼 수 있으며,

165) 분골은 ①교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②상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166) 갈난새미는 시묘동 서쪽에 있는 샘이다. 시묘동은 매봉 서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매봉은 상대 서쪽에 있는 산이다.

167) 음달은 하대(下大) 음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하대는 상대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대는 태화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대운산 밑이 된다

날씨가 좋으면 멀리 대마도까지 보인다.

- 노장골 : 불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다래밭골 : 피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밭이 있었다. 운화리 산159-1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대롱골 : 태화동¹⁶⁸⁾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대롱처럼 생겼다. ‘도롱골’로도 불리며, 운화리 157-2번지 일대이다.
- 대밭골 : 음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이 있었다. 운화리 253번지 일대이다.
- 도통골[道通谷] : 박칭잇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천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道靑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 골짜기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온다.

설화

온양읍 운화리의 대운산 밑에는 상대(上大)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 서쪽의 골짜기를 들어가면 도통골[道通谷]에 이르게 된다. 이 도통골의 웅심지(龍深池)는 원효대사가 살면서 수도하였던 곳이라 한다. 원효대사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사(長安寺)의 말사인 척판암(擲板庵)에 있으면서 『해동원효(海東元曉)』라고 새긴 판자를 날려 중국 산둥성(山東省)의 법운사(法雲寺)에서 불공하던 천 명의 죄 없는 신도를 구하니 이를 세상에 『해동원효척판구중(海東元曉擲板救衆)』이라 한다. 때는 이 무렵이었다. 장안읍의 척판암에서 도통골은 불과 10리 미만의 거리에 있고, 그 계곡의 수려함도 뛰어났으므로, 이곳에 암자를 지어 제자를 거느리고 수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사(大師)가 제자 한 사람을 부르더니 채를 주면서 그것으로 물을 떠 오라는 것이었다. 채를 받은 제자는 한 동안 머뭇거렸으나 대사의 하는 일이라 그대로 가서 웅심지의 물을 떠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채에 물이 담길 리 만무하여 물이 주르르 빠지고 말았다. 제자는 다시 채를 물속으로 넣고 들어보니 이상한 일이었다. 이제는 채에 물이 담기었다. 제자는 놀라운 한편 행여나 잘못하여 물이 빠져 흐르면 어찌 할까?하고 조심조심하여 공손히 대사에게 바치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큰 한숨을 내어 쉬었다. 채를 받아든 대사는 북쪽을 향하여 무슨 주문을 외우며 뿌리니 하늘에는 오색의 구름이 일어나서 북쪽 하늘로 흘러갔다. 그런데 이때 월성(月城, 경주)의 불국사(佛國寺)에서는 불이 일어나 대웅전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을 때였다. 갑자기 남쪽하늘에서 오색의 구름이 날아오더니 한바탕의 비를 뿌려대니 그만 불은 꺼지고 말았다 한다. 그 뒤로 사람들은 원효대사가 살던 이 골짜기를 도통골[道通谷]이라 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불러온다.¹⁶⁹⁾

- 돌티미골 : 양달(陽達)¹⁷⁰⁾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았다 한다.
- 둥그리골 : 운화리 산159-6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못안골 : 음달 남쪽 못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운화리 산119-1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물고개골 : 운화리 94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물골 : 굴바지¹⁷¹⁾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폭포가 있었다. 운화리 산159-7번지 아래쪽 일대이다.
- 밧골 : 노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바린골 : 다래밭골 서쪽에 있는 바린 골짜기이다.
- 박칭잇골 : 상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뱃치기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迫川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부안골 : 조천골(도통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화리 산157-1번지 일대이다.
- 불당골 : 상대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佛堂)이 있었다.
- 사기장골 : 운화리 94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사땃골 : 음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땃이 잘 났다고 한다. 운화리 891번지 일대이다.
- 산지골 : 지땃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산지골과 작은산지골이 있다.
- 삼밭골 : 감나못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운화리 산157-1번지 남쪽 일대이다.

168) 태화동은 운화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태화골’로도 불린다.

169) 온양읍 운화리 김영달(金英達)翁談; 『울산의 전설과 민요』, 울산문화원, 1996, 153~4쪽.

170) 양달은 하대 양자쪽에 있는 마을이다.

171) 굴바지는 학바지 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굴이 있다. 학바지는 양달 서쪽에 있는 산이다.

- 솔두박골 : 못안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소나무가 있었다.
- 송천골 : 밋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목이 울창하였다.
- 안골짜 : 태화동 동쪽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內谷(台化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안타골 : 운화리 산55-1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태화골 : 태화동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화리 산55-1번지 일대이다. ‘안타골’로도 불린다.
- 애동골[禮東谷] : 음달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화리 797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애동골못 [禮東谷貯水池]¹⁷²⁾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禮東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어진방골 : 운화리 94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외(애)동골 : 박창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화리 708번지 일대이다.
- 용의골 : 부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용처럼 생겼다 한다. ‘용화골’로도 불리며, 운화리 산102-3번지 남쪽과 산151번지 북쪽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龍虎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쟁골 : 운화리 41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절터골 : 운화리의 자연마을인 대운(大雲)에서 내원암으로 올라가는 산기슭에 대원사지(大原寺址)로 추정되는 절터와 4기의 석조사리탑이 있다. 사리탑은 석종형사리탑 2기와 팔각 원당형사리탑 1기, 기타 형태의 사리탑 1기이다. 이 가운데 한 사리탑에는 현하당(縣河堂)이라 음각하여 묘주(廟主)를 밝혀주고 있다. 이 절터가 있는 곳을 절터골이라 한다. 이 절이 망하게 원인에 대하여 구전되어 오는 전설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寺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전설

대원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될 정도로 크고 이름난 절이었다. 신도들도 많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 절에는 괴이한 주지가 있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몹시 귀찮게 생각했다. 어느 날 한 도사가 절을 찾아 와서 잠시 쉬게 되었다. 주지가 말하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귀찮으니 적게 오게 할 수 없을까?”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도사는 “그런 일이야 어렵지 않은 일이니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이올시다.” 하였다. 그리고는 “마을로 내려가는 산모퉁이에 큰 길을 내면 될 것이오.” 하고는 떠나버렸다. 도사의 말을 들은 주지는 산모퉁이를 헐어 길을 열었다. 그런데 작업 중에 석불(石佛) 한 구가 솟아 나왔다. 삽과 괘이에 찍혀 목은 떨어져 나갔으며,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절에는 갑작스럽게 빈대가 들끓었다. 수많은 빈대가 득실거리며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고, 결국 절은 망하고 말았다. 지금도 절터 부근의 바위를 뒤져보면 빈대껍데기가 나온다고 이곳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¹⁷³⁾

- 조개골 : 태화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화리 391번지 일대이다.
- 지새골 : 못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장골 : 사뫼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장암이 있었다. 큰지장골과 작은지장골이 있다.
- 집골새골 : 양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화리 531번지 일대이다.
- 초막터골 : 삼밭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초막(草幕)이 있었던 곳이다.
- 큰골 : 운화리 산159-1번지 남쪽과 운화리 1307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태화골(1) : 운화리 37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台化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72) 애동골못은 상대 동쪽에 있는 못이다.

173) 강길부, <전계서>, 429~430쪽.

- 태화골(2) : 운화리 44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파산밭골 : 긴지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피밭골 : 송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화리 산159-1번지 일대이다.
- 한미타골 : 운화리 산62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흙골[楡谷] : 상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흙을 댔다 한다. 옛날 대운마을이 이곳에 있다가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 여기에 한 부자가 살고 있어서 가을에 소작료를 싣고 소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회초리를 모으면 한 끼의 쇠죽을 끓일 정도였다 한다.¹⁷⁴⁾ 『조선지리지』에 楡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흥골 : 장군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황새골 : 태화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山城谷(大云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개간들 : 음달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굼논들 : 음달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구렁논(옴폭 패어 들어간 논)이 있다.
- 넓은들 : 음달 북쪽에 있는 넓은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廣野(台化洞)로 조사되어 있다.
- 물밭들 : 대운교(大雲橋) 서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운화리 1069번지 일대이다.
- 반성들 : 새논들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반송나무가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盤松坪(大元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번덕들 : 음달 서북쪽 버덩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反野(뺨덕들, 大元洞)로 조사되어 있다.
- 새논들 : 음달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새로 된 논이 있다.
- 잔상들 : 운화리 116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흙골들 : 운화리 100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後野(大元洞)로 조사되어 있다.

174) 강길부, <전계서>, 434쪽.

원곡
고갯사기와
드림관

5. 청량읍

靑良邑



문죽리 섬들2



개곡리 용산들



개곡리 초갯들



개곡리 만주골



동천리 소들



동천리 양천들



문죽리 산숯골2



삼정리 누루골



삼정리 탑골



율리 음달들



율리 상구담



5. 청량읍 (靑良邑, 59.91km²)

조선시대 청남면과 청북면으로 되어 있던 청량면은 본래 울산(울주)군의 지역으로서, 뒤에 이를 합하여 청량산의 이름을 따서 청량면이라 하고 두현(斗峴), 진곡(眞谷), 개산(開山), 두왕(豆旺), 영축(永丑), 내울(內粟), 외울(外粟), 반정(盤亭), 죽전(竹田), 상정(上亭), 하정(下亭), 중리(中里), 덕정(德亭), 양천(良川), 양동(良東), 송전(松田), 상남(上南), 신촌(新村), 오천(吾川), 회학(回鶴), 처용(處容), 거남(巨南), 회남(回南), 장척(長尺), 사방(四方), 산하(山下), 신지(新只), 목도(目島), 점리(店里), 오대(烏大), 수문(殊文) 등의 32방(坊)을 관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웅촌면의 신리(新里)를 편입하고 사방, 산하, 신기(新基), 목도, 달포, 처용, 학동(鶴洞)의 7개 방(坊)을 떼어 온산면에 넘겨주고 서쪽 일부를 삼남면으로 이속하였다. 1962년 5월 10일 울산시의 신설에 따라 두왕동(斗旺洞)을 울산시에, 1975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8호에 의하여 용암, 학남의 2개리를 온산면에 넘겨주었다. 1987년 1월 1일 온산면에서 용암리를 다시 넘겨받아서 개곡, 덕하, 동천, 문죽, 삼정, 상남, 울리, 중리 등의 9개리를 관할하고 있다. 울주군 신청사의 건립·이전으로 2018년 4월 1일(조례 제1060호 2018.3.22.) 청량면에서 청량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쪽은 울산시 남구, 서쪽은 웅촌면, 남쪽은 온산읍과 온양읍, 북쪽은 범서읍과 울산 남구에 접하고 있다.

• 개곡리 (開谷里)

1720년(숙종 46)경에는 개산리(開山里)라 하였고, 1765년(영조 41)에는 개산과 진목(眞木)으로 나누어졌다. 1810년(순조 10)에는 상개산, 하개산, 진곡(眞谷)으로 나누어졌으며, 1864년(고종 1)에는 다시 진목리로 통합되었다. 1894년(고종 31)에 다시 개산과 진곡으로 나누어졌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개산동과 진곡동을 병합하여 개곡리라 하였다.

[골짜기]

- 구당골 : 개곡리 34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구덩(등)골 : 개곡리 401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용 아홉 마리가 승천하였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길이가 약 1.5km 가량 된다. 큰구덩골과 작은구덩골이 있다.
- 굴방골 : 굴바우¹⁷⁵⁾가 있는 골짜기로, 용산마을 북쪽 산기슭이다. 오래 전에는 솔밭이었으나 지금은 밭으로 개간됐다.
- 다래골 : 진곡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나무가 있었다.
- 담배밭골 : 진곡에 있는 골짜기로, 담배밭이 있었다.
- 대가리골짜 : 하개산마을 뒷산에 있는 골짜기로, 애장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대문달골 : 새각단¹⁷⁶⁾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175) 굴바우는 용산 서쪽에 있는 바위로, 굴이 뚫려 있다. 용산(龍山)은 개곡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뒷산 모양이 용(龍)처럼 생겼다.

176) 새각단은 용산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도독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큰도독골과 작은도독골이 있다. 도독들이 들꿨었다 한다.
 - 도주골 : 새미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개곡리 409번지 일대이다.
 - 동례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만주골[滿洲谷, 구불등골] : 언덕과 산등을 몇 등이나 구불구불 돌아서 들어간다 하여 ‘구분등골’이라고도 한다. 개곡리 52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구불등골(眞谷洞)로 조사되어 있다.
 - 물골짜 : 골방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많다. 오른쪽에 작은물골짜이 있다.
 - 뭉녀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배나무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많다.
 - 버드나무골 : 진곡의 더런치기마을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윗마을 사람들이 울산장으로 오가는 지름길이었다.
 - 부치장골[府置場谷] : 개곡리 3번지 일대의 새각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부처가 있었다 한다. 울산시 두왕동과의 경계지점으로 조선시대 5일장이 섰던 곳인데, 어느 시기에 남구 상개동 한티장[大峴場]으로 옮겨갔다. 지금도 일대의 농토 이름이 시계전[싸전]논으로 전해온다. 이곳에 부치장못이 있었다.
 - 삼바골 : 진곡의 아랫마을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로 들어서면 안쪽에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옛날에 아랫마을 사람들이 울산장에 오가는 지름길이었다.
 - 삼밭골 : 아랫진곡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한다.
 - 새미골 : 새미못 위에 있는 골짜기로, 개곡리 477번지 일대이다.
 - 성짓골 : <상남리>의 ‘성짓골’ 참조.
 - 수지골 : 진곡에 있는 골짜기로, 수수밭이 있었다.
 - 안골 : 진곡마을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예수골 : 아랫진곡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수(여우)가 많았다 한다.
 - 오리밭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오리들이 많이 날아와서 앉았다 한다.
 - 외수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은지밭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구덩골 : 새각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큰구덩골도 있다.
 - 짐자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참나무골 : 개곡리 596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참나무가 많았다. 이곳에 작은 못이 있다.
 - 터서리골 : 참나무골에 있는 못 밑 오른쪽에 집터가 있었다 하여 불린 지명이다.
 - 큰골 : 진곡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개곡리 703-3번지 일대이다.
 - 황새개골 : 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조선지리지』에 神堂谷(開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突谷(眞谷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가(개)산들 : 개곡리 239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용산들’이라고도 한다.
- 굴뱅이들 : 진곡마을에 있는 들판이다.

- 대문달들 : 진곡의 아랫마을 더러치기 봉답들을 말하며, 옛날에 부잣집이 큰 대문을 달고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大門坪(眞谷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대추나무들 : 진곡에 있는 들판으로, 대추나무가 많았다. 『조선지리지』에 棗木坪(眞谷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돌온골들 : 진곡에 있는 들판이다.
- 바며부들 : 진곡에 있는 들판이다.
- 새봇들 : 새각단 앞에 있는 새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경지정리로 초갓들에 포함되었다. 『조선지리지』에 新沓坪(開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섬봇들 : 용산 앞에 있는 섬보의 물을 대는 들판으로, 섬처럼 생겼다. 개곡리 15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1982년에 경지정리를 하였다.
- 아랫마을밭들 : 진곡의 아랫마을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야제골들 : 진곡에 있는 들판이다.
- 연당들 : 진곡에 있는 들판으로, 가운데에 연당(蓮塘)이 있다.
- 진곡들 : 개곡리 57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초갓(갭)들 : 용산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1982년에 경지정리를 하였다. 이곳에는 초갓보가 있다. 『조선지리지』에 草溪野(開山洞)로 조사되어 있다.

• 덕하리 (德下里)

조선 정조 때 하정리(下亭里)라 하였고 1864년(고종 1)에는 하정과 덕정(德亭)으로 나누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덕정동과 하정동을 병합하여 덕하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문골 : 덕정¹⁷⁷⁾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덕하리 749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가문골못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玄谷(거문곡, 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가물골 : 덕하리 산95번지 동남쪽 일대와 덕하리 707번지 일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갈골 : 덕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갈(葛)이 많았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葛谷(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갈곳골 : 덕하리 928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개잡골 : 화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狗作谷(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개자골’로도 부르는데, 그 내력은 ‘길게 뻗어 내려온 산맥의 생긴 모양이 개가 네 다리를 길게 뻗고 잠을 자는 형국이라 한다.
- 관대사골 : 덕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관대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大冠谷(德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관청골 : 덕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덕하리 390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관청골샘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官廳谷(德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77) 덕정은 화정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구덕하(舊德下)’라고도 한다. 화정(華亭)은 정지방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하정(下亭), 아래정지방’이라고도 한다. 정지방은 (삼정리)의 ‘정지방’ 참조.

- 광대골 : 화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광대가 살았다 한다.
- 길골 : 덕하리 산 102-3번지 동편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넘어골 : 덕하리 672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 높은덩이골 : 화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늑대골 : 호랑이집땃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늑대가 많았다 한다.
- 대미산골 : 화정 남쪽의 대미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돈뿔골 : 화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등산골 : 덕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못뿔골 : 덕하리 67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미영밭골 : 화정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미영(목화)밭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木花谷(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배나무진 : 제이내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 과수원이 있었다.
- 배양골 : 화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倍陽谷(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뱀골 : 덕하리 11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부엉이골 : 덕정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엉이가 있었다.
- 불땃골 : 미영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땃간(풀땃간)이 있었다.
- 불선골 : 예수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火立谷(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산싯(소)골 : 광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채봉골’이라고도 한다.
- 삼밭골 : 덕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麻田]이 있었다.
- 새뿔골 : 연대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새뿔이 있었다.
- 새악골 : 수지비논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앤질골 : 덕정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새앤질은 덕정 동남쪽에 있는 사잇길이다. 『조선지리지』에 間谷(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성깃골 : 개잡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聖之谷(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섯갓골 : 불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섯갓이 있다.
- 수문골[殊文谷] : 화정마을 북쪽, 양지편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을 통해 이웃한 문족리 수문마을로 오갔다.
- 수지논골 : 가문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있는 논들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수지비논골’이라고도 한다.
- 양반논골 : 높은덩이¹⁷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갈골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 양지편골 : 섯갓골 서쪽 양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연대뿔골 : 양반논골 서쪽의 연대뿔이 있는 골짜기로, 뿔에는 연꽃이 있다.
- 예수골 : 돈뿔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수(여우)가 많았다 한다.
- 작은갈곳골 : 덕하리 산120번지 동남쪽 일대와 덕하리 959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쟁이네골 : 관대사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뜻은 알 수 없다.
- 쪽박골 : 덕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쪽박 같은 뭇이 있었다.

178) 높은덩이는 ①화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②화정 북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 채봉골 : 새악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채봉[假葬]을 했다.
- 채초깃골 : 수문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풀이 많다.
- 첫골 : 배양골 남쪽에 있는 첫 번째 골짜기이다.
- 청두밭골 : 덕령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갓골 : 산짓(소)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갓[山]이 있다.
- 큰밭골 : 갈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로, 입구에서 중간지점까지 밭으로 되어 있다.
- 호랑이집땃골 : 채봉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많았다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德峴谷(德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嘘氣谷(德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고래뿔들 : 큰말¹⁷⁹⁾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1980년경 경지정리를 하면서 절반을 성수뿔들에 편입시켰다. 『조선지지자료』에 古來坪(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돌뿔들 : 덕정 북쪽에 돌로 된 돌보가 있는 들판이다.
 - 떡갓들 : 화정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뜨갓들(下亭洞)로 조사되어 있다.
 - 선보들 : 덕하리 839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개곡리의 ‘섬뿔들’(개곡리 150번지 일대)과 연결된다.
 - 성수뿔들 : 큰말 동쪽에 있는 성수보(成水泚)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심계(신개)뿔들 : 큰말 앞에 펼쳐진 들판으로, 화정 북쪽에 있는 심계보의 물을 댈다. 『조선지지자료』에 新開坪(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장싱백들 : 화정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장승이 있었다. 이 들판에 물을 대는 ‘장싱보’가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長承坪(下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지자료』에 魯店坪(德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지자료』에 乾中坪(德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동천리 (東川里)

정조 이전의 기록엔 양천리(梁川里)라 하다가 정조 때 양천(良川)이라 하였다. 1864년(고종 1)에는 양천과 양동(良東)으로 나누어져 내려왔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동동과 양천동을 병합하여 동천리라 하였다.

[골짜기]

- 광대골 : 양천마을 뒤, 산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광대가 살았다. 옷광대골과 아랫광대골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광딕골(良川洞)로 조사되어 있다.
- 까재골 : 진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까재(가재)가 많다.
- 대밭골 : 독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이 있었다. 동천리 805번지 일대로, 큰대밭골과 작은대밭골이 있다.

179) 큰말은 화정 서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 도독골 : 진밭골 어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독점골 : 성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독점이 있었다 한다. 동천리 809번지~819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 돌뺨잇골 : 까재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다.
- 동넙골 : 큰못안¹⁸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들렁골 : 진밭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모수골[馬首谷] : 큰못안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동천리의 양동에서 동쪽 온산을 대천못으로 간다. 동천리 187번지 일대이다. 이 골짜기 주위에 동래골, 분매골 등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馬首谷(良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문초골 : 양천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문씨들이 많이 살았다 한다. ‘문초과이’라고도 한다.¹⁸¹⁾ 이곳에는 동천리 공동묘지가 있으며, 문초골못이 있다.
- 물늘진골 : 양천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높이 3m가량 되는 작은 폭포가 있다.
- 사각산골 : 양천에서 서쪽으로 장사길 우측에 있는 골짜기로, 1983년 회야댐 축조 때 없어졌다.
- 산태골 :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태가 자주 났다 한다.
- 상박골 : 동천리 82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소매골 : 돌뺨잇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송골 : 동천리 산49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예수골 : 청도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수(여우)가 많았다 한다. 큰예수골과 작은예수골이 있다.
- 이천골 : 집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뼈든골 : 문고개로 통하는 입구의 왼쪽 골짜기로, 짱을 치고 놀던 곳이라 한다.
- 장재골 : 땃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자가 살았다. 큰골과 작은골이 있다.
- 적은못안골 : 양동 동남쪽에 있는 작은 못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절터골 : 동천리 831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정골 : 동천리 7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진밭골 : 모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긴 밭이 있었다. 양동 동쪽에서 온산을 거남과 목도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안에는 바른골, 복치골(대·소), 가재골, 미영밭골, 작은도독골, 들넘어골, 까치골 등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長田谷(良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집땃(티)골 : 산태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 철골 : 동해남부선 철로의 서편(좌측)에 남북으로 길게 접해 있는 골짜기로, 동천리 189-2번지 일대이다.
- 청도밭골 : 양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동천리 574번지 일대이다. 파란 콩을 재배하던 밭이 있었으며, ‘청두밭골’로도 불린다. 이곳에는 좁은 골짜기인 손골과 판재논골(판을 파는 판쟁이의 논이 있다), 높은당이가 있다.
- 큰골 : 하냇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180) 큰못안은 양동 동남쪽에 있는 큰 못이다. 양동(良東)은 양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천(良川)은 동천리에서 으름이 되는 마을이다.

181) 강길부, 〈전계서〉, 485쪽.

- 큰못안골 : 양동 동남쪽에 있는 큰 못인 양동골못 안쪽에 있는 골짜기로, 동천리 198번지 일대이다.
- 텃골 : 이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하낫골 : 소매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할만네밧골 : 참샘배알¹⁸²⁾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할머니 묘가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 함박골 : 성짓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함박처럼 생겼다.
- 허근집골 : 동천리 산35번지와 연결된 남쪽 골짜기로, 옛날에 허근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한다.

[들판]

- 뒤뻘들 : 양천마을 뒤에 있는 들판이다. 1983년경 회야댐 축조 때 수몰되었다. 『조선지리지』에 後坪(良川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못들 : 양동(良東)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동천리 423번지 일대이다. 큰못과 적은못의 물을 댈다.
- 붓들 : 양동 동남쪽 앞에 있는 들판으로, 양동 북쪽에 있는 양동보(良東洑)의 물을 댈다.
- 서들 : 못들과 붓들을 합쳐서 ‘서들’이라 한다. 이는 소들[所等]이 변한 말이다. ‘所’는 수리라는 말의 차자(借字)로서 岳·峯·嶺의 뜻을 가진다. ‘等’의 고음(古音)은 ‘들’로서 평야를 뜻하는 차자(借字)이다. 그러므로 ‘소들’은 ‘산들’이 된다.¹⁸³⁾ 소들[所等]은 온양읍 망양리 산양(山陽)마을의 옛 이름인데, 조선 영조 때까지는 청량면에 속하고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鋤坪(서들, 良東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성지마을앞들 : 양천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일명 ‘섬박들’이라고도 한다.
- 양천들 : 동천리 77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문죽리(文竹里)

1720년(숙종 46)경 문헌에 두현[斗峴; 두티]으로 나오며, 1894년(고종 31)에는 두현, 죽전(竹田), 수문(殊文)의 3개 마을로 나누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현동, 수문동, 죽전동을 병합하여 문죽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갈티골 : 두현마을에서 울산시 남구 옥동 갈티마을로 넘어가는 골짜기로, 작은갈티골(문죽리 228번지 일대)과 큰갈티골(문죽리 244번지 일대)이 있다.
- 감나무골 : 문죽리 1번지(수문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았다.
- 갓넘어골 : 문죽리 212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 강숫골 : 두티[斗峴]¹⁸⁴⁾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죽전과 두현의 경계지점으로, 문죽리 698번지 일대이다. 강수골못 좌우로 뻗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江樹谷(斗峴洞)·江水谷(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82) 참샘배알은 산태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찬물 샘이 있다.

183) 이유수, 『울산지명사』, 울산시·울산문화원, 1986, 414쪽.

184) 두티는 죽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밭[斗]처럼 생겼다 한다. 죽전(竹田)은 문죽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대밭이 있었다.

- 건는(너)골 : 죽전 동쪽 개울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越畚谷(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계중골 : 계중갯¹⁸⁵⁾에 있는 골짜기이다.
- 귀자미골 : 수문에 있는 골짜기이다.
- 기왓골 : 두현의 상보마을 앞에 있는 산의 골짜기로, 기와를 구웠다 한다. 일명 '제인골'이라고도 한다.
- 너머골 : 문죽리 502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당수나무골 : 수문 중말에 있는 골짜기로, 노겨수인 당수나무가 있다. 다전 서씨 문중재실이 있다.
- 도가리골 : 두현의 죽산 아래에 있던 골짜기로, 문수축구장 부지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 동녘골 : 죽전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남구 옥동 갈티마을과 인접해 있다. 큰동녘골과 작은 동녘골이 있다.
- 두티골 : 문죽리 산2-1번지와 문죽리 246번지~문죽리 871번지 일대이다. 울산장으로 오가는 길이며, 각종 해산물의 내륙지방으로의 유통로였다 한다.
- 못골 : 수문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못 2개가 있다. 울리 청송마을과 지통골로 연결되며 산등성이에 당고개가 있다.
- 묘광골 : 문죽리 96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문등골 : 수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벌렁골 : 강숫골 밑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벌통골'이라고도 한다. 길이가 1km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蜂桶谷(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범무골 : 죽전 큰말과 건너마을 중간에 있는 골짜기로, 과수원(배, 단감)이 밀집되어 있다.
- 범의골 : 두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살았다 하여 '범골'이라고도 한다. 범골못 위·아래에 있으며, 문죽리 932번지 일대이다.
- 부디밭골 : 수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땅골 : 도사암이라는 절이 있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佛堂谷(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빼이골 : 수문마을 아래봉천지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천지는 천수답을 말한다.
- 산숫(소)골(1) : 수문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싸숫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蛇首谷(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산숫(소)골(2) : 문죽리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로, 문죽리 262번지 일대이다.
- 새미골 : 수문 아랫마을 남쪽 배밭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샘이 있다.
- 샘골 : 두현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문죽리 1057번지 일대이다.
- 수문골 : '문죽로' 변에 있는 골짜기로, 문죽리 57-1번지 남쪽 일대와 문죽리 25번지 일대이다.
- 수지밭골 : 죽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지(수수)밭이 있다. 문죽리 209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林田谷(斗峴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숲고개골 :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의 문수IC 내에 있는 골짜기로, IC 부지에 편입되어 형상이 사라졌다. 문죽리 1165번지 일대이다.
- 시부전골 : 수문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185) 계중갯은 수문 서쪽에 있는 산으로, 계(契)를 모아서 산을 샅다 한다. '기(지)중갯'이라고도 한다. 수문(殊文)은 두티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아래논골 : 수문 아래 3,000여 평의 논이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지자료』에 下越谷(아랫논골, 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안골새 : 수문에 있는 골짜기이다.
 - 연네밭골 : 수문 북쪽, 숲고개와 불당골 사이에 고개를 넘는 길이 나 있는 골짜기로, 밭이 많다. ‘연지밭골’이라고도 한다.
 - 옥티골 : 옥티[玉峴, 玉峙]¹⁸⁶⁾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용왕골 : 옥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처럼 생겼다 한다. 문죽리 931번지~문죽리 950-4번지 일대이다.
 - 재엿골 : 두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기와를 구웠다 한다. 큰 재엿골과 작은 재엿골이 있다. 이곳에 재엿골보가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瓦谷(斗峴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중산골 : 수문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승려[僧]를 화장하던 곳이라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僧山谷(중산골, 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지시밭골 : 수문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배나무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 집골짜 : 집이 깊숙한 곳에 있어 불린 이름으로, 과수원과 작은 못 등이 있다.
 - 집너맷골 : 두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문죽리 869번지 일대이다.
 - 집뒷골짜 : 수문 아랫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채봉골 : 수문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큰골짜 : 수문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안쪽에 작은골, 남쪽골, 가막찌골 등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大谷(殊文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파산밭골 : 두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팔밭[火田]을 했다 한다. ‘팔간밭골’이라고도 한다.
 - 풋등골 : 수문저수지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웃풋등골’이 있다.
 - 흙골 : 수문에 있는 골짜기로, 흙을 댔다 한다.
- 『조선지지자료』에 山田谷(산박골, 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지자료』에 가분지곡(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지자료』에 冶谷(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지자료』에 新基谷(새터골, 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지자료』에 進仙谷(殊文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건너들 : 두티마을의 건너골 입구에 있는 들판으로, 문죽리 333-2번지 일대이다.
- 고랫들 : 죽전 앞에 있는 들판이다. 이곳에는 고랫보가 있다.
- 과남정들 : 두티[斗峴]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이 들판에 괴나무 정자가 있었다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關巖亭坪(斗峴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둔들[屯菴] : 죽전 남쪽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둔답(屯菴; 屯田)이 있었다 한다.
- 둔디밭들 : 죽전마을의 둔들 뒤에 있는 들판으로, ‘등대밭들’, ‘등대보들’로도 불린다. 개곡리 진곡마을과 경계지점으로, 문죽리 87번지~102-3번지 일대이다.
- 반승진들 : 죽전마을 북쪽의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는 들판으로, 문죽리 284번지 일

186) 옥티는 두티 북쪽에서 남구 옥동으로 가는 고개이다.

대이다. 예전에는 물레방아가 있었다.

- 버던들 : 두티 남쪽 버덩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柳坪(竹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섬들(1) : 두티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양쪽으로 물이 흘러 지형이 섬처럼 되었다. 두현저수지 동쪽에 있으며, 문죽리 1047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섬들보[島坪淤]가 있다.
 - 섬들(2) : 죽전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문죽리 131번지 일대이다.
 - 죽전들 : 문죽리 177-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집앞들(1) : 두티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문죽리 1000번지 일대이다.
 - 집앞들(2) : 죽전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문죽리 446번지 일대이다. 농업용수가 좋은 약 10만 평의 넓은 들판이다.
 - 큰자릿들 : 두티마을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문죽리 826번지 일대이다.
- 『조선지리지』에 仙南亭野(殊文洞)로 조사되어 있다.

• 삼정리 (三政里)

1720년(숙종 46)경에는 정자리(亭子里)라 하였고 정조 때 상정리(上亭里), 하정리(下亭里)로 나누어졌다. 1810년(순조 10)에는 상정자리, 하정자리라 하였으며 1864년(고종 1)에는 반정리(盤亭里), 상정리, 하정리가 되었다. 1911년에는 반정, 상정, 하정 외에 신정(新亭)으로 나누어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하정리는 덕하리에 편입되고 상정동과 신정동, 반정동의 세 마을을 합하였으므로 삼정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갓골짜[茄谷] : 반정마을 동북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지형이 연뿌리처럼 생겼다.
- 건논골 : 누루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건논골못이 있다.
- 고란숫골 : 망화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매펀골, 짜구나무골(위·아래), 철농개골 등이 있으며, ‘고랑숫골’로도 불린다.
- 고랑소골 : 반정마을 동쪽 산 너머에 있는 상정마을 고란숫골의 안 골짜기로, 누에가 뽕잎 먹으러 나무에 올라가는 형국이다.
- 관수골 : 관수골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삼정리 산126-2번지 일대이다.
- 냉골 : 상정(上亭)¹⁸⁷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웃냉골과 아랫냉골이 있다.
- 노방골 : 작은못골의 서쪽, 노방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정리 585-1번지 일대로, 노방골못 북쪽에 있다. 이곳에는 누분숙골, 참나무골(위·아래), 띠밭등골 등과 노방골못이 있다.
- 누루골[訥里谷] : 상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누루골못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訥里谷(新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누운소골 : 삼정리 산108-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다래골 : 냉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독장골 : 상정에 있는 골짜기로, 독[瓮기(甕器)]을 만들었던 곳이다. 다른 얘기로는, ‘옛날 한 농

187) 상정은 정지방 위쪽에 있는 마을로, ‘위정지방’이라고도 한다. 정지방은 삼정리와 문죽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부가 이 골짜기에서 벼 추수를 하는데 대나무집게로 하루에 벼 두 섬을 훑어서 지게에 지고 단숨에 큰 고개를 넘어 자기 집까지 왔다' 해서 독장골[毒將谷]로 불린다고도 한다.

- 동녘골 : 상정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뒷골 : 상정 뒤(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조선시대 백자 등을 구웠다.
- 들골 : 상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들밑뒷골, 들반수골'로도 불린다. 삼정리 595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들골(新亭洞)로 조사되어 있다.
- 망화갯골 : 상정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명장골 : 상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채봉을 했다 하는데,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¹⁸⁸⁾
- 문동골 : 누루골과 마주 보고 있는 골짜기로, 윗문동골과 작은문동골이 있다.
- 미내논골 : 노방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미영밭골 : 고란숫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미영(목화)밭이 있었다.
- 배나뭇골 : 건논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 '배골'로도 불린다. 삼정리 340번지 일대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 빼아골 : 아래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탑골뭇 위 왼쪽 골짜기로, 옛날 힘센 한 농부가 이 골짜기에서 빼아프게 일만 하다가 병을 얻어 죽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부네논골 : 반정 북쪽, 울현(栗峴)과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부씨(夫氏)가 살았다 한다.
- 불맷골 : 삼정리의 탑상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기장골 : 안뭇¹⁸⁹⁾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기점이 있었다 한다. 삼정리 산193-1번지, 산193-2번지와 132번지, 471번지 일대로, 조선시대 백자 등을 구웠던 곳이다. 이곳에는 배나무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店谷(新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삼정골 : 삼정리 62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새릿골 : 상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정리 543-1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새릿골뭇과 새릿골 안뭇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沙里谷(新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생(이)골 : 수문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생이집(상여집)이 있다.
- 쇠소금골 : 반정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쇠를 다루던 곳이었던 한다. 이곳에는 작은 못이 있다.
- 수네터골 : 반정 남쪽 정면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 쌍용하나빌리지아파트 2단지에서 들반석으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쇠부리터와 정자나무(盤松)가 있었으나, 지금은 못이 되어 있다.
- 수문골[殊文谷] : 배나뭇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수문골뭇이 있다. 또, 첫골짜, 아제네미골 등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藪茂谷(新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순내골 : 순내골소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정리 640-1번지 일대이다.
- 숫돌골 : 숫돌골뭇 좌우에 있는 골짜기로, 삼정리 561-2번지 일대이다.
- 안골 : 빼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야숫골 : 생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야수(여우)가 많았다 한다. 위야수골과 아래야수골이 있다.
- 연소등골[燕巢巖谷] : 누루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제비집 형국이라 한다.

188) 강길부, <전계서>, 492쪽.

189) 안뭇은 건논골뭇 안쪽에 있는 못이다.

- 영장골 : 상정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오장진오골 : 삼정리의 삼정 뒷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형이 까마귀의 머리처럼 생겼다 한다. 190) '오장치농골'로도 부른다.
- 우신덕골 : 반정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우씨(禹氏)가 살았다.
- 작은못골 : 작은못¹⁹¹⁾ 위,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삼정리 565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찌꺼이골, 옷짜구나무골, 아릿짜구나무골 등이 있다.
- 전골 : 반정마을 남쪽 끝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1970년대 조성한 반정목장과 형제복지원이 있었던 곳이나 지금은 폐쇄되어 휴경지로 남아 있다.
- 조개골 : 상정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픈골 : 누루골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 초당골 : 새릿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초당(草堂)이 있었다 한다.
- 탑골 : 안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탑이 있었다 한다. 이곳에 대곡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탑골못 서쪽에 있으며, 삼정리 362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榻谷(上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파밭골 : 초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평바우골 : 반송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었다.
- 포석골 : 반정 남서쪽 끝에 있는 골짜기로, 웅촌면과 경계에 있다. 7호국도가 지나며, 6·25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에 군경초소가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 한개골 : 반정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개구리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한다. 『조선지리지』에 聖人谷(新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식시골(新亭洞)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86
- 내리방뿔들 : 큰보 동쪽 내리막길에 있는 내리방보에 딸린 들판이다.
 - 돌들 : 탑골못 동편의 하천 건너에 있는 들판으로, 삼정리 260-4번지 일대이다.
 - 들골보받이들 : 들골에 있는 들골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못밑뿔들 : 누루골못 밑에 있는 못밑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반정들 : 반정저수지 밑에 있는 들판으로, 삼정리 669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盤亭坪(新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버드나무지 : 상정마을 아래 상정천가에 있는 들판으로, 버드나무가 많았다.
 - 새보받이들 : 상정 앞에 있는 새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큰보받이들 : 들골보 동쪽에 있는 큰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에 知介員坪(上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芝溪坪(新亭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190) 강길부, <전계서>, 494쪽.

191) 작은못은 조개골못 서쪽에 있다. 조개골못은 새못 북쪽에 있다. 새못은 상정 서북쪽에 새로 된 못이다.

• 상남리(上南里)

1720년(숙종 46)경에는 석남(昔南), 상창(上倉), 하창(下倉)의 세 마을로 되어 있었고 1765년(영조 41)에는 석남(石南), 상창, 하창, 송전(松田)의 네 마을로, 1864년(고종 1)에는 상남(上南), 석남, 송전, 하창으로, 1894년(고종 31)에는 상남과 송전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들을 병합하여 상남리라 하였다.

[골짜기]

- 기장원님무덤골 : 대천산에 있는 골짜기로, 기장 원(機張員)을 지낸 사람의 묘가 있다. 이 골짜기 옆에는 류 진사(柳進士)의 묘가 있는 '류진사묘지골'도 있다.
 - 대밭골 : 대천못[大川池]¹⁹²⁾ 밑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이 있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竹田谷(上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들못안골 : 상남리 1135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로, 바깥에 있는 못안골에서 들어왔은 골짜기란 뜻이다.
 - 못안골 : 상남리 1110-4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배맨골 : 화창 안산마을 앞에 있는 높이 있고 깊은 골짜기로, 바다에서 외항강 상류로 오는 도중에 배를 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성깃골 : 신덕하(新德下)¹⁹³⁾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동쪽에 덕하역이 있다.
 - 소장골 : 대천산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소먹이는 풀이 무성했다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牛場谷(上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숫굴새 : 성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애수골 : 대천산에 있는 깊고 험한 골짜기로, 애수(여우)가 살았다 한다. 큰애수골과 작은애수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狐谷(야시곡, 上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장치골 : 대천산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나뭇꾼들이 짱치기하는 곳이었다 한다.
 - 짱빤티골 : 대천산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초동들이 짱치기하고 놀던 곳이라 한다.
 - 지계골 : 대천산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지계처럼 생겼다.
 - 지네등골 : 애수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지네가 많았다 한다.
 - 진박골 : 대천산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산등성이에 진달래꽃이 많이 피었다 한다.
 - 호박골 : 대천산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호박잎처럼 생겼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石谷(上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梅溪谷(上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佛堂谷(上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깨밭들 : 화창마을 앞 둔덕에 있는 들판으로, 참깨 밭이 있었다.
- 대천못밭들 : 성남(城南)¹⁹⁴⁾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192) 대천못은 성남[昔南] 남쪽에 있는 못이다.

193) 신덕하는 송전 북쪽에 있는 마을로, 1940년경에 덕하리에 있던 청량면 사무소를 이곳으로 옮기고 새로 마을을 이룬 것이다. 송전(松田)은 상남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소나무가 울창했다 한다.

194) 성남은 송전 남쪽에 있는 마을로, '석남(昔南)'이라고도 한다.

- 뒷들 : 화창(華倉, 下倉)¹⁹⁵ 뒤에 있는 들판으로, 농경지 면적은 약 20만 평 된다. 마을사람들은 ‘뒷계들’이라고도 한다.
 - 뒷계들 : 신덕하마을이 생기기 전에 화창, 송전, 성남마을 사람들이 부르던 들판으로, 요즘의 신덕하마을 사람들은 ‘앞들’로 부르고 있다.
 - 붓개(개) : 마채강 하류에 있는 들판으로, 보(洑)가 있었다.
 - 분개(개)[分浦] : 외항강 하류에 있는 들판으로, 마채강과 갈라지는 들판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섬밭들 : 화창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가운데에 있는 밭이 섬처럼 생겼다.
 - 성남못밑들 : 성남못[昔南池]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송전들[松田坪] : 송전에 있는 들판이다.
 - 정자밑들 : 옛날에 마을제당 옆에 큰 갯버드나무 두 그루가 있어 이름 붙여진 들판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 큰들 : 화창 앞에 있는 큰 들판이다.
 - 흙들 : 화창과 성남에 걸쳐있는 들판으로, 흙을 설치하여 대천못의 물을 받는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洪骨坪(上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馬鞭坪(마채들, 上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용암리 [龍巖里, 용바우, 용암]

본래 울산(울주)군의 지역으로서 용바우가 있으므로 용바우 또는 용암이라 하였다. 1720년(숙종 46) 청량면에 속하여 신리(新里)와 구족리(狗足里)로 나누어져 있었다. 1810년(순조 10)에는 신리, 구족리, 오대리(鰲大里)로, 1864년(고종 1)에는 신촌(新村), 오대(吾大), 오천(吾川)의 세 마을이 되었다. 1911년에는 용암(龍巖), 오천, 오대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오대동과 오천동을 병합하여 용암리라 하였다. 용암(龍巖)이라 함은 대천못[大川堤]의 용이 여기에서 승천하였다는 설과 처용암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을이므로 용암이라 하였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1973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7818호에 의하여 온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 1월 1일 다시 넘겨받아 청량면 관할이 되었다.

[골짜기]

- 갈재골 : 오천에 있는 골짜기로, 목도장으로 가기 위해 땅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다.
- 감나뭇골 : 오천(吾川, 烏川)¹⁹⁶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았다.
- 다리골 : 배리비탈¹⁹⁷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다라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이곳에는 다라골뭇이 있다.
- 다리밑골 : 용암리 337-2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들뺨기골 : 오대(吾大, 烏大)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탕골 : 강선산에서 오천 음달마을로 내려오는 골짜기이다.

195) 화창은 송전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창고가 있었다 한다.

196) 오천은 오디 동남쪽 냇가에 있는 마을이다. 오디[吾大, 烏大]는 용암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지형이 군오도강형(群烏渡江形; 까마귀 떼가 강을 건너는 모양)이다.

197) 배리비탈은 새터 남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벼루처럼 생겼다 한다. 새터[新村]는 용암 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 백장골 : 오천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가 길어서 백 마장(馬丈)이나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백장골(龍岩洞)로 조사되어 있다.
- 봉산골 : 용암리 80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봉웃골 : 새탑에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봉우산¹⁹⁸⁾ 밑이 된다.
- 불땅골 : 용암리 169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불당(佛堂)이 있었다.
- 새골 : 용암리 475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밧골 : 오대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었다.
- 새탑에골 : 봉웃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양달에골 : 새터 동쪽 양달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예수골 : 오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살았다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狐谷(龍岩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오디끝골 : 오천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오대 끝이 된다.
- 월화골 : 신촌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길이가 4km정도이다. 골짜기 맨 위에 약수터가 있다.
- 이빨골 : 오천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다리골 : 용암리 775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골 : 새터 서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장곡(長谷)’이라고도 한다. 용암리 824번지 일대이다. 『조선지지자료』에 長嶺谷(龍岩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진밭골[陳田谷] : 대천산 자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지자료』에 陳田谷(목밭골, 龍岩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집님골 : 오천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 : 오대 뒤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피밭골 : 신촌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있는 논에 피가 많다고 한다.
- 황새골 : 신촌에 있는 골짜기로, 황새가 많이 모여든다고 한다.

[들판]

- 벼루비탈들 : 신촌마을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모양이 벼루같이 생겼다.
- 보밀들 : 용암천과 갯벌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대마을 큰골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간척지 들판이다.
- 사안들 : 세인고등학교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용암리 189번지 일대이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의 북서쪽 끄트머리 도로에 편입되어 형상은 사라졌다. 『조선지지자료』에 四還坪(龍岩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산은들 : 강선산 북쪽과 용암천 사이에 있는 오천마을 제1의 들판으로, 면적이 15,000여 평이나 된다.
- 상야들[上野坪] : 오천 위에 있는 들판이다. ‘윗들’, ‘윗벌들’을 뜻하는 이름이다.
- 작은음터들 : 신촌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용암리 661-1번지 일대이다. 큰음터들과 동북쪽으로 연이어져 있다.
- 앞들 : 오천마을 양달 앞과 용암천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마채강까지 이어져 있다.

198) 봉우산은 <학남리>의 ‘봉우재’ 참조.

- 큰들 : 오대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큰율터들 : 옛 청량초등학교 용암분교(폐교)가 있었던 신촌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용암리 673번지 일대이다. 남쪽으로 '온산로'와 접하고 있다.
- 해당들 : 오천마을 제당에서 바다 쪽으로 펼쳐진 들판이다.

• 율리 [栗里, 밤티, 율현]

밤티의 고개 밑이 되므로 밤티 또는 율현(栗峴)이라 하였다. 1720년(숙종 46)에는 영축(永丑)이라 하였다가 정조 때는 영축과 율현으로, 1810년(순조 10)과 1894년(고종 31)에는 영축, 내율(內栗), 외율(外栗)로 갈라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외율동, 내율동, 영축동을 병합하여 율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죽골 : 율현 음달마을 동쪽 산(가죽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가죽나무가 많았다.
- 갓골 : 율리 산115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갓골짜 : 지통곡(紙桶谷)¹⁹⁹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깨밭골 : 초당골(1)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문수초등학교가 있는 곳의 일대이다.
- 고동농골 : 율현 음달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고래골 : 안말(안마을)²⁰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공기농골 : 율리 산192번지와 율리 580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공씨(孔氏)가 살았다 한다.
- 곱(짚)다리골 : 지통곡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굿밭골 : 너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궁골 : 율리 653-2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남암절댓골 : 김선대와 마주보고 있는 골짜기로, 남암사(南庵寺)라는 절이 있었다.
- 너덜골 : 밤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너덜(너덜경; 돌이 많이 흩어져 덮인 비탈)이 있었다.
- 누루골 : 율현 음달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삼정리 상정마을로 넘어간다. 율리 산180번지와 산 185번지 사이에 있다.
- 단달래골 : 율현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나무가 많았다. 율리 산249-1번지 일대이다. 아래에 단다래골들이 있다.
- 당수골 : 율현 음달마을에 당수나무가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샘이 있다.
- 돈태구덩이골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돈치기를 했다 한다.
- 들목골 : 부뫼등²⁰¹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등치골 : 율현 음달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율리 515번지 일대이다. 등나무가 많았다 한다.
- 덧골 : 영해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망산골 : 밤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남암산 중턱에 마당지가 있어 정월 보름날 풍년을 기원하며 달맞이를 하는 곳이다.

199) 지통곡은 망해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통이 있었다.

200) 안말은 영해 동쪽 안에 있는 마을이다.

201) 부뫼등은 짚디미기 서쪽에 있는 등성으로, 부도(浮屠)가 있었다. 짚디미기는 구발산면디미 서쪽에 있는 버덩으로, 잔디가 많았다. 구발산면디미는 탑안면디미 동쪽에 있는 산이다. 탑안면디미는 탑안골 위에 있는 산이다.

- 못골 : 영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다.
- 묵밭골 : 못골 북쪽, 안영축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묵밭이 있었다 한다. 울리 1005번지 일대이다.
- 물방아골 : 울리 산35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사외들(청송사 밖에 있는 들판)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물레방아가 있었다.
- 물탕골 : 청송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水舂谷(內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미영밭골 : 청송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반장골 : 북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996번지 일대이다.
- 뱀골 : 망해저수지 밑(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290번지 일대이다.
- 범우골 : 안영축에서 문수암으로 올라가는 길의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산86번지 일대이다. ‘정지밭’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狐谷(內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복해골 : 청송(靑松)²⁰²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봉천지골 : 아랫말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877-2번지 일대이다.
- 뿔나뭇골 : 청송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부도골 : 청송사지 부도가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부도골못이 있다.
- 불당골 : 망해곡²⁰³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佛堂)이 있었다.
- 불밭골 : 울리 1001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로, 반장골 동쪽에 있다.
- 불성(션)골(1) : 텃구비알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영축사 승려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전한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많았다.
- 불성(션)골(2) : 울현 양달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 불송골 : 청송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밧골 : 참새밧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286번지 일대이다.
- 새부도골 : 청송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질내기골 : 밤티와 지통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새 길이나 있다.
- 서당골 : 울현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양달서당골과 음달서당골이 있다.
- 서부골 : 울리 512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성깃골 : 영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소맏(뫓)골 : 불(뫓)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산923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소미곡(靈鷲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송이골 : 청송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쇠기웅덩이골 : 울리 산116-1/2번지 동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수문안밧골 : 진등²⁰⁴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산85번지 북쪽 일대이다.
- 숨은아홉미골 : 안영축과 청송 절골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산118-2번지 일대이다. 작은 능선이 아홉 개나 되어 가까이 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 시북골 : 울현 음달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545번지 일대이다.
- 안골짜 : 청송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애수골 : 청송에 있는 골짜기이다.

202) 청송은 지통곡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203) 망해곡은 망해에서 영축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망해고개’라고도 한다.

204) 진등은 못골 서쪽에 있는 긴 등성이이다.

- 약패배기골 : 울리 116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영축골 : 영축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일이갑골 : 안영축의 참새밧골 밑에 있는 두 개의 골짜기로, 울리 산80-1번지 일대이다.
 - 절랫골 : 질암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 절랫금골 : 망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망해사(望海寺)가 있었다.
 - 정재골 : 바깥영축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정지골’이라고도 한다.
 - 지푼골 : 울현 양달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산208번지 일대이다. 길고 깊은 골짜기라 한다.
 - 지통골 : 울리 산127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질암태골 : 배내등²⁰⁵⁾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참새밧골 : 소맷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찬 샘이 있다. 안영축에서 문수암으로 올라가는 길의 오른쪽으로, 울리 산337번지 일대이다.
 - 초당골(1) : 밭터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초당골(2) : 영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산30번지 동남쪽 일대이다.
 - 충청골 : 문수암 남쪽에 있는 칠기점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1) : 청송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큰골(2) : 나발등²⁰⁶⁾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안영축저수지 북쪽에 있으며, 울리 920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큰골보가 있다.
 - 탑걸골 : 고래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산39번지 북쪽 일대이다. 지금의 망해사 앞쪽이다.
 - 탑안골 : 망해사 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222번지 일대이다.
 - 청송골 : 울리 산86번지 동쪽 일대와 울리 산87번지 북쪽 일대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할미골 : 영해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유래는 알 수 없다. 바깥영축 갈바골과 청송마을 지통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울리 산156번지 일대이다.
 - 호산골 : 청송사지 부도가 있는 골짜기로, 울리 1190번지 일대이다.
 - 흙골 : 울리 산13-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조선지지자료』에 周介谷(外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개구리들 : 울리 11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고동들 : 울리 420-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조선지지자료』에 古同坪(外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곰복새들 : 울리 450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뜰부기가 많이 서식했다 한다. ‘곰복새들’이라고도 한다.
- 더런치기들 : 지통골과 깨밭골 사이에 있는 들판과 문수초등학교 옆 사외들에서 절골로 가는 중간에 있는 들판으로, 덜렁 들어 얹힌 것 같다 하여 불린 지명이다.
- 돌틈보들 : 중보(中湫)²⁰⁷⁾ 서쪽에 있는 돌틈보의 물을 대는 들판으로, 돌틈보에는 돌이 많다.
- 동미들 :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문수IC에 편입된 들판으로, 형상은 사라졌다. 옛 지명은 울리 377번지 일대이다.

205) 배내등은 까마구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로, ‘배내등’이라고도 한다. 까마구등은 들목골 서쪽에 있는 등성이다.

206) 나발등은 진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로, 지형이 나발처럼 생겼다.

207) 중보는 상보(上湫) 밑에 있는 보(湫)이다.

- 덧골들 : 영해(靈海)²⁰⁸ 뒤에 있는 골짜기인 덧골에 있는 들판이다.
- 마햇들 : 망해 앞에 있는 들판으로, '망햇들[望海坪]'이라고도 한다. 울리 177번지 일대이다.
- 배남징이들 : 영해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배나무가 있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梨木亭坪(靈鷲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사외들[寺外坪] : 안청송에서 가장 큰 들판으로, 청송사 밖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울리 103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四外野(內栗洞)로 조사되어 있다.
- 상구담들 : 울현마을 입구 좌측 거랑(하천) 가에 있는 들판으로, 울리 708-5번지 일대이다. 국도 7호선(웅촌로) 동쪽 편에 접해 있다.
- 안망해들 : 울리 133-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영햇들 : 영해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음달들 : 밤티 음달마을에 있는 들판이다.
- 지통들 : 문수초등학교에서 국도7호선(웅촌로) 동쪽으로 분기(分岐)되는 '문죽로'변 일대에 있는 들판으로, 울리 346-6번지 일대이다.
- 큰골들 : 큰골(1)의 담안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안청송에서 두 번째로 큰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鴈陣坪(內栗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중리(中里)

『경상도속찬지리지』(1469)에는 양천리(良川里)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조 때엔 월천(越川), 중리, 신전(新田)으로 나누어졌고, 1894년(고종 31)에는 청량면의 중리와 웅하면(熊下面, 지금의 熊村面)의 신리(新里)로 나누어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웅촌면의 신리동을 편입하여 중리라 하였다. 중리, 신전, 신리 등의 세 행정마을이 있었으나 회야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어 없어짐에 따라 동천리(양천마을)에 편입되고 법정마을명만 남아있다.

[골짜기]

- 갈곡[葛谷, 갈골] : 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공개골 : 서번덕²⁰⁹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여름에 소낙비가 내린 후 동남쪽에 무지개가 섰다 한다.
- 구박골 : 안동짓골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덕골 : 신리²¹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덕골(중리 1136번지 일대)과 작은덕골(중리 755-2번지 일대)이 있으며, 작은덕골못이 있다.
- 덧골 : 중리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딸밭골 : 원중리에 있는 골짜기로, 산딸기가 많았다.
- 물반어물골 : 신리마을 화장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방앗골 : 월천 남쪽, 삼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방아가 있었다 한다.
- 미영밭골 : 중리마을에서 덕하 화정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골짜기로, 미영밭(목화밭)이 있었다.
- 밀밭골 : 중리 산133번지 남쪽과 산134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208) 영해는 망해와 영축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망해(望海)는 영축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영축(靈鷲)은 밤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209) 서번덕은 원중리 남쪽에 있는 버덩이다. 원중리는 중리의 원 마을이다.

210) 신리는 원중리 서남쪽에 새로 된 마을로, '새터'라고도 한다.

- 배나뭇골 : 신리마을 화장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많았다.
- 배미실골 : 쪽밭골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북골 : 신리마을 화장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북송나뭇골 : 지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북송나무가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桃樹谷(북성 나무골, 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불땃골 : 삼밭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송골 : 신리마을 화장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기점골 : 신리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기점이 있었다 한다.
- 사랑골 : 신리마을 화장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이골 : 중리 산186-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삼밭골(1) : 안악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큰삼밭골과 작은삼밭골이 있다.
- 삼밭골(2) : 황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중리 494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山幕谷(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소기정골 : 신리마을 화장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송기정골 : 신리마을 화장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손골 : 지계골 동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로, 넓은 잔디밭이 있다. ‘세골[細谷]’이라고도 한다.
- 순동골 : 월촌못 밑 우측에 있는 골짜기로, 중리 722번지 일대이다.
- 안동깃골[安同知谷] : 신전²¹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동지(同知) 벼슬을 지낸 안씨(安氏) 묘가 있다.
- 안악골 : 월천(越川)²¹²⁾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예수골 : 한박등²¹³⁾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많았다 한다.
- 옥답논골 : 덕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토질이 좋고 물이 풍부했다 한다.
- 용기점골 : 중리 산126-2번지 남쪽과 산128-1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월정골 : 중리 688-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月川谷(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작은골 : 신리마을 화장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재궁골[齋宮谷] : 질매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방아골 위에 있다. 이곳에는 학성 이씨(鶴城李氏) 재궁이 있다.
- 점골[店谷] : 원중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기점이 있었다.
- 지계골 : 원중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중리 483번지 일대이다. 지계골못 서쪽에 있다. 지계 만드는 나무가 많아서 불린 지명이다.
- 질매재골 : 질매질²¹⁴⁾이 있는 골짜기로, 중리 691번지 일대이다.
- 쪽밭골 : 원중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채공골 : 월촌못 밑 좌측에 있는 골짜기로, 중리 715번지 일대이다.
- 초당골 : 원중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초당골과 작은초당골이 있다. 『조선지리지』에 草堂谷(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211) 신전은 새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212) 월천은 원중리 서남쪽 내[川]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213) 한박등은 진등 북서쪽에 있는 등성이다. 진등은 원중리 북쪽에 있는 긴 등성이다.

214) 질매질은 월천 남쪽에 있는 길로, 지형이 질매(길마)처럼 생겼다.

- 큰골 : 신리마을 화장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킨골(中里洞)로 조사되어 있다.
- 큰독골 : 울리 1136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티전골 : 원중리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깊고 은폐된 곳으로 티전(도박의 일종)을 많이 하였다 한다.
- 팔발골 : 신리마을 화장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함박골 : 황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함박처럼 생겼다.
- 해빈골 : 원중리에 있는 골짜기로, 정상에서 보면 동해바다가 보인다고 하여 불린 지명이다.
- 황새골 : 원중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들판]

- 동네들 : 원중리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배미실들 : 쪽밭골 남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새밭들 : 큰밭들 동쪽, 원중리마을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新沓坪(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서가들 : 신리 동쪽, 새터 옆에 있는 들판이다. 서가(徐哥)들의 들판이었다 한다.
- 왓샛들 : 새밭들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조개밭들 : 큰밭들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曹加坪(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집앞들 : 신전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큰밭들 : 신리와 신전 사이에 회야강을 가로막아 만든 큰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팬수밭들 : 신리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팬수보는 편수(대장장이의 방언)가 보(沓)를 막았다고 한다.
- 하가터들 : 신전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하씨들이 많이 살았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鶴野坪(中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원구
고갯사기와
드관

6. 두동면

斗東面



구미리 대정들



구미리 미친골



구미리 안골



만화리 지내들



만화리 장쟁이들



만화리 두터골



만화리 정진애골



봉계리 사짚들



봉계리 웅굴보들



봉계리 방망골



봉계리 안장백이골



월평리 갯분들



월평리 낙골



월평리 삼다리골



은편리 담뽀들



은편리 산두들



이전리 새도래이들



이전리 피논들



천전리 건너장칭이들



천전리 보안골

6. 두동면 (斗東面, 63.49km²)

두동면 지역은 신라 사로6촌의 하나인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의 땅이었다고 한다. 신라 제3대 유리이사금 때 6부의 이름을 고쳤는데, 이때 두동·두서면 지역은 고허촌을 사랑부(沙梁部)라 하였고, 두동면은 신라 왕도의 사랑부에 속한 땅이었다. 신라 때의 이름인 마등오(麻等烏; 마들오)라는 이름도 이 지역에 속한 땅으로 보고 있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사랑부를 남산부(南山部)라 하였고, 구량벌(仇良伐)과 마등오, 도북(道北), 회덕(廻德) 등 남촌(南村)은 이에 속하였다. 이로 보아 두서면 구량리의 구량벌과 두동면의 이전(泥田), 만화(萬和), 은편(銀片)의 마등오는 신라 때부터 불려오던 이름으로 추측된다. 고려 현종 때 현양현(獻陽縣)에 이속되었다가 조선 태종 때 경주로 다시 돌아갔다. 경주로 가면서 남면에 속했다가 조선말에 이르러 내남면과 외남면으로 갈라지면서 외남면이 되었다.²¹⁵⁾

1906년(광무 10) 칙령 제49호에 의거 경주군 외남면이 울산군에 편입되어 두북면(斗北面)으로 고쳐 월산(月山), 상묵정(上墨正), 하묵정(下墨正), 밀구미(密九味), 비자현(飛自峴), 음변(陰邊), 내와(內瓦), 전천(箭川), 사음동(舍音洞), 삼정동(三政洞), 내포(乃浦), 대곡(大谷), 내전(奈前), 중리(中里), 차동(次洞), 소야(所也) 등 16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국도35호선(지금의 '반구대로')을 기준하여 동쪽은 두동면(斗東面)으로, 서쪽은 두서면(斗西面)으로 분면(分面)하였다. 이때 두동면은 밀구미, 삼정, 신정(新亭), 봉계(鳳溪), 월평(月坪), 음변, 이진, 전천 등의 8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당시 범서면의 임동(林洞), 비조(飛鳥), 은편의 3개 동리와 언양군 중북면의 반곡리(盤谷里)와 경주 내남면의 하명리(下命里)와 고사리(古舍里)의 각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대곡리 전역과 천전리의 일부를 언양면에 이속하였다. 2002년 1월 12일 관할구역 조정에 의해 구미(九味), 만화, 봉계, 삼정, 월평, 이진, 천전(川前)의 8개리의 법정마을을 관할한다. 동쪽은 지금의 경주시 외동읍, 서쪽은 두서면, 남쪽은 언양읍과 범서읍, 북쪽은 경주시 내남면과 접하고 있다.

• 구미리 [九味里, 밀구미]

본래 경주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밀구미(密仇味)라 하다가 변하여 구미(九味)라 하였는데,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리(中里), 주원(周院), 당산(堂山)을 병합하여 구미리라 하였다. 경주군 남면 때는 밀구미동(密仇味洞)이라고 했는데, 이는 대밀(大密)과 구미(仇味)를 합한 이름으로 보아진다.

[골짜기]

- 갓골 : 외막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고래골 : 대밀 서쪽에서 봉계로 가는 길의 북쪽으로 펼쳐진 골짜기이다. 고래논은 물이 많아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을 말한다.

215) 『울주군지』(하, 2002), 울주군지편찬위원회, 1089쪽.

- 피(깨)밭골 : 성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나뭇골 : 무덤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너마지깃골 : 쇠갓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네 마지기의 논이 있다.
- 도둑골(1) : 주원마을에서 봉계로 넘어가는 큰 골짜기를 말한다. 이 골짜기는 깊어서 도둑이 들
끓었다고 한다.
- 도둑골(2) : 구미리 290번지 일대로 박시리골과 연결되어 있는 골짜기이다.
- 두류동골 : 두류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미리 486번지 일원이다.
- 덧골 : 중리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덧골못’ 서쪽의 구미리 909번지 일대이다.
- 덧방골 : 막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後方谷(九昧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막골 : 서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멍데골 : 도둑골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간 골짜기이다.
- 모개나뭇골 : 허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개(과)나무가 있었다 한다.
- 무논골 : 당산못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미리 28-2번지 일대이다.
- 무덤골 : 큰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무덤이 많아서 불린 지명이다. ‘무동골’이라고도 불린다.
병천이못 남쪽, 즉 구미리 886번지 일대이다.
- 물탕골 : 재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탕이 있었다.
- 미골 : 구미리 81번지 일대로, 미친골과 연이어져 있다.
- 미친골 : 구미리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미리 89번지 일대이다. 미골과 연이어져 있다.
- 박시리골 : 도둑골(2)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미리 265번지 일대이다.
- 배골 : 미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미리 140번지 일대이다.
- 부영이집골 : 피(깨)밭골 북쪽에 골짜기로, 부영이 집이 있었다 한다.
- 불성골 : 이곳은 쇠부리터[冶鐵址]가 있어 불이 성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도 이곳에서
쇠불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 새밧골 : 모개나뭇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다.
- 새청골 : 당산못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서나뭇골 : 큰동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나무가 있었다 한다.
- 서당골 : 작은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 한다.
- 성짓골[性智谷] : 너마지깃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흙거리에 물을 대 주던 곳이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 풍수지리의 대가였던 성지(性智)라는 승려가 지나간 곳이라 해서 불
린 지명이다.
- 성천골 : 나뭇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쇠갓골 : 중산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솔방골 : 당산²¹⁶⁾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率方谷(九昧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수무논골 : 부영이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무마지기 쪼 되는 논배미가 있는 곳이다.
- 안골 : 성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두동초등학교 뒤쪽에서 안골소류지 사이의 골짜기이다.
- 외막골 : 주원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원두막골’로도 불린다.
- 작은골(1) : 안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16) 당산은 대밀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당(堂)이 있었다 한다.

- 작은골(2) : 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동앗골 : 물탕골 남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재왓골 : 덧방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재와(기와)를 구웠다 한다.
- 재인골 : 고래골 북쪽부분에서 동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는 재안골[嶺內谷]이 변한 말인 것 같다.
- 점골 : 대곡댐 상류의 구미리 1251번지 일대의 북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이다.
- 중산골 : 서나뭇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승려[僧]를 화장했다 한다.
- 큰골 : 새미골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로, 구미리 427번지 일대이다.
- 큰당골 : 면사무소에서 바라보이는 하천 건너편 골짜기로, 구미리 산341번지와 산350번지 사이의 골짜기이다.
- 큰동앗골 : 물탕골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허청골 : 미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화짓대골 : 작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월성 이씨가 벼슬을 해서 화짓대를 세웠다고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孔谷(九味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眞寶谷(九味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건양산들 : 병천이뭇 밑에 있는 들판으로, 구미리 877번지 일대이다.
- 대밀앞들 : 대밀(大密)²¹⁷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大密野(九味洞)로 조사되어 있다.
- 대정들 : 두동면사무소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구미리 642번지 일대이다.
- 덧골들 : 덧골에 있는 들판으로,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 반밭들 : 천수답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 말라 밭으로 경작하므로 이름 붙여진 들판이다. 구미리 961번지, 즉 구미삼거리 서쪽 일대이다. ‘밤밭들’로도 불린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栗田野(九味洞)로 조사되어 있다.
- 밤순들 : 구미리 1150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대암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 새뫼들 : 대밀 서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수무마지깃들 : 주원(周院)²¹⁸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周院野(九味洞)로 조사되어 있다.
- 시복들 : 구미리 813번지 일대, 즉 중리에서 당산으로 가는 사이에 있는 들판이다. 지하수가 솟아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구미삼거리 동쪽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時伏野(九味洞)로 조사되어 있다.
- 장밭들 : 대밀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구미리 556-1번지 일대이다.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長田野(九味洞)로 조사되어 있다.
- 장사랫들 : 중리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사래(이랑)가 긴 들판을 말한다.
- 점뫼들 : 양수정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구미리 1186-7번지 일대이다.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

217) 대밀은 중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중리는 허지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허지기는 대밀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218) 주원은 양수정(兩水亭)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원집이 있었다. 양수정은 중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두 골짜기의 물이 합수되었다.

되었다. 『조선지리지』에 店基野(九味洞)로 조사되어 있다.

- 종당들 : 당산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堂山野(九味洞)로 조사되어 있다.
- 흙거릿들(흙골) : 대밀 동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흙이 있다. 옛날에 성짓골의 물을 흙으로 인수하여 농사를 지었으므로 흙거리, 흙거리들이라 한다. 흙은 나무에 흙통을 파서 곁고 물이 흐르게 하는 농업용 기구이다.

• 만화리 (萬和里)

경주군 남면에 속해 있을 때는 비자현(飛自峴)이라 하였다가 정조 때는 비조항리(飛鳥項里)라 하였다. 1906년(광무 10)에 울산군에 편입되었다. 1911년에는 임동(林洞)과 비조, 이전(泥田)으로 갈라졌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임동, 비조동, 칠전동(漆田洞)을 병합하여 만화리라 하고 두동면에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임동을 울림(栗林)이라 불렀으며, 옷밭[漆田]과 비조를 합해 칠조(漆鳥)라 부르게 되었다.

[골짜기]

- 갈밭골 : 동넙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갓골 : 갈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괴목나무골 : 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괴목나무가 있었다 한다.
- 군골 : 큰뺨디기²¹⁹⁾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굴배기(골) : 굽각단 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 굽각단(골) : 숲안²²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이 있었다.
- 깊은골 : 만화리 산3번지 일원에서 범서읍 척과리와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의 경계지역으로 들어가는 골짜기가 아주 깊은 곳이다.
- 도툯골 : 숲안²²⁰⁾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두툯골’이라고도 한다.
- 독골 : 바람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았다 한다. 독은 돌의 다른 말이다.
- 독수리집골 : 솟곳배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독수리집이 있었다.
- 동넙골 : 수통골 북쪽에 있으며, 망부사가 있었다는 한뎀 동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오래전에 이 골짜기에 움막이 하나 있었다. 이곳에서 유위출이라는 사람이 학문을 익히면서 변신술을 연마했으나, 기가 허약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1960년에 죽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 두툯(터)골 : 콩드래미(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매밭골 : 비조(飛鳥)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麻田谷(林洞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맹지골 : 시뫼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머구밭골 : 비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미역골 : 비조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미역골못이 있다.

219) 큰뺨디기는 큰골짜기의 서북쪽에 있는 버덩이다.

220) 숲안은 비조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숲이 있다. 임동(林洞)이라고도 한다. 비조는 만화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 명주골 : 수무골 옆 골짜기로, 예전에 이곳에 소(沼)가 있었는데 수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 넣어도 끝이 닿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금 그곳은 메워져 있다.
- 바람골 : 삼밭굼(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밤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風谷(萬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버못골 : 옷밭²²¹⁾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베틀바웃골 : 베틀바우²²²⁾가 있는 골짜기이다.
- 부무골 : 비조마을에서 서쪽으로 가면 당지로 가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는 범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범호골로 불리었으나 나중에는 부무골 또는 분무골로 불리게 되었다 한다.
- 불썸바웃골 : 불썸바우²²³⁾가 있는 골짜기이다.
- 빗땅골 : 박제상 유적지인 치산서원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삼밭굼(골) : 새갓골짜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갓골짜 : 밤골²²⁴⁾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밭골 : 맹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현재 층효사가 있는 뒷산으로, 옛날에는 이 산에 송이 버섯이 많이 났기 때문에 송이버섯이라는 어원이 변하여 쇠밭으로 불리어지게 되어서 ‘쇠밭골’이라고도 한다.
- 솔밭골 : 미역골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만화리 327-2번지 일대이다.
- 솟곳배기 : 괴목나뭇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수무골 : 정이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옷밭마을에 산적이 자주 나타났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숲이 무성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곳으로 피난하여 숨어 지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수통골 : 힘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통이 있었다 한다.
- 솟구덩(골) : 바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솟을 구웠다 한다.
- 시뫼골 : 옷밭마을의 정지넷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어느 효자가 시뫼살이(무덤 앞에 움막을 치고 상을 치르는 일)를 했다 한다.
- 아랫버못골 : 버못골의 작은 골짜기이다.
- 암짓골 : 독수리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암자가 있었다 한다.
- 이넷골 : 미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시북논이 많은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이 골짜기의 논들은 가뭄에도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쌀 생산이 많았다 한다.
- 정이내골 : 옷밭마을 서북편(산46번지 일원)에 있는 골짜기로, 쇠부리터가 있다. ‘정지넷골’이라고도 한다. 정씨 소유의 산이 있어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 재피골 : 콩드래미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산초나무가 많다고 해서 불린 이름이다. 이곳에서 치솔령 쪽으로 가는 산등성이에는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산등성이를 ‘송기장녀’라고 부른다.

221) 옷밭은 비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옷나무가 있다.

222) 베틀바우는 암짓골 서쪽에 있는 바위로, 베틀처럼 생겼다.

223) 불썸바우는 큰뺨디기 동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224) 밤골은 비조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다.

- 채봉골 : 옷밭마을 서편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하던 곳이다.
- 콩드래미골 : 송골[松洞]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콩드림이골’로도 불린다.
- 큰골짜 : 숲구덩 서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큰버못골 : 버못골의 큰 골짜기이다.
- 한담 : 치슬령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이 골짜기에 망부사(望夫寺)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일명 망덕사(望德寺)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절은 박제상 부인과 딸의 혼을 모셨다고 한다. 지금 이 절터 위에는 법왕사가 세워져 있다. 만화리 산60-1번지의 산 아래 골짜기로, ‘한뒤미골’이라고도 부른다.
- 험헌골 : 한디미²²⁵⁾ 동쪽에 있는 험한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陽谷(萬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陰谷(萬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中幕谷(萬和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뒷들 : 만화리 646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이다.
- 막골들 : 밤골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못안들 : 숲안[林洞] 북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만화리 493번지 일대이다. 즉 못안못 밑이 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池內野(林洞洞)로 조사되어 있다.
- 버던들 : 밤골 앞 버덩에 있는 들판이다.
- 삼바(밭)굼이들 : 독골못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만화리 785번지 일대이다.
- 새(시)바대들 : 옷밭[漆田] 서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솔밭들 : 솔밭골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만화리 334번지 일대이다.
- 숲뒷들 : 올림마을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앞들 : 적은마실²²⁶⁾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이내들 : 봉계리 73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장쟁이들 : 봉계리 6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정지말리 : 옷밭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정자나무가 있다.
- 지내들 : 봉계리 45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큰번득들 : 독골못 밑에 있는 들판으로, 봉계리 1055번지 일대이다.
- 황거청들 : 버던들 밑에 있는 들판이다.

• 봉계리 (鳳溪里)

본래 경주군 외남면 지역인데,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계명(鷄鳴), 계당(桂堂), 남鳴(南鳴), 이천(梨川), 중리(中里), 토점(土店) 등을 병합하여 봉계리라 하였다.

225) 한디미는 새밭골 동쪽에 있는 큰 산이다.

226) 적은마실은 숲안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

- 가분땃골(1) : 북녘골과 남녘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가분땃골(2) : 자골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14번지 일대이다.
- 각골 : 봉계리 산214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강나무골 : 봉계리 산177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고등[곧은]골 : 중리²²⁷⁾ 남쪽에 있는 곧고 길게 뻗은 골짜기이다.
- 남녘골 : 북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즉 배내앞골못 동쪽에 있다.
- 덕거리골 : 배내[梨川]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뒷골(1) : 뒷골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660번지 일대이다.
- 뒷골(2) : 배내뒷골못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260번지 일대이다.
- 명박골 : 두들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산171번지 일대이다.
- 문등골 : 뒷골들²²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문등이가 살았다 한다.
- 문티미골 : 중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바골 : 점골의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산175번지 일대이다.
- 바개골 : 중리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박씨(朴氏)들이 많이 살았다 한다.
- 방망골 : 봉계 서쪽 고래들 옆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산166번지 일대이다.
- 번득골 : 성애원 북쪽 뒤편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산120번지 일대이다.
- 범우골 : 두들저수지 끄트머리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인 점골과 연결되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虎谷(鳳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북녘골 : 배내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췌골 : 문티미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췌놓고 공을 들였다 한다. 그 꼭대기의 높이가 201m 쯤 되는 만당이다.
- 비짜골 : 봉계리 산217번지와 산218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삼다리골 : 중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서낭골 : 봉계리 산207번지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
- 성개골 : 붓들저수지 아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산225번지 일대이다.
- 성악골 : 붓들저수지 아래, 봉계리 산20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소맥골 : 남명²²⁹⁾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순박골'이라고도 한다.
- 소숫골 : 남명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를 먹이는 풀[소죽]이 많다. '소실골'이라고도 하는데, 큰 소실골과 작은소실골이 있다. 뒷골못 위의 골짜기들이다.
- 송골 : 뒷골못 동쪽에 붙어있는 골짜기로, 소실(숫)골 끄트머리와 이어진다.
- 안골 : 중리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봉계리 산115-2번지 일대이다.
- 안장백이골 : 두들저수지 끄트머리 서쪽 맨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계리 산169번지 일대이다.
- 안채봉골 : 채봉골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채봉[假葬]을 하였던 곳이다.
- 앞골 : 계당 앞에 있는 골짜기로, 앞골못 동쪽에 있다.

227) 중리는 배내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중리말'이라고도 한다. 배내는 계명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배나무가 많았다 한다. 계명은 봉계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뒷산이 닭의 형국이다.

228) 뒷골들은 계당 뒤에 있는 들이다. 계당은 계명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계수나무가 있다.

229) 남명은 계당 북쪽에 있는 마을로, 경주의 남쪽이 된다. '내명'이라고도 한다.

- 뒷골보들 : 계당 뒤에 있는 들판으로, 봉계리 31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이곳에 '뒷골보'가 있다.
- 박말 : 중리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박씨가 많이 살았다 한다.
- 방말들 : 박말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芳旨坪(鳳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사짚들 : 달셋들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새들 : 계당 남쪽에 새로 된 들판으로, 봉계리 915번지~1065번지 일대이다. 즉 봉계초등학교 앞 뒤 주변 일대이다. 1978년 초에 경지정리를 한, 약 30정보의 큰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新坪(鳳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숲들 : 봉계리 11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숲밖보들 : 봉계리 865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이다.
- 숲안보들 : 봉계리 614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이다.
- 앞골못안들 : 앞골못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봉계리 946번지 일대이다.
- 옹골보들 : 옹골보²³²⁾의 물을 대는 들판으로, 봉계리 894번지 일대이다.
- 집앞들 : 계당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桂堂坪(鳳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큰보들 : 봉계리 38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에 插橋坪(鳳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삼정리 (三政里, 삼정)

본래 경주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삼정이라 하였는데,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정동(新亭洞)을 병합하여 삼정리라 하였다. 상삼정마을 앞에 태화강 지류와 미호천, 전읍천의 세 냇물이 합해지며, 이곳에 우물처럼 패인 데가 세 곳이 있어 삼정(三井)이라 불렀다 한다. 또는 정승 3인이 태어나서 '삼정'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 훗날 한자어로 삼정(三井)이 삼정(三政)으로 바뀌었다. 상삼정(上三政), 하삼정(下三政) 등 2개의 행정마을이 있었는데, 대곡담 수물지역에 편입되어 없어졌다. 이로써 삼정리는 구미리에 편입·통합되었다.

[골짜기]

- 논골 : 새벧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다.
- 독죽골 : 집나못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비석용(碑石用) 돌이 많았다. 웅기점이 있었던 독점으로 보기도 한다.
- 뒷골 : 하삼정²³³⁾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못골 : 고지평(高旨坪)²³⁴⁾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다.
- 문등골 : 선창드미²³⁵⁾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문등이가 살았다 한다.
- 배릿골 : 뒷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리(벼랑)가 있다.
- 배추밭골 : 상삼정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추밭이 있었다 한다.
- 범골 : 하삼정의 불땀골 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범이 있었다 한다.

232) 옹골보는 중리 동쪽에 있는 보(沓)로, 움을 파서 붓물을 흐르게 했다.

233) 하삼정은 삼정동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아릿삼정'이라고도 한다.

234) 고지평은 삼정리의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235) 선창드미는 하삼정 동북쪽에 있는 산이다.

- 범밭골 : 상삼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있었다 한다.
- 분통골 : 상삼정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분통골’이라고도 한다.
- 불땅골 : 송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 한다.
- 삼밭골 : 하삼정의 담밭당²³⁶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麻田]이나 산을 개간한 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새벧골 : 범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수긋골 : 상삼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썩이 많았다 한다. ‘썩곡골’이라고도 한다.
- 수리집골 : 독쫓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리(독수리)집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述伊谷(三政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송청골 : 하삼정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崇忠谷(三政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집나뭇골 : 논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청수골 : 상삼정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맑은 물이 흐른다. 이 골짜기를 끼고 있는 남쪽 산 중턱에 청수암이란 암자가 1990년 초에 건립되었다.
- 초당골 : 상삼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호침깃골 : 삼밭골 서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범이 사람을 잡아먹었다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柯木谷(三政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가느들 : 하삼정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고깃들[高旨(地)坪] : 삼정의 서남쪽에 있는 마을인 고지평 앞에 있는 들판으로, ‘고집괭들’이라고도 한다. 삼정리 667번지 일대로,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庫地坪(三政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남녘들 : 선창모퉁이²³⁷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삼정리 305번지 일대이다. 상삼정의 남쪽이 되며,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 봄밭들 : 삼정리 110-2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凡田野(三政洞)로 조사되어 있다.
 - 솔뚜배기들 : 상삼정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삼정리 288번지 일대이다. 솔이 많았다 한다.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 장박들 : 삼정리 65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으로, 대곡댐 축조 때 수몰되었다. 대곡댐에 수몰된 구미리 556-2번지 일대의 들판도 ‘장밭들’이라 한다.
 - 청수들 : 상삼정 북쪽 미호천에 접한 들판으로, 아래쪽에 큰 청소(淸沼)가 있어 불린 이름이다.
 - 흥골들 : 가느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흥을 댔다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楡巨里野(三政洞)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德巨里野(덕걸들, 三政洞)로 조사되어 있다.

236) 담밭당은 수리집골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담배밭이 있었다.

237) 선창모퉁이는 하삼정 동북쪽에 있는 산인 선창드미에 있는 모퉁이(산모퉁이의 휘어 돌린 곳)이다.

• 월평리 [月坪里, 달들, 월평]

본래 경주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달들’ 또는 ‘월평’이라 하였는데,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봉계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월평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랭이골 : 삼다리못에서 동쪽으로 바지가랭이처럼 길게 뻗은 골짜기로, 월평리 1310-1번지 일대이다.
- 각골 : 중리천(中里川)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월평리 산119번지 일대이다.
- 감나무골 : 월평리 산63번지와 산66번지 사이의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았다.
- 강대사골 : 월평리 산5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개똥골 : 등동못[燈洞堤] 북쪽, 즉 월평리 산5번지의 산 아래 일대의 골짜기이다.
- 거시골 : 하월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중리천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골의 북서쪽에 있다.
- 곧은골 : 하월평에서 앞고개를 넘어서면 봉계리에서 구미리로 가는 도로가 나서고 이 도로를 따라 있는 긴 골짜기로, 길고 곧다고 해서 불리는 이름이다. ‘고동골’로도 불린다.
- 공골 : 못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공(公)자처럼 생겼다.
- 공개들골 : 백심이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월평리 산143-3번지 일대이다.
- 군피골 : 월평리 산62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너웃골 : 상월평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넋골’이라고도 한다. 월평리 산266번지 일대이다.
- 달매기골 : 배양골못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떡대골 : 하월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뒷골 : 못나못 남쪽에 길게 뻗은 골짜기로, 월평리 283번지 일대이다.
- 뒷들골 : 뒷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등동골 : 등동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등동골’이라고도 한다.
- 떡점골 : 등동²³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떡을 생산했다 하며, ‘묵정곡(墨正谷)’이라고도 한다.
- 못골 : 못안[池內]²³⁹⁾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문들이골 : 두들저수지와 삼다리못 사이의 골짜기이다.
- 배암골 : 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백양곡(白楊谷)’이라고도 한다. 이곳에서 외동을 사일로 넘어가는 고개를 백양골고개라한다. 쇠부리를 한 점터가 있다. 큰배암골과 작은배암골로 나뉜다. 『조선지리지』에 拜陽谷(月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백이십골 : 월평리 산146-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보덕골(普德谷) : 백양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통해 경주시 외동을 석계리로 넘어가는 고개(보덕골고개)가 있다. 이곳에 보덕사(혹은 보덕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조선지리지』에 普道谷(月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부처골 : 상월평 못안마을 뒤편에 있는 골짜기로, 불상이 출토되었다 하여 불린 지명이다. ‘부채골’이라고도 한다.

238) 등동은 월평 서쪽에 있는 마을로, 등잔(燈簾) 형국이다.

239) 못안은 월평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못이 있다. ‘지내(池內)’라고도 한다.

- 솔밭들 : 배양골못 밑, 대밭들 위쪽에 있는 들판으로, 솔밭이었다 한다. 월평리 102번지 일대이다.
 - 지래들 : 월평리 124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집앞들 : 못안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前坪(月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한들 : 하월평 남쪽에 있는 큰 들판으로, 상·하의 양 월평에 걸쳐있다. ‘한’은 큰을 뜻하는 우리말이니, 한들은 ‘큰들’ 또는 ‘대야(大野)’를 뜻한다. 월평리 824번지 일대로, 두동에서 가장 넓은 약 70정보이다. 1980년 초에 경지정리를 했다.
 - 한전들 : 월평리 94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우리말로 ‘큰밭들’이란 뜻이다. 『조선지리지』에 大田野(月坪洞)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에 上坪(웃들, 月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은편리 (銀片里)

1906년(광무 10) 경주 외남면에서 울산군에 이속되어 범서읍에 편입되었고, 1911년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원리(院里, 元里), 중리(中里), 신기(新基), 추자(楸子), 하리(下里)를 병합하여 그대로 은편리라 해서 두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골짜기]

- 덕매(떡대)밭골 : 추짓말²⁴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덕매했다 한다. 추자마을과 중리마을 뒤 나지막한 민둥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돌보골 : 하일리(下一里)²⁴¹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돛방골 : 하일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땀띠골 : 서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골 : 하일내 뒷산에 있는 골짜기로, 다른 곳에 비해 물이 많이 솟아난다. 이 물은 하리들과 고매들의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이곳에는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빈대가 워낙 많아서 스님들이 절을 태웠다고 전해온다. 그래서 ‘절골’로도 불린다. 지금도 절터 인근에서는 기와조각이 발견되는 등 옛 흔적을 찾을 수 있다.
- 불땀골 : 신기말²⁴²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형국이 불매(풀무)처럼 생겼다.
- 상정골 : 중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용(龍)의 형국이다. ‘쌍용골’이라고도 한다.
- 서당골 : 불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 한다.
- 원말골짜 : 원말²⁴³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첫골짜 : 원말 뒤 첫 번째 있는 골짜기이다.
- 흥골 : 〈구미리〉 ‘흙거리(들)’ 참조.

『조선지리지』에 細靑谷(銀片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에 利木谷(銀片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240) 추짓말은 중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추지말’이라고도 한다. 추자(楸子)는 호두 또는 가래나무를 말한다. 중리는 은편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241) 하일리는 중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하리’ 또는 ‘하일내’라고도 한다.

242) 신기말은 은편리 동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243) 원말[院里]은 중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원집이 있었다 한다.

[들판]

- 고맷들 : 나부이들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구렁이들 : 돌보²⁴⁴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쾌지남들 : 은편리 93-1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으로, '두동로'에 접한다.
 - 나부이들 : 구렁이들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지형이 나비 형국이다. 추자마을 앞들을 일컫는데, 이 들판은 용수가 풍부하고 땅이 기름진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 추자마을에 나비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처녀가 살았는데, 이 처녀가 원말에 있는 도령과 사랑을 나누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목을 매어 죽자,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들판을 나비처녀가 살았다고 하여 '나부이들'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
 - 땀띠들 : 땀띠골에 있는 들판으로, '담뽀들'이라고도 한다. 이는 추자마을 사람들이 볼 때 담 뒤에 있기 때문이다. 은편리 348번지 일대이다.
 - 말릿들 : 중리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배남들 : 불맷골 서쪽에 있는 너설로, 배나무가 있었다. '배남뜰정'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너설'이란 험한 바위나 돌 따위가 삐죽삐죽하게 내밀어 있는 곳을 말한다.
 - 새말들 : 『조선지리지』에 新里坪(銀片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서리밭들 : 신기말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석걸등들 : '두동로'와 '만화로'의 갈림길에 접한 들판으로, 은편리 549번지, 은편리 754번지 등의 일대이다. 즉, 만화로의 남쪽이며 원들못의 북쪽이다.
 - 선두리들 : 원들 동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산두들'이라고도 한다. 은편리 126번지 일대이다.
 - 솔배기들 : 원들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큰 소나무가 있었다 한다.
 - 숲피들 : 은편리 61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쑥뎃들 : 중리 동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쑥이 많았다 한다.
 - 원들[院坪] : 원말 앞에 있는 들판으로, 원집이 있었다 한다. 이 들판에 관개(灌溉)하는 못을 원들못이라 한다. 『조선지리지』에 院里坪(銀片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황새들 : 신기말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황새가 자주 찾는다 한다. 추자마을 앞들로서 장성마을과 경계한 하천을 낀 들이며, 물이 풍부하여 논고동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해마다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 인근 솔밭에 등지를 틀고 있다가 논고동을 잡아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조선지리지』에 中里坪(중말들, 銀片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이전리 [泥田里, 진밭, 이진]

이전리는 비가 조금만 와도 땅이 매우 질다 하여 '진밭' 또는 '이진'이라 하였다. 본래 경주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비조(飛鳥) 또는 비자현(飛自峴)에 속하였다가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자연마을인 양지(陽地), 당수(檔樹), 장제리(長堤里), 곽성(郭城)을 병합하여 이전리라 하였다.

244) 돌보는 신기말 서쪽에 있는 보(沃)로, 돌이 많다.

[골짜기]

- 골생잇골 : 장제밭²⁴⁵⁾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릿골 : 장제밭과 광성²⁴⁶⁾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싸리나무가 많았다 한다.
- 서떡골 : 양지²⁴⁷⁾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애정골짜 : 장제밭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애장(어린애를 묻는 것)을 했다 한다.
- 이점골 : 양지말과 당수말 사이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李)씨 성을 가진 정승이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정골[李政谷]'로도 부른다.
- 텃골 : 장제밭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基谷(泥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호수골 : 예전에 효성이 지극한 효자가 병약한 부친에게 개고기를 드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번 신술을 부려 호랑이로 둔갑하여 이곳에서 개를 많이 잡았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唐谷(泥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감밭들 : 장제밭 앞에 있는 들판으로, 이전리 518번지 일대이다.
- 거지람들 : 장제밭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고래들 : 당수말[檣樹-]²⁴⁸⁾ 서쪽, 양지말 앞에 있는 들판이다. 이곳에는 '고래뭇'이 있다. 이전리 192-1번지 일대로, 고래뭇 아래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古來坪(泥田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고부술들 : 당수말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깊은 소(沼)가 있었다. 이전리 233번지 일대이다.
- 광성뒤편들 : 광성 뒤에 있는 들판이다.
- 광성앞들 : 광성 앞에 있는 들판이다.
- 꾀점골들 : 이점골들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쇠를 불리던 점(店)이 있었다 한다.
- 돌꼬지들 : 광성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돌이 많았다.
- 텃들 : 이전리 48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모랫들 : 장제밭 서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모래가 많았다.
- 새포래이들 : 이전리 39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앞들 : 이전리 63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예전골짜들 : 장제밭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예징이들'이라고도 한다.
- 이밤들 : 광성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이점골들 : 장제밭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이 정승(李政丞)이 살았다 한다.
- 장터들 : 이전리 775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으로, 만화로 남쪽에 접하고 있다.
- 주텃골들 : 양지마을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피논들 : 예징이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피가 많았다 한다. 이전리 768번지 일대이다.
- 흙골들 : <구미리>의 '흙골' 참조.

245) 장제밭은 이전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긴 제방이 있었다 한다. '장제밭'으로 불리기도 한다.

246) 광성은 장제밭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성(城)을 둘러싼 것 같다 한다.

247) 양지는 이전리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248) 당수말은 장제밭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큰 당수나무가 있다.

• 천전리 (川前里)

본래 경주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지전(池前), 신당(新堂), 장천(長川), 진현(進峴), 방리(芳里)를 병합하여 장천과 지전의 이름을 따서 천전리라 하였다. 마을 앞으로 구량천이 흐르므로 ‘내앞[川前]’, ‘내전(奈前)’이라 하였다.

[골짜기]

- 거무골 : 못앞²⁴⁹⁾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천전리 산114-1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거무골못이 있다.
- 과소골 : 산밭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구석골 : 장칭이²⁵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두서면 서하리 구석골 옆이 된다.
- 꽃밭골 : 진티²⁵¹⁾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남방골 : 천전리 38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남뱅이골 : 못앞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남방짓골’이라고도 한다.
- 모개나뭇골 : 못앞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개나무가 있었다 한다.
- 범골 : 『조선지리지』에 虎谷(川前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보안골 : 장칭이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혹은 ‘봉학골’이라고도 한다. 이는 학이 알을 품는 형국이라서 그렇게 불린다고 한다. 또는 장칭이보[長川湫]의 안에 있는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골짜기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설화가 있다.

설화

보안골 안으로 들어가면 명산등(名山嶺) 끝에 장천사(障川寺)가 있었다. 이 절은 신라 때 세워진 큰 고찰이었다. 그러나 도와(陶窩) 최남복(崔南復)이 백련암(白蓮庵) 자리에 백련정(白蓮亭)을 짓고, 내남면 노곡(蘆谷)의 정씨가 명산등에 몰래 묘를 쓴 후 쇠하여 망했다. 명산등에 묘를 쓸 때 정씨들이 장천사 승려들을 유인하여 마을에서 수일간이나 광대를 불러 놀이 곳을 하였다. 그 사이 노곡에서 말에다 흙과 돌을 싣고 와서 봉분을 만들었다. 그때 굶던 광대가 ‘평토제는 다 지냈고 산신제도 끝났겠네’ 하자 눈치를 찌른 승려들이 명산등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성분(成墳)이 되고 상제와 일꾼들이 철수하고 난 뒤였다 한다.²⁵²⁾

- 불썬골 : 진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던 곳이라고 한다.
- 산밭골 : 잠방골²⁵³⁾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麻田谷(川前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새나뭇골 : 못앞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안골 : 천전리 114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서나골 : 천전리 71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압시골 : 천전리 346-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우릿골 : 난장재²⁵⁴⁾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후리골’이라고도 한다. 이 골짜기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설화가 있다.

249) 못앞은 천전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못이 있다. ‘지전(池前)’이라고도 한다.

250) 장칭이는 잠방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장천(長川)’이라고도 한다.

251) 진티[進峴]는 장천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252) 강길부, 〈전계서〉, 70쪽.

253) 잠방골은 못앞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점방골[店房谷]이 변한 것이다. ‘방리(芳里)’라고도 한다.

254) 난장재는 은편리의 하일내 서쪽에서 천전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가파르고 험하다.

설화

두서면 구랑리의 송정(松亭)에 살던 모씨가 후리골에 모를 쓰고 난 뒤에 사내아이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옹모가 장수답고 거드랑이에 날개가 나 있었다. 어느 날 아이가 없기에 주변을 찾아보았더니 시렁 위로 날아가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부모들은 장차 닥쳐올 후환을 두려워하여 그 아이를 다듬잇돌로 눌러 죽였다. 그러자 뒷산에서 용마(龍馬)가 나와서 울부짖었다 한다.

- 윗새질골 : 천전리의 남쪽과 언양읍 반곡리의 경계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천전리 366번지와 1115번지 일대에 걸쳐있다.
 - 잔골 : 큰골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큰골 : 큰모개나뭇골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큰모개나뭇골 : 모개나뭇골의 큰 골짜기이다.
- 『조선지리지』에 北谷(川前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건너장칭이들 : 장칭이[長川] 앞 대곡천 건너에 있는 들판이다.
- 국시림들 : 장칭이[長川] 앞에 있는 장칭이들(천전리 257번지 일대)과 대곡천 건너에 있는 건너장칭이들(천전리 635번지 일대)을 통틀어서 말한다. 지금의 울산대곡박물관 입구에 있는 들판이다.
- 남뱅이들 : 남뱅이골에 있는 들판이다.
- 달밭들 : 천전리 65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뒷들 : 『조선지리지』에 後坪(川前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새바대들 : 대현 못앞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약 30정보이다. 1970년대 초에 두동면에서는 가장 먼저 경지정리를 한 곳이다. 새바대못 밑의 경부고속도로 좌우에 펼쳐져 있으며, 천전리 796번지 일대이다.
- 서당들 : 천전리 593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분이들’이라고도 한다.
- 솔기서들 : 천전리 161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 신당들 : 신당²⁵⁵⁾에 있는 들판으로, 천전리 404번지 일대이다.
- 앞들 : 진현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前坪(川前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장칭이들 : 장칭이 앞에 있는 들판이다.

255) 신당은 못앞 서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원곡
고갯사기와
드림관

7. 두서면

斗西面



구량리 양지편들



구량리 민복골



내와리 양달들



내와리 어더봉골



미호리 두들배기들



미호리 댐바위밀골



미호리 사그장골



미호리 안골



복안리 모래보들



북안리 장당들



북안리 감나무골



북안리 큰골



서하리 봉화앞들



인보리 번답들



인보리 신전앞들



인보리 함박대기골



전읍리 등만당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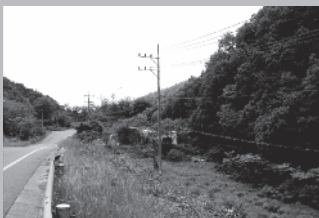
전읍리 업전골



차리 배낭골



활천리 강변들



활천리 삼봉골

7. 두서면 (斗西面, 78.85km²)

두서면 지역은 신라 사로6촌의 하나인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의 땅이었다고 한다. 신라 제3대 유리이사금 때 6부의 이름을 고쳤는데, 이때 두동·두서면 지역은 고허촌을 사랑부(沙梁部)라 하였고, 두서면은 신라 왕도의 사랑부에 속한 땅이었다. 신라 때의 이름인 마등오(麻等烏; 마들오)라는 이름도 이 지역에 속한 땅으로 보고 있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사랑부를 남산부(南山部)라 하였고, 구량벌(仇良伐)과 마등오, 도북(道北), 회덕(廻德) 등 남촌(南村)은 이에 속하였다. 이로 보아 두서면 구량리의 구량벌과 두동면의 이전, 만화, 은편의 마등오는 신라 때부터 불려오던 이름으로 추측된다. 고려 현종 때 현양현(獻陽縣)에 소속되었다가 조선 태종 때 경주로 다시 돌아갔다. 경주로 가면서 남면에 속했다가 조선말에 이르러 내남면과 외남면으로 갈라지면서 외남면이 되었다.²⁵⁶⁾

1906년(광무 10) 칙령 제49호에 의거 울산군에 편입되어 두북면(斗北面)으로 고쳐 월산(月山), 상묵정(上墨正), 하묵정(下墨正), 밀구미(密九味), 비자현(飛自峴), 음변(陰邊), 내와(內瓦), 전천(箭川), 사음동(舍音洞), 삼정동(三政洞), 내포(乃浦), 대곡(大谷), 내전(奈前), 중리(中里), 차동(次洞), 소야(所也) 등 16개 동리를 관할하다가 국도35호선(지금의 '반구대로')을 기준하여 동쪽은 두동면(斗東面)으로, 서쪽은 두서면(斗西面)으로 분면(分面)하였다. 이때 두서면은 구영(九永), 내와(內瓦), 사음(舍音), 복안(伏安), 서하(西河), 소호(蘇湖), 구량(九良), 소야(所也), 내포(乃浦), 차동(次洞), 중리(中里), 전읍(錢邑), 활천(活川), 가장(柯長)의 14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동면의 삼정동 일부와 경주 내남면의 하명리(下命里)와 고사동(古舍洞) 각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구영리, 차동의 각 일부를 언양면에 이속하였다. 활천, 복안, 미호(媚湖), 내와, 전읍, 인보(仁浦), 서하, 차리, 구영, 소호의 10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소호리를 상북면에 넘겨주어서 9개의 법정리가 되었다. 동쪽은 두동면, 서쪽은 상북면, 남쪽은 언양읍, 북쪽은 경주시 내남면에 접하고 있다.

• 구량리 [九良里, 구량벌, 구량화촌, 구량]

본래 경주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구량벌, 구량화촌(仇良火村) 또는 구량이라 하였는데,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구영동(九永洞)과 중리동(中里洞)으로 나누어졌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들을 병합하여 구량리라 하였다.

[골짜기]

- 까치골 : 남중리²⁵⁷⁾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량리 301번지 일대이다. '칸치골'이라고도 한다.
- 고사골[古寺谷] : 이곳에 오래된 절이 있어 불린 지명으로, '구실곡'이라고도 한다.
- 찔발골 : 고사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56) 『울주군지』(하, 2002), 1089쪽.

257) 남중리는 구량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덕골 : 고사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량리 624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德谷(九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딱발골 : 고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민목골 : 남중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량리 913번지 일대이다.
- 서낫골 : 남중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량리 산67번지 일대이다. ‘소나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蘇洛谷(九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서당골 : 남중리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약낫(양낙)골 : 꾀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량리 산47번지 일대이다.
- 장싯골 : 장셋곡²⁵⁸⁾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경골 : 지경곡²⁵⁹⁾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채진발골 : 딱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대평들[한들] : 송정(松亭) 뒤(북쪽)에 있는 큰 들판이다. 구량리 551번지 일대로, 하태평지(下太平池, 또는 下大坪池) 밑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太平坪(九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발등걸 : 남중리 동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서넛들 : 남중리 서쪽, 서넛지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구량리 870번지 일대이다.
- 신당들 : 두동면 <천전리> ‘신당들’ 참조. 『조선지리지자료』에 神堂坪(九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양지편들 : 남중리 동북쪽 양지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구량리 575번지 일대이다. 상태평지(上太平池) 위에 있다.
- 이생이끝들 : 남중리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집앞들 : 남중리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泥洞坪(이동들, 九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長水坪(장수들, 九良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내와리 [內瓦里, 아내, 내와]

본래 경북 경주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셋골 안쪽이 되므로 ‘아내’ 또는 ‘내와’라 하였는데, 옛날에 기와를 구운 곳이라 한다.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외와(外瓦), 중점(中店), 탑곡과 경주군 내남면의 고사리(古舍里) 일부를 병합하여 내와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마골 : 내와리 48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가매등골 : 가매등²⁶⁰⁾에 있는 골짜기이다.

258) 장셋곡은 송정(松亭) 남쪽에 있는 고개이다. 송정은 구량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 한다. ‘장숫곡’이라고도 한다.

259) 지경곡은 송정마을 남쪽에서 언양읍과 두서면으로 가는 고개이다.

260) 가매등은 곧골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가마처럼 생겼다 한다.

- 각시바우골 : 내와리 산9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간너머골 : 내와리 산26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갈밭골 : 내와리 산28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갈밭미기골 : 미호리에 걸쳐 있는 골짜기로, 내와리 산285번지 일대이다.
- 감나무골 : 내와리 산7번지와 산9번지 사이의 골짜기이다.
- 개와짓골 : 내와리 산88-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개호짓골 : 내와리 산18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고무들골 : 내와리 산116번지와 산119-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고사리골 : 내와리 19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구매골 : 외와²⁶¹⁾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군골 : 내와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까치골 : 내와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까치가 많이 서식했다 한다.
- 남각골 : 내와리 산24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독갓골 : 외와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내와리 93번지 일대이다.
- 뒗고개골 : 내와리 산156-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덧골 : 외와 뒤에 있는 골짜기로, 고사리로 넘어간다.
- 머그밭떠골 : 내와리 산124-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물골 : 내와리 산128-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물탕골 : 까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내와리 산257번지 일대이다.
- 범골 : 내와리 산206번지와 산198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북각골 : 내와리 산17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북바위골 : 내와리 산2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맷골 : 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불매(풀무) 형국이다.
- 불성골 : 내와리 산17번지와 산18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돈지골 : 내와리 산46-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산막골(1) : 외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산막골(2) : 내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백운산 중턱에 있는 골짜기인데,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 산태골 : 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사태가 자주 났다 한다.
- 새밧골 : 진등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있었다.
- 셋골 : 내와마을과 외와마을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선바윗골 : 큰 바위 두 개가 서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서 기도를 했다 한다. ‘각시바윗골’이라고도 한다.
- 손을골 : 외와에서 괴밭으로 가는 당고개에 있는 골짜기로, 성황당이 있었다 한다.
- 신동골 : 내와리 산14번지와 산13-5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어두분골 : 내와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주위에 높은 산이 있어 항상 어두운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더봉골[暗谷]’이라고도 한다.

261) 외와는 내와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바대(바테)'라고도 한다.

- 어름골 : 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내와리 산152-1번지 일대이다.
- 옥골 : 감나무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은골 : 내와 앞산 골짜기로, 옛날 은(銀)을 캐던 곳이다.
- 이팔골 : 내와리 산93번지와 산112-1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큰이팔골과 작은이팔골이 있다.
- 작은고개골 : 내와리 산16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작은도롱골 : 내와리 산65번지 북서쪽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잣나무골 : 외와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잣나무가 있었다.
- 절골 : 내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한다.
- 점골 : 외와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점(店)이 있었다.
- 지통골 : 잣나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통(닥나무 종이 만드는 통)을 놓았다 한다.
- 진등골 : 외와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이곳은 배나무골, 물풍리, 불손골, 달개골 등이 있는 골짜기의 통칭이다.
- 쪼갈골 : 머그밭피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내와리 산118번지 일대이다.
- 찬물골 : 내와리 산47-1번지와 산48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 :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백운산에서 가장 크다. 이 골짜기에서 큰배나무골, 작은배나무골, 밤밭골, 머구밭골로 갈라져 있다.
- 큰도롱골 : 내와리 874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탑골 : 탑이 있었던 골짜기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 내와리 572번지 일대이다.
- 팔밭골 : 장생원의 화전(火田)이 있는 골짜기이다.
- 피밭골 : 외와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피나무가 많았다 한다.

[들판]

- 가미골들 : 내와리 44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고래들 : 내와마을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내와리 684번지 일대이다.
- 광어들 : 외와마을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지형이 광어처럼 생겼다 한다.
- 돈대들 : 중점에서 당수마을로 가는 들판으로,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 뒤논들 : 내와마을 남쪽 뒤에 있는 들판이다.
- 마장메기들 : 내와에서 가미달 탑골로 가는 오른쪽 들판으로, 내와리 357번지 일대이다. '마당밀들'이라고도 한다.
- 뺨들 : 내와마을 서쪽 버덩에 있는 들판으로, '뺨디기들'이라고도 한다. 내와리 324번지 일대이다.
- 새엣들 : 내와마을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사이들'이라고도 한다. 내와리 965번지 일대로, 숲마늘과 외와 사이에 있다.
- 손을골들 : 외와에서 괴밭으로 넘어가는 오른쪽 들판으로,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 앞들 : 외와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토질이 비옥하다. 내와리 491번지 일대이다.
- 양달들 : 내와리 1044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이다.
- 음달들 : 중점²⁶²⁾ 앞산 밑에 있는 들판으로, 천마산이 가려져 햇볕을 거의 받지 못한다 하여 붙여

262) 중점은 아래위로 쇠부리점이 있었던 중간에 위치한 마을이다.

진 이름이다.

- 잣나무들 : 내와리 126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전옆별들 : 내와리 45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절골들 : 절골²⁶³에 있는 들판으로, 예전에 이 부근에 절이 있었다 한다. 내와리 1167번지 일대이다.
- 중매들 : 외와 앞들로, 중피봉²⁶⁴ 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지리지』에 中峰坪(內瓦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화지배기들 : 중점위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 화죽대를 박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홈골들 : 외와마을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홈을 뚫다 한다. 내와리 229번지 일대이다.

• 미호리(峯湖里)

본래 경주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1년에는 사음(舍音)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음동(舍音洞), 중동(中洞), 하동(下洞)을 병합하여 미호천의 이름을 따라 미호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맷(미)골 : 미호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아미산과 천마산 사이의 길고 큰 골짜기이다. 미호리 산161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있는 소(沼)를 가마솥처럼 생겼다 하여 ‘가매소’라 하고, 못도 ‘가매골못’이라 한다.
- 갈밭미기골 : 내와리에 걸쳐 있는 골짜기로, 미호리 산114번지 일대이다.
- 굴안골 : 아미산 기슭의 미호 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그 모양이 굴(窟)과 같이 깊숙하다 하여 그렇게 부른다.
- 깨밭골 : 마당미기²⁶⁵와 범정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부터 깨를 심은 밭이 많다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노리(루)골 : 중동²⁶⁶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노루처럼 생겼다 한다.
- 달갯골 : 미호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머루와 다래가 많아 ‘다랫골’이라고도 했다.
- 덩바위밑골 : 미호리 산36번지와 산37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도둑골 : 열박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둑이 살았다 한다.
- 딘(뉘)골 : 미호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높고 가파르다고 한다.
- 덧골 : 중동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미호리 산13번지 일대이다.
- 마당골 : 상동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탕골 : 아미산 다락바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박달밭골 : 미호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263) 절골은 내와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한다.

264) 중피봉은 내와·외와·중점·숲말의 한가운데에 있는 산을 말한다.

265) 마당미기는 아미산 정상 주봉의 서북쪽 골짜기와 능선을 말하며, 마당처럼 편편하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266) 중동은 상동과 하동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 범정골 : 아미산 서북쪽의 갈밭매기 쪽을 굴바위 능선이라 하고 북쪽 가매들의 큰가매소 주위 골짜기를 범정골이라 한다. 이곳에 옛날에 표범이 살았는데 이에 따라 그 표범이 살던 굴을 굴바위, 또 표범이 놀던 골짜기를 범정골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 부탄골 : 미호리 770번지~793번지 일대의 긴 골짜기이다.
- 북방웃골 : 북방우²⁶⁷가 있는 골짜기이다.
- 불땅골 : 가뭏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佛堂)이 있었다 한다.
- 불성골 : 뒤뜰못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그장골 : 미호리 산27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사리골 : 노리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싸리나무가 많았다 한다. 미호리 282번지 일대이다.
- 살근넛골 : 미호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상안골 : 미호리 산17번지 동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송이버섯골 : 아미산의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송이버섯이 많이 나던 곳이라 한다.
- 수리집골 : 불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수리집이 있었다 한다. 미호저수지 좌측에 있으며, 미호리 산143번지 일대이다.
- 안골(1) : 미호리 산4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안골(2) : 미호리 산38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에미골 : 미호리 261-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열박골 : 열박재[咽薄峴]²⁶⁸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은골 : 절비알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은(銀)을 캐다 한다. 미호리 산134번지와 산135번지 사이에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銀谷(舍音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초당골 : 수리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탁골 : 미호저수지 좌측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미호리 산139번지와 산141-2번지 남쪽 일대이다.

[들판]

- 가뭏(미)들 : 가뭏골에 있는 들판으로, 미호리 888번지 일대이다. ‘뒤뜰못’ 서쪽에 있다.
- 구들 : 미호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텨바위밑들 : 미호리 30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도가뒤들 : 새태²⁶⁹ 앞에 있는 들판으로, 새태마을에 있는 도가[양조장] 뒤에 있는 들판을 말한다.
- 두들배기들 : 미호 서남쪽 둔덕에 있는 들판으로, ‘뚜덕뱅이들’이라고도 한다. 미호리 349번지 일대이다.
- 덧들 : 미호 뒤에 있는 들판이다.
- 미호들 : 미호리 31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미호앞들 : 미호리 31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반송징이 : 도가뒤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반송나무가 있었다 한다.

267) 북방우란 절비알 서쪽에 있는 바위로, 북처럼 생겼다 한다. 절비알은 초당골 서쪽에 있는 산으로, 절이 있었다 한다.

268) 열박재는 미호리 북쪽에서 활천리의 가정(柯亭)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269) 새태[下洞, 下里]는 미호 아래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 버던들 : 반송징이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새들 : 미호 서쪽에 새로 된 들판이다.
- 섯갓밭들 : 섯갓²⁷⁰⁾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앞들 : 미호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지자료』에 前坪(舍音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열박들 : 열박재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중동앞들 : 중동 앞에 있는 들판으로, 미호리 363번지 일대이다.
- 하동들 : 미호 하동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복안리 (伏安里)

본래 경주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복안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므로 복안리라 하였는데,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복안리라 하였다. 경주 외남면 때는 지금의 활천리가 된 전천동(箭川洞)에 속해 있었다.

[골짜기]

- 감나무골 : 용쭈²⁷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있었다.
- 갑골 : 복안리 산65-1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갯쟁이골 : 중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갯을 만들었던 이씨의 묘가 있으므로 그렇게 불렀다. 큰갯쟁이골과 작은갯쟁이골이 있다.
- 골안골 : 양지²⁷²⁾마을 동북간으로 뻗어있는 작은 골짜기로, ‘고란골’로도 불린다.
- 달계(개)골 : 당수마을 앞산 골짜기에 큰 돌무지가 있는데, 이 돌무지에 흰 닭이 있었다 하여 ‘닭계(鷄)’자를 따서 달계골이라 하였다 하는데, 자세한 유래는 알 수 없다. 복안리 산 135-3번지와 산136번지 사이에 있다.
- 당수골 : 복안리 산126-4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대밀골 : 복안리 산87-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독жат골 : 양지에서 당수 쪽으로 가는 서쪽(우측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바위가 많았다 한다. 일제강점기 때인 1925년경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수년 동안 아연을 채굴하여 말 구루마로 경주까지 운반하였다 한다. 이곳 사람들은 흔히들 ‘독жат골금구덩이’ 또는 ‘돈구덩이골’로 부른다.
- 목골 : 복안리 1142-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못안골 : 복안리 산4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백달미기골 : 복안리 산64-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병어리골 : 복안리 산7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벼락골 : 상학골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복안리 산73번지 일대이다.
- 복가시골 : 복안리 산13번지와 산14-1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270) 섯갓은 미호 남쪽에 있는 산으로, 섯이 많다.

271) 용쭈는 용수드미 밑에 있는 소(沼)로, 용이 등천(登天)했다 한다.

272) 양지는 복안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 북해골 : 북안리 산20번지 서쪽과 북안리 29-2번지 동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봉사미골 : 벼락골과 독жат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부뭇골 : 장당비알²⁷³⁾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있었다 한다. 큰부뭇골과 작은부뭇골이 있다. 부무는 범의 방언이다.
- 부채지미골 : 달개(계)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북안리 산136번지 일대이다.
- 불성(써)골 : 서당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한다. 병어리골 남쪽에 있으며, 북안리 산69번지 일대이다.
- 불땅골 : 쟁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 한다.
- 산막골 : 북안리 산9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상앗골 : 양지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두 마리의 학(鶴) 형국이다. ‘쌍학곡(雙鶴谷)’ 또는 ‘상학곡(上鶴谷)’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유래는, 옛날 경주 이씨 판윤공의 8세손 학생(鶴生)이란 사람이 처음 이곳에 입향하여 살았는데, 그가 죽자 장례를 치루기 위해 무덤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 난데없이 학 두 마리가 날아와서 앞산 봉우리에 앉아 있다가 하관(下棺)을 하고 난 뒤에 날아갔다 한다. 그 뒤로 사람들이 이곳을 쌍학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 온다. 양지마을에서 내남면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조선지지자료』에 雙鶴谷(伏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새жат골 : 지내등²⁷⁴⁾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서당골 : 점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에 딸린 잣[산]이 있었다.
- 아릿골 : 음지마을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앞골 : 북안리 산3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어르미жат골 : 맹매기방우²⁷⁵⁾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바위가 엷은 것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북안리 산140번지 일대이다.
- 오시밭(박)골 : 불써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오작골 : 음지마을의 작은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까마귀 형국이라 한다. 또는 까마귀가 많이 서식했다고도 한다. 북안리 산55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오작골뭇이 있다.
- 옷밭골 : 불땅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옷나무가 있었다 한다.
- 용수드미골 : 당수골²⁷⁶⁾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는 길게 뻗은 반석에 폭포와 소(沼)가 있는데, 그 깊이는 명주 한 타래를 드리워도 끝이 닿지 않는다 한다. 이곳에서 미꾸라지가 용이 되어 승천하였다 하여 ‘용추담이골[龍鰐---]’이라 한다. 또는 ‘용수림골’이라고도 한다. 북안리 산115번지와 산117번지 사이의 골짜기이다.
- 옷앞골 : 음지마을 앞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원골 : 북안리 산10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윤절미골 : 북안리 산109-1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은전골 : 상앗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은(銀)을 켜다 한다.
- 작은골 : 음지마을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273) 장당비알은 음지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274) 지내등은 새터 동쪽에 있는 등성이다. 새터는 음지마을 동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275) 맹매기방우는 독жат골에 있는 바위로, 맹매기집이 있었다 한다.

276) 당수골은 새터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당수나무가 있었다 한다. ‘당사(堂祀)’라고도 한다.

- 쟁골 : <활천리>의 ‘쟁골’ 참조.
- 절터골(1) : 쌍학골과 양지마을 서북편에서 경주시 내남면 안심리와 접하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신라 때의 보안사(普安寺)라는 절이 있었으므로 절터골이라 불린다.
- 절터골(2) : 북안리 산26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점골 : 윗골등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를 불리던 점(店)이 있었다 한다.
- 중산골 : 성불암²⁷⁷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승려[僧]를 화장하던 곳이다. ‘태우다=사르다’에서 ‘중 사른골’이 ‘중산골’이 되었다. 북안리 산23번지 일대이다.
- 지내등골 : 북안리 산9번지와 산10번지 사이의 골짜기이다.
- 채민골 : 북안리 산84-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채봉골 : 북안리 산1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큰골새 : 큰부뚝골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회나무골 : 북안리 산110-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고고밑들 : 음지²⁷⁸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골안들 : 골안골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고란들’이라고도 한다. 북안리 116번지 일대이다.
- 굽들 : 음지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북안천 남쪽 경지정리 지역인 북안리 1255번지 일대이다. 유래는, 천마산에 ‘천마시혈풍’이란 명당이 있어 말발굽에 바람이 일어 천마시풍이라 하였고 마당장에서 말을 먹였으므로, 말의 발굽이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당산들 : 북안리 1252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북안천 남쪽에 있다.
- 덧들 : 음지마을 뒤에 있는 들판이다.
- 모래보들 : 북안리 1016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이다.
- 버드밭들 : 양지마을 왼쪽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북안리 1169번지 일대이다.
- 새들 : 북안리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新野(伏安洞)로 조사되어 있다.
- 양달들 : 북안리 1044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북안천 북쪽에 있다.
- 음달들 : 북안리 1038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북안천 남쪽에 있다.
- 장당들 : 장당비알 밑에 있는 들판으로, 북안리 937번지 일대로, 북안천 남쪽에 있다.
- 장디들 : 북안리 960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북안천 북쪽에 있다.
- 중보들 : 북안리 1247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북안천 남쪽 경지정리 지역에 있다.
- 집앞들 : 북안리 1019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북안천 북쪽에 있다.

• 서하리 (西河里)

본래 경주 외남면 지역으로 서쪽에 내[川]가 있어 서하(西河)라 하였는데, 1906년(광무 10) 울산군에 소속되고 그 후 두서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정(大亭), 방말[芳陌], 구석동(九石洞)을 병합하여 서하리라 하였다. 경주 외남면 때는 너보[仍甫]에 속한 마을이었다.

277) 성불암은 새터와 북안 사이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성불암(成佛庵)이란 절이 있었다 한다.

278) 음지는 북안리 음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

- 고주골 : 싱내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자가 살았다 한다.
- 구석골 : 서하천 하단에 있는 골짜기로, 수세(水勢)가 아주 좋은 곳이다. 서하리 산15-2번지와 산16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냇가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속에 자라 [거북, 龜]가 살았고 또 그 옆에는 거북이 형상을 한 큰 바위가 있었다 하여 구석골[龜石谷]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한다. 구전되는 속설(俗說)에, 예부터 너보를 지나는 출장 관리가 원(院)이 있는 마장역(馬場驛)에서 숙박하지 않고 구석골의 명당지에 자리 잡은 지방 호호 강주명의 집에 묵고 가면 빨리 출세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골짜기 근처에서 도자기 굽던 흔적이 발견되고 있으며, 신작로가 없었을 때 울산지방으로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교통로였다. 지금은 대곡댐 부지에 편입되어 그 형상은 찾아볼 수 없다.
- 남아집골 : 서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남(南)씨의 집이 있었다 한다.
- 대동골 : 대동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하리 466-3번지 일대이다.
- 도독골 : 대정 구석골의 서남당이 있었던 당고개²⁷⁹⁾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독이 살았다 한다. ‘도독골’로도 불린다. 또 일설에는 도점골[陶店谷], 즉 도자기를 구웠던 곳에서 유래한 지명이라 하기도 한다.
- 독지네밭골 : 찻굴번디기²⁸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독지네의 밭이 있었다. ‘죽지네밭골’이라고도 한다. 아마도 택호(宅號)가 ‘죽지네’인 것으로 추정된다.
- 방말골 : 서하리 551-1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동서로 길게 뻗어 있다.
- 뺨덕골 : 마병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하리 산93-12번지 북쪽 일대이다.
- 삼박골 : 우부네집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봉화대가 있었다. 여기서 봉화대는 소산봉수대(蘇山烽燧臺)를 일컫는다. ‘삼막골’이라고도 한다.
- 선필골[善弼谷] : 인보리와 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서하리 782-1번지 일대이다.
- 싱내밭골 : 통구무(통굽이)네집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우부네집골 : 청대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골 : 큰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중산골 : 장천사(障川寺)가 번창했을 때, 이 절의 승려들이 죽으면 화장하던 곳이라 하는데, 이는 (죽은) 승려를 불사른 골짜기라는 뜻에서 ‘중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한편 장천사는 두동면 천전리에 있었던 신라 고찰(古刹)이었다고 전한다.
- 청대밭골 : 작은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1) : 고주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大谷(西河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큰골(2) : 서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통구무(통굽이)네집골 : 독지네(죽지네)밭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통굽이(통구무)네의 밭이 있었다 한다.
- 풍산골 : 서하에서 선필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279) 당고개는 방말 남쪽에서 구량리로 가는 고개로, 서남당이 있었다 한다. 방말은 구석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다. ‘방말’ 또는 ‘방지’라고도 한다. 구석골은 대정지 서남쪽 구석에 있는 마을로, ‘구셋골, 구석동, 구수곡’으로도 불린다. 대정지는 서하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 한다.

280) 찻굴번디기는 남아집골 남쪽에 있는 버덩으로, 찻굴(차리)의 위가 된다. ‘찻굴번디기’라고도 한다.

[들판]

- 구셋굴들 : 구셋굴에 있는 들판이다.
- 덧구란들 : 서하 뒤에 있는 들판이다.
- 마장들 : 마장역²⁸¹⁾을 중심으로 주변의 농경지가 있는 들판을 말한다.
- 말뫼들 : 말뫼(末湫)²⁸²⁾가 있는 들판으로, 서하리 154번지 일대이다.
- 보앞들 : 방말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봉화앞들 : 서하리 49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산태미들 : 말뫼들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서하리 188번지 일대이다.
- 앞들 : 서하 앞에 있는 들판으로, 서하리 118번지 일대이다.
- 화주배기 : 서하리와 대정마을 사이의 들판으로, 구한말 경주 손씨가 벼슬을 하여 화죽대를 세웠다 한다. 이곳에는 '화죽대보'가 있다.

• 인보리 [仁甫里, 인보, 잉보, 잉포]

본래 경주 외남면 지역으로 넓은 보(淤)가 있으므로 인보(仁甫), 잉보(仍甫), 잉포(仍浦)라 하였다. 고려 때 너보(仍巴)라 하였고, 조선 초에도 너보(仍甫)라 불려왔다. 경주 외남면 때도 역시 너보라 하여 전읍, 서하까지 관할하고 있었다. 1906년(광무 10) 9월 울산군에 편입되어 그 후 두서면 관할로 되었다. 1911년에는 인보, 전읍, 서하의 3개동으로 갈라졌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두동면의 삼정리 일부를 병합하여 인보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재골 : 진등대²⁸³⁾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재가 많았다 한다.
- 골안골 : 인보리 109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구수골 : 인보의 노서(路西)²⁸⁴⁾에 있는 골짜기로, 인보리 620번지 일대이다. 내와로 넘어가는 큰 재에 있는데, 구수란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다. 이 골짜기 안에 가장곡, 불당골, 함박등, 원시네, 박골 등이 있다. 북에서 동남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에 九水谷(仁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남바짓골 : 통시맛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닭알집골 : 인보리 산10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딱발골 : 중선필(中善弼)²⁸⁵⁾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마단골 : 인보와 서하리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말을 매던 곳이다. '마장(馬場)'이라고도 한다.
- 마붕지골 : 인보리 83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땅골(1) : 하선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불당이 있었다고 하나 그 흔적은 찾을 수 없다.
- 불땅골(2) : 인보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인보리 644-1번지 일대이다.

281) 인보에 있는 조선시대의 너보역[仍甫驛]을 지칭하는 일부의 견해도 있다.

282) 말뫼(末湫)는 구셋굴 북쪽에 있는 보(淤)로, '마보평(馬洑坪)' 또는 '말보평(末洑坪)'이라고도 한다.

283) 진등대는 불땅골 동남쪽에 있는 긴 등성이이다.

284) 노서는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제35호(지금의 '반구대로')에 의해 마을이 동·서로 분할되므로, 서쪽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285) 중선필은 상선필과 하선필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서 선필(善弼)은 인보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시골, 예씨네집골'이라고도 한다.

- 셋밭골²⁸⁶ : 『조선지리지』에 薪田谷(仁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셋골 : 중선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가 났다 한다. ‘셋골’이라고도 한다.
- 안골 : 인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등골 : 진등대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찬물내기골 : 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찬물이 났다고 한다.
- 큰골 : 진등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통시밋골 : 점마실²⁸⁷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평장앗골 : 점마실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함박대기골 : 불망골(2)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인보리 636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善彌谷(仁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덧들 : 인보 뒤에 있는 들판으로, 인보리 68번지 일대이다. 인보리와 두동 입구 삼거리 사이의 고속도로와 국도 사이의 들판, 즉 두광중학교 주변 일대의 들판을 말한다.
- 번답들 : 인보리 28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삼거리들 : 상선필(上善彌)²⁸⁸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세 갈림길에 있다.
- 소미기들 : 상선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소를 놓아 먹였다 한다. 인보리 1006-2번지 일대이다.
- 신전앞들 : 인보리 31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薪田坪(셋밭들, 仁甫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앞들(1) : 선필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인보리 492번지 일대이다.
- 앞들(2) : 〈서하리〉의 ‘앞들’ 참조.
- 양지편들 : 인보 서북쪽 양지(陽地)에 있는 들판이다.
- 창건네들[倉越坪] : 인보 동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인보리 393번지 일대이다.

• 전읍리 [錢邑里, 전읍, 돈골]

본래 경주 외남면 지역으로 조선 초부터 회은촌[回隱村, 돈마을]이라 하던 곳이다. 돈골 또는 전읍이라 하였다.²⁸⁹⁾ 경주 외남면 때는 너보[仍甫]에 딸린 마을이었다가 정조 때 처음으로 독립되어 전읍리가 되었다. 1906년(광무 10) 9월 울산군에 편입되고 그 후 두서면 관할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유촌(柳村), 대리[大里, 큰말], 신전[薪田, 새터, 셋밭골], 월부[月浮, 달비데]를 병합하여 전읍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장골 : 논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전읍리 산143번지 일대이다. 예전에 가장(假葬, 초분)을 하

286) 셋밭골은 인보 동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원래는 셋밭골[薪田谷]이다.

287) 점마실은 하선필 서쪽에 있는 마을로, 쇠점이 있었다 한다.

288) 상선필은 선필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289) 일설에, 신라 때 돈을 만드는 주조소(鑄造所)가 있었다고 하나 설득력이 없다.

였다.

- 각골(각골새) : 두서농공단지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감나무골 : 양지편²⁹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있었다 한다.
- 논골 : 양지편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많다.
- 대룡골 : 대리²⁹¹⁾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옷대룡골과 아릿대룡골이 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아래의 피난골과 같아 보인다.
- 두산골 : 물탕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덧골 : 대리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딸밭골 : 양지편 뒤, 가장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전읍리 산5번지 남쪽 일대이다. 달[月]과 밭[田]의 이름으로 한때 월전사(月田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달과 같이 생긴 밭이 있어 '월전'이라 하며, 원래 딸밭골이 딸밭골로 변음된 것으로 보인다.
- 무덤태골 : 딸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무덤태못 서쪽이다. 전읍리 462번지 일대로, 고려장이 많았다 한다. 이곳을 통하여 가는 고개를 '무덤태고개', 그 들판을 '무덤태들판'이라 한다.
- 물탕골 : 주개동²⁹²⁾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전읍리 산43번지 일대이다. 물탕이 있으며, '수정물탕골' 또는 '약물탕골'이라고도 한다. 이 물탕골에 대한 <두서면지>의 기록을 소개한다.

신전마을 위쪽 서북방에 있는 산의 8부 능선에 있는 샘이다. 바위틈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예로부터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일 년 내내 원근에서 이 약물을 마시려고 사람들이 찾아 들었다. 이곳은 겨우 한 사람만이 들어가 쪽박으로 떠 마실 수 있을 만큼 비좁은 곳인데, 약물을 마시려할 때는 사흘 전부터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정결한 정신을 가지고 찾아야만 효험을 볼 수 있다 한다. 만약 부정한 마음으로 약물탕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나타나고, 또한 물이 솟아오르는 곳에 실뱀이 앉아 있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오래전(70여 년 전)에 처녀 열 명이 이 약물을 마시러 왔는데, 그 중에는 김 아무개라는 사람의 누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눈에 갑자기 호랑이가 보여 약물탕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처녀는 다른 사람이 떠다 준 물을 마시고는 곧 정신을 잃어 들것에 실려 집으로 왔으나, 그 길로 죽어버렸다고 한다.

- 바랑골 : 고장동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바람이 세다고 한다.
- 배나무골 : 전읍리 979-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붓골[湫谷] : 원덤보²⁹³⁾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전읍리 811번지 일대이다. '복골'로도 불린다.
- 북골 : 전읍리 115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션골 : 삼시네방웃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공(佛供)을 들이는 곳이다.
- 삼시네방웃골 : 삼시네방우²⁹⁴⁾가 있는 골짜기이다.
- 성지골 : 대리(큰말)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290) 양지편은 전읍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291) 대리는 쇠밭골 북편에 있는 마을로, '큰말' 또는 '큰마을'이라고도 한다.

292) 주개동은 한박동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주걱처럼 생겼다. 한박동은 가는동 서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함박처럼 생겼다. 가는동은 고통동 남쪽에 있는 등성이며, 고통동은 황새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다.

293) 원덤보는 쇠밭골 서쪽에 있는 보(沓)로, 이조 때 원집이 있었다 한다.

294) 삼시네방우는 바랑골 남쪽에 있는 바위로, 높이가 5m쯤 되는데 위에 구멍이 있어서 돌을 던져 구멍에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설이 있는 바위이다. 삼시네는 삼신(할머니)의 뜻이다.

- **섯밭골** : 등만당들 밑에 있는 골짜기로, 전읍리 747-2번지 일대이다. 국도35호선(반구대로) 서편에 있다.
- **수정내골** : 전읍리 982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예전에 섯밭이 있었다 한다. ‘수정나, 수중내(水中乃)’라고도 한다.
- **안골** : 양지편 서쪽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앞골** : 대리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 **엽전골** : 전읍리 8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월새동** : 전읍리에서 두동의 삼정으로 흐르는 고속도로 밑의 골짜기로, 전읍리 186-2번지 일대를 말한다. 본래의 의미는 월수(越水)이며, 전읍마을 전역의 물이 이 골짜기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뜻이다. 즉, 물이 넘쳐간다는 월수인데, 발음이 변하여 ‘월새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 **작은갭골** : 두서공업단지의 오수처리장 옆에 있는 골짜기로, 전읍리 295번지 일대이다. ‘작은갭골’, 또는 ‘작은갯골’로도 불린다.
- **지픈골** : 두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피난골** : 신전마을에서 하천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측으로 펼쳐지는 골짜기가 있다. 그 옆으로 작은 골짜기를 몇 발짝 더 들어가면 있는 골짜기이다. ‘대통골’이라고도 한다.
- **황새골** : 수정내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황새 형국이다. ‘황조곡(黃鳥谷)’이라고도 한다.

[들판]

- **고랫들** : 대리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등만당들** : 전읍리 75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반송지들** : 전읍리 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묘들** : 전읍리 2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무덤태들** : 무덤태에 있는 들판이다.
- **수중내앞들** : 수정내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앞들** : 전읍리 51-1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 **장갯(자)들** : 버던[柳村]²⁹⁵ 서쪽 뒤에 있는 들판으로, 대곡댐 수몰지역에 편입되었다.
- **큰들(1)** : 대리 앞에 있는 들판으로, 전읍리 484번지 일대이다.
- **큰들(2)** : 전읍리 69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차리 [次里, 찻골, 차동]

본래 경주 외남면 지역으로 고현산 밑이 되므로 찻골 또는 차동이라 하였다. 1906년(광무 10) 9월 울산군에 편입되고 그 후 두서면 관할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을의 일부를 언양면 다개리에 편입하고 덕산동[德山洞, 중차리]을 병합하여 차리라 하였다.

295) 버던은 전읍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았다 한다.

[골짜기]

- 독티말리골 : 차리 4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배낭골 : 차리 219-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버디기골 : 새목골²⁹⁶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입구는 좁고 안이 넓게 벌려져 있다.
- 복해골 : 찻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땅골 : 중차리 산53번지와 하차리 산74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불공(佛供)을 들이던 곳이다.
- 새목골 : 광주발등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새 목처럼 생겼다.
- 연불암탕골 : 독티말리골 서북쪽에 인접해 있는 골짜기로, 차리 111-2번지 일대이다.
- 장싯골 : 새목골 동쪽에 있는 긴 골짜기로, 차리 산48번지와 산54번지 사이에 있다. 장수보가 있으며, '장수골'이라고도 한다.
- 절골 : 흠독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절이 있었다 한다.
- 진골 : 하차리(下次里)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 탕골 : 차리저수지 위에 있는 골짜기로, 차리 산24번지 남서쪽으로 접해 있다.
- 흠골 : 가닥보²⁹⁷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흠통이 있었다. 차리의 들판을 흠골들이라 한다. 옛날에 흠골에서 흠을 달아 보(泔)를 만들고 눈에 물을 댔다.
- 흠독골 : 찻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흠골 뒤가 된다. 차리 산170번지의 북쪽과 산363번지의 남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흠독골은 '흠땀골'의 방언이다. 이곳에는 농제목(農祭木, 소나무)과 높이 두 길의 흠독골폭포가 있다. 이 나무 아래에서 매년 음력 6월 15일 차리 마을의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들판]

- 농제들[農祭塚] : 상차리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에는 농제목(農祭木)이란 큰 소나무가 있다. 해마다 이 나무 밑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祭)를 올리므로 이 소나무를 '농제목'이라 하고, 또 이 들판을 '농제들'이라고도 한다.
- 덧들 : 상차리(上次里) 뒤에 있는 들판이다.
- 마치나뭇들 : 중차리(中次里)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보리미들 : 하차리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보림들'이라고도 한다.
- 새뫼들 : 새보²⁹⁸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앞들 : 상차리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오뫼들 : 오매²⁹⁹가 있는 들판이다.
- 은수암들 : 복해³⁰⁰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은수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한다.
- 잔들 : 찻골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296) 광주발등은 니비등 남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니비등은 소새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로, 누비(누에)처럼 생겼다. 소새등은 기는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로, 소의 혀처럼 생겼다.

297) 가닥보는 잔들 동쪽에 있는 보(泔)이다. 잔들은 찻골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298) 새보는 진골 서북쪽에 있는 보(泔)이다. 진골은 하차리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299) 오매는 하차리 남쪽에 있는 산이다.

300) 복해는 찻골(차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폭포가 있다.

- 진골들 : 차리 73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흙골들 : 흙골에서 흙을 달아 보(洑)를 만들어 관개하는 들판이다.

• 활천리 [活川里, 활천, 살근내]

본래 경주 외남면 지역으로 살근내 또는 활천이라 하였다. 경주 외남면 때는 전천(箭川)이라고도 하였다. 1906년(광무 10) 9월 울산군에 편입되고 그 후 두서면 관할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가장동(柯長洞)을 병합하여 활천리라 하였다.

[골짜기]

- 거는골 : 활천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건옹골'이라고도 한다.
- 고든골 : 묵골 남쪽에 있는 골은 골짜기이다.
- 도독골 : 가정(柯亭)³⁰¹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독이 많았다 한다.
- 말기미골 : 햇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멩에골 : 천연치수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멩에처럼 생겼다 한다.
- 못골 : 활천 남쪽 열박재 못미처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못골못이 있다. 이 골짜기 안에는 여러 갈래의 세곡(細谷)이 많다. 즉, 양달, 뺨득갓, 큰골, 황송, 딴빌이, 미영밭골, 건옹(거는)골, 진골, 멩에(멍에)골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딴빌이는 못골못 좌측에 있는 산 이름으로, 경사도가 70도가 넘게 길게 뺨여있는 곳이다. 미영밭골은 목화를 많이 재배하던 곳이며, 건옹골(거는골)은 물이 좋은 우물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그 흔적은 없다. 그러나 황송이란 지명의 의미는 알 수 없다.
- 묵골 : 불땅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골[水谷]이라고도 한다.
- 문등골 : 양달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방말등대골 : 활천리 산60-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땅골 : 햇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 한다.
- 삼밭골 : 고든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 삼봉골 : 활천리 산120·121번지의 북쪽과 산161-1번지의 남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즉 지금의 열박재교차로를 중심으로 하여 '반구대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뺨은 골짜기이다. '상봉골'로도 불린다.
- 새밀골 : 새밀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활천리 산31번지 일대이다.
- 서당골 : 활천 북쪽 석문암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서당이 있었다 한다.
- 석문암골 : 재현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라 때의 암자인 석문암(石門庵)이 있었다.
- 손골[細谷] : 삼밭골 남쪽에 있는 좁은 골짜기이다.
- 수리지골 : 열박들 좌우에 있는 골짜기로, 삼봉산 주령의 골짜기 물이 흔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 손박골 : 준주봉(峻珠峰)³⁰² 밑의 손골[細谷]으로, 활천리 산8번지의 남쪽인 봉계마을 뒤편에 있

301) 가정은 활천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가나무의 정자가 있었다 한다. '가람정'이라고도 한다.

302) 준주봉은 활천리와 내남면 월산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활천에서 제일 높다. 전설에 의하면, 태고(太古)에 해일로 물이 차올라 꼭대기에 승려 한 사람이 있을 만큼만 남기고 물에 다 잠겼다 하여 준주봉이라 불렀다고 한다.

는 골짜기이다.

- 안골 : 가정마을에서 안가림정 마을로 나 있는 골짜기를 통칭한다.
- 양달골 : 큰골 북쪽 양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재앤(옹)골 : 활천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의 못을 쟁골못이라 한다. 고려 때의 명기(名妓) 전화앵(轉花鶯)의 묘가 있으므로, ‘전화앵=재앤=쟁골’이라 한다.
- 재피골 : 열박들 좌우에 있는 골짜기로, 방말등대골 밑을 말한다. 활천리 산60-3번지 일대로, 재피나무가 많았다 한다.
- 재현골 : 활천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경주 최씨들의 재실과 묘소가 있는 곳이므로 재현골[齋獻谷, 재궁골]이라 한 듯하다. 이곳에는 조선 초기 성균 사성(成均司成)을 지낸 경주 최씨 사성공파(司成公派) 파조인 최예(崔訥)의 추모지소인 활천재(活川齋)가 있다. 이 골짜기에서 갈라진 여러 개의 손골[細谷]이 있다. 즉, 물골[목골], 불(뽕)당골, 고동(든)골, 삼박(밭)골, 송(손)골, 숯골배기, 음달, 감나무골, 햇골 등이 있다. 이 중 숯골배기는 옛날에 숯을 구운 곳으로 흔적이 있으며, 감나무골은 감나무가 많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많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햇골은 재현골 입구 오른쪽 세곡으로 햇불놀이가 심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한다.
- 진골 : 멩에골 동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長谷(活川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참나무골 : 활천리 산11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천연치수골 : 양달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 : 황송골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로, 활천리 산116번지 일대이다.
- 햇골 : 재앤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 초분)을 많이 해서 허깨비(도깨비)가 나올 만큼 깊고 험한 곳이다.
- 황송골 : 못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소나무가 많았다.

•
•
•
•
•
•
•
•
•
•

활천리의 전설

옛날 살그내(활천의 우리 말)에 박 씨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박 씨는 일찍 산으로 나무하러 나갔고, 그 아내도 보리밭에 김을 매러 나가는 참이었다. 효성이 지극한 부인은 행여나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추울 새라 화로에는 숯불을 이글이글 피워놓고 뒷목에는 숯상을 차려 두었다. 집에는 근근이 기어 다니는 아기가 하나 있었다. 아기를 시아버지에게 맡겨두고 부인은 보리밭으로 나갔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심심한 나머지 며느리가 차려놓고 간 숯상을 당겨놓고 한 잔 두 잔 마시는 사이에 그만 술에 취하고 말았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늙은이가 눈을 뜨고 보니 이상한 냄새가 방안에 가득했다. 깜짝 놀라 화로를 보니 손자가 그만 불에 얹어진 채 숨져 있었다. 노인이 소스라치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는데, 마침 밭에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왔다. 노인은 영겁결에 그만 드러누워 눈을 감고 자는 척 하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와 이 비참한 모양을 본 며느리는 금방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자신을 달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시고 행여나 자책을 하실까 싶어하였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부둥켜안고 뒷산에 가서 고이 묻어 주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인은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다. 그제야 잠이 깬 척하며 일어난 노인은 며느리에게 아기는 어딜 갔느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웃 아이들이 업고 놀러 갔다고 하였다.

이런 기구한 일이 있는 뒤에 산에서 남편이 돌아왔다. 부인은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어 그 동안 일어났던 전말을 다 말하였다. 그리고 부인은 우리들은 아직 젊으니 아기가 또 낳으면 될 일이나, 행여나 아버님이 아시고 심상하여 무슨 변이라도 일어나면 어찌 하겠느냐고 시아버지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정색을 하며 옆드려 아내에게 큰 절을 하였다. 아내의 효심에 감탄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로 박 씨는 날마다 출입할 때는 아내에게 정중히 절을 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지나자 이 일이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사내가 오죽 못났으면 저렇게 아내에게 절을 할까? 하며 모두들 입을 비죽(비죽)거리며 손가락질을 했다. 때마침 영조대왕의 명을 받아 영남으로 암행하는 어사(御史)가 있었다. 그 유명한 박문수(朴文秀) 어사였다.

경주로 내려온 박 어사에게도 박 씨의 소문이 들렸다. 필경 무슨 사연이 있을 테지? 그럴잖으면 그럴 수가? 하였다. 마침내 박 어사가 살그내로 박 씨의 집을 찾게 되었다. 한양에서 손님이 왔다는 말을 듣자 박 씨는 옷깃을 가다듬고 북향재배를 하고 난 뒤에 임금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박 어사는 속으로 놀랐다. 충성심도 대단한 사람임을 직감하였다. 박 어사는 하룻밤을 같이 지내며 끝내 박 씨의 감추어진 사연을 알아냈다. 서울로 돌아간 박 어사는 조정에 이 일을 보고하였고, 임금은 이 마을에 정려하고 크게 상을 내렸다. 또 충효비도 세워 그 충성스럽고 지극한 효심을 기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비는 없어지고 지금은 옛 이야기만 회자되면서 전해지고 있다.³⁰³⁾

[들판]

- 갯빈들 : 활천 동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강변들'이라고도 한다. 활천리 788번지 일대이다.
- 못골들 : 활천 앞의 가장 큰 골짜기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에는 신라 때 축조했다는 '못골못'이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池谷坪(못골들, 活川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범바우들 : 활천리 38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새들 : 활천리 78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새밭들 : 활천리 79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서당들 : 활천리 39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아랫골들 : 범바우들과 새들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활천리 347번지 일대이다.
- 열박들 : 열박재[咽薄峴]³⁰⁴⁾ 밑에 있는 들판이다. 닭소[鷄淵]에서 가람정을 경유하여 열박재까지 이르는 지역을 통칭하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咽薄野(活川洞)로 조사되어 있다.
- 웃말들 : 활천리 55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집앞들 : 활천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화주배기들 : 서당골 하단부, 즉 봉계 뒤에 있는 들판이다. 이곳에는 '화주배기보'가 있다.

303) 울산시, 『울산의 전설과 민요』, 1996, 167~8쪽; 강길부, 〈전계서〉, 111~113쪽.

304) 열박재는 활천 남쪽에서 미호리로 가는 고개이다.

원곡
고갯사기와 들판

8. 삼남면

三南面



가천리 뒗골



교동리 마우들



교동리 작괘들



교동리 작하들



교동리 향교골



상천리 들네밭들



상천리 참새이들



상천리 한밤들



신화리 도호들



신화리 마산들(못안들, 덧밭들, 화짓들)



신화리 오리밭골



신화리 장골

8. 삼남면 (三南面, 31.02km²)

본래 언양군의 지역으로서 언양 읍내 남쪽이 되므로 중남면(中南面)이라 하여 상방기(上芳基), 하방기(下芳基), 가천(加川), 장제(長堤), 상천(象川), 신화(新華), 교동(校洞), 수남(水南), 평리(平里)의 9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방기, 가천, 상천, 신화, 교동의 5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1933년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삼동면(三同面)의 구수(九秀), 작동(鵲洞), 둔기(屯基), 금곡(金谷), 하잠(荷岑), 출강(出崗), 보은(寶隱), 조일(早日)의 8개리를 병합하여 삼동과 중남의 이름을 따서 삼남면이라 하여 13개리를 관할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구수리를 언양면에 넘겨주어 12개리가 되었다. 1989년 4월 1일 삼동출장소가 삼동면으로 승격되면서 출장소 관할이던 금곡, 둔기, 보은, 작동, 조일, 출강, 하잠리 등 7개리를 삼동면에 넘겨주어 5개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동쪽은 청량읍과 웅촌면, 남쪽은 양산시 하북면, 서쪽은 상북면, 북쪽은 언양읍에 접하고 있다.

• 가천리 [加川里, 가천, 덜내, 들내]

본래 언양군 중남면의 지역으로서 덜내, 들내 또는 가천이라 하였는데, 조선 예종 때는 가을천(加乙川, 우리말 ‘덜내’)이라 부르던 곳이다. 고종 때까지 중남면에 속하였으나, 1911년에 장제와 가천으로 갈라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장제리를 병합하여 가천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중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에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하여 삼남면이 됨에 따라 이에 속하였다.

[골짜기]

- 고래골 : 소가천(小加川)³⁰⁵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가천저수지 북쪽에서 쇠판골로 이어진다.
- 금강골 : 방기리와 인접한 골짜기로, 금강폭포가 있다.
- 덩덜골 : 소가천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덩(터미) 뒤가 된다.
- 도둑골 : 장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깊숙하여 도둑이 숨을 만하다 한다.
- 덧골(1) : 대가천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덧골(2) : 지내[못안]³⁰⁶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막짓골 : 지금의 언양자동차정비공장 동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매골 : 불근디기에서 등너매 산도밭들로 가는 곳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옛날에 애무덤이 많았다 한다.
- 물방골 : 가천리 산268-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백심골 : 장제1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천리 산103번지 일대이다.
- 쇠판골 : 소가천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鐵]를 팠었다 한다.

305) 소가천은 가천리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다. ‘작은 덜내’라고도 한다.

306) 지내[못안]는 심천(深川) 남쪽에 있는 마을로, 못안[가천저수지] 안쪽이 된다. 심천[깊은내]은 대가천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대가 깊으며 내[川]가 흐른다.

- 쉼바웃골 : 소가천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구봉못 서쪽으로 뻗어 있다.
- 어름골 : 가천리 산268-1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물방골 아래에 있다.
- 외골 : 임씨 묘소와 등너매로 가는 곳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작은골 : 가천리 산268-4번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둘레골 : 가천리 산247-2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장골 : 큰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제골 : 가천리 산241-1번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 : 대가천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천리 산267번지와 산268-1번지에 걸쳐 있다.
- 큰둘레골 : 가천리 산251번지에 있는 골짜기이다.
- 평바위골 : 가천리 산46번지와 산47번지 사이의 골짜기이다.
- 흙안골 : 가천에서 흐르는 작은 내[川]와 국도 35호가 교차하는 공암다리 밑의 하천가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고암들 : 구암³⁰⁷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달넷별 : 가천 앞에 있는 들판으로, 가천리 430-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加川坪[들내별]으로 조사되어 있다.
- 둘레들 : 가천리 98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덧골들 : 덧골³⁰⁸에 있는 들판으로, 가천리 1012-1번지 일대이다.
- 산두밭들 : 구암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가천리 32번지 일대이다. 수도(水稻) 재배가 불가능한 한건(旱乾)한 들판이어서 산도[陸稻]를 많이 재배했다.
- 밤들 : 공암못 남쪽과 금강공업(주)의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가천리 169번지 일대이다.
- 안들(1) : 대가천(大加川) 서쪽 안에 있는 들판이다.
- 안들(2) : 지내[池內, 못안] 북쪽 안에 있는 들판이다.
- 장제들 : 장제³⁰⁹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長堤坪으로 조사되어 있다.
- 죽음술들 : 장제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옛날 이곳에 있는 바위틈에서 술이 솟아났는데, 어느 승려가 지나다가 마신 뒤 죽었다 한다.
- 함밭들 : 국도 35호선 아래 옛 일본인 신사(神社) 터 앞에 있는 들판이다.

• 교동리 [校洞里, 교동, 향꽃골]

본래 언양군 중남면의 지역으로서 언양향교가 있으므로 향꽃골 또는 교동이라 하였는데, 조선 정조 때에 덕천리(德泉里)와 평지리(坪地里)로 갈라져 중남면에 속하였다가 고종 때에는 덕천과 평리로 다시 세분화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남리, 평리 일부를 병합하여 교동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중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에 삼동면과 중남면을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307) 구암은 ①소가천(小加川) 동쪽에 있는 마을로, 구암이 있다. ②구암 서쪽에 있는 바위로, 구멍이 있다. '고암, 굽바우, 굽방우, 공암(空岩)'이라고도 한다.

308) 덧골은 지내(池內, 못안)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09) 장제(長堤)는 강당(講堂) 서쪽에 있는 마을로, 장자가 살았던 곳이라는 설도 있다. 장제는 '진터'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런 해석이라 생각된다. 강당은 소가천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

- 갓골 : 작천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북쪽 산의 양달을 ‘갓골양달’이라 하고, 갓골양달과 마주 보는 골짜기의 남쪽 산을 ‘안골양달’이라 한다.
- 구이골[九疑谷] : 교동리 버든의 동쪽에 있다. ‘구의곡’ 또는 ‘구시골’이라고도 한다. 옛날 어느 성주(城主)가 아홉 번이나 의심하였으므로 ‘구의곡(九疑谷)’이라 하였다는 설화가 있다. 마을이 있는 골짜기의 형태가 좁고 길게 생겼으므로 지형의 생김새에 따라 ‘구시골’이라 하는 듯하다. 여기서 ‘구시’는 한자어 목조(木槽)로, 소 여물통(떡이통)인 구유의 방언이다.³¹⁰⁾
- 논골 : 서당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다.
- 도독골 : 작천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보오골 : 향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봉당골 : 수남에 있는 골짜기이다.
- 봉수골 : 수남마을³¹¹⁾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봉수대가 있는 산 밑이 된다. 큰봉수골과 작은봉수골로 나뉜다.
- 서당골 : 성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
- 성두골 : 작하(酌下)³¹²⁾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오룡골 : 수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오리밭골 : 작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옥산골 : 작천정 앞산을 자수정이 난다 하여 옥산이라 하는데, 이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용못골 : 작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등천했다는 뜻이 있었다. ‘용못골’이라고도 한다.
- 작천골 : 작천정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장골 : 진장에 있는 골짜기이다.
- 향교골 : 교동 1195번지와 1098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향교골’로도 불린다.
- 황새집거리 : 오룡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
남
면

139

[들판]

- 갈밭골들 : 작하 서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구봉들 : 가천리와 경계지점에 있는 들판이다.
- 대밭들 : 작천들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털내들 : 작하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가천리의 털내[加川] 위가 된다.
- 덧들 : 수남 뒤편에 있는 들판이다.
- 마우들 : 정거장(停車場)³¹³⁾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교동리 316번지 일대로, 지금의 언양 보람병원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시대 덕천역(德川驛)의 역마(驛馬)를 이 들판의 곡식으로 충당하였던 역둔토(驛屯土)이다. ‘마윗들’ 또는 ‘마위평(馬位坪)’이라고도 한다.
- 밤살매들 : 평리³¹⁴⁾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310) 강길부, <전계서>, 170쪽.

311) 수남은 교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남천걸 남쪽이 된다. 또 옛날에 약수터가 있어서 덕을 보았다 한다. ‘덕천’이라고도 한다.

312) 작하는 작천정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313) 정거장은 벌마를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정류장이 있다.

314) 평리는 정거장 동남쪽 큰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이다.

- 뺨벌들 : 작하 동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밤나무가 많았다.
 - 자갈들 : 화림정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작천들 : 수남 서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앞에 작괘천³¹⁵⁾이 흐른다. ‘작괘들[酌卦坪]’이라고도 한다. 교동리 670번지 일대이다.
 - 작하들 : 교동리 69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평리들 : 평리마을에 있는 들판이다.
 - 큰들 : 교동리에 있는 들판으로, 그 부근에서 가장 큰 들판이다.
 - 향교앞들 : 향교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화림정들 : 화림정마을에 있는 들판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禮洞坪[鎭庄]으로 조사되어 있다.

• 방기리 [芳基里, 방기, 방대, 방터]

본래 언양군 중남면의 지역으로서 방씨가 많이 살았으므로 방터 또는 방대, 방기라 하였는데, 조선 고종 때는 중남면에 속하였다. 1911년에는 상방기와 하방기로 갈라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상방기리, 하방기리를 병합하여 방기리라 하였다. 울산(울주)군 중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에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금강골 : 사지벌[師子坪]³¹⁶⁾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강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이곳에는 폭포가 있어, 가뭄 때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한다. 방기리 산50-1번지 일대이다.
- 말등골 : 비파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방기리 산56번지 일대이다.
- 못골 : 원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었다.
- 비파골 : 방기리 산56번지와 산57번지 사이의 골짜기이다.
- 새미골 : 상방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숫굴대골 : 삼남목장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방기리 산82-21번지 일대이다.
- 신을골 : 상방저수지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방기리 산60-1번지와 산70-2번지에 걸쳐 있다.
- 운곡(雲谷) : 중방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수원(水源)이 아주 좋아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물이 불어난다고 한다.
- 장제골 : 금강골 아래(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방기리 산49-1번지의 서북쪽에 있다.
- 탑골 : 하방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들판]

- 동매(뫼)들 : 동매(뫼)³¹⁷⁾ 밑에 있는 들판이다.
- 못골안들 :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들판으로, 옛 지번은 방기리 36번지 일대이다. 지금은 방기1

315) 작괘천은 수남 서쪽에 있는 내[川]로, 큰 술잔과 흡사하여 마치 냇물에 술잔을 띄워놓은 것 같아 지어진 이름이다.

316) 사지벌[사지평]은 상방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상방은 방기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317) 동매는 하방 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길의 남서(南西) 블록 내에 있다.

- 사지들 : 사지벌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獅子坪으로 조사되어 있다.
- 연봉징이들 : 사지평 아래에 있는 마을인 연봉진(連峰進)에 있는 들판이다.
- 운곡들 : 운곡(雲谷)에 있는 들판이다.
- 원들 : 하방(下芳)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芳基坪(芳基里)으로 조사되어 있다.
- 중들[中-] : 하방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중뫼들[中湫-] : 하보들[下湫-]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청룡들 : 청룡산³¹⁸⁾ 밑에 있는 들판이다.
- 탑골들 : 탑골에 있는 들판이다.
- 하방들 : 반구대로 서편에 있는 들판으로, 방기리 227번지 일대이다.
- 하뫼들[下湫-] : 하보³¹⁹⁾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상천리(象川里)

본래 언양군 중남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코끼리처럼 생겼으므로 상천이라 하였는데, 정조 때와 고종 때에 중남면의 탈내에 속한 마을이었다. 1911년에 비로소 상천동이란 법정동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화리 일부를 병합하여 상천리라 하였다. 울산(울주)군 중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에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가느골 : 불쌍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가는골 : 상천 남쪽에 있는 가는 골짜기이다.
- 못밑골 : 모래등때³²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쌍골 : 새발굼텅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아녀자들이 불을 켜 놓고 소원이 성취되기를 빌었다 한다. 불썬골=불쌍골이 된 듯하다.
- 새발굼텅이 : 상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새가 많았다 한다.
- 세상골 : 상천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한발과 풍해로 인해 다른 곳에서는 기근이 들어도 이곳에서는 그런 재해를 몰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골짜기로 알려져 있다.³²¹⁾

[들판]

- 강당앞들 : 강당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공암앞들 : 공암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들네벌들 : 상천리 7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덧거랑들 : 상천 뒤쪽 거랑 가에 있는 들판이다.

318) 청룡산은 하방 북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청룡혈(靑龍穴)이라 한다.

319) 하보는 인석(印石, 인방우) 남쪽에 있는 보(湫)이다. 인방우(印石)는 ①하방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인방우가 있다. ②인방우가 있는 바위이다.

320) 모래등때는 구터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모래가 많았다. 구터는 상천 서쪽에 있는 마을로, 상천리에서 맨 처음으로 생겼다.

321) 강길부, <전계서>, 181쪽.

- 덧벌 : 상천 북쪽 뒤에 있는 들판이다.
- 돌랑겘들 : 돌랑겘³²²⁾이 있는 들판이다.
- 벌장(伐庄) : 상천리 구터벌 북쪽 벌판에 있는 들판으로, 들 가운데에 농장이 많아서 그렇게 불린다.³²³⁾ 언양읍 교동리 수남마을 남쪽에도 벌장(伐場)이 있다. 벌에 있는 마을이므로 '벌마을'이라 불렀다. '벌'은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을 말하니, '들'과 같은 말이다. 된 소리로 '펼'이라고도 한다.
- 생징이들 : 방기리의 연봉징이들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신안들 : 신안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안들 : 상천리 504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이다.
- 연봉들 : 연봉저수지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장싱배기 : 상천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장승바기'라고도 한다.
- 지내들 : 상천저수지 위에 있는 들판이다.
- 집앞들 : 상천 앞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象川坪으로 조사되어 있다.
- 참샘이들 : 상천리 95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한밤들 : 상천 서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대야(大夜)'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大夜坪[한밤들]으로 조사되어 있다. 상천리 279번지~300번지 일대이다.

• 신화리 (新華里)

본래 언양군 중남면의 지역인데, 고종 때까지 중남면에 속한 쌍수정(雙水亭)마을이다. 1911년에 신화동이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마산(馬山), 후평(後坪), 쌍수정, 도호(棹湖)를 병합하여 신화리라 하였다. 울산(울주)군 중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에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각골 : 배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화리 458번지 일대이다.
- 관청골 : 사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조 때 언양 고을에 달린 창고가 있었다.
- 구이골 : 신화리 119번지 좌우 일대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이다.
- 배밭골 : 작은못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봉당골 : 쌍수정³²⁴⁾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태골 : 땅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양밭골 : 덧벌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조 때 언양 고을에서 양을 놓아 먹었다 한다.
- 오리밭골 : 마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화리 1531번지 일대이다.
- 작은못골 : 쌍수저수지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화리 504번지 일대이다.
- 장골 : 큰못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화리 520번지 일대이다.

322) 돌랑겘은 상천 동쪽에 있는 내[川]로, 돌이 많다.

323) 강길부, <전계서>, 180쪽.

324) 쌍수정은 덧벌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서 두 갈래의 내[川]가 합수된다. 덧벌은 마산마을 뒤편에 있는 마을이다. 마산은 신화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앞산이 말처럼 생겼다 한다. '말미'라고도 한다.

- 진장골 : 신화리 산35-4번지 남쪽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못골 : 쌍수저수지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신화리 517번지 일대이다.

[들판]

- 고개밭들 : 신화리 25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도호들 : 도호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KTX 역세권에 편입되어 택지로 변했다.
- 덧밭들 : 덧밭[後坪]에 있는 들판으로, 신화리 969번지 일대이다.
- 마산들 : 마산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덧밭들, 못안들, 화지들’을 통틀어 ‘마산들’이라 한다.
- 못안들 : 신화리 1593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다.
- 밭들 : 신화리 74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붓들 : 마산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붓들보(洑)의 물을 댈다. 신화리 807-2번지 일대이다.
- 썩애들 : 마산과 쌍수정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신화리 765번지 일대이다. ‘새들’이라고도 한다.
- 앞밭들 : 마산 앞에 있는 들판으로, 신화리 1392번지 일대이다.
- 양아밭 : 신화리에 있는 들판이다. 이 들판에 찬쌈(찬물쌈)이 있었는데, 여기서 붉고 푸른 형꽃을 매달고 치성을 드렸다 한다.
- 장골들 : 진장밭들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쌍수정 사람들이 언양장을 오갈 때 이곳을 지나 다녔다.
- 진장밭들 : 도호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진장(陣庄) 옆이 된다.
- 찬물들 : 쌍수정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찬물이 솟아난다.
- 청룡곶들 : 쌍수정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마산의 청룡이 되는 산 밑에 있다.
- 평리들 : 신화리 KTX 울산역 앞의 들판이다.
- 화죽대밭들 : 쌍수정과 마산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신화리 1048번지 일대이다. 옛날에 마을에서 벼슬한 사람이 나와 이곳에 화죽대를 세웠다 한다. 줄여서 ‘화지들’이라고도 불린다.

원곡
고갯사기와
드림관

9. 삼동면

三洞面



금곡리 떼감나무들



금곡리 재석양골



금곡리 하잠골



둔기리 허갑들



둔기리 꿀안골



둔기리 색배골



보은리 개핀들



보은리 송정들



보은리 너머티골



보은리 신지골



보은리 지랑들



작동리 복갱이들



작동리 피논들



작동리 오정골



조일리 조일들



출강리 누룩진들



출강리 시래들



출강리 신티골



출강리 울대골



하잠리 봉담들



하잠리 솔만들



하잠리 박모골



하잠리 장골

9. 삼동면 (三洞面, 62.35km²)

본래 언양군에 속한 면으로서 상남(上南), 중남(中南), 하남(下南)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이를 합하면서 3개의 남(南)을 뜻하는 '삼남면(三南面)'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웅촌면 대양(大陽)과 청량면의 각 일부를 편입하였다. 1977년 5월 1일 군(조례) 제183호로 조일, 보은, 금곡, 하잠, 출강, 작동, 둔기의 7개리를 관할하는 삼동출장소를 두었다. 출장소는 옛 삼동면의 땅에 둔 것으로 조선 경종(1721~1724) 때는 삼동면(三洞面)이라 하다가 철종 말~고종 초에 삼동면(三洞面)으로 고쳤다. 고종 중엽에 삼동면을 하남면에 합쳤다가 조선조 말에 와서 하남면을 삼동면으로 개칭하였다. 당초의 '삼동면(三洞面)'은 세 개의 마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 글자가 바뀐 '삼동(三洞)'은 그전 삼남면의 '삼(三)'을 취하고, 마을 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동(洞)'을 '동(同)'으로 바꾼 것이다. 1989년 4월 1일 삼동출장소가 삼동면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의 서남단에 위치한 삼동면은 동쪽으로는 청량읍·범서읍·웅촌면, 서쪽은 삼남면과 양산시 하북면, 남쪽은 웅촌면과 양산시 하북면, 북쪽은 언양읍과 접하고 있다.

• 금곡리 [金谷里, 싯골, 금곡]

본래 언양군 삼동면의 지역으로서 금이 났으므로 싯골 또는 금곡이라 하였다. 조선 정조 때에 싯광리(新光里)라 하여 삼동면에 속하였고 고종 때에는 하남면에 속하고 있었다. 1911년에 금곡이라 하여 삼동면에 속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곡리라 해서 울산(울주)군에 편입되었는데, 1933년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1977년 5월 1일 군(조례) 제183호로 옛 삼동면 지역에 삼동출장소를 두게 됨에 따라 삼동출장소의 관할에 있다가 1989년 4월 1일 삼동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자 여기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골짜기]

- 가래골 : 가래골못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상금곡에서 300m쯤 올라가 서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금곡리 589번지 일대이다.
- 갈치골 : 서나무골의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골짜기로, 지형이 갈치처럼 생겼다. 논골 위쪽에 있다.
- 감나무골 : 대밭골등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다. 큰감나무골과 작은감나무골이 있다.
- 끼시능골 : 작은감나무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약 400여 년 전 이씨가 살았던 곳을 '거이지(居李地)'라 한 것이 '거시골' 또는 '끼시능골'로 불려 지게 되었다.
- 굴방구골 : 마을 앞에 있는 굴(窟)같이 생긴 골짜기로, 바위가 많았다 한다.
- 남녘골 : 금곡리에 있는 골짜기로, 남쪽에 있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일제 때 축조된 저수지가 있으며, 논골 앞에 있다.
- 남쪽골 : 남쪽골못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곡리 176번지 일대이다.
- 내리골 : 소재등 앞에 있는 골짜기로, 경사도가 아주 가파르다.
- 논골 : 약대능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층층이 여덟 계단으로 되어 있다.

- 대밭골 : 하금곡 못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시느리대[細竹]와 조리대가 밀식되어 있다.
- 도장골 : 하금곡의 남녘골 저수지 아래쪽, 악대능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대장간이 있었다 한다.
- 못골 : 하금곡의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저수지가 있어 불린 이름이다. 금곡리 560번지 일대이다.
- 뽕나무골 : 적석등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뽕나무가 많았다 한다.
- 새각골 :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 중 첫째 골짜기이다.
- 서나무골 : 내리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앞 능선에 서나무가 많다.
- 쇠갓골 : 울타리를 만드는 쇠를 얻었던 산골짜기로, 중금곡의 동뫼[공동산]이다.
- 송이지골 : 중금곡 북쪽의 솔밭산[鼎足山] 줄기에 뻗어 있는 골짜기로,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악대능골 : 꺼시능골의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그 능선 위쪽에 공동묘지가 있어 무서운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어능골 : 상금곡의 내리골과 적석등³²⁵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올밤골짜 : 상금곡 아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올밤나무가 많이 자생한다.
- 은어골 : 금곡리 산11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작은골 : 작은골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곡리 548번지 일대이다.
- 재석당골 : 금곡리 194-1번지와 산92-3번지 사이의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골[池谷] : 텃골 옆의 골짜기이다.
- 진골 : 남쪽(쪽)골못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곡리 173번지 일대이다. 길이가 길었으며, 물레방아가 있었다 하여 '물방아골'이라고도 한다. 하금곡과 중금곡 사이의 마을 앞 골짜기이다.
- 집골 : 금곡리 574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채봉골 : 쇠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첫골 : 하금곡의 남녘골에 있는 제일 첫 골짜기이다.
- 큰골 : 큰골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곡리 555번지 일대이다.
- 텃골 : 텃골못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밭이 많고 집터가 있다. 큰골(동쪽)과 작은골(서쪽)로 나뉜다. 금곡리 537-1번지 일대이다.
- 풍개골 : 상금곡 가래골 위쪽의 왼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 하잠골 : 남쪽골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곡리 87번지 일대이다.
- 흙골 : 상금곡과 중금곡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흙을 댔다 한다.

[들판]

- 건너들 : 상금곡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도랑 건너에 있어서 불린 이름이다.
- 고염나무들 : 중금곡마을과 상금곡마을 사이의 들판으로, 고염(개암)나무가 많았다.
- 금곡들 : 금곡리 12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떼감나무들 : 금곡리 36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진곡들 : 하금곡마을에서 중금곡마을 사이의 넓고 긴 들판이다.

• 둔기리 [菴基里, 둔터, 둔기]

예전에 임진란 때 의병들이 진을 쳤던 곳이므로 둔터 또는 둔기라 하였다. 본래 언양군 삼동면의 지

325) 적석등은 골짜기에 돌이 많이 쌓여 이루어진 등성이다.

역으로서 작동리와 응촌면의 작치리(鵲雉里)로 갈라져 있었던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작동리 일부와 울산군 응촌면의 대양동 일부를 병합하여 둔기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삼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1977년 5월 1일 군(조례) 제 183호로 옛 삼동면 지역에 출장소를 두게 됨에 따라 삼동출장소의 관할에 있다가 1989년 4월 1일 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자 여기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골짜기]

- 가재골 : 마을 상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가재가 많았다 한다. 사내미골과 맞은편에 있으며, 둔기리 산23번지와 산25번지 사이 일대이다.
- 개암나무밭골 : 묵방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개암나무(고욤나무의 방언)가 많았다.
- 골안골 : 둔기리 산222-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관안골 : 둔기리 42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관음골(1) : 마을 상류 왼쪽 2km쯤에 있는 골짜기로, 하잠리 42번지 일대이다. 능선에는 문수암과 보현암이 있으며, 골짜기에는 상·하작마을의 젓줄인 관음골저수지가 있다.
- 관음골(2) : 하잠리 7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까막골 : 하잠리 산307-2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난두밭골 : 묵방골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골짜기로, 난두나무(산초와 비슷한 열매가 열며 까만 씨로 기름을 짠다)가 많았다 한다.
- 남녘골 : 하잠리 35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다래골 : 옛날에 다래가 많이 열리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골짜기로, 하잠리 701번지 일대이다. 처음에는 월라골[月羅谷]이라 했다. 이는 산과 산이 비단자락처럼 아름답고 그 공간이 '달 월(月)'자와 같고 비단자락처럼 곱게 펼쳐져 있다고 하여 '비단 라(羅)'자를 따서 그렇게 불렀다 한다.
- 닥밭골 : 둔기마을 뒤편 큰갓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닥나무가 많았다. 원래는 대추나무가 많아 '대추나무골'로 불렸다고 한다. 근처에 찬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
- 당골 : 하작마을에서 언양장이나 둔기마을로 갈 때 넘나드는 오솔길이 나 있는 골짜기로, '새골'이라고도 한다. 서낭당이 있었다.
- 대밭골 : 하잠리 산94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뒷골(1) : 하잠리 산92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뒷골(2) : 하잠리 32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모개나무골 : 하잠리 산108번지 동쪽과 산109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로, 모개(과)나무가 많았다 한다.
- 모시밭골 : 마을 위 양지쪽, 까치샘 바로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모시밭이 있었다 한다.
- 못골 : 옛날에 못을 막다가 이루지 못한 골짜기로, 이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다. 하잠리 665-1번지 일대이다.
- 묵방골[墨房谷] : 중리의 음달마을이 끝나는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원형벼루에 먹[墨]을 놓아 둔 형태의 골짜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 물탕골 : 남암산 중간쯤에 있는 골짜기로, 3~4m 높이의 폭포가 있어 피부병에 좋다는 소문으로, 1960년대 이 폭포물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로 붐볐을 때도 있었다. 신라 때의 김신암과 김신대가 있었던 곳으로 전해오는 골짜기이다.

- 민달래미골 : 묵방골 못 위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골짜기이다.
- 배나무골 : 관음골 상류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많이 자생했다 한다. 이곳에는 폐광구(廢鑛口)가 두 곳 있는데, 이 광구에 박쥐가 많이 서식했다 한다.
- 범골 : 하작마을의 서남웅덩이 위에 남쪽으로 뚫린 골짜기로, '버무독골'이라고 한다.
- 사내미골 : 문수산 자락의 작은 골짜기로, 지골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하잠리 산150-1번지와 산 160-4번지 사이 일대이다.
- 삼밭골 : 마을 위 음달에 위치한 작은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 새골 : 새골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하잠리 83-2번지 일대이다.
- 색배골 : 하잠리 42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서정골 : 아랫서정골(하잠리 산144번지 남쪽 일대)와 윗서정골(하잠리 산167번지 서북쪽/산168번지 동남쪽 일대)이 있다.
- 은정골 : 상작마을 오른쪽 상류 1.5km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은(銀)을 캐 구덩이가 있다 한다.
- 작은보골 : 마을 상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보(洑)가 있다.
- 장나발골 : 하작교에서 출강 쪽으로 가는 길옆에 있는 골짜기로, 바깥장나발골과 큰장나발골이 있다.
- 재앙골 : 대밭마을 맨 위쪽에서 동북쪽으로 뚫린 골짜기로, 하잠리 720번지 일대이다. '제능곡(帝陵谷)'이라고도 한다.
- 정산갓골 : 상작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둔기리 149번지 일대이다.
- 지골 : 마을 상류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직골'로도 불린다.
- 지남택골 : 관음골저수지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통골 : 마을 아래쪽 하작과 중간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지통(紙桶)이 있었다.
- 참골 : 하잠리 산8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채봉골 : 물막골 오른쪽 작은 등성이 너머에 있는 얇은 골짜기이다.
- 쉐이골 : 떡방골 어귀의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쉐이(키의 방언)처럼 생겼다 한다.
- 큰갓골 : 원둔터마을의 뒤편에 있는 골짜기로, 근처에는 찬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 아래쪽에는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작은갓골, 묵은갓골, 양지갓골, 피밭골, 색백골, 닥밭골 등의 작은 골짜기들이 있다.
- 큰보골 : 마을 상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보(洑)가 있다.
- 행두나무골 : 은정골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살구나무가 자생했다 한다. 하잠리 95-2번지 일대로, 1960년대까지 마을사람들이 화전(花煎)놀이를 하던 편편한 넓은 장소가 있었다.

[들판]

- 당사들 : 둔기리 26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동네뼈벌 : 하작마을 앞쪽 신작로 너머에 있는 넓은 들판이다. 즉 마을 입구에서 하작교까지에 이르는 들판이다.
- 뒫들 : 하작마을의 아래쪽 본마을과 대밭마을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둔기리 776번지 일대이다.
- 송갑들 : 둔기리 84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안들 : 상작마을 안에 있는 들판으로, 둔기리 185번지 일대이다.
- 애밀들 : 하작마을 아래 대암땀의 상류에 있는 들판으로, 청룡등과 이 들판에 관련되어 전해오는

전설이 있다.

전설

옛날 이 마을 어느 집에서 사내아기를 낳았는데 얼마 안 되어 아기가 없기에 놀라 찾아보았더니 천정의 대들보에 앉아 있었고, 아기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비범한 아이가 나면 칭찬 커서 반역한다 하여 아이는 물론 가족까지도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부모들은 고심 끝에 이웃이나 관아에서 알기 전에 스스로 죽여 없애기로 결심하였다.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죽이려 하자 아기가 하는 말이 “나를 죽이려면 겨드랑이에 난 날개부터 솔가지 불로 태워 없앤 뒤에 부엌 문짝을 뜯어서 짓누른 후 돌을 얹어 압사하도록 하시오.” 하였다. 이에 부모는 아기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아기를 죽였다. 그러자 뒷산에서 갑자기 청천벽력이 일어나더니 한 마리의 용마(龍馬)가 나타나 구슬프게 “애밀레, 애밀레” 하며 울다가 죽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기가 장성하면 이 용마를 타고 큰 뜻을 펼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에 사람들은 용마가 나타난 곳을 ‘청룡등’이라 하였고, 용마가 “애밀레, 애밀레”하며 울던 곳을 ‘애밀들’이라 불렀다.³²⁶⁾

- 옥보들 : 둔기리 산33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장기들 : 둔기리 672-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허갑들 : 둔기리 12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보은리 (寶隱里)

조선 고종 때에 보은동이라 하여 하남면(下南面)에 속하고 있었다. 1911년에 보은동과 송정동(松亭洞)으로 갈라서 삼동면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보은리와 송정리에 조일리 일부를 병합하여 보은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삼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1977년 5월 1일 군(조례) 제183호로 옛 삼동면 지역에 출장소를 두게 됨에 따라 삼동출장소의 관할에 있다가 1989년 4월 1일 출장소가 면으로 승격되자 여기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골짜기]

- 갯골 : 애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사람이 쓰는 갯처럼 생겼다.
- 굴범골 : 보은마을 위 용래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살았다는 굴이 있어 그렇게 불렀다.
- 긴밭골 : 묵논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입구에서 끝까지 긴 밭이었으나 얼마 전부터 휴경지가 되어 잡초만 우거져 있다.
- 너머티(팅)골 : 너머티못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749번지 일대이다. 즉 마을 너머에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 하여 그렇게 부른다.
- 논골 : 못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연이어 줄지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
- 동녘골 : 보은리 83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뒷골짜 : 하송정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못골 : 못골소유지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766번지 일대이다.
- 묵논골 : 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는 논이었으나 지금은 휴경지(休耕地)로 변하여 잡초만 우거져 있어 묵논골이라 한다.
- 미영밭골 : 너머티골 너머 우측으로 두 번째에 있는 골짜기로, 미영(목화의 방언)밭이 있었다. 보은리 838번지 일대이다.

326) 강길부, <전계서>, 196쪽.

- 밤나무골 : 미영밭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부터 밤나무가 많았다 한다.
- 방목골 : 방패등³²⁷ 옆에 있는 골짜기로, 소를 방목(放牧)하기 좋은 곳이다.
- 봄보리밭골 : 논골 안 오른쪽 양달쪽에 있는 첫 골짜기로, 봄에 보리를 갈면 산이 가려 기운이 따듯해서 보리가 잘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삼밭골 : 갓골 바로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산213-5번지와 산213-7번지 사이 일대이다. 삼밭이 있었다.
- 새삼골 : 새삼골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723번지 일대이다. 즉 내양마을에서 서쪽인 삼남면 상천리로 가는 길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세 마리의 새가 나는 형국이라 하여 조삼곡[鳥三谷, 새삼골]이라 하였다. 예전에는 이 골짜기에 4가구가 살았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 서른마지기밭골짜 : 보은저수지 바로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밭이 많았다.
- 성지골[聖智谷] : 보은마을에서 삼남면 신복마을로 올라가는 골짜기로, '승중골'로도 불린다.
- 시느리대밭골 : 하송정마을 뒤 골짜기 옆에 있는 골짜기로, 시느리대[細竹] 밭이 있었다.
- 신지골 : 보은못 북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801번지 일대이다. 이 골짜기는 원보은골로 이어진다.
- 야바울골 : 새삼골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880번지 일대이다.
- 애비골[哀悲谷] : 너머티골 좌측 첫 번째 골짜기로, 큰애비골과 작은애비골이 있다. 옛날 홍역 또는 천연두로 죽은 아이를 이 골짜기에 묻었기에 그렇게 불린다.
- 여우골 : 황새등과 마주 보고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많았다. 아랫여우골과 윗여우골이 있다.
- 오목골 : 뒷골못과 오목못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551번지 일대이다. 즉 내양마을 뒷산 너머에 있으며, 지형이 오목하게 생겼다 한다.
- 용랫골[龍來谷] : 호굴(虎窟)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700여 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우인 경(禹仁鏡)이 어느 골짜기 옆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산 위에 오르니 용이 바위를 지나 승천하였다 한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용랫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바위에는 용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다.³²⁸⁾
- 원보은골 : 보은리 783번지 일대의 긴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위에서부터 동녘골, 미영밭골, 신지골, 너머티골 등으로 갈라진다.
- 전지골 : 전지골못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28번지 일대이다. 즉 황새등³²⁹⁾과 방패등 사이의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는 목화를 많이 심었으나 훗날 못을 축조하여 논농사를 짓는 답(畓) 되었다. 이 골짜기는 황새골짜(왼쪽 첫째 골짜기, 지형이 황새목처럼 길다), 밭골짜(왼쪽 둘째 골짜기, 밭이 많다), 지푼골(왼쪽 셋째 골짜기, 골짜기가 깊다), 배나무골(왼쪽 넷째 골짜기, 배나무가 많다), 큰골(오른쪽 셋째 골짜기, 가장 넓고 큰 골짜기이다), 인두뼈든(전지골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골짜기, 지형이 인두처럼 생겼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청도밭골 : 새삼골못 안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코빈골 : 보은마을에서 삼남면으로 넘어가는 못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에 관련된 설화가 있다.

설화

옛날 어느 가난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남과 같이 잘 살 수가 없어 부인이 도망을 가 버렸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곳에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부인의 모습은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도망을 가도 잘 살지도 못하는 여자'라고 하면서 부인의 코를 베어버렸다 한다. 그 뒤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 골짜기를 일컬어 '코빈골'이라 하였다.

327) 방패등은 황새등 앞에 있는 등성으로, 총 등을 방어한다고 하여 불린 이름이다.
 328) 강길부, <전계서>, 198쪽.
 329) 황새등은 하금곡마을 맞은편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한다.

- 행해골 : 상송정 뒤쪽에 있는 골짜기로, 하루 종일 햇빛이 드는 곳이라 하여 불린 지명이다.
- 효자각골 : 원보은마을 아래 단양인 우사곤(禹師鯁)의 효자각이 있는 골짜기로, 보은리 산70번지 일대이다.

[들판]

- 개핀(평)들 : 보은천의 큰 냇가에 있는 들판으로, 보은리 186번지 일대이다. 내·외양마을 아래쪽 송정 맞은편에 있다.
- 불매간들 : 외양마을 아래쪽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에 불매간(대장간)이 있었다.
- 송정들 : 보은리 55-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음지들 : 내양마을 맞은편 냇가 건너 응달진 곳에 있는 들판이다.
- 중령들 : 보은리 40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지랑들 : 보은리 64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큰들 : 성도수련원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은 들판으로, 보은리 590번지 일대이다.

• 작동리 [鵲洞里, 가지골, 까치골, 작동]

조선 정조 때는 언양군 삼동면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894년(고종 31) 하남면에 속했다가 1911년에 다시 삼동면의 관할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작동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삼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1977년 5월 1일 군〈조례〉제183호로 옛 삼동면 지역에 출장소를 두게 됨에 따라 삼동출장소의 관할에 있다가 1989년 4월 1일 삼동출장소가 면으로 승격하자 여기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지골, 까치골 또는 작동이라고도 한다.

[골짜기]

- 가는등골 : 작동리 산166-4번지 동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가장골 : 염추징이³³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갈강골 : 산티곡[山峴谷]³³¹⁾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갈가지가 많았다. 작동리 산266번지 남쪽 일대이다.
- 감다방골 : 삼동로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동리 산31번지 남쪽 일대이다. 도로 건너편(남쪽)에는 ‘대안곡동뚝’이 있다.
- 갓골 : 작동리 83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까막골 : 중리마을에서 차양골마을 쪽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골 전체가 어두움의 상징인 까마귀에서 연유된 이름으로 보인다.
- 고개골 : 작동리 산214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고옥골 : 차양골마을 아래쪽에서 남쪽의 산현마을로 가는 골짜기이다.
- 대밭골 : 불상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竹]가 많았다 한다.
- 대학골[大鶴谷] : 중리마을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로, 큰골과 작은골이 있다. 본래 작동리 중리마을과 웅촌면 대북리 대양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면당(재)을 두고 두 마리의 학이 마주 보고 있다 하여 부른 이름이다. 웅촌면 대북리 쪽은 큰골, 작동리 중

330) 염추징이(염추정)는 점골 동쪽에 있는 고개이다.

331) 산티곡은 산티 남쪽에서 웅촌면 은현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산태곡’ 또는 ‘산티고개’라고도 한다.

리마을 쪽은 작은골로 불렸다.

- 도독골 : 중리마을에서 산현마을로 가다보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도독골과 작은도독골이 있다. 이곳의 지형이 관악기인 ‘독(牘)’을 닮았다 한다. 큰도독골(작동리 산131번지 일대)에는 중리마을의 공동묘지가 있다.
- 도독골 : 중리마을과 산현마을 중간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도치미골 : 작동리 산169번지 동쪽과 산171번지 서쪽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덧골 : 채안골 뒤쪽, 음달마을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서쪽의 첫째 골짜기는 배나무골, 두 번째 골짜기는 복숭아나무골이라 한다.
- 떡방골 : 새미보들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동리 34번지 일대이다.
- 모과나무골 : 차양골뚝(소류지)을 지나 남쪽으로 가다보면 서남쪽으로 길게 나 있는 골짜기로, 모과나무가 많았다 한다.
- 못골 : 부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동리 산174번지 일대이다.
- 배아골 : 중리저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동리 197번지 일대이다.
- 백학골[白鶴谷] : 작동리 중리마을 본동 앞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학의 목처럼 길게 생겼다 한다. 이곳 주민들은 ‘배아골’이라고 부른다.
- 범골 : 산현마을 서남쪽인 작동리 산179-1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범골이 있다.
- 복숭나무골 : 흥천지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복숭나무가 많았다.
- 부처(채)골 : 울대골 남쪽, 즉 산현마을 본동에서 지경골 쪽 약 200여 m쯤의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당골 : 작동리 488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질매등³³²에서 중리마을 쪽으로 왼쪽은 큰불당골, 오른쪽은 작은불당골이라 한다. 옛날에 부처를 모신 불당이 있었다 한다.
- 불상골 : 중리마을에서 산티마을 쪽의 두 번째 골짜기로, 지형이 부처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소장방골 : 지금의 ‘신우레미콘’이 있는 골짜기로, 작동리 207-1번지 일대이다.
- 아랫박골 : 서당앞들 하천 옆에 있는 골짜기로, 작동리 산68번지 북동쪽 일대이다.
- 아장골 : 중리마을과 수리곡 중간의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아이가 죽으면 묻는 곳이라 하여 불린 지명이다.
- 오성골 : 작동리 산196번지 남쪽 일대이다.
- 온골 : 중리마을 서남쪽에 있는 넓은 골짜기로, 골이 넓지만 따스하다고 하여 불린 이름이다. 또한 지형이 넓으면서도 원형을 이룬다 하여 ‘원골’이라고도 한다.
- 울대골 : 산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동리 919번지와 924번지 일대이다. 지형이 학(鶴)의 목처럼 길고 굽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내곡소류지 좌우에 펼쳐진 골짜기로, 가는 등골, 도치미골이 갈라진다. 이 골짜기 물이 피논들로 흘러든다.
- 옷박골 : 작동리 산67번지 동쪽과 작동리 440-2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윗골 : 작동리 산205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장고맥이골 : 차양골³³³의 마지막 골짜기로, 지형이 장구 목처럼 생겼다.
- 점골 : 채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경골 : 작동리 7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진등골 : 모과나무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동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332) 질매등은 지형이 질매(길마의 방언)처럼 생겼다 한다.

333) 차양골은 중리마을 동쪽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 집골 : 불매등³³⁴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박씨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 채안골 : 작동리 520번지 일대, 산247번지 남쪽과 산248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차양골이라고도 한다.
- 초장골 : 농사용 퇴비(堆肥)로 쓰일 풀을 베어 말리던 골짜기이다.
- 터진목골 : 작동리 산25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흙천지골 : 못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흙처럼 생겼다.
- 회상골 : 작동리 산73번지 일대, 즉 중리마을 서쪽 끝부분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는 이곳에 상여집이 있는 데서 불린 이름이다.

[들판]

- 갈대들 : 작동리 32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구만들 : 중리마을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작동리 90번지 일대이다. 지형이 비둘기가 모이를 쪼아 먹는 모습을 닮았다 한다.
- 못바골들 : 산티못³³⁵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북갱이들 : 작동리 56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새미보들 : 작동리 3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서당앞들 : 서당이 있었던 들판으로, 작동리 290번지 일대이다.
- 지운밭들 : 작동리 37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참나무정들 : 작동리 74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피논들 : 작동리 702번지 일대(산티마을)의 들판이다.

• 조일리 [早日里, 조일, 조곡]

조선 정조 때와 고종 때도 조일동(早日洞)이라 하였으며, 조일 또는 조곡(早谷)이라고도 한다. 1911년에도 역시 조일동이라 하였으며 삼동면 관할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조일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삼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1977년 5월 1일 군(조례) 제183호로 옛 삼동면 지역에 출장소를 두게 됨에 따라 삼동출장소의 관할에 있다가 1989년 4월 1일 삼동출장소가 면으로 승격하자 여기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골짜기]

- 가래골 : 지랑마을 앞산 장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가래나무가 있었다 한다.
- 감모랑골 : 암리마을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있었다 한다.
- 구일골 : 지랑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밭골, 삼밭골, 미영밭골, 세등골, 삼정골, 대밭골, 향시골, 가는골[細谷], 장골, 작은골 등 아홉 개의 골짜기가 있어 불린 지명이라 한다.
- 귀비골[歸飛谷] : 구일골이 아름다워 날아온 새가 구일골로 다시 돌아가는 골짜기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곳이다.
- 딸밭골 : 지랑마을 앞산 다음에 있는 골짜기로, 산딸기가 많이 난다. 큰딸밭골과 작은딸밭골이 있다.
- 모개골[毛介谷] : 암리마을 앞 버스정류소에서 신평 쪽으로 가는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

334) 불매등은 산티 북쪽에 있는 등성이로, 지형이 불매(풀무)처럼 생겼다.

335) 산티못은 산티 남쪽에 있는 못이다. 산티[山峴]는 채안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채안골은 중리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산나물이 많이 난다. 중리마을은 작동리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에 이곳에 모씨(毛氏) 성을 가진 아무개가 살았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 목장골 : 조일리 산253번지와 산255번지 사이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못골 : 암리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물방앗골 : 암리마을 앞을 흐르는 내[川] 건너편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옛날에 물레방아를 돌렸다 한다.
- 박고개골 : 동서로 길게 뻗은 골짜기로, 작동리 678번지~695번지 일대이다. 서쪽 끄트머리에는 ‘박고개못’이 있다.
- 샘이골 : 물방앗골 위쪽인 쇠갓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솟는 샘이 있어 그렇게 부른다 한다.
- 석지골 : 암리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로, 땅이 돌처럼 단단하고 토박(土薄)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상금수골 : 보은천을 따라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펼쳐지는 골짜기로, 조일리 785번지 일대이다. ‘비단같이 맑은 물이 항상 흐른다.’는 뜻을 가진 골짜기이다.
- 상학골 : 보은리의 새삼골과 연결된 골짜기로, 지형이 학처럼 생겼다 한다.
- 소정골[小亭谷] : 지랑마을 북쪽의 구일골 입구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작은 정자가 있었다 한다.
- 우막골[牛幕谷] : 지랑마을 남쪽의 가고당등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병에 걸린 소를 격리시킨 막(幕)이 있었다 한다. 현지에서는 ‘소막골’, 또는 ‘소매골’로 불린다.
- 인새골 : 삼남면 방기리 하방기마을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인석골[印石谷]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³³⁶⁾
- 장골 : 지랑마을 앞산 투구등³³⁷⁾ 너머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 절(티)골 : 조일마을 남쪽 솔밭산 아래 향림골 중간의 우막골 입구에 넓게 폭 파인 골짜기로, 조일리 산415-5번지 일대이다. ‘향림사터’로 추정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조상골 : 지랑마을 서편의 상금수와 방기천이 합류되는 곳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참샘골 : 지랑마을 남서쪽의 봉양산과 가고당등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맑고 찬물이 나오는 샘이 있다. 지금은 마을 주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 향시골 : 구일골 아래의 공동묘지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깊고 길어서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향림골 : 조일마을 남쪽 솔밭산[鼎足山]의 북쪽에 위치한 큰 골짜기로, 빼어난 절경과 우거진 향기 나는 푸른 숲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들판]

- 건너들 : 암리마을 건너편 도로 좌우에 분포되어 있는 들판이다.
- 돌목들 : 지랑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하천을 개간하여 조성한 논이라 돌이 많았으므로 그렇게 불렀다.
- 배나굼들 : 옛날에 배나무가 많이 있었다던 배나굼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불매간들 : 암리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에 불매간(대장간)이 있었다 한다. 방기에서 내려오는 물과 못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되는 지점의 위쪽에 있다.
- 서당앞들 : 암리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
- 신평들 : 지랑마을에 새로 만들어진 들판이다.
- 앞들 : 암리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다.

336) 강길부, <전계서>, 202쪽.

337) 투구등은 지랑마을 앞산의 용마등 너머 다음 등의 오른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투구처럼 생겼다 한다.

- 원들 : 암리마을 위쪽으로, 경부고속도로 밑의 넓은 들판으로, 옛날에 원(院)이 있었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 조일들 : 조일리 72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중들 : 삼남면 방기리와 암리마을의 중간지점에 있는 들판으로,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다.
- 지랑들 : 조일리 61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큰들 : 지랑마을 동쪽의 외양과 지랑마을 사이에 있는 큰 들판으로, ‘큰보들’이라고도 한다.

• 출강리 (出崗里)

본래 언양군 삼동면의 지역으로서 출강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하잠리 일부를 병합하여 출강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삼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1977년 5월 1일 군〈조례〉 제183호로 옛 삼동면 지역에 출장소를 두게 됨에 따라 삼동출장소의 관할에 있다가 1989년 4월 1일 삼동출장소가 면으로 승격하자 여기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골짜기]

- 가골 : 박침지무덤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옷가골과 아릿가골이 있다.
- 가는골 : 퇴모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구름등골 : 팔발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등성이가 높아 곳은 날씨에는 산중턱에 안개가 구름처럼 걸려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금일네발골 : 상출강(上出崗)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금일이라는 사람의 밭이 있는 곳이다.
- 내리골 : 불성골 아래에 있는 긴 골짜기로, 안쪽에 있는 버덩에서 화전(花煎)놀이와 살구받기, 닭싸움, 짱치기 등을 했던 곳이다.
- 논골 : 산현골저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출강리 산141번지 서쪽과 출강리 323번지 일대이다.
- 대구산골 : 하잠리의 왕방마을에서 넘어오는 중고개 발치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바닷고기인 대구(大口)처럼 생겼다 한다.
- 대비골[도른골] : 중출강마을과 상출강마을 중간지점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출강리 512번지 일대이다. 안쪽에는 잔디밭골, 넓은등골, 가는골, 태무골, 방아등골, 삼발골, 불매골 등의 골짜기가 모여 있어 이들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 도가리골 : 산태곡³³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논도가리(배미)가 있다.
- 도장골 : 상출강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장 안처럼 골짜기가 깊고 아늑하다.
- 덧골짜 : 하출강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머구발골 : 출강리 산242-1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묵발골 : 왕방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묵혀 놓은 밭이 있었다.
- 문동골 : 중출강의 처자지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서당에서 공부를 하던 학동(學童)들이 놀던 곳이었다 한다.
- 물막골 : 소먹이는 아이들이나 초군(樵軍, 나뭇꾼)들이 물을 맞으며 목욕을 했던 골짜기이다. 뽕나무골 아래에 있다고 문헌에 전해오는데, 뽕나무골이 어딘지 알 수 없다.

338) 산태곡(산태고개)은 중출강 남쪽에서 작동리 산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물탕골 : 출강리에 있는 골짜기로, 약물탕이 있었다.
- 박골 : 누룩진들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출강리 157번지 일대이다.
- 박점지무덤골 : 산태고개(산태곡)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박점지의 무덤이 있다.
- 밤나뭇골 : 불매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밤나무가 있었다. 옷밤나뭇골과 아랫밤나뭇골이 있다.
- 배나뭇골 : 불당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배나무가 있었다.
- 범덕골 : 출강리 산12-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매골 : 중출강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불매(풀무)처럼 생겼다 한다.
- 불땅골 : 출강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 출강리 586-2번지, 619번지와 산262번지 일대이다.
- 불성골 : 팔발등³³⁹⁾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켜놓고 기도를 드린 곳이다.
- 산터골 : 출강리 산166-6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산현골저수지 밑에 있는 산터골과 연결된다. '산터골'의 다른 말이다.
- 살구나뭇골 : 산태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출강리 산171-10번지와 산171-11번지 일대이다.
- 삼밭골 : 대비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 새질등골 : 새질등³⁴⁰⁾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성지바골 : 하출강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성지지골 : 도가리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소대가리등골 : 소대가리등³⁴¹⁾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송가월골 : 갯변들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출강리 산104번지 일대이다.
- 아릿밭골 : 묵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왕방골 : 하출강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하잠리의 왕방(王芳)³⁴²⁾ 위가 된다.
- 용수(소)골 : 불땅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쭈[龍沼]³⁴³⁾가 있다.
- 울대골 : 출강리 산152번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안골 : 출강리 11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점골 : 큰골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로, 점(店)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채봉골 : 상출강마을 입구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골[假葬谷]'이라고도 한다.
- 처자지골 : 중출강 마을창고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처자(처녀의 방언)가 반듯하게 누워 있는 형국이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 층계밭골 : 불성등 바로 위에 있는 골짜기로, 바위와 밭이 층계(層階)처럼 되어 있다.
- 큰골 : 불당골의 맨 위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큰안골 : 작은안골의 동쪽 안에 있는 골짜기로, 출강리 산28-4번지 일대이다.
- 퇴모골 : 도른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포구나무징이골 : 불당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포구나무가 있었다.
- 피골[血谷] : 상출강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임진왜란 때 야단등³⁴⁴⁾에서 왜적이 조선 의병들과의 전투를 벌인 후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피가 흘러내린 골짜기라 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곳에서 금곡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피골재이다.
- 흘비골 : 조가터³⁴⁵⁾ 조금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한 바퀴 휘어져 돌아 들어간 형상이다.

339) 팔발등은 하출강마을 뒤쪽 산등성으로, 팔밭[火田]을 했다 한다.
 340) 새질등은 배나뭇골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새로 길어 냈다.
 341) 소대가리등은 가는골 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소의 대가리(머리의 비속어)처럼 생겼다 한다.
 342) 왕방은 하잠리의 안사촌마을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343) 용쭈는 용수골에 있는 소(沼)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가뭄에 기우제를 지낸다.
 344) 야단등은 상출강마을의 뒷산 등성이다.
 345) 조가터는 상출강마을 건너편 흘비골 밭지에 있는 조씨(曹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집터이다.

[들판]

- 각설들 : 출강리 6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갓밭들 : 상출강(上出崗) 앞산 밑에 있는 들판이다.
- 갱변들 : 출강리 129-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내리들 : 누룩징이들 북쪽 비탈에 있는 들판으로, 출강리 134-1번지 일대이다.
- 누룩징이들 : 새들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날이 저물면 땅이 누룩처럼 갈라진다. 출강리 148번지 일대(하출강마을 앞)이다. 이곳에 누룩징이보가 있다.
- 당산논밭들 : 당산논³⁴⁶⁾ 밑에 있는 들판이다.
- 말랑들 : 출강리 160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만당들'이라고도 한다.
- 바우배기들 : 옷밭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바위가 있었다.
- 사내들 : 출강리 7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사우들 : 출강리에 있는 들판이다.
- 새들 : 하출강 뒤쪽에 있는 들판으로, 출강리 240번지 일대이다.
- 송계들 : 질보³⁴⁷⁾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수안보들 : 출강리 29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옷밭들 : 사우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옷나무가 있었다. 출강리 515번지 일대로, '오바들'로도 불린다.
- 옥비들 : 출강리 45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웅텅들 : 하출강 동쪽 구렁에 있는 들판이다.
- 질벗들 : 질보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하잠리 (荷岑里)

본래 언양군 삼동면의 지역으로서 하잠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촌리를 병합하여 하잠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삼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3년 1월 1일 삼동면과 중남면이 합한 삼남면에 편입되었다. 1977년 5월 1일 군〈조례〉 제183호로 옛 삼동면 지역에 출장소를 두게 됨에 따라 삼동출장소의 관할에 있다가 1989년 4월 1일 삼동출장소가 면으로 승격하자 여기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골짜기]

- 감나무골(1) : 사촌마을에서 중남마을 쪽으로 가면 만나게 되는 오른쪽 첫째 골짜기로,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다 한다.
- 감나무골(2) : 쇯골로 들어가면 오른쪽 입구에 있는 골짜기로, 큰감나무골과 작은감나무골이 있다. 옛날에 돌감나무가 많았다 한다.
- 관청골 : 조선시대 사창(社倉)이 있었으므로 관청골[官廳谷]이라 하는데, 안사촌 서편 못안에 있다.
- 너머골 : 하잠리 15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널나무골(棺木谷) : 구석들³⁴⁸⁾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시체를 넣는 관(棺)을 만드는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널'은 '관'의 방언이다.

346) 당산논은 하출강 서쪽에 있는 논으로, 당산나무가 있었다.

347) 질보는 하출강 앞 길 가에 있는 보(泐)이다.

348) 구석들은 솔민들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구석진 곳에 있어서 불린 이름이다.

- 대곡산골 : 새양골고개 왼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양쪽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며, 풀이 많아서 소 먹이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다.
- 동려골[東麗谷] : 원하잠³⁴⁹⁾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을 통해 출강으로 넘어간다. 하잠리 482번지 일대로, '동녘골'이라고도 한다. 옛날 이곳에 승당(僧堂)을 지어 놓고 승려들이 살았다 하여 '승당골'이라고도 한다.
- 두리동골 : 못골 오른쪽 마지막 골짜기로, 두릅나무와 산초나무가 많다.
- 뒷골 : 뒷골못 위아래(남북)에 있는 골짜기로, 하잠리 52번지 일대이다. 아래뒷골과 윗뒷골이 있다.
- 못골 : 왕방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다.
- 문동골 : 감나무골에서 중남마을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이곳에 있는 작은 웅달샘의 샘물이 나병(문동병)치료에 효험이 있다 하여 문동골로 불렀다 한다.
- 밀밭골 : 비석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하잠리 1350번지 일대이다. 옛날에 밀밭이 많이 있었다 한다.
- 박모골 : 하잠리 산116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배나무골 : 하잠리 산306번지 동쪽과 산308번지 서쪽 사이의 일대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다 한다.
- 버드나무밭골 : 쇠골(하잠리 1253번지)과 윗감나무골(하잠리 산22-1번지)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하잠리 산23번지 일대이다.
- 부디방골 : 왕방마을에서 동남쪽으로 1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부싯돌골 : 서당골 맞은편의 작은 골짜기로,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이 많이 났다고 한다.
- 봉무골 : 감나무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비석골 : 사촌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하잠리 1366번지 일대이다.
- 살태백이골 : 하잠리 128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삼밭골 : 배나무골 다음의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 새수골 : 하잠리 산172-2번지 동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새양골 : 왕방마을의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어서 '새알골'이라고도 한다.
- 서당골 : 서당이 있었다는 골짜기로, 작은서당골(하잠리 993번지 일대)과 큰서당골(하잠리 1065번지 일대)이 있다.
- 쇠골[金谷] : 삼남면 쌍수정마을과 도호마을 쪽으로 나가는 긴 골짜기로, 하잠리 1253번지 일대이다. '북쇠골'이라고도 하며,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 숫골 : 아래숫골(하잠리 1063번지 일대)과 윗숫골(하잠리 1233번지 일대)이 있다.
- 승당골 : 왕방마을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심방골'로도 불린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 한다.
- 아랫감나무골 : 하잠리 산1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안골 : 하잠마을 남쪽에 있는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 어더나무박골 : 하잠리 102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웅골 : 하잠리 120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윗감나무골 : 하잠리 산2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윗중령골 : 하잠리 산1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349) 원하잠은 하잠리의 원 마을이다.

- 은골 : 중앙레미콘회사가 있는 바로 아래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은을 캐다 한다.
- 인등골[引燈谷] : 하잠리 1055번지 일대에서 하잠리 1449번지 일대의 동서로 길게 뻗은 골짜기로, 지나치는 행인들에게 날이 저물면 등불로 인도하였다는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 장골 : 장골못이 있는 골짜기로, 하잠리 1218번지 일대이다.
- 점골[店谷] : 사촌마을 위 농협창고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각종 사기그릇을 구워낸 곳이다. 이곳에서 구워낸 사기그릇을 '사촌그릇' 또는 '사촌사발'이라고 불렀다.
- 큰골 : 사촌저수지를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로, 삼남면 중남마을로 간다. 하잠리 1465번지 일대와 하잠리 1313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방목골, 배나무골, 삼밭골, 은골, 아래중녘골, 윗중녘골, 밀밭골, 비석골, 관청골' 등의 크고 작은 골짜기들이 있다.
- 피골 : 못골 안 왼쪽의 마지막 골짜기로, 왕방과 출강의 경계지점에 있다. 눈에 피가 많았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들판]

- 구석들 : 솔민들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구석진 곳에 있어서 불린 이름이다.
- 돌보들 : 하잠마을 아래에 있었던 들판으로, 대암댐에 수몰되었다.
- 뒷봉답들 : 하잠마을 뒤에 있는 들판으로, 하잠리 755-2번지 일대이다.
- 봉답들 : 왕방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하잠리 979번지 일대이다.
- 새골들 : 하잠리 53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섬들 : 하잠리 970번지 일대(삼동면사무소 뒷편)의 들판으로, 지형이 섬처럼 생겼다. '점들'로도 불린다.
- 솔민들 : 사촌마을 건너편에서 숫돌고개 아래까지의 들판으로, 하잠리 403번지 일대이다. '송면들'이라고도 한다.
- 정관(靑)들 : 왕방마을 앞쪽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하잠리 924번지 일대이다.
- 축성들 : 사촌(沙村)³⁵⁰에 있는 들판이다. '축선들'이라고도 한다. 김유신 장군이 창건한 축선사(鷲仙寺)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처음에는 축선들이었을 것이다. 뒤에는 축성(鷲城)으로 표기하였으나, 지금은 축성(丑城)으로 쓰고 있다. 어느 해 큰 물이 져서 소 한 마리가 축성천(鷲城川) 상류에 떠 내려와 이 들판의 한 언덕에 걸렸다 한다. 그 뒤로부터 소 '축(丑)'자를 쓰게 됐다고 한다.³⁵¹ 대암댐에 수몰되었다.
- 하잠들 : 하잠리 54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350) 사촌은 인등곡(引燈谷)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인등곡은 원하잠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351) 강길부, <전계서>, 207~208쪽.

원곡
고사기와 들판

10. 상북면

上北面



거리 간창들



거리 어성골



궁근정리 우만이들



길천리 바들들



덕현리 회미들



덕현리 더운골



등억리 간월들



등억리 오리밭골



명촌리 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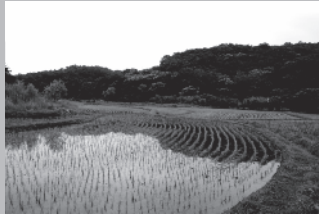
명촌리 명골



명촌리 못안골



산전리 비령들



산전리 원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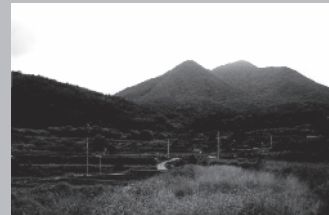
산전리 송라골



소호리 갈배기들



소호리 황가네골



양등리 갈밭들



양등리 걸기미골



지내리 거리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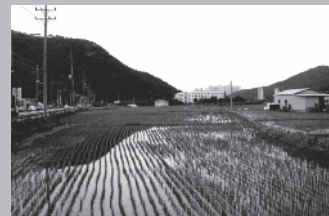
지내리 골새골



천전리 청석밀들



천전리 안골



향산리 능산들



향산리 향산들



향산리 안골새골

10. 상북면 (上北面, 123.33km²)

본래 언양군(彦陽郡)의 지역으로 언양읍의 북쪽이 되므로 하북면(下北面)이라 하여 지내(池內), 능산(稜山), 향산(香山), 도동(道洞), 산전(山前), 궁평(弓坪), 우만(于萬), 화촌(禾村), 궁근정(弓根亭), 삽덕(插德), 현리(峴里)의 11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상남면(上南面)의 양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지내, 향산, 산전, 궁근정, 덕현의 5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1928년 4월 1일(경남도령 제1호;1928.1.28)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면의 이천(梨川), 등억(登億), 천전(川前), 명촌(鳴村), 길천(吉川), 거리(巨里), 양등(楊等)의 7개리를 병합하여 상남과 하북의 이름을 따서 상북면이라 하였는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두서면의 소호리(蘇湖里)를 편입하여 현재 13개리가 되어 있다. 동쪽은 두서면과 언양읍, 남쪽은 삼남면과 경남 양산시, 북쪽은 경북 청도군 운문면과 경주시 산내면과 내남면에 접해 있다.

• 거리(巨里)

본래 언양군 상남면 지역으로 ‘앵기’ 또는 ‘거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거리라 하여 울산군(울주군) 상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가매(소)골 : 가매소³⁵²가 있는 골짜기로, 거리 산133번지 일대이다. 이 골짜기에 있는 폭포를 ‘가매소폭포’라 한다.
- 가지바(밭)골 : 오산들³⁵³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 초분)을 했었다 한다. ‘애장터’(아이를 매장하는 것) 또는 ‘채봉터’(가매장하는 곳)라고도 한다. 여기서 ‘가지’는 ‘가지말라’는 말의 준말이다.
- 골안골 : 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곰지골 : 도삼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거리 산137번지 북쪽 일대이다.
- 꿀덤골 : 지곡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도삼골 : 꿀덤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도솔암(兜率庵)이 있었다.
- 물탕골 : 마당멀리³⁵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탕이 있다.
- 복승나무골 : 빗갓안등³⁵⁵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복승아나무가 있었다. 거리 산143번지의 남쪽 일대이다.
- 불땅골 : 지곡(芝谷, 지시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도수암(道修庵)이라는 절이 있었다 한

352) 가매소는 지곡 서남쪽에 있는 소(沼)로, 가매[釜]처럼 생겼다 한다. 지곡(芝谷)은 하동 위쪽에 있는 마을로, ‘지소곡(紙所谷)’ 또는 ‘지시골’이라고도 한다. 하동(下洞)은 거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맨 아래쪽에 있다.

353) 오산들은 <길천리>의 ‘오산들’ 참조.

354) 마당멀리는 지곡 남쪽에 있는 산이다.

355) 빗갓안등은 빗갓 안쪽에 있는 등성이이며, 빗갓은 지곡 바깥쪽에 있는 산이다.

다.³⁵⁶⁾

- 새밭골 : 하동(下洞)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새(풀)가 많았다 한다.
- 어성골 : 어성못이 있는 골짜기로 거리 795번지 일대이다.
- 외나무다리골 : 지곡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거리 산133-1번지 일대이다.
- 포구남징이골 : 물탕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포구나무(팽나무)가 많았다.
- 푸매골 : 마당멀리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풀이 많았다.
- 흙방웃골 : 흙방우³⁵⁷⁾가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가닥들 : 거리 22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간창들 : 간창(澗倉, 澗蒼)³⁵⁸⁾ 뒤에 있는 들판으로, 거리 526번지 일대이다.
- 거문들 : 반새미³⁵⁹⁾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너븐들 : 푸매골 서쪽에 있는 넓은 들판이다.
- 닥바실들(楮田谷) : 거리의 하동마을 위에 있는 마을인 지곡(芝谷)마을에 있는 들판이다. 지곡·지시골·지소곡 등의 이름이 있다. 마을 부근에 지초(芝草)가 많아서 지곡이라 하였다는 설과 혹은 종이를 만들었던 지소(紙所)가 있어서 지소곡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옛날 닥나무를 찍어 종이를 뜨던 곳을 지소 또는 지통(紙桶)이라 하였다.³⁶⁰⁾ 거리 830번지 일대로, ‘못들’ 아래에 있다.
- 달래기들 : 거리 112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땅말리들 : 하동 동쪽 등성이에 있는 들판이다. ‘똥말들’이라고도 한다.
- 대골들 : 간창들 북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거리 668번지 일대이다.
- 둔기들 : 어성골 남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거리 751번지 일대이다.
- 뗏갓들 : 간창들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못들 : 대문각단³⁶¹⁾ 뒤쪽에 있는 들판으로, 못이 있다. 신기속골들의 서쪽에 있으며, 거리 392번지 일대이다.
- 새밭골들 : 새밭골에 있는 들판이다.
- 신기속골들 : 하동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거리 435번지와 58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심기소골들’로도 불린다.
- 어성들[於城坪] : 지곡과 간창 사이에 있는 들판이다. ‘어(於)’는 늘어짐을 뜻하는 말이다. ‘성(城)’은 새김이 ‘재’이며, 재는 산을 뜻한다. 그러므로 ‘어성들’은 재가 늘어진 들판을 말한다. 이곳에는 어성못[於城堤]이 있다.³⁶²⁾
- 오산들 : <길천리>의 ‘오산들’ 참조.
- 우물절들 : 길천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형상은 사라졌다. 옛 지번은 거리 340번지 일대로, 산단의 북쪽 끄트머리에 있었다.

356) 이유수의 <울산지명사, 1986>에는 절 이름이 도삼사(都森寺)로 되어 있다.

357) 흙방우는 곰지골 동남쪽에 있는 바위로, 가운데에 홀이 있다.

358) 간창은 하동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큰 부자가 살면서 냇가에 창고를 세웠다 한다.

359) 반새미는 거리 서쪽에 있는 샘이다.

360) 강길부, <전계서>, 220쪽.

361) 대문각단은 간창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부자 오씨가 이곳에 대문을 지었다 한다.

362) 강길부, <전계서>, 208쪽.

- 집앞들 : 하동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하동앞들 : 거리 20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궁근정리(弓根亭里)

본래 언양군 하북면 지역으로 활(獲)나무 정자가 있었으므로 궁근정이라 하였다 한다. 조선 예종 때는 임이리[林伊里, 숲이리], 정조 때는 수피리[禾皮里]라 하여 하북면에 속한 마을이었다. 1911년에는 우만(于萬), 화촌(禾村), 궁근(弓根)의 세 마을로 갈라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를 합하여 궁근정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하북면에 편입되었다.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골안골 : 궁근정리 산96-1번지 북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곰지골 : 고현산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 그은 듯 고현사(高獻寺)가 있는 곳까지의 골짜기를 말한다. 이곳 사람들은 고현사를 ‘곰지골절’이라고 부른다.
- 대통골[大通谷] : 신기마을 서북쪽(덕현리 삼재 쪽)에서 제2정상인 매봉[鷹峰] 아래까지 호비칼로 굽어낸 듯 일직선으로 깊게 내려 파인 골짜기이다. 이곳에서 대망(大望)을 이루고자 기도를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배양골 : 고현산 남쪽 기슭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제일 동쪽의 긴등 바로 위에 있다.
- 찬물내기골 : 궁근정리 25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화약골 : 고현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 말기에 이곳에서 염초(焰硝)로 화약을 만들었다 한다.

[들판]

- 사시들[射矢坪] : 고현산 밑 골짜기인 화약골에서 동남쪽으로 2km 지점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 전쟁 때 군사들이 활을 쏘며 훈련을 했던 연병장이 있었다는 곳이다.
- 바들이들 : ‘우만이들’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궁근정리 657번지 일대이다.
- 우만이들 : 궁근정리 197번지와 44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길천리(吉川里)

본래 언양군 상남면 지역으로, 이 마을 중앙에 행화정(杏花井)이란 조그마한 우물이 있어 그 우물에서 흘러가는 내[川]가 물이 맑고 좋아서 좋은 내[川]라 하여 길천리라 했다 한다. 1911년에는 상길동(上吉洞)과 길천동(吉川洞)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지화(知火), 후리(後里), 안마을, 간달(霽月), 순정(尊亭), 원제(原堤)를 병합하여 길천리라 하였다. 그 후 울산(울주)군 상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딸땀이골 : 길천리 산50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땡지미기골 : 순정³⁶³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시미기골 : 순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석동골 : 종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다고 한다.
- 소목골 : 후리마을의 뒷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에는 신라 때부터 이 골짜기의 이름에 담긴 슬픈 전설이 하나 전해 온다.

전설

이곳에 어느 사람이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 사내가 눈이 뒤집혀 며느리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놀란 며느리는 몸을 뿌리치며 ‘왜 이라시나요? 참으시오, 참으시오.’ 하며 울부짖었으나 손목을 잡은 시아비는 이를 놓아주질 않았다. 시아비는 굶주린 범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엉겁결에 ‘뒷골에 가서 소 울음을 세 번 하고 오신 뒤에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며 울부짖었다. 미친 듯한 시아비는 그 말을 듣고 마을 뒤 산골에 가서 ‘우메! 우메! 우메!’ 하며 세 번을 울고 나서 쓴살같이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느리는 이미 죽어 있었다. 며느리가 세 번의 소 울음소리를 내고 오라고 한 것은 상피(相避)를 거절하는 매서운 한 마디 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추잡한 일이 있던 뒤로는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소울음’이라 하였는데 변전(變轉)하여 ‘소목골’이 되었다 한다.

또, 이 소목골의 전설은 좀 다르게도 전해온다.

신라 때 후리마을에 제 정승(諸政丞)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혼기를 놓친 과년한 딸이 있었다. 하루는 제 정승이 그만 딸을 덮치게 되었다. 이때 딸은 소 장삼(長衫)을 덮어쓰고 뒷골에 가서 소 울음을 세 번 하고 온 뒤에는 뜻대로 하라고 하였다. 제 정승이 소 짓을 하고 돌아와 보니 딸은 이미 죽어 있었다 한다. 그 뒤 제 정승이 살던 집은 뫼[파두뫼, 坡頭堤]이 되었으며, 후리마을 앞 들판인 바들[또는 파두(坡頭)라고도 한다]에는 제 정승의 대문이 있었다는 대문달이와 그가 사용하던 우물이었다는 제정새미[諸政泉]가 지금도 남아 있다.³⁶⁴

소목골의 ‘소’는 ‘所·蘇’ 등과 같은 고산(高山)의 뜻이고, ‘목’은 세장(細長)한 지형인 목[項]일 것이니, 이는 높은 산에 오르는 길목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이러한 이름이 뒤에 소목골의 전설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 소무골 : <명촌리>의 ‘소무골’ 참조.
- 종자골 : 소무등³⁶⁵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종자골(種子骨)처럼 생겼다 한다.

[들판]

- 경분들 : 길천리 32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고래들 : 지화(知火)³⁶⁶ 동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만당들[萬堂-] : 지화와 천전리에 걸쳐 있는 들판으로, 길천리 57번지 일대이다.

363) 순정은 갯달 서쪽에 있는 마을로, 미나리가 잘 되었으며 정자나무가 좋다. 갯달(霽月)은 안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로, 동쪽 산이 낮아서 마을이 비운 뒤 개인 달처럼 잘 보인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안마을은 뒷마을[後里] 동쪽 안에 있는 마을이다. 뒷마을은 이불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불(知火)은 길천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신라 때 연양 고을인 거지화현(居知火縣)이 있었다.

364) 이우수, 『울산지명사』, (1986), 울산시·울산문화원, 602쪽, 604~605쪽, 1011~1012쪽.

365) 소무등은 소무골 위쪽에 있는 등성이다.

366) 지화는 길천리에서 으뜸이 되는 마을로, 신라 때 연양 고을인 거지화현(居知火縣)이 있었다.

- 맹지미기들 : 맹지미기골³⁶⁷에 있는 들판이다.
- 바드래 : 후리(後里)³⁶⁸ 앞에 있는 들판으로, 길천리 608번지와 721번지 일대이다. ‘바들’ 또는 ‘파두(坡豆)’라고도 한다.
- 새들 : ‘외날들’ 서편과 후리 마을회관의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길천리 527번지 일대이다.
- 새시미기들 : 새시미기골³⁶⁹에 있는 들판이다.
- 새터밭들 : 회야정들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오산들(吾山坪) : 길천리와 거리에 걸쳐 있는 들판으로, 오산(吾山)³⁷⁰ 위쪽이 된다. 이곳에는 오산보(吾山洑)가 있다. 또 거리의 서쪽에 있는 오두산이 마을에 늘어서 있으므로 산세(山勢)가 자라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오산(鰲山)으로 부른다. 거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 농사를 짓는 보(洑)를 말한다. 이 보의 몽리를 입는 논은 거리와 길천리까지이다. 옛날에 거리에서는 우리 마을 물이라 하여 길천까지 물을 내려 보내지 않아 물싸움이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송사(訟事)로 이어졌는데, 두 마을이 100년 동안 법정에서 다투어 길천리의 승소로 끝을 맺었다 한다. 그러나 소송비용으로 거리는 80마지기, 길천리는 70마지기의 논이 없어졌다. 그러다가 두 마을이 합심하여 못을 막자고 선도한 사람이 있어 못을 만들었다. 그것이 오산못이다. 이로 인하여 100여 년간의 두 마을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 공사는 지곡마을 20여 호가 철거되는 희생도 감수하면서 추진되었다. 제방을 막을 때 망개를 놓았는데, 그 망개 소리와 오산평야 노래[農謠]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³⁷¹
- 외날들 : 길천리 451번지와 50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원뚜들[原丘] : 들이 우묵하게 두덩이 진 곳에 있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 회야정들 : 오산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행화정(杏花井)’이라고도 한다.

• 덕현리 (德峴里)

조선 세종 때 석남동(石南洞)이라 하였으며, 1911년에는 덕현동, 삽리동(插里洞), 행리동(杏里洞)으로 갈라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를 합하여 덕현리라 하였다. 그 후 울산(울주)군 하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광바우골 : 덕현리에서 소호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있는 넓은 바위를 광암(廣岩)이라 한다.
- 더운골 : 가지산탄산유황온천 뒤편(동쪽) 일대의 골짜기로, 더운물이 솟아난다 하여 불린 이름이다. 기존의 문헌에는 ‘등골’로 조사되어 있다.
- 돼지웅덩이골 : 덕현리 산166-1번지와 산166-2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367) 맹지미기골은 순정 뒤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368) 후리[뒷마을]는 이불[知火]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369) 새시미기골은 순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370) 오산은 순정 동쪽에 있는 마을로, 들판 가운데 산이 있는데 그 밑이 된다. ‘오산’이라고도 한다.

371) 강길부, <전계서>, 219~220쪽.

- 새골 : 덕현리 산248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석남사골 : 석남사 서쪽(안쪽)의 옥류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덕현리 산232-2번지 일대이다.
- 옥류골 : 덕현리 1063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잣방골 : 살티[矢峴]³⁷²⁾에 있는 골짜기로, 산이 자빠진 형세를 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불렀다. 큰 잣방골과 작은잣방골이 있다.
- 정수골 : ‘배내로’변에 있는 골짜기로, 덕현리 산247-1번지와 덕현리 산248-2번지 일대이다. 북쪽에 있는 ‘청수골’과 연결된 골짜기이다.
- 청수골[清水谷] : 살티마을의 서쪽 깊숙이 들어간 골짜기로, 배냇골로 들어가는 길 아래에 있다. 사철 맑은 물이 흐르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덕현천 서쪽에 있다. 덕현리 산 246-3번지와 산247-2번지에 걸쳐 있다.

[들판]

- 강답들 : 덕현리 316번지와 39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덕걸들 : 덕현리 42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뒷골들 : 덕현리 30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마방들 : 덕현리 101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배내들 : 덕현리 91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새제들 : 덕현리 38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석리안들 : 덕현리 762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이다.
- 오무골들 : 덕현리 61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회미들 : 덕현리 793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선돌배기들’이라고도 한다.

• 등억리 [登億里, 등어리, 등억, 화천, 곳내]

본래 언양군 상남면 지역으로 지형이 산등성이를 뜻하는 등어리처럼 생겼다 하여 등어리 또는 등억이라 하며, 또는 곳으로 되고 양쪽으로 내[川]가 흐르므로 곳내 또는 화천(花川)이라 하였다. 1911년에는 등억과 신리로 갈라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거리를 병합하여 등억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상남면에 편입되었다.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가들골 : 등억리 산38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내온골 : 등억리 629번지와 산22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늘매골 : 등억리 59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동작골 : 등억리 산144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신불산골 : 등억리 산53번지와 산54번지 사이의 일대 골짜기이다.
- 오리밭골 : 등억리 산84번지 남쪽과 46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372) 살티는 배내(梨川)로 넘어가는 계곡에 위치한 마을로, 화살을 만들었다 한다.

- 왕바위골 : 등역리 산183번지와 산18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저승골[九泉谷] : 등역리 간월(肝月)마을³⁷³⁾에서 북쪽으로 더 들어가는 안쪽 간월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높은 벼랑과 골이 하도 깊고 험하여 '저승골'이라 한다. 즉 천질바우[千丈巖]³⁷⁴⁾ 북쪽 골짜기이다. 이 바위의 북쪽 막다른 골짜기이다.
- 진등골 : 등역리 산166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천상골(1) : 등역리 산19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천상골(2) : 등역리 산220-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폭포골 : 등역리 산18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간월들 : 등역리 400-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못밑들 : 등역못 밑에 있는 들판으로, 등역리 442번지 일대이다.
- 섬백이들 : 등역리 9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오리밭들 : 오리밭골 안에 있는 들판으로, 등역리 463-6번지 일대이다.

• 명촌리 (鳴村里)

본래 연양군 상남면 지역으로 명촌이라 하였는데, 1911년에는 명촌과 사광(斜光)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사광리(斜光里)를 병합하여 명촌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상남면에 편입되었다.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내리골 : 박수태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너럭바위가 내리 깔려 있다. 명촌리 산28-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뒷갓골 : 명촌리 산24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명골 : 불당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명촌리 산19번지 북쪽 일대이다.
- 모래골 : 지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래가 많다. 명촌리 539-1번지 일대이다.
- 못안골 : 명촌리 447-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박수태(때) : 명촌리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박토(薄土)의 논이 있다. 명촌리 산65번지와 산65-1번지 사이 일대로, '박소골'로도 불린다.
- 불당골 : 명촌리의 새목당이³⁷⁵⁾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명촌리 240번지 일대이다. 옛날에 불당(佛堂)이 있었다.
- 소디미[소듬골] : 명촌리의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풀이 좋아 소를 놓아먹인다. 이곳에 소디미 논이 있다. 명촌리 268번지 일대이다.
- 소무골 : 명촌리와 길천리 경계지역에 있는 골짜기로, '소문골'이라고도 한다. 명촌리 산11번지 일대이다.

373) 간월마을은 등역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간월산 밑이 된다.

374) 천질바우는 간월마을 서쪽 간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하늘을 찌를 듯 우람하게 솟아있는 바위이다.

375) 새목당은 명촌 북쪽에 있는 등성으로, 지형이 새의 목처럼 생겼다 한다.

- 울목골 : 명촌리 산57-2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재궁골 : 명촌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김씨의 재실이 있다.
- 지픈골 : 명촌 남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들판]

- 노들 : 노산(老山)³⁷⁶ 밑에 있는 들판으로, 명촌리 201번지 일대이다.
- 대밭덧들 : 등말리³⁷⁷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대밭 뒤가 된다.
- 모래낭걸 : 숲걸³⁷⁸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에 모과나무(방언으로 모래나무)가 있었다.
- 사궁앞들 : 사광³⁷⁹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산태밑들 : 구링이³⁸⁰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새들 : 노들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새칭이들 : 박수태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산전리 [山前里, 산앞, 산전]

본래 언양군 하북면 지역으로 고현산 앞이 되므로 산앞 또는 산전이라 하였다. 1911년경에는 도동(道洞), 산전, 궁평(弓坪)으로 나누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도동리(道洞里), 궁평리(弓坪里)를 병합하여 산전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하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가누골 : 궁평³⁸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관운곡’이라고도 한다.
- 개미골 : 산전리 69번지와 산106-15번지, 산106-1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골태이 : 궁평에 있는 골짜기로, ‘장자밭골, 장자말[長者旨], 장지골[長旨谷]’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궁평에 부자가 살았는데, 찾아오는 손님 대접에 진절머리가 났다. 하루는 승려가 찾아왔기에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오지 않게 하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승려는 ‘집 뒤에 골을 파면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승려의 말을 들은 부자는 사람을 시켜 골을 파 두었더니 과연 손님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그 집은 가세가 기울어서 망해 버렸다. 지금도 그 골을 판 자리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골태이’라 부른다.

- 구개(가)밭골 : 산전리 예수드미(더미)³⁸² 남쪽 골짜기로, 옛날에 향교에 딸린 밭이 있었다 한다. ‘구향교전곡’이라고도 한다. 구향교(舊鄕校)가 있던 곳을 구교(舊校)라 하는데, 이 골짜기의 이름이 ‘구교→구개→구가’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옛날에 구씨(具氏)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라 한다.

376) 노산은 명촌 서쪽에 있는 산이다.

377) 등말리는 명촌 북쪽에서 길천리 후리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능말리’라고도 한다.

378) 숲걸은 노들 서북쪽에 있는 산으로, 숲이 있다.

379) 사광은 명촌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380) 구링이는 숲걸 남쪽 구렁에 있는 등성이이다.

381) 궁평은 산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활처럼 생겼다 한다.

382) 예수더미는 송락골 서북쪽에 있는 더미로, 예수(여우)굴이 있었다 한다.

- 금오골[金鰲谷] : 궁평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자래등³⁸³ 밑이 된다. 산전리 773번지 일대이다.
- 넓은들골 : 산전리 산106-1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동산골 : 아랫동산골(산전리 618번지)과 윗동산골(산전리 628번지)이 있다.
- 땅질골 : 궁평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문방우골 : 문방우³⁸⁴가 있는 골짜기이다.
- 산박골 : 고현산 아래의 고운산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송락골 : 송락골못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산전리 78번지와 16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신라 때 부근에 영구사 또는 연고사(連高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승려들이 석남사나 운문사로 왕래할 때 여승들이 주로 쓰는 송라(松蘿, 소나무 겨우살이로 집주저리와 비슷하게 생긴 것)를 쓰고 이곳을 왕래하였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
- 쇠골 : 산전리 223-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앵개미골 : 산전리 1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여근곡 : 도동 송라골[松乃谷]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여근을 닮았다 한다. ‘옥문골[玉門谷]’이라고도 한다.
- 오룡골[五龍谷] : 도동(道洞)³⁸⁵ 동쪽 산 밑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다섯 용(龍)의 형국이라 한다. 산전리 252번지 일대로, ‘오령(른)골’이라고도 한다.
- 큰골 : 산전리 63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함박골 : 가누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회미기골 : 회미기고개³⁸⁶가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건천들 : 도동(道洞)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산전리 518번지 일대이다.
- 땅지리들 : 산전리 71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비령들 : 산전리 26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산전들 : 산전리 84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식송들 : 산전리 38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원경들 : 도동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원개미³⁸⁷ 밑, 경의고등학교 북쪽이 된다. 산전리 440-1번지 일대이다.
- 장그랑미기들 : 궁평(弓坪)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장지말리들 : 궁평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산전리 728번지 일대이다. 장씨가 살았다 한다.
- 중붓들 : 골안못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산전리 118번지 일대이다.
- 진등들 : 진등³⁸⁸ 밑에 있는 들판으로, 송락골못 밑이 된다. 산전리 104번지 일대이다.
- 큰붓들 : 큰보³⁸⁹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383) 자래등은 금오골 위쪽에 있는 등성이로, 지형이 자라처럼 생겼다 한다.

384) 문방우는 가누골 북쪽에 있는 바위로, 두 개의 문기둥처럼 서 있다.

385) 도동은 궁평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도산(都山, 陶山)’이라고도 한다.

386) 회미기고개는 궁평 서북쪽에서 궁근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형이 회목(檜木)처럼 잘록하게 생겼다 한다.

387) 원개미는 도동 동쪽에서 지내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원개미고개’ 또는 ‘원감고개’라고도 한다.

388) 진등은 송락골 서쪽에 있는 긴 등성이이다.

389) 큰보는 궁평 서쪽에 있는 큰 보(狀)이다.

• 소호리 (蘇湖里)

본래 경북 경주군 남면 지역으로 소야(所也)라 하였는데, 1906년 울산군에 편입되고 그 후 두서면 관할이 되었다. 1911년에는 소호동(小湖洞)과 태종동(太宗洞)으로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태종동(太宗洞)을 병합하여 소호리(小湖里)라 하였다가 뒤에 소호리(蘇湖里)로 고쳐 불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소호리의 그전 이름 '소야'는 '수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며, 이는 지대가 높은 산마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골짜기]

- 가재골 : 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재가 많았다 한다. 소호리 612-1번지 일대이다.
- 깨침밭골 : 소호리 산50번지와 산52번지 사이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고무들골 : 태종(太宗)³⁹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무딸(딸기)이 많이 났다 한다.
- 도장골[道藏谷] : 당수말³⁹¹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호리 637번지 일대이다.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으나, 골짜기가 매우 깊어 길을 감춘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예로부터 골짜기가 너무 깊고 험하여 나무꾼과 심마니들이 가끔 길을 잃고 헤매었다 한다.
- 돈재골 : 소호리 628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딸밭골 : 잣목³⁹²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못골 : 작은못골(소호리 산30번지 일대)과 큰못골(소호리 산33번지 남쪽과 산37번지 북쪽 일대)이 있다.
- 민상골 : 당수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밭골 : 소호리 산1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땅골 : 당리(당수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창골 : 소호리 87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심밭골 :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와의 경계지역에 있는 긴 골짜기로, 소호리 산45번지 북쪽 일대이다.
- 심밭안골 : 소호리 산4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소똥골 : 잣목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를 놓아먹이던 곳으로, 소똥이 많았다 한다.
- 쉬청밭골 : 태종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기터골 : 소호리 2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차리골 : 소호리 산 115번지와 산117번지에 걸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 : 당리마을 남쪽으로 약 1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고현산의 골짜기(도장골)에 위치하여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 태종재골 : 소호리 산16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하감골 : 소호리 303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입구에는 전원주택들이 들어 서 있다.
- 황가네골 : 소호리 산84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390) 태종은 도장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391) 당수말(당리)은 소호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당수나무가 있었다. '당리'라고도 한다.

392) 잣목은 당리(당수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기와를 구웠다 한다.

[들판]

- 갈배기들 : 소호리 24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고래들 : 소호리 66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당수들 : 당수말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소호리 368번지 일대이다. 당수나무가 있었다.
- 봉답들 : 당리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천수답(天水畓)이다. 소호리 775번지 일대로, '동답들'이라고도 한다.
- 백이들 : 소호리 87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새엣들 : 당수말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조산배기(백이)들 : '소호리'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소호리 891번지 일대이다.
- 앞들(1) : 소호리 5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앞들(2) : 소호리 914-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옷새들 : 소호리 23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정남들 : 새엣들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정남사'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소호리 254번지 일대이다.
- 청석들 : 소호리 16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큰골앞들 : 큰골³⁹³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큰골덧들 : 큰골 뒤에 있는 들판이다.
- 태굴앞들 : 태종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양등리 [楊等里, 양등, 양동]

본래 언양군 상남면 지역으로, 버드나무가 많아서 양등, 양동이라 하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양등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상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갈밭골 : 배곶진필³⁹⁴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갈대가 많았다 한다.
- 걸기미골 : 양등리 663-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고개밀골 : 짜뽕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장구목이(모기)³⁹⁵ 밀이 된다.
- 깨밭뚜둑골 : 짜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깨밭이 있었다 한다.
- 대리골 : 안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말채나뭇골 : 바아등³⁹⁶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말채나무가 있었다 한다.
- 밀봉암골 : 밀봉암이 있는 골짜기로, 양등리 732-2번지 일대이다.
- 배양골 : 걸기미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부뭇골 : 텃걸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풀무처럼 생겼다 한다.

393) 큰골[大谷]은 당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394) 배곶진필은 걸기미 북쪽에 있는 버덩이다. 걸기미는 텃걸 서쪽에 있는 산이다. 텃걸은 양등 남쪽에 있는 마을로, 크고 뛰어난 사람이 살았다 하여 '텃걸' 또는 '덕걸(德杰)'이라고도 한다.

395) 장구모기(장구목)는 양등 서북쪽에서 궁근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형이 장구 목처럼 생겼다 한다.

396) 바아등은 장구모기고개밀 서쪽에 있는 등성이다.

- 불묘골 : 양등리 74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살티골 : 황시밭너머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덕현리의 살티 옆이 된다.
- 삼밭골 : 밀봉암(密峰庵)³⁹⁷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성지골 : 큰각단³⁹⁸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송정골 : 큰각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골 : 큰각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황시밭 : 황시밭의 작은 골짜기이다.
- 절덧골 : 밀봉암의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짜빵골 : 살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배양골 : 배양골의 큰 골짜기이다.
- 큰짜빵골 : 짜빵골의 큰 골짜기이다.
- 황시밭골 : 큰각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황새밭골'이라고도 하며, 양등리 산138번지 남동쪽과 양등리 산134-5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황시밭너머 : 황시밭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갈밭들 : 양등리 45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갈비들 : 양등리 59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상봇들 : 큰각단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상천들 : 양등리 7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중봇들 : 상봇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중보(中湫)의 물을 댈다. 양등리 250번지 일대이다.
- 안골들 : 안골³⁹⁹에 있는 들판이다.
- 우무절들 : 텃걸 앞에 있는 들판으로, 양등의 동쪽에서 거리(巨里)에 걸쳐 있는 넓은 들판이다. 옛날 이곳에 우무절이 있었는가 하면, 청도의 운문사 절에 딸린 들판이었다 한다. 우무절이란 큰 샘이 있다.
- 중봇들 : 상봇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중보(中湫)의 물을 댈다.
- 집앞들 : 양등리 41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참샘들 : 양등리 435-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이천리 [梨川里, 배내]

본래 언양군 상남면 지역으로 배내 또는 이천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천리로 울산(울주)군에 편입되었다가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397) 밀봉암은 텃걸 서북쪽에 있는 절로, 주위에 봉우리가 많다 해서 불린 이름이다.

398) 큰각단은 양등리에 있는 마을이다.

399) 안골은 큰각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 검정바위골 : 이천리 산64-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골방아골 : 이천리 산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리제골 : 이천리 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무등골 : 이천리 144-40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방방골 : 이천리 산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배내골 : 이천리 산9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백련동골[白蓮洞溪谷] : 이천리 백련마을⁴⁰⁰에 있는 이 골짜기는 동쪽으로 돌아 오르면서 4개의 골짜기, 즉 청수골(물이 하도 맑아 생긴 이름으로, 영취산의 통도사 뒤 쪽으로 향하는 골짜기. 이천리 산2-4번지 일대), 굴박골(단조성(丹鳥城; 신불산과 영취산 사이 평원) 쪽으로 향하는 골짜기), 선짐골(선비들이 등짐(과나리붓짐)을 지고 올랐다 하여 생긴 이름으로 단조성과 신불산 정상 사이의 갈퉁한 곳을 거쳐 삼남면 가천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이천리 산2번지 일대, '선듬골'로도 불림), 왕방골(파래소폭포 위 간월산 기슭의 자연휴양림 쪽으로 향하는 골짜기. 즉 왕방재[王峰嶺, 간월재]로 향하는 골짜기. 이천리 산66-5번지 일대) 등으로 갈라진다. 이들 골짜기에는 철구소, 가마소 등 곳곳에 청소(淸沼)가 이어져 있다.
- 범바웃골 : 범바우⁴⁰¹가 있는 골짜기이다.
- 분매골 : 이천리 산105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기점골 : 천황산⁴⁰²에 있는 골짜기로, 사기를 굽는 점(店)이 있었다 한다. 한편 천황산을 재약산으로 부르게 된 배경에 대한 설화가 전해온다.

설화

신라 흥덕왕(興德王, 제41대, 826~836) 셋째 왕자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백약이 효험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명산을 찾아 기도하고, 약수를 마시며 병을 치료하다가 이 산에 오게 되었다. 그때 왕자의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산기슭에 솟아나는 샘을 가리키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왕자는 산신령이 가리킨 약수를 찾아가 샘물을 마셨는데, 고질병이 씻은 듯이 고쳐졌다. 왕자는 궁궐에 돌아와 부왕께 이 일의 자초지종을 고하였다. 이 말을 들은 흥덕왕은 이 산을 '약수(藥水)를 갖고 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재약산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그 샘을 '신령스런 우물'이라 하여 영정(靈井)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는 지금의 표충사(表忠寺) 자리에 대대적으로 불사를 일으켜 영정사(靈井寺)를 지어 이 산과 신령의 은혜에 보답하였다.⁴⁰³ 실제로 이 산에는 1백여 종(種)의 약초(藥草)가 자생하고 있어 '약초의 보고(寶庫)'로 불리어지고 있다. 고려 때 어느 승려가 이 산에 올라 읊었다는 시구(詩句)가 전한다.⁴⁰⁴

영해 바다는 김해 바다에 연이었고(寧海海連金海海)
양산 산은 울산 산에 닿았네(梁山山接蔚山山)

400) 백련마을은 죽전마을의 아래쪽 시내 건너 동쪽(간월산 쪽)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이천리의 가장 아랫마을로, 양산시 원동면 선리와 인접하고 있다. 죽전(대밭)마을은 이천 본동의 아래이고 백련마을의 뒤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401) 범바우는 천황산에 있는 바위로, 범이 살았다 한다.

402) 천황산은 상북면 이천리와 경남 밀양시 단장면·산내면 경계에 있는 산으로, 영남알프스 중 남알프스를 형성하는 산이다. 재약산, 재약산 또는 재암산이라고도 한다.(강길부, 『땅이름 울산사랑』, 2002, 257~258쪽)

403) 강길부, <전계서>, 258쪽.

404) 황계복, 『영남알프스』, 수문출판사, 1995; 강길부, <전계서>, 258쪽.

- 왕바위골 : 이천리 산64-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주암골(1) : 이천리 193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주암골(2) : 이천리 산143-2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천골 : 이천리 산126-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큰바위골 : 이천리 46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과래소골 : 이천리 산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없다.

• 지내리 [池內里, 못안, 지내]

본래 언양군 하북면 지역으로, 큰못 안쪽이 되므로 못안 또는 지내라 하였다. 조선 예종 때는 계화석리(戒火石里)라 하였고, 정조~고종 때에도 지내동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지내리라 하여 울산(울주)군 하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가장골 : 당숫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내리 426번지 일대이다. 신평사 뒤편이다.
- 거리새골 : 신리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내리 1208번지 일대이다.
- 고장내골 : 지내리 114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골새[谷間]골 : 대리마을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내리 83번지 일대이다. 골새못 위쪽이며, 이곳에는 마을이 있다.
- 당숫골 : 붉은디기⁴⁰⁵⁾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대밭골 : 지내리 64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물방골 : 떡바우의 동남쪽이나 탑골의 북쪽 골짜기가 된다. 옛날 이곳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한다.
- 물탕골(1) : 소부당이[巢父堂]⁴⁰⁶⁾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탕이 있다.
- 물탕골(2) : 대리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탕이 있다. 지내리 산137-1번지 일대이다.
- 미영밭골 : 신리마을 뒷산 뒤에 있는 골짜기로, 미영(무명) 즉, 면화(목화)를 많이 심었다 해서 붙인 지명이다. 지내리 232번지 일대이다.
- 미친골 : 신리 본동의 당곡에서 다개고개로 오르는 지당산 북쪽 골짜기로, 지내리 241번지 일대이다.
- 성골 : 지내리 62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소부당골 : 소부당못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내리 558번지 일대이다.
- 송락골 : 우는방우밑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송내골’이라고도 한다. 지내리 산88번지 일대이다. <산전리>의 ‘송락골’ 옆이 된다.
- 안물골 : 지내리 126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405) 붉은디기는 대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흙이 붉다. 대리(大里)는 지내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큰마을’이라고도 한다.

406) 소부당은 신시리비탈 북쪽에 있는 버덩이다. 신시리비탈은 섬곡 동남쪽에 있는 산이다. 섬곡은 ①대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인 명동에서 향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②섬곡 밑에 있는 마을이다. 명동은 대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안소부당골 : 지내리 60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어정골[魚政谷] : 쟁골⁴⁰⁷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내리 213번지 일대이다. ‘재궁곡(齋宮谷)’이라고도 하며, 재궁못 위에 있다.
- 오른박골 : 지내리 63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우는방우밑골 : 대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전리>의 ‘우는방우밑’이 된다.

[들판]

- 거리새들 : 신리 본동에서 서북쪽의 산전리 도동 송라골로 넘어가는 골짜기의 들판이다. 지내리 65번지 일대이다.
- 고장피들 : 신리 본동에서 서북쪽(도동 송라골쪽)으로 펼쳐진 들판이다. 이 들판의 막다른 곳에 고장산이 뾰족하게 솟아 있다.
- 골에들 : ‘대리앞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지내리 515번지 일대이다.
- 당수골들 : 지내리 30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당지네들 : 지내리 9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대리앞들 : 대리[大里, 큰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지내리 522번지 일대이다.
- 동너메들 : 지내리 7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들가분데 : 쟁골에서 못만 큰못으로 내려가는 중간의 넓은 들판으로, 지내리 86번지와 143번지 일대이다.
- 매끝 : 대리 동쪽 산 끝에 있는 들판이다.
- 물탕들 : 물탕골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지내리 553번지 일대이다. ‘울밀로’ 남쪽 변에 접해 있다.
- 붉은디기앞들 : 붉은디기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섬곡앞들 : 섬곡 앞에 있는 들판으로, 지내리 516번지 일대이다. 이때의 섬곡은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
- 시시래들 : 지내리 53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신리앞들 : 지내리 7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앞들 : 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천전리 412번지 일대이다.
- 어정골들 : 지내리 8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차돌배기들 : 지내리 13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탑골들 : 신리 본동의 동쪽에서 어정골 사이의 넓은 들판으로, 지내리 52번지 일대이다. 즉 들가분데와 당곡의 사이에 있는 들판으로, 탁(탑)골못 밑이다.
- 하동앞들 : 하동(下洞)⁴⁰⁸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천전리 [川前里, 내앞, 천전]

본래 언양군 상남면 지역으로 내[川, 남천]가 앞으로 흐르므로 내앞 또는 천전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천전리로 울산(울주)군 상남면에 편입되었다가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407) 쟁골은 신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정씨의 재실이 있다. 신리(新里)는 대리 북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새마을’이라고도 한다.

408) 하동은 붉은디기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

- 복수바위골 : 천전리 산43-1번지와 산44-5번지 사이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산신골 : 천전리 51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송골 : 예시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천전리 산63번지 일대이다.
- 안골 : 천전 서쪽 안에 있는 골짜기로, 천전리 524번지 일대이다.
- 어못골 : 천전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천전리 산72번지 북쪽 일대이다. ‘어분골’이라고도 한다.
- 예시밭골 : 어못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예시(여우) 굴이 있었다.
- 원당골 : 천전리 485-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갱빈들 : 천전 동쪽 냇가에 있는 들판이다.
- 내밭뒀들 : 천전리 19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둘안들 : 천전 남쪽 뚝 안에 있는 들판이다.
- 마삼들 : 끝각단⁴⁰⁹⁾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만당들[萬堂坪] : 새보⁴¹⁰⁾ 북쪽 산 밑에 있는 들판으로, ‘만당비알’이라고도 한다. 이 들판은 길천리(지화)와 천전리에 걸쳐 있는 들판이다.
- 부덕드미 : 천전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산싱이들 : 안골⁴¹¹⁾ 남쪽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새뫓들 : 새보 위에 있는 들판이다.
- 안골들 : 안골에 있는 들판으로, 천전리 516번지 일대이다.
- 앞들 : 천전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천전리 412번지 일대이다.
- 작답들[作畚坪] : 작답(作畚)은 땅을 개간하여 논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기답(起畚)이라고도 한다. 만당들의 끄트머리에 있는 들판이다.
- 청석밭들 : 천전 동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청석으로 된 벼랑 밭이 된다. 천전리 75번지 일대이다.
- 큰뫓들 : 큰보가 있는 들판이다.

• 향산리 (香山里)

본래 언양군 하북면 지역으로, 마을 뒷산 작약봉(芍藥峰)에서 나는 작약의 향기가 높다 하여 불린 지명이다. 조선 고종 때는 능입(陵入)이라 하였으며, 1911년 능산(陵山)과 향산으로 나누어졌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능산리(陵山里)를 병합하여 향산리라 해서 울산(울주)군 하북면에 편입되었다. 1928년 4월 1일 지방 행정구역 재정리 때 상남과 하북을 합한 상북면에 편입되었다.

[골짜기]

- 세이골(洗耳谷) : 세이지(洗耳池)⁴¹²⁾의 서쪽으로 능동산 서록(西麓)에 늘어진 골짜기로, 이는 세

409) 끝각단은 천전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천전리 마을의 끝이 된다.
 410) 새보는 큰보 위쪽에 있는 보(汜)이다. 큰보는 천전 북쪽에 있는 큰 보(汜)이다.
 411) 안골은 천전 서쪽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412) 세이지는 향산리의 화장산 세이골에 있는 못이다.

이지에서 나온 이름이다. 못 이름은 중국의 요(堯)임금과 소부(巢父)·허유(許由)의 고사를 소재로 하였다. 이 못에 관련된 설화가 전해온다.

설화

패택(沛澤)이라는 곳에 허유라는 고결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바르지 않은 자리에는 애당초 앉지 않았고, 까닭 없는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의(義)를 지키며 살았다. 허유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요임금이 그를 찾아가 천하를 물려줄 터이니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허유는 이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을 두고 어찌 나 같은 자가 대신 옥좌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 같은 작은 그릇이 어찌 넓은 천하를 맡겠습니까?' 하고는 기산(箕山) 밑을 흐르는 영수(潁水) 근처로 숨어 버렸다. 요임금이 다시 그를 따라가서 '그렇다면 구주(九州)라도 맡아 달라'고 청하였다. 허유는 이를 다시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구질구질한 말을 들은 내 귀가 무척 더럽혀졌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귀를 영수의 흐르는 물에 씻었다. 이때 작은 망아지 한 마리를 앞세우고 여슬렁거리며 오던 소부가 허유에게 묻기를, '왜 강물에 갑자기 귀를 씻는 거요?' 하였다. 허유가 대답하기를 '요임금이 와서 내게 천하나 구주를 맡아달라고 하기에 내 귀가 더럽혀졌을까 하여 씻는 거요.'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소부가 목청껏 크게 웃어댔다. 허유가 민망하여 소부에게 웃는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소부는 '은자(隱者)라니 세상에 소문을 퍼뜨려 요임금이 찾아오게 하여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이요' 하였다. 그리고는 망아지를 물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는 물을 먹이며 말하기를 '그대의 귀 씻은 구정물을 내 어찌 망아지에게 먹일 수 있겠소. 그래서 위로 올라온 것이요.' 하였다. 뒤에 허유가 죽자 요임금은 그를 기산 위에 묻고, 무덤을 기산공신(箕山公神)이라 하였다.⁴¹³⁾

- 시옥골 : 향산리 5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안골새골 : 향산리 4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함박골 : 향산리 산31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고래들 : 향산리 295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향산초등학교 동쪽 일대이다.
- 농산들 : 농산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향산리 603번지 일대이다.
- 두들배기들 : 향산리 29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향산들 : 향산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향산리 567번지 일대이다.
- 함박들 : 함박골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향산리 377번지 일대이다.

413) 강길부, <전계서>, 266~267쪽.

원구
고사기(와)드판
르

11. 서생면

西生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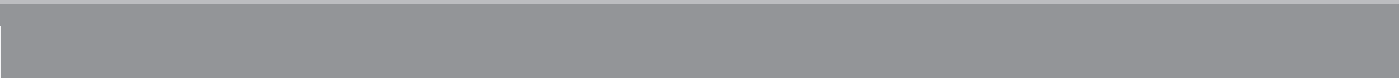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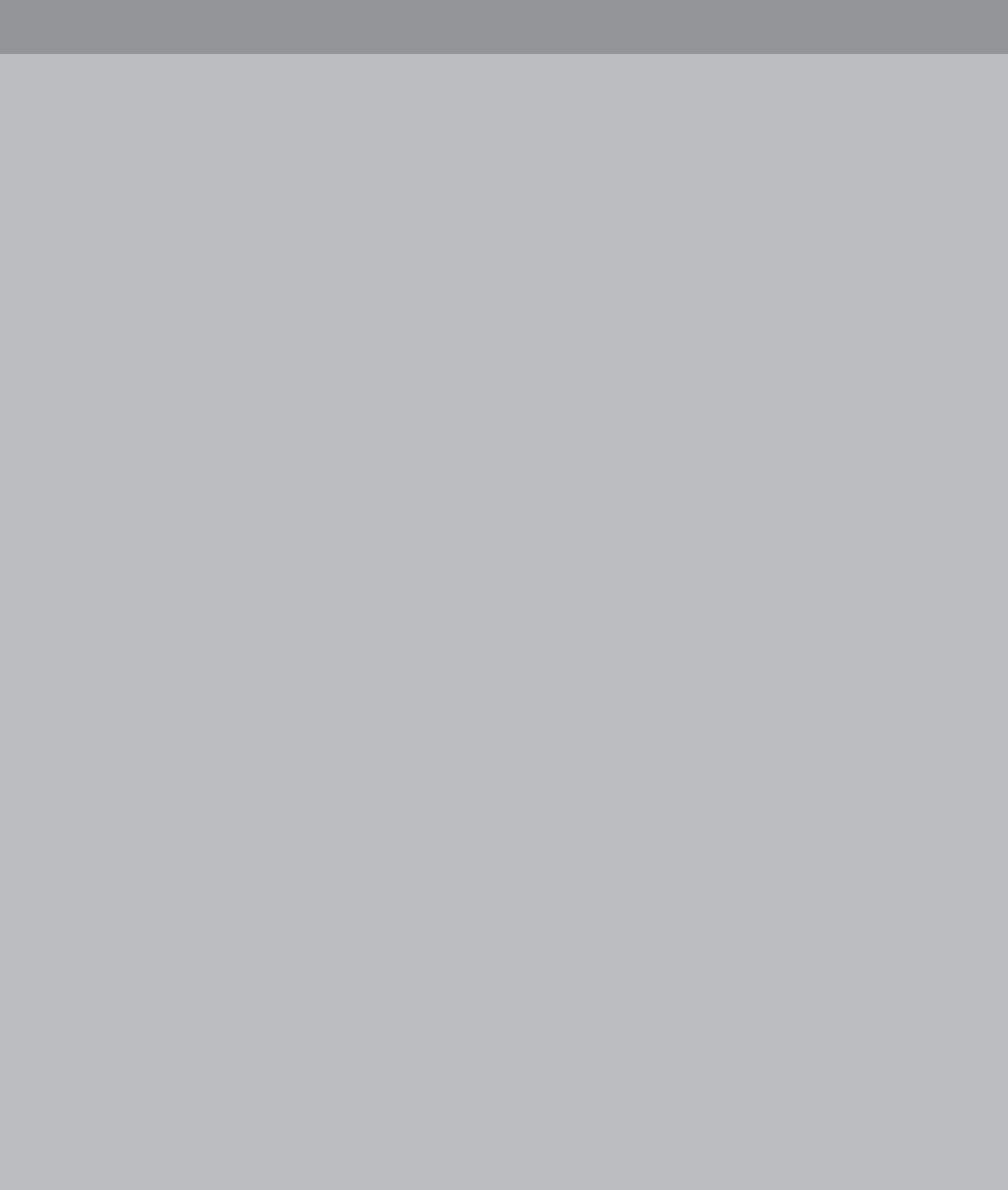
용리 집앞들



진하리 구진들



화정리 화정들



11. 서생면 (西生面, 36.84km²)

임란 후 서생지방은 구진(舊鎭), 진하(鎭下), 북동(北洞), 남동(南洞)은 수군동첨절제사 지역이었고, 상독(上禿, 지금의 화산), 나사(羅土), 연산(延山), 강월(江月), 용동(龍洞), 화산(禾山), 위동(渭洞), 양암(陽岩), 운곡(雲谷), 군령(軍令), 신리(新里), 나사(羅土), 나해(羅海)는 온남면 관할이었다. 1895년(고종 32) 수군동첨절제사 직할지역에 서생면을 두어 구진(舊鎭), 진하(鎭下), 북동(北洞), 남동(南洞) 등의 4개 동을 관할하였다. 성내리(城內里), 외리(外里), 송정동(松亭洞), 대륙동(大陸洞)과 그 뒤 상독, 나사, 연산, 강월, 용동, 화산, 위동, 양암, 운곡, 군령, 신리, 나사, 나해, 평동(平洞) 지역을 분리하여 외남면을 두었다.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에 의하여 외남면을 양산군에 이속하였다가 1910년 외남면을 다시 울산군에 편입시켰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 때 기장군 장안읍 일부와 온양면인 현재 술마(述麻)인 숙마동(熟麻洞)과 같이 서생면에 편입하여 화정(禾亭), 서생, 진하, 대송(大松), 나사, 명산(明山), 화산, 위양(渭陽), 용리(龍里), 신암(新岩)의 10개 법정리로 개편되었다. 1962년 11월 21일에 공포된 법률 제1175호에 의하여 1963년 1월 1일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1일 동래군 일부(기장·일광·장안·서생·정관·철마 등 6개면)가 양산군에 통합되어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주군에 환속되었다.⁴¹⁴⁾ 동쪽과 남쪽은 바다, 서쪽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북쪽은 울주군 온양읍과 온산읍에 접하고 있다.

• 나사리 [羅土里, 나사, 나살]

본래 울산군 외남면 지역으로서 나살 또는 나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나사리라 하여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공동묘지골 : 나사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로, 나사리 산78번지 서쪽 일대이다.
- 나부들골 : 나사리 357-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내릿골 : 부안[富安, 불안]⁴¹⁵⁾ 북쪽, 신암리와 경계에 있는 골짜기이다. '불안'은 '불→바닷가'의 사빈(沙濱)을 말하므로, '모랫벌 안쪽'을 뜻한다.⁴¹⁶⁾
- 띠밭골 : 불안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띠가 많다 한다.
- 물방앗골 : 내릿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봉골[峰谷] : 봉대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나사리 346-1번지와 나사리 산71-29번지 서쪽 일대이다.

414) 이우수,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울산시, 1986, 352쪽; 『서생면지』, 서생면지편찬위원회, 2001, 51~52쪽.

415) 부안은 나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넉넉하다 한다. '불안'이라고도 한다.

416) 강길부, <전계서>, 278쪽.

- 봉웃골 : 봉대산(你吉串烽燧臺)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길곶봉수는 남쪽으로는 기장군 장안읍의 아이포(阿你浦)봉수대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강양리의 하산(下山)봉수대에 응한다.
- 부안골 : 나사리 40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산작골 : 불안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은방골 : 불안 뒤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은이 났다 한다. 나사리 산149-1번지 북쪽 일대이다.
- 재골 : 나사리 1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큰골 : 불안 뒤쪽에 있는 큰 골짜기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 나사리 29번지 위·아래 일대이다.
- 혈짜골 : 큰동네(나사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혈치기(짜보, 언청이)처럼 생겼다 한다.
- 호양지골짜 : 이길곶봉수대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화냥질하다가 죽은 여자의 무덤이 있다. '화냥질골짜'이 '호양질골짜'으로 변했다.

[들판]

- 봉화앞들 : 나사리 303-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대송리 (大松里)

본래 울산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정동, 대륙동과 외남면의 평동을 병합하여 대륙과 송정의 이름을 따서 대송동이라 하여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갓골 : 송정⁴¹⁷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못안골 : 대포(大浦)⁴¹⁸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 안쪽이 된다.
- 불밋골 : 평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불무(풀무)처럼 생겼다 한다.
- 봉자앞골 : 대포 동쪽, 송정의 야시산과 대송의 봉자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봉장어(뱀장어)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겼다.
- 산작골 : 평동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골짜 : 송정마을 서쪽 안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번답들 : 송정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큰필 : 평동마을 공동묘지 주위에 있는 들판으로, 대송리에서는 가장 큰 들판(밭)이다.

417) 송정은 대송 북쪽에 있는 마을로, 기와를 구웠다 한다. '재곡[瓦谷], 재엿골'이라고도 한다.

418) 대포는 송정과 평동 사이에 있는 마을로, 큰 개[浦] 옆이 된다. 평동은 대송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명산리(明山里)

본래 울산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정조 때는 강월리라 하였고, 1894년(고종 31)에는 강월, 연산, 용동으로 나누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연산동, 강월동, 용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명산리라 해서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골지골 : 성의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명산리 15번지와 62번지 일대이다.
- 밭골짜 : 연산⁴¹⁹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봉웃골 : 강월⁴²⁰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터골 : 강월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태가 잘 난다.
- 성의골 : 용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쌍골 : 명산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옷쌍골과 아랫쌍골이 있다.
- 아까시골 : 성의골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아까시아나무가 무성하다.
- 안장골 : 골지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안장처럼 생겼다 한다. 명산리 21-1번지 일대이다.
- 용의골 : 골지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마가 났었다 한다.
- 장성배기골 : 용의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장승이 있었다 한다.
- 지새골 : 연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명산리 435번지 일대이다.
- 집너메골 : 용연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짱골 : 용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위에서 짱을 치며 놀던 버덩을 ‘짱바탕이’라고 한다.
- 큰골 : 강월 북쪽, 연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 흠차골 : 연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명산리 398번지 일대이다.

[들판]

- 갈매들 : 명산리 44-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대넘들 : 명산리에 있는 들판이다.
- 모퉁들 : 용연(龍淵)⁴²¹ 남쪽 모퉁이에 있는 들판이다.
- 무학들[舞鶴野] : 연산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신암리의 무학산 앞이 된다. 산의 경사도가 완만하므로 연피[延山]라 한다. 늘어진 산을 뜻하는 ‘늘피’라는 이름도 붙는다.⁴²² 명산리 726번지 일대이다.
- 사리들[寺內坪] : 사터골⁴²³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명산리 672번지 일대이다.

419) 연산은 용연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①대운산의 연맥이라 한다. ②화산리의 민등 아래쪽이 된다.

420) 강월은 연산 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강구농월형(江龜弄月形; 강의 거북이가 달을 가지고 노는 형국)이라 한다. 효암강(孝岩江) 건너 편에 있는 마을이므로 강월(江越)이라 하다가 뒤에 강월(江月)로 아화(雅化)된 것이다.

421) 용연은 명산리 맨 위쪽에 있는 마을로, 위쪽에 용방우가 있으며 용송이 있었다. ‘용수불’이라고도 한다. 용방우는 용연 북쪽 냇가에 있는 바위이다.

422) 강길부, <전계서>, 282쪽.

423) 사터골은 강월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태가 잘 난다.

- 집앞들 : 연산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철뚝넘어들 : 장안천 남쪽과 동해남부선 철로의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명산리 627번지 일대이다.
- 학교앞들 : 명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서생리 [西生里, 서생포, 서사포, 서생]

본래 울산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서생포(西生浦) 또는 서사포(西舍浦), 서생이라 하였는데, 조선 정조 때는 서생리라 하였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북동과 남동, 1911년에는 성내동(城內洞)과 외리동(外里洞)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성내동, 외리동을 병합하여 서생리라 해서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가시만골 : 서생성 동쪽 밑자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골개장골 : 남문밖⁴²⁴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생리 56번지 일대이다. ‘골기장골’ 또는 ‘환장곡(環長谷)’이라고도 한다.
- 과심안골 : 선돌박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노석골 : 북쪽의 골개장골과 남쪽의 나사리 큰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 떡골 : 서생리 69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박치잇골 : 남밖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청석돌이 박혀 있다.
- 선돌박골 : 인성암(引聖庵)⁴²⁵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옛고개골 : 서생리 산52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로, 서생왜성 서쪽 일대이다.
- 절사골 : 서생리 68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청룡골 : 청룡산과 인성암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도둑굼들 : 동문걸⁴²⁶ 동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도둑꾸매, 도둑동들’이라고도 한다. 이곳에 있는 도둑동굴(都督洞窟)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로서 왜적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운 마귀(麻貴)와 그의 아장 편표(編彪)의 공적을 기념하여 세운「용략위덕대진비(勇略威德大振碑)」라는 비가 세워져 있었다. 이는 마귀의 직함인 ‘도둑’을 딴 것이다.⁴²⁷
- 서생들 : 서생리 56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에 島野(깨묵들, 城內洞)로 조사되어 있다.⁴²⁸

424) 남문밖은 서생성 바깥쪽에 있는 마을로, ‘외리, 남밖, 성밖’이라고도 한다.

425) 인성암은 서생 서남쪽에 있는 절로, 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 한다.

426) 동문걸은 서생포왜성의 동문 근처에 있는 마을로, 서생리 46-5번지가 동문터 일원이다.

427) 강길부, <전계서>, 284쪽.

428) 깨묵들은 진하리의 <들판>편 참조.

• 신암리 (新岩里)

본래 울산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정조 때는 군령리라 하였고, 1894년(고종 31)에는 군령, 운곡, 신리 등의 3개 동으로 나누어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운곡리, 신리, 효열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암리라 해서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골매골 : 새말⁴²⁹⁾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들어 죽은 가축을 묻었다 한다.
- 내릿골 : 물방앗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당재골 : 신암리 49-1번지와 15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동삿재골 : 신암리 51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물방앗골 : 흥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레방아가 있었다.
- 물탕골 : 신암리 14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미실골 : 신암리 54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밀밭골 : 새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박치잇골 : 새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범골 : 신암리 58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땃골 : 새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밧골 : 박치잇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셋(셋)골 : 신암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쇠가 났다 한다.
- 서당골새 : 새말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
- 용시물골 : 신암리 61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턱골 : 신암리 10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흥골 : 밧사래⁴³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흙을 댔다 한다. 신암리 171-2번지 일대이다.

[들판]

- 당재들 : 신암리 20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돌다리들 : 신암리 18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뱀밧들 : 신암리 3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셋골들 : 셋골에 있는 들판이다.
- 셋자리들 : 큰자리들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큰자리들 : 돌다릿보⁴³¹⁾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흥골들 : 흥골에 있는 들판으로, 583-1번지 일대이다.

429) 새말은 중리 서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중리(中里)는 송리(松里)와 새말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송리는 중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울창하였다 한다.

430) 밧사래는 동삿재 밑에 있는 논으로, 모가 많았다. 동삿재는 셋골 동쪽에 있는 고개로, 동사가 있었다.

431) 돌다릿보는 내릿골 서쪽에 있는 보(汙)로, 돌다리가 있었다.

• 용리 [龍里, 용동]

본래 울산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용의골이 있으므로 용동이라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는 용동(用洞)이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리라 하여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덕골 : 용리 15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돌돌배기골 : 삼밭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삼밭골 : 용동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골 : 용리 20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용의골[龍谷] : 용동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텃골 : 용리에 있는 골짜기로, '기곡(基谷), 텃곡'이라고도 한다.
- 흥골 : 용동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흙을 댔다 한다. 용리와 신암리에 걸쳐 있다.

[들판]

- 너머(넘어)들 : 용리 410-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다덕골들 : 용리 1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마덩끝들 : 용리 4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모앞들 : 용리 6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집앞들 : 용동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집 앞에 있다.
- 텃골들 : 텃골에 있는 들판이다.
- 흥골들 : 흥골에 있는 들판이다. 용리와 신암리에 걸쳐 있다.

서
생
면

187

• 위양리 (渭陽里)

본래 울산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정조 때는 후동(後洞), 위동(委洞), 양암(陽岩)의 세 마을이었고, 1894년(고종 31)에는 위동(渭洞)과 양암의 두 마을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위동과 양암리를 병합하여 위양리라 해서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갈매골 : 양암⁴³²⁾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이라 한다.
- 감나무골 : 새엣들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감나무가 많았다 한다.

432) 양암은 위양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마을의 서편에 바위가 있어 동녘에서 해가 뜰 때 맨 먼저 빛을 받는다 하여 '뱃(별)바위'라고도 한다. 바위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 개천암골 : 돼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고래골 : 양암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위양리 317번지 일대이다.
- 구터골 : 윗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 집터가 있었다.
- 대밭골 : 돼지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대나무 밭이었다 한다.
- 대지골 : 대치골못 밑에 있는 골짜기로, 위양리 123번지 일대이다.
- 독넘어골 : 위양리 36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동넙골 : 새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위양리 산62-3번지 일대이다.
- 동미터골 : 막골(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돼지골[猪谷] : 모구남뺨디기⁴³³⁾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돼지 모습이다.
- 덧골짜 : 양암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딱밭골새 : 윗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닳나무가 많았다 한다.
- 말덕고랑골 : 위양리 7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모점골 : 윗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머정골'이라고도 한다. 위양리 841번지 일대이다.
- 범방골 : 막골⁴³⁴⁾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많았다 한다.
- 북방웃골 : 감나못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북처럼 생긴 바위인 '북방우'가 있다.
- 분득골 : 막골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썬골 : 동미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땅골 : 새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
- 새뭇골 : 양암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양골 : 윗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온양읍 발리 선양 옆이 된다. '선양골'이라고도 한다. 옷새
양골과 아릿새양골로 나뉜다.
- 성(석)재골 : 술맷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위양리 1037번지와 산148번지 일대이다.
- 술방웃골 : 윗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술맷골 : 미천암뺨디기⁴³⁵⁾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장골 : 스타스콧(퍼블릭)컨트리클럽의 골프장 부지에 편입되어 형상은 사라졌다.
- 예수방골 : 범방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많았다 한다.
- 용암골 : 양암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용골'이라고도 한다. 위양리 280번지 일대이다.
- 위골 : 저곡소류지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위양리 산147번지 일대이다.
- 인력간골 : 위양리 산80-1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임마터골 : 막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위양리 1066번지 일대이다.
- 저골[猪谷] : 위곡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돼지가 자주 나타났다고 한다.
- 흥골 : 양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흙을 댔다 한다.

[들판]

- 갈매들 : 위양리 34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감나못골들 : 감나못골에 있는 들판이다.

433) 모구남뺨디기는 술맷골 동쪽에 있는 버덩으로, 모구나무(모과나무)가 있었다.

434) 막골[幕谷]은 양암 북쪽에 있는 마을로, 산 모양이 막(幕)처럼 생겼다.

435) 미천암뺨디기는 뽕당골 위쪽에 있는 버덩이다.

- 고래들 : 윗골⁴³⁶ 동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위양리 334번지 일대이다.
- 구부리들[鳩坪] : 윗골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구터논들 : 구터골에 있는 들판이다.
- 당산들 : 고랫들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돌논들 : 모점골 동쪽 밑에 있는 들판으로, 돌이 많다.
- 동넉골들 : 새양골 밑에 있는 들판이다. 동넉골은 새양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뒷들 : 위양리 112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못밧들 : 막골못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산턱밧들 : 위양리 711번지와 84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새엣들 : 개천암골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샘밧들 : 위양리 6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심구지기들 : 위양리 574-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와기뜸들 : 와그뜸⁴³⁷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자밭들 : 위양리 659-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장군들 : 위양리 421-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장군등들 : 위양리 47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집앞들 : 양암(陽岩) 앞에 있는 들판으로, 위양리 560번지 일대이다.
- 큰들 : 막골 앞에 있는 큰 들판으로, 위양리 598번지 일대이다.
- 터앞들 : 위양리 17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진하리 [鎭下里, 진아리, 진하]

본래 울산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서생포영(西生浦營) 아래쪽이 되므로 진아리 도는 진하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진하리라 해서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재골 : 진하리와 대송리의 중간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구진들[舊鎭浦坪] : 진하리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 수군첨사진영이 있었던 들판이라는 뜻이다. 진하리 133번지 일대이다.
- 개(깨)목들 : 진하 서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개[浦]의 목[項]이 된다. 이 들판을 흐르는 거랑을 ‘깨목거랑’이라 한다. 이는 인성암(引聖庵) 뒷산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도독굴 앞 개[浦]를 지나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내[川]로, ‘개목거랑’이 ‘깨목거랑’으로 바

436) 윗골[溝谷]은 막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437) 와그뜸[臥牛山]은 막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지형이 소가 누워 있는 것 같다 한다.

편 것이다. 이때 개는 ‘포(浦)’로, 목은 ‘항(項)’으로, 거랑은 ‘천(川)’이 되어 포항천(浦項川)이라고도 한다.

- 나릿가들 : 나릿가⁴³⁸⁾에 있는 들판이다.
- 목골들 : 진하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진하덧들 : 진하 뒤에 있는 들판으로, 진하리 133번지 일대이다.

• 화산리 (禾山里)

본래 울산군 외남면의 지역으로서 화산이라 하였는데, 조선 정조 때 민등[禿登]과 마근(麻斤)의 두 마을이 있었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상독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강월동 일부를 병합하여 화산리라 해서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고래골 : 마근저수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화산리 430번지 일대이다.
- 대로골 : 화산리 939-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대밭골짜 : 화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돌빼기골 : 화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 덧골 : 화산리 31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들맷골 : 온곡골⁴³⁹⁾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마근골 : 화산리 362-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못안골 : 마근저수지가 있는 지역으로, 화산리 181번지 일대이다.
- 무랭잇골 : 쪼매기집터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물앵이골’이라고도 한다. 화산리 13번지와 147번지 일대이다.
- 무룡골 : 못안골에서 약 2km 위쪽에 있는 골짜기로, 화산리 산8번지 일대이다.
- 물안골 : 화산리 10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박충골 : 마근(麻斤·麻根)⁴⁴⁰⁾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청석이 깔려 있다.
- 범밭골 : 화산마을 북쪽 3km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범이 살았다.
- 불근디기골 : 큰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흙이 붉다.
- 빙박골 : 화산리 48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사리골 : 화산리 694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삼밭골 : 화산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삼밭이 있었다 한다.
- 삼백골 : 화산리 441번지에 있는 골짜기로, 삼을 찌는 삼솔이 있었다 한다.
- 석재골 : 화산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소태골 : 화산리 산19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438) 나릿가는 진하나루터 부근의 마을이다. 온산을 강양리로 건너가는 나루터이다.

439) 온곡골(溫谷窟)은 온곡 남쪽에 있는 동해남부선의 기차굴이다. 온곡은 화산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내[川]가 깊고 마을이 따뜻하다고 한다.

440) 마근은 온곡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에는 ‘마근굴’이 있다.

- 수난골 : 화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그곳에 못이 있었는데, 예전에 못이 터져서 화산마을을 휩쓸어 간 일이 있다 해서 불린 이름이다.
- 수령골 : 화산리 산19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안정이골 : 화산리 54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애깃소골 : 마근저수지 동쪽의 동해남부선 철로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오리방골 : 화산리 산86-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옷물안골 : 화산리 17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재밀골 : 개천고개 밑에 있는 골짜기로, ‘재비골’로도 불린다. 화산리 711번지 일대이다.
- 적목골[笛牧谷] : 화산리 온곡1구에 있는 골짜기로, 외떨어져 있는 적막한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⁴⁴¹⁾ ‘제미골’로도 부르며, 제미골못이 있다.
- 쪼매기집터골 : 마근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쪼매기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다 한다.
- 채봉골 : 화산마을 북쪽 2km 지점에 있는 골짜기로, 채봉[假葬]을 했다 한다.
- 큰골 : 화산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황새골 : 화산리 29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들판]

- 건너들 : 화산리 61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민등들 : 화산리 319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시밤들 : 추념보⁴⁴²⁾ 위쪽에 있는 들판으로, 시비기[물구덩이]가 많은 곳이다.
- 자밀들 : 장안천 남쪽과 동해남부선 철로의 서편에 접한 들판으로, 화산리 625-3번지 일대이다.
- 집앞들 : 화산리 640번지와 81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화산들[禾山坪] : 화산에 있는 들판으로, 922-8번지 일대이다.

• 화정리 (禾亭里)

본래 울산군 온양면의 지역으로서 신라의 셋내[生西良·東安]이며, 조선 예종 때는 술이리라 하였다. 정조 때는 온양면에 속한 수마리[禾麻里]였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구진동(舊鎭洞), 1911년에는 구정동(九亭洞),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화마동(禾麻洞)과 서생면의 구정동을 병합하여 화정리라 해서 울산군 서생면에 편입되었다. 1963년 1월 동래군에 이속되었다가 1973년 1월 동래군의 일부가 양산군에 통합되면서 양산군 관할이 되었다. 이후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다시 울산(울주)군에 환속되었다.

[골짜기]

- 갓골짜 : 약못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곰짓골 : 흠아밭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곰쥐(박쥐)가 많았다 한다.

441) 강길부, <전계서>, 300쪽.

442) 추념보는 돌박보 위쪽에 있는 보(伏)로, 추념이라는 사람이 냈다 한다. 돌박보는 두부논보 위쪽에 있는 보로, 돌이 많다. 두부논보는 천마짓보 위쪽에, 천마짓보는 큰보 위쪽에, 큰보는 새보 위쪽에, 새보는 돌안보 위쪽에, 돌안보는 윤구보 위쪽에, 윤구보는 샘보 위쪽에, 샘보는 대밭보 위쪽에, 대밭보는 무다앗보 위쪽에, 무다앗보는 민등 서북쪽에 있다. 민등은 온곡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구진큰골 : 화정리 산26번지 일대의 큰 골짜기이다.
- 까갯골 : 곰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재가 많았다 한다.
- 노숙나무골 : 솔마에 있는 골짜기이다.
- 농신논골짜 : 솔마(述麻)⁴⁴³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도둑골 : 곡무디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도둑이 살았다 한다.
- 듬나골 : 화정리 855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마근창골 : 올밤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만리성골 : 솔마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만리성(萬里城)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萬里城谷(禾麻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명당장골 : 솔마 뒤쪽에 있는 산인 덧비알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탄골 : 화정리 64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빈댓골 : 구정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빈대가 많아서 폐사된 절이 있었다 하여 ‘빈대절골’이라고도 한다.
- 산짓골 : 갯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지기가 살았다 한다. 화정리 646번지 일대이다.
- 산땃골 : 구정에 있는 골짜기로, 산태가 자주 났다 한다. 큰산땃골과 작은산땃골이 있다.
- 서나뭇골 : 센삿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나무가 있었다.
- 선량골 : 화정리 산162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성포가리골 : 솔마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만리성 터가 있다.
- 성짓골 : 성포가리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세양골 : 옷솔마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시안골’이라고도 한다.
- 센삿골 : 재금터⁴⁴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성인사골[聖人寺谷]’이라고도 한다. 구전에, 성인사(또는 성안사)를 옮겨 지은 절이 인성사라 한다.
- 솔마골 : 화정리 77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야미골 : 솔마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약뭇(물)골 : 짚지밭⁴⁴⁵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피부병에 좋은 약물이 난다.
- 올밤골 : 센삿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이양지땃골 : 예수터매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양지고을 원(員)을 지낸 이씨의 묘가 있다.
- 장골 : 구정 서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장미논골 : 예수터매⁴⁴⁶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절땃골 : 점골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골, 재땃골’이라고도 한다. 화정리 377번지 일대이다.
- 점골짜 : 잿곡⁴⁴⁷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토기점이 있었다 한다. ‘정골’로도 불리며, 화정리 724번지 일대이다.
- 집너매골 : 청뚝⁴⁴⁸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집 너머가 된다.

443) 솔마는 구정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정(九亭, 舊亭)은 화정리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로, ①화정이 있었다. ②서생진(西生鎭)이 있었다.

444) 재금터는 큰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재궁(齋宮)이 있었다. ‘재금터’라고도 한다.

445) 짚지밭은 만리성터 동쪽에 있는 버덩으로, 잔디가 많이 깔려있고 큰 정자나무가 있어서 앉아 놀기에 좋다.

446) 예수터매는 솔마 서쪽에 있는 산으로, 그곳에 있는 바위를 말하기도 한다. 그곳(바위)에는 굴이 있는데, 예수(여우)가 살았다 한다.

447) 잿곡이란 솔마 서북쪽에서 온양을 발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기와를 구웠다 한다.

448) 청뚝은 잿곡 동쪽에 있는 등성이로, 솔마의 좌청룡이 된다. ‘청룡뚝’이라고도 한다.

- 큰갓골짜 : 안산⁴⁴⁹⁾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갓[산]이 있다.
- 큰골 : 구정 서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 큰돌안골 : 구정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돌 안쪽이 된다.
- 흙이밭골 : 재곶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흙처럼 좁고 길다.

[들판]

- 구들뺑이들 : 구들뺑⁴⁵⁰⁾ 밑에 있는 들판으로, 큰구들뺑이와 작은구들뺑이가 있다.
- 구진들 : 웃구진 동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들너매 : 술마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들(뚝) 너머가 된다.
- 못밧들 : 술마저수지 밑에 있는 들판이다. 술마저수지는 1943년에 축조되었다.
- 무등들 : 무등⁴⁵¹⁾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산밧들 : 술마 북쪽 산 밑에 있는 들판으로, 화정리 773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擧山 坪(禾麻洞)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 섬밭들 : 화정리 790번지 일대이다.
- 웃섬들 : 구정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집앞들 : 술마 앞에 있는 들판이다.
- 화정들 : 술마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화정리 37번지와 216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石畚坪(禾麻洞)이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
•
서
생
면
•
—

449) 안산은 ①술마 동쪽에 있는 산으로, 안대가 된다. ②구정 서북쪽에 있는 산이다.
 450) 구들뺑은 술마못 북쪽에 있는 산으로, 구들장이 난다 한다.
 451) 무등은 구정 앞에 있는 등성으로, 아이의 시체를 허술하게 묻었던 무덤을 일컫기도 한다.

원구
고갯사기와
드림관

12. 응촌면

熊村面



검단리 검단들



검단리 매람들



고연리 과천앞들



고연리 오리밭들



고연리 외지앞들



고연리 장학골



곡천리 은복들



곡천리 장천들



대대리 갈밭들



대대리 액밭들



대대리 검단골



대대리 간채골짜



대북리 가나무골



대북리 골안골



대북리 슬정들



대북리 순나무골



대북리 음달들



대북리 질기골



석천리 석천들



은현리 뒷들



초천리 초천앞들

12. 웅촌면 (熊村面, 51.95km²)

본래 울산부(군)의 지역으로서 신라 때는 우풍현(虞風縣)이 있었으며, 곰내 또는 웅촌면이라 하여 내상(內上), 매곡(梅谷), 산하(山下), 이천(利川), 덕계(德溪), 월라(月羅), 장흥(長興), 평산(平山), 주진(周津), 명곡(楡谷), 백명(百楡), 소주(召周), 신계(新溪), 대주(大周), 죽전(竹田), 기산(岐山), 편평(片坪), 삼려(三呂), 서창(西倉), 용당(龍堂, 用堂), 용암(用岩, 龍岩), 와지(臥旨), 연답(蓮畚), 관동(冠洞), 고야(古也), 은하(銀下), 덕곡(德谷), 덕현(德峴), 운암(雲岩), 암곡(岩谷), 검단(檢丹), 상대(上垔), 중대(中垔), 하대(下垔), 중평(中坪), 곡천(曲泉), 초정(椒井), 신리(新里), 통천(桶川), 석천(石川), 석계(石溪), 오복(五卜), 대양(大陽), 지소(紙所), 내리(內里), 간곡(肝谷)의 46방(坊)을 관할하다가, 위치에 따라 웅상(熊上), 웅하(熊下)의 두 면으로 갈라서 웅하면에는 와지와 간곡 등의 25방을, 웅상면에는 그 나머지를 편입·관할하였다. 1906년에 웅상면은 양산군에 넘겨주고 웅하면을 웅촌면으로 고쳤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양의 일부를 삼남면에, 신리를 청량면으로 넘겨주고 검단, 고연(古蓮), 곡천, 대대(大垔), 대복(大福), 석천, 은현(銀峴), 초천(椒泉), 통천의 9개리로 개편·관할하였다. 동쪽은 청량읍, 서쪽은 삼동면과 양산시 하북면, 남쪽은 온양읍과 양산시 웅상지역, 북쪽은 삼동면과 청량읍에 접하고 있다.

• 검단리 (檢丹里)

본래 울산(울주)군의 지역으로서 검단사(檢丹寺)가 있었으므로 검단리라 하였다. 정조 때 검단리라 하였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암곡동(巖谷洞)과 검단동으로 갈라졌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암곡동을 병합하여 검단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감사골(監司谷) : 감사골산⁴⁵²에 있는 골짜기로, '감사남골'이라고도 한다.
- 갓골짜 : 부처골 동쪽 가에 있는 골짜기이다.
- 갓등골 : 산태골 북쪽 가에 있는 골짜기이다.
- 괴남짓골 : 보탕동⁴⁵³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동녘골 : 매림⁴⁵⁴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검단리 산80-4번지 일대이다. 동녘골못 밑에 있다.
- 맹매깃골 : 갓골짜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맹매기집이 있었다.
- 못골짜 : 새검단⁴⁵⁵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다.
- 부처골 : 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양이 부처처럼 생긴 부처방우가 있다.
- 사기장골 : 검단에 있는 골짜기로, 사기그릇을 구웠다 한다.
- 산태골 : 진등⁴⁵⁶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사태가 자주 났다 한다.

452) 감사골산은 탑골 남쪽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어느 감사가 하마(下馬)를 하지 않으려고 우불당 뒤쪽으로 돌아서 오다가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 한다. '감사나골산'이라고도 한다.

453) 보탕등은 속등 서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속등은 갓등골 북쪽 산 속에 있는 등성이이다.

454) 매림은 검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암곡, 암실, 매암'이라고도 한다.

455) 새검단은 검단 동남쪽에 새로 된 마을로, 사창(社倉)이 있었다.

456) 진등은 시양골 남쪽에 있는 긴 등성이이다.

- 새안골 : 진등에서 마을 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 사이의 안에 있다.
- 속등골 : 속등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수문남골 : 고야산[수문남골산]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묵논[陳畚]이 있다.
- 시양골 : 너븐딩이⁴⁵⁷⁾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기점이 있었다.
- 암곡골 : 검단리 892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재골새 : 암곡의 운강사 주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진등골 : 진등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탑골 : 채운사(彩雲寺)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탑이 있다. 채운사는 1955년에 창건한 대한불교 태고종(太古宗) 말사(末寺)이다.
- 팔말골 : 검단리 산19-8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곡천리 경계지역에 있다.

[들판]

- 검단들 : 검단에 있는 들판이다.
- 내리들 : 곰내천 제방 안 도로를 따라 있는 들판이다.
- 뒷몰랑들 : 암곡마을 뒤 만딩이에 있는 들판이다.
- 매람들 : 매람곡⁴⁵⁸⁾ 밑에 있는 들판으로, 검단초등학교~기외공장의 주변이다.
- 북녘들 : 검단 방앗간에서부터 검단초등학교까지 신암천 양쪽에 있는 들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北域坪(북녘들, 檢丹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새말들 : 새검단[社倉] 앞에 있는 들판으로, ‘새각단앞들’이라고도 한다.
- 서밭(만)들 : 검단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검단리 564번지 일대이다.
- 섬들 : 검단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양쪽으로 물이 흘러서 섬처럼 되어 있다.
- 암살앞들 : 동녘골못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검단리 1021번지 일대이다.
- 음달들 : 검단리 8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고연리 (古蓮里)

본래 울산(울주)군 웅촌면의 지역으로서 조선 정조 때에 와지리(臥旨里), 입동리(笠洞里), 지소리(紙所里)의 세 마을로 갈라져 있었다. 1894년(고종 31)에는 와지동, 연답동(蓮菴洞), 관동(冠洞), 고야동(古也洞), 지소동으로 세분되었다가 1911년에 지소동을 반계동(盤溪洞)으로 고쳐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야동, 관동, 연답동, 와지동, 반계동을 병합하여 고야와 연답의 이름을 따서 고연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마골 : 진등 아래 오목골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마솥처럼 생겼다. ‘가매골’이라고도 한다.
- 구시골 : 와지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구시(구유)처럼 생겼다.
- 깨(피)밭골 : 연답⁴⁵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깨밭이 있었다.

457) 너븐딩이는 검단 동쪽에 있는 넓은 등성이이다.

458) 매람곡은 검단 서북쪽에서 매람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459) 연답은 반계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반계는 괴천(槐川)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소(紙所)’라고도 한다. 괴천(槐川)은 고연리에 있는 마을이다.

- 남불암골 : 운흥사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흥사에 딸린 ‘남불암(南佛庵)’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羅分谷(冠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남악암골 : 보유암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남악암(南岳庵)’이란 암자가 있었다. ‘남암골’로도 불린다.
- 동불암골 : 운흥사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동불암(東佛庵)’이란 암자가 있었다.
- 띠밭골 : 반계에 있는 골짜기로, 띠(풀이름)가 많았다.
- 맹주암골 : 남불암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맹주암’이란 암자가 있었다. ‘명지남골’로도 불린다.
- 모구장골 : 고연리 154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물탕골 : 연답에 있는 골짜기로, 물을 맞는 곳이다.
- 방아골 : 반계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딱바위에서 정족산으로 오르면 방아다리처럼 능선이 갈라진다 하여 불린 지명이다.
- 방우(아)골 : 와지(臥旨)⁴⁶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바위가 있어 바위골→방아골이 되었다.
- 범바위골 : 와지에 있는 골짜기로, 정상에 있는 큰 바위의 밑에 있다. ‘범밭골’이라고도 한다.
- 보유암골 : 맹주암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보유암’이란 암자가 있었다. 고연리 산220-3번지 일대이다.
- 봉답골 : 깻밭다이⁴⁶¹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울산칸트리 골프장 아래 산 밑에 있다. 고연리 40번지 일대이다.
- 부도암골 : 사저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도(浮屠)가 있었던 곳이다. ‘부디골’로도 불리며, ‘작은부디골’이 있다.
- 부채(치)골 : 괴천[고여]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처바위 밑에 있으며 고연리와 경계지점이다.
- 북암골[北庵谷] : 불매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북암’이란 암자가 있었다.
- 분등골 : 반계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산등성이에서 분색(粉色)의 흙이 난다.
- 불매골 : 관전암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매(풀무)가 있었다.
- 비석골 : 와지에 있는 골짜기로, 무연고 묘의 비석이 많다.
- 사저암골 : 청주암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저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
- 사타골 : 반계마을의 중보(中湫)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태골[寺畚谷] : 괴천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운흥사 소유의 논이 있는 곳이다. ‘사타골, 사태골, 사답골’이라고도 한다.
- 산박골(1) : 관동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산박골(2) : 와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삼밭골 : 와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 삼학골 : 관동에 있는 골짜기로, 학 세 마리의 형국이라 한다. 한편, 말 형국이라 하여 ‘삼마골[三馬谷]’로도 불린다.
- 상도방골 : 고연리 산231-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새도랑골 : 고연리 114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새미골 : 괴천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태골 : 갯골과 장학골의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460) 와지는 갯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461) 깻밭다이(冠洞, 갯골) 북동쪽에 있는 등성이다.

- 소밭골 : 괴천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술밭골 : 괴천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술만내골 : 연답못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고연리 산242번지 남쪽 일대이다.
 - 약목골 : 연답으로 넘어가는 목[項]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약수골'이라고도 한다.
 - 예소금골 : 고연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고연리 1406-2번지 일대이다.
 - 연답앞골 : 연답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 오목골 : 관동의 방아다리 밑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오목하다.
 - 오목골짜 : 괴천저수지 밑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오목하다.
 - 운흥골 : 관음사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흥사터가 있었다. 고연리 산213-1번지 와 1792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雲興谷(盤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은구렁이골 : 관동 앞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 은정골 : 반계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은정암'이 있었다.
 - 이대룡골짜 : 와지에 있는 골짜기로, 이씨 총각이 벼락을 맞아 죽었다 한다. 대룡은 도령의 방언이다.
 - 장강골 : 와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방골 : 연답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잔바골'이라고도 한다. 이곳에 '장방골못'이 있다.
 - 장학골 : 고연리 186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장이골'로도 불리며, 이곳에 장학골못이 있다.
 - 재새골 : 소심재(웅상 경계)와 안적고개(양산 하북면 경계)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셋골'이라고도 한다.
 - 지통골 : 반계마을의 딱바위 앞에 있는 골짜기이다.
 - 청주암골 : 운흥사터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청주암'이란 암자가 있었다.
 - 통도골 : 관동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통식골 : 꽃대밭등⁴⁶²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운흥사의 통시(해우소)가 있었다.
 - 판전암골 : 동불암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판전암'이란 암자가 있었다.
 - 행골 : 연답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향꽃골, 행지골'이라고도 한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中上湫谷(盤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검단들 : 고연리 655번지와 67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괴천앞들 : 괴천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고연리 537번지 일대이다.
- 관동들 : 관동에 있는 들판으로, 고연리 965번지 일대이다.
- 꽃밭들 : 반계(盤溪)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나분들 : 와지에 있는 들판으로, 나비 날개처럼 편편하고 넓다. 고연리 374번지와 503번지 일대로, '나부들'로도 불린다.
- 말랑들 : 연답(蓮畚) 남쪽 둔덕에 있는 들판으로, 밭이 많아 '밭랑들'이라고도 한다. 연답에서 웅상의 주남으로 넘어가는 산 밭치이다.
- 밤남징이들 : 연답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밤나무가 있었다.
- 밤무당들 : 고연리 46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462) 꽃대밭등은 운흥사터 서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 분등골들 : 밤나무징이들 서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흙빛이 분(粉)처럼 희다.
- 사타골들 : 오목골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상봇들 : 반계 서쪽 위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에 있는 보를 상보(上洑)라 한다.
- 서만들 : 고연리 56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섯갓밭치들 : 와지 섯갓 아래에 있는 들판이다.
- 소머리들 : 고연리 55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수리재들 : 괴천마을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연답들 : 고연리 118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오리밭들 : 괴천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고연리 1436번지 일대이다. 오리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린다고 한다. 또는 반경 5리(五里)가량이나 되는 워낙 넓은 들판이어서 그렇게 불린다고도 한다.
- 오목골들 : 연답 북쪽 오목골에 있는 들판이다.
- 와지앞들 : 와지(臥旨) 앞에 있는 들판으로, 고연리 179번지 일대이다.
- 응구렁이들 : 고연산단에 편입되어 형상이 사라진 들판으로, 옛 지번은 고연리 522번지 일대이다.
- 중봇들 : 반계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에 있는 보를 중보(中洑)라 한다.
- 진등들 : 반계 동쪽에 있는 긴 등성이인 진등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집너매들 : 반계 남쪽, 연답과 와지 사이에 있는 들판이다.

• 곡천리 [曲泉里, 곱내, 곱내, 곡천, 웅천]

본래 울산(울주)군 웅촌면의 지역으로서 굽은 내가 있으므로 곱내, 곱내 또는 곡천, 웅천이라 하였다. 정조 때는 간곡리(肝谷里)라 하였다가 1894년(고종 31)에 간곡과 곡천(曲泉)으로 갈라졌다. 1911년에는 곡천(谷川)이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다시 곡천리라 하였다. 웅촌면의 소재지로서 학교, 파출소, 우체국, 시장 등이 있다.

[골짜기]

- 구시골 : 동문의 우문정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구시(구유)처럼 생겼다.
- 동녘골[東谷] : 곡천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뒷골짜 : 서중의 장엄사가 있는 골짜기이다.
- 미기골 : 곡천리 산33-1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불땅골 : 서중 장관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
- 불손골 : 서중에 있는 골짜기로, 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다.
- 서녘골 : 곡천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서중', '서녘' 등으로 불린다.
- 애수골 : 동문의 원당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로, 여우가 살았다.
- 원당골 : 돌트미에서 운암산 쪽으로 난 골짜기로, 곡천리 산6번지 북쪽 일대이다. '운당골', '곰당 [熊堂]'으로도 불린다.
- 저산골 : 서중(西中) 장관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텃골 : 동문의 옛 면사무소 위와 우체국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舞童谷(曲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넘바웃들 : 넘바웃⁴⁶³이 있는 들판이다.
 - 대방웃들 : 장칭이들(장천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대방우⁴⁶⁴가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大岩坪(曲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못밑들 : 서중 앞에 있는, 앞못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새모랭이들 : 곡천리 517-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원복들 : 서중 동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온복(溫卜)’, ‘온북(溫北)’, ‘옴빠기들’이라고도 한다. 곡천리 170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물을 대는 ‘원복보’가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溫福坪(檢丹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음달들 : 서중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이곳에 물을 대는 ‘음달보’가 있다.
 - 장천들[장칭이·장치들] : 원복들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에 물을 대는 ‘장천보’가 있다. 곡천리 233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長川坪(曲泉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糧食坪(양식바대들, 檢丹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대대리 [大垓里, 터에, 터어]

본래 울산(울주)군 웅촌면의 지역으로서 신라시대부터 집터였으므로 터어, 터에라 불려왔다고 한다. 정조 때는 대여리(垓如里)였고 1894년(고종 31)에는 상대(上垓), 중대(中垓), 하대(下垓), 중평(中坪)의 네 마을로 되어 있었다. 1911년에는 상대, 중대, 하대, 저리(楮里)의 4개 마을로 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들을 병합하여 대대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장골(1) : 중대의 옥수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한 곳이다.
- 가장골(2) : 저리의 딱밭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을 한 곳이다.
- 가재골 : 물청골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검단골 : 대대리 산158번지 남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간채골짜 : 부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까치처럼 생겼다. ‘까치골’, ‘간치골새’라고도 한다. 대대리 309번지 일대이다.
- 넓덕방웃골 : 대대리에 있는 골짜기로, 넓덕방우가 있다.
- 도장골 : 상대의 소맷골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텃골 : 하대⁴⁶⁵ 뒤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463 넘바웃은 솔고개 서쪽, 넘바웃고개 밑에 있는 들판이다. 솔고개는 ①서중(西中)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②서중에서 검단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중은 간골(肝谷) 서쪽에 있는 마을로, ‘서넉’, ‘서넉골’, ‘서리’라고도 한다. 간골은 서넉골과 동넉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간곡역(肝谷驛)이 있었다. ‘중리’, ‘간곡’, ‘아실’이라고도 한다. 넘바웃고개는 ①넘바웃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②서중 서쪽에서 곡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바위를 넘어간다는 뜻이다.

464 대방우(大岩)는 대방웃들 동쪽에 있는 큰 바위이다.

465 하대는 대대리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 딱발골 : 저리에 있는 골짜기로, 황새골과 인접해 있다.
- 못골짜 : 간채골짜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또골 동쪽이다. 이곳에는 못이 있다.
- 물청골 : 새만당이⁴⁶⁶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온양고개에 있다. 대대리 산32-1번지 일대이다.
- 밀밭골 : 산박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부채골 : 통집(두)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佛谷(中垓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비자나무골 : 배읍봉 옆에 있는 골짜기로, 비자나무가 많았다. ‘비자골’로도 불린다. 양산시 웅상과의 경계지점이다.
- 사기장골 : 저리⁴⁶⁷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기(砂器)를 구웠다 한다.
- 사또골 : 하대 참샘 위, 검단고개에서 넘어오는 능선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산박골 : 상대⁴⁶⁸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학 세 마리가 나는 형국이다. 삼밭[麻田]이 있었다고도 한다. 산밭골, 삼학곡(三鶴谷) 또는 삼학골이라고도 한다. 또는, 세 마리의 말 형상이라 하여 삼마골[三馬谷]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에 山幕谷(上垓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상대골 : 상대마을 1반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미골 : 중대에 있는 골짜기로, 새이 있다.
- 소맷골 : 뽕봉⁴⁶⁹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소를 놓아 먹였다 한다.
- 솔방골 : 솔배기지골의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솔배기지골 : 상대에 있는 골짜기로, 솔매(수리)를 닦았다 하여 ‘솔매지골’, ‘솔배지골’이라고도 한다.
- 애기씨골 : 장나짓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악(아기)시골’이라고도 한다. 대대리 729번지 일대이다. 이 골짜기와 관련하여 구전하는 노랫말이 있다.⁴⁷⁰

도마산에 가서 도마질하고
장나짓골에 가서 장 냄새 맡고
쿵기гани 쿵쿵한 냄새가 난다
물청골에 가서 목욕하고
애기씨골에 처녀 만나러 가자

- 영장골 : 삼각점 산에 있는 골짜기로, 가재가 많아서 ‘가재골’이라고도 한다.
- 옥수골 : 중대 액밭 온앞만디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장구버든골 : 상대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장구처럼 생겼다.
- 장나짓골 : 동뫼(매)⁴⁷¹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대리 산21-1번지 일대이다. 장을 놓았으며, ‘장나지골’로도 불린다.
- 정자골 : 중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466) 새만당은 너븐딩이 남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너븐딩이는 장나짓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467) 저리는 대대리에 있는 마을로, ‘저리’, ‘딱발굴’, ‘딱발골’이라고도 한다.

468) 상대는 대대리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469) 뽕봉은 상대 동쪽 내[川] 건너에 있는 마을로, 뽕봉 밑이 된다.

470) 『웅촌면지』, 면지편찬위원회, 2002, 675쪽.

471) 동뫼(매)[洞山]는 상대 동쪽 길 가에 있는 산이다.

- 통집(두)골 : 밀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대리 산115-7번지 일대이다. 상대 못골짜 위에 있다.
- 황새골 : 저리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황새처럼 생겼다.

[들판]

- 갈밭등들 : 갈밭등을 개간하여 만들어진 들판으로, 대대리 35번지 일대이다. '갈밭띠이'라고도 한다.
- 궁답들 : 상대 회야교 위 궁답보 밑에 있는 들판으로, 지형이 활처럼 휘어졌다.
- 대밭밑들 : 못 밑에 있는 들판으로, 띠밭이 대밭으로 변했다.
- 마린마구들 : 갈밭띠이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수원(水源)이 좋지 않은 건답(乾畓)이다.
- 뼈(비)든들 : 상대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버덩이 있다.
- 새들 : 상대 궁답보와 나란히 있는 새로 생긴 들판이다.
- 셋들 : 배일봉 아래 있는 들판으로, 궁답과 산 밑 들판 사이에 있다고 '사이 들판'이 '셋들'이 되었다. 또한, 강가에 새로 된 들판이라 하여 '셋들'이라고도 한다.
- 새봇들 : 액밀보 밑에 있는 들판으로, 중대 앞 증섬들보를 말한다.
- 선창들 : 섬들 위에 있는 들판으로, 옛날 홍수 때 배일봉 밑에 배를 대었다고 하여 선창이라 한 데서 유래된 지명이다.
- 섬들 : 액밀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양쪽으로 물이 흘러서 섬이 되어 있다. 대대리 1011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島坪(섬들, 中垆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양어들 : 대대리 1644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액밀들 : 뼈든들 동쪽 언덕 밑에 있는 들판이다. '앵미들'로도 불린다. 『조선지리지』에 鷲尾坪(中垆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온복들 : 저리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복이 오는 들판이라 하여 불린 이름이다.
- 장태모링이들 : 장태모링이⁴⁷²⁾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증섬들 : 대대리 앞들 중앙 밑에 있는 들판이다.
- 쿵킹이(기)들 : 저리(楮里)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대대리 42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쿵킹이보[조개섬보]'가 있다.
- 허가(갯)들 : 버든들과 증섬들 밑에 허가를 받아 보를 막았다고 하여 허가보(許可洑), 그 들판을 허가들이라 한다. 또는 허씨가 만들었다고 하여 허가보가 있는 들판이라고도 한다. 대대리 635번지 일대이다. 이 보(洑)는 쿵킹이들 서쪽에 있다. 『조선지리지』에 許哥坪(中垆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대복리 (大福里)

본래 울산(울주)군 웅촌면의 지역으로서 정조 때는 오복(五福)과 대양(大陽), 1894년(고종 31)에는 오복동(五卜洞)과 대양동으로 갈라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양동과 오복동을 병합하여 대복리라 하였다.

472) 장태모링이는 갈밭띠이 동쪽에 있는 모령이로, 장승이 섰다 한다.

•
웅
촌
면
•
203

[골짜기]

- 가지바골 : 운암산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은 석산개발로 형상이 없어졌다. 개발 전 형상이 가재의 앞발처럼 벌어져 ‘가재발골’이라고도 한다. 대북리 산190번지 서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감나무골 : 대북리 산148-1번지 동쪽과 산152-1번지 서쪽 사이 일대의 골짜기이다. 감나무가 있어 그렇게 부르며, ‘가나무골’로도 불린다.
- 골안골 : 약천동(藥泉洞)⁴⁷³ 동북쪽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고란골’이라고도 한다. 대북리 535번지 ~547번지 일대이다.
- 구정짓골 : 못골 북쪽, 불한당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까지밭골 : 오복⁴⁷⁴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지 밭이 있었다.
- 도독골 : 대북리 산114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대북주유소 뒤쪽 곰동네가든이 있는 곳이다.
- 돌터골 : 범무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비석용(碑石用) 돌이 많았다.
- 동도독골 : 대북리 산136번지 북동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모당골 : 대북리 56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모시밭골 : 대북의 작은서장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모시밭이 있었다.
- 못골 : 붓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못이 있다. 대북리 산207번지 남쪽 일대이다.
- 무근산골[無根山谷] : 재피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묵밭골 : 새맛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묵혀 놓은 밭이 있다.
- 문등골 : 큰골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산260-1번지 서쪽과 산260-3번지 서쪽 일대이다.
- 미영밭골 : 대북에 있는 골짜기로, 목화밭이 있었다. 대북리 산200번지 남쪽과 산225-1번지 북쪽 일대이다.
- 바람골 : 큰골(1)로 들어가면 삼등면과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바깥바람골과 안바람골이 있다. 바람이 세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범무골 : 대북산 기도원이 있는 골짜기로, 대북리 산243번지와 산246번지 서쪽 일대이다.
- 붓골 : 큰셋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북리 153번지 일대이다. 붓골못 아래에 있다.
- 부채징이골 : 오복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부탕골 : 대북리 890-1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땅골 : 구정짓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도 불당이 한 곳 있다.
- 불한당골 : 대북의 구정짓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기장골 : 오복 북쪽, 은혜사가 있는 골짜기이다.
- 삼밭골 : 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살굿을 했다 한다. 대북리 산159번지 서북쪽 일대로, ‘산밭골’로도 불린다.
- 삼학골 : 대북리 789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새맛골 : 새각단[南里]⁴⁷⁵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썩이 있다. 밑에 묵밭골이 있다.
- 서상(장)골 : 대북의 순나못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서상(장)골이 있다. ‘석산골’이라고도 한다.

473) 약천동은 대양 남동쪽 앞 내[川] 건너에 있는 마을로, 초천약수(椒泉藥水)가 있다.

474) 오복은 약천동 서쪽에 있는 마을로, 복 밭을 명당이 다섯 군데나 있다 한다.

475) 새각단은 대양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설밭골 : 재피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설이 많았다.
 - 소도독골 : 대북의 깊은다리(山下橋)에서 북쪽으로 난 골짜기로, 동쪽에 ‘동소도독골’이 있다. 부근에 지계골(지갯골)도 있으며, 국도변에는 큰빛병원이 있다.
 - 손독골 : 음달산 아래, 지금의 울산예술고등학교 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도가니 안처럼 좁다.
 - 수수(지)밭골 : 대북리 산76번지 동쪽과 산79-4번지 서쪽 사이 일대의 골짜기이다.
 - 순나뭇골 : 삼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북리 산85번지 북쪽 일대이다. 화약고가 있는 골짜기로, 솥구덩이가 있다. 솥을 굽던 솥나뭇골이 순나뭇골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 양달큰골짜 : 대북에 있는 골짜기이다.
 - 염천깃골 : 대양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염천골’, ‘염치진골’이라고도 한다. 『조선지리지자료』에 廉清谷(大陽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운암산골 : 운암산에 있는 골짜기로, 대북리 산186번지 서쪽 일대이다.
 - 응서리골 : 대북의 큰골(1) 안 마침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서골 : ‘삼동로’ 서편(좌측)에 있는 골짜기로, 대북리 966번지 일대이다.
 - 잡사리골 : 새각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북리 산147번지 동쪽과 산148-1번지 서쪽 일대이다.
 - 재궁골 : 오복에 있는 골짜기로, ‘쟁골’이라고도 한다.
 - 재피골 : 큰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재피(좁피)가 많았다. 대북리 산258번지 일대이다.
 - 절골 : 큰골못이 있는 골짜기이다.
 - 절랫골 : 작은산등⁴⁷⁶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북리 산152-1번지 동쪽 일대이다.
 - 중도절골 : 오복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갯골 : 새각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질깃골’이라고도 한다. 대북리 산121-1번지 일대이다.
 - 진골 : 염천골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로, 대북리 787번지 일대이다.
 - 채안골 : 대북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1) : 불땅골 북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큰골못(포강못)이 있다.
 - 큰골(2) : 까지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못골 : 대북리 850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큰셋골 : 절랫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대북리 110번지 일대이다. 큰골못 밑에 있으며, ‘무당논골’이라고도 한다.
 - 탕골 : 대북리 902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허드라골 : 대북리 산181-1, 2, 3번지에 걸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의 신진자동차운전학원 안쪽으로, 석산 개발로 형상이 변했다.
 - 헛다리골 : 대북의 곰동네가든이 있는 도둑골과 북쪽의 지갯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지금의 소규모 공업사가 있는 지역의 일대이다.
- 『조선지리지자료』에 水呑谷(大陽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들판]

- 가분텃들 : 대양(大陽)⁴⁷⁷ 어귀에 있는 들판이다.
- 골안들 : 골안골 아래에 있는 들판으로, ‘고란들’이라고도 한다.

476) 작은산등은 붓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다.

477) 대양은 대북리에 있는 마을이다.

- 구렁이감나무들 : 대북의 솔정들 밑에 있는 들판으로, 당시 그곳에 있었던 감나무 주위의 논들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구렁진 논들이었으므로 그렇게 불렸다.
- 논들 : 대양 앞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의 논에 물을 대는 '논들보'가 있다.
- 당수말들 : 대양 북쪽에 있는 마을인 당수말에 있는 들판으로, 당수나무가 있었다. 대북리 174번지 일대이다.
- 대북들 : 대북리 447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대양들 : 대북리 913-1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도랭잇들 : 새각단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돌안짓들 : 오복마을에 있는 들판으로, 모랭이가 석천에서 돌아왔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덧들 : 순나무곶 앞에 있는 들판으로, 대북리 821-4번지 일대이다.
- 들밑들 : 새각단 앞에 있는 들판으로, 텁 밑이 되어 '텁밑들'이라고도 한다. 이 들판의 논에 물을 대는 '텁밑보'가 있다.
- 무정들 : 대북리 760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버(빠)든들 : 대양 동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버덩이 있다.
- 산박구매들 : 약천동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서나무징이들 : 도랭잇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서나무가 있었다.
- 솔정들 : 대양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소나무 정자가 있어 '솔정자들'이라고도 한다. 이 들판의 논에 물을 대는 '솔정보'가 있다.
- 안팽이들 : 대양 북쪽 안에 있는 들판으로, '안대양들', '안태양들'이라고도 한다. 이곳의 논에 물을 대는 '안팽이보'가 있다.
- 앞들 : 대양마을 앞에 있는 들판으로, 대북리 387번지 일대이다.
- 약천들[藥泉坪] : 약천동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원터들 : 대북리 45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음달들 : 대양 동남쪽 응달에 있는 음달산 밑에 있는 들판으로, 대북리 425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물을 대는 '음달보'가 있다.
- 자갈자리들 : 대북의 손독곶 앞에 있는 들판이다.
- 장승백들 : 새각단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장승이 섰었다 한다.
- 참새밋들 : 안팽이들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큰들 : 큰곶소류지 밑에 있는 들판으로, 대북리 931번지 일대이다.

• 석천리 [石川里, 돌내, 회천, 석천]

본래 울산(울주)군 웅촌면의 지역으로서 회야강이 마을을 감돌아 흐르고, 또는 돌이 많으므로 돌내 또는 회천(回川), 석천이라 하였다. 정조 때 돌내리[玆川里]라 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석천동과 석계동(石溪洞)으로 갈라져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석계동을 병합하여 석천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재골 : 석천에 있는 골짜기로, 가재가 많았다.

- 난도나뭇골 : 꽃밭딩이⁴⁷⁸⁾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난도나무가 있었다.
- 누룩나뭇골 : 쟁골(재앙골, 대복)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누룩나무가 있다.
- 돈구디기골 : 덧비알⁴⁷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돈치기를 하고 놀았다 한다.
- 덧갈골 : 덧갓에 있는 골짜기이다.
- 바랑골 : 중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큰바랑골과 작은바랑골이 있다.
- 분골 : 지픈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흙빛이 분(粉)처럼 희다고 한다. '불썬골'로도 불린다. 이는 임진왜란 때 경주 김씨가 피난하여 밤에 불을 켜고 지낸 데서 불린 이름이다.⁴⁸⁰⁾
- 배나무골 : 석천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많았다.
- 삼밭골 : 덧각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굿을 했다 한다.
- 서남미기골 : 아릿각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나무가 있었다 한다.
- 소바탕골 : 두리등⁴⁸¹⁾ 어귀에 있는 골짜기로, 소를 놓아 먹였다 한다.
- 소정골 : 안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쟁골 : 덧갓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절터골 : 안마을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절이 있었으나 빈대가 들끓어 폐사되었다 한다.⁴⁸²⁾
- 중산골 : 밤숲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석천리 산22번지 북쪽 일대이다. 초천과의 경계지점이다. 『조선지리지』에 中山谷(石溪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지픈골 : 누룩나뭇골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 채봉골 : 바랑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흥골막바지 : 바랑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흥을 댔다 한다.

[들판]

- 갈모또가리들 : 명에자리들 밑에 있는 들판으로, 지형이 갈모처럼 생겼다.
- 건천들 : 석천리에 있는 들판으로, '건치이들'이라고도 한다. 물 빠짐이 빨라서 불린 이름이다.
- 광텃들 : 아릿각단 서쪽, 광터고개⁴⁸³⁾ 밑에 있는 들판이다.
- 도른징이들 : 아릿각단 북쪽 돌아가는 길가에 있는 들판이다.
- 덧들 : 아릿각단 뒤에 있는 들판이다.
- 명에자리들 : 붓들에 있는 들판이다.
- 밤숲들 : 아릿각단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밤나무가 많았다 한다.
- 발더불들 : 덧각단(아릿각단) 서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보안개들 : 아릿각단 남쪽에 있는 들판이다.
- 붓들 : 아릿각단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보(泚)의 물을 댄다. 『조선지리지』에 石川泚坪(石川泚)으로 조사되어 있다.

478) 꽃밭딩이는 덧각단 서남쪽에 있는 등성으로, 참꽃이 많았다. 덧각단은 석천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아릿각단, 아릿마을, 안마을'이라고도 한다.

479) 덧비알은 석천리에 있는 산으로, '덧갓'이라고도 한다.

480) 강길부, <전계서>, 465쪽.

481) 두리등은 중산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다.

482) 강길부, <전계서>, 466쪽.

483) 광터고개는 돌내 동쪽에서 통천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석천들 : 석천리 55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장구배미들 : 건천들 옆에 있는 들판으로, 지형이 장구처럼 생겼다.

• 은현리 (銀峴里)

본래 울산(울주)군 웅촌면의 지역으로서 정조 때에는 덕현리(德峴里)와 예암리(濼巖里)로 갈라져 있다가 1894년(고종 31)에는 덕현동, 은하동(銀下洞), 덕곡동(德谷洞), 운암동(云巖洞)으로 세분되었다. 1911년에는 덕현, 은하(隱下), 덕곡, 용산(用山=龍山)이라 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덕현동, 용산동, 덕곡동, 은하동을 병합하여 은하와 덕현의 이름을 따서 은현리라 하였다.

[골짜기]

- 가장골 : 은하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갈강골 : 신암에 있는 골짜기로, 삼동면과 경계지점에 있다.
- 갓골짜 : 은하에 있는 골짜기로, 모양이 갓처럼 생겼다.
- 갓장골 : 신암에 있는 골짜기로, 삼동면과 경계지점에 있다.
- 구당골 : 덕산에 있는 골짜기로, 굶을 자주 했다 한다.
- 구당밭골 : 은하 뒷산에 있는 골짜기로, '굿당바위밭골'이라고도 한다.
- 너븐골 : 덕산(德山)⁴⁸⁴ 동북쪽에 있는 넓은 등성이인, 너븐등에 있는 골짜기이다.
- 당골 : 은하에 있는 골짜기로, 돌무더기당이 있었다.
- 도둑골 : 산티고개⁴⁸⁵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도둑이 많았다 한다.⁴⁸⁶
- 돈구디이 : 맹밭골에 있는 골짜기로, 돈치기를 했다 한다.
- 동맷골 : 덕산 동쪽에 있는 산인, 동뒤(매)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동넙골 : 덕산의 황새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뒷골 : 은하마을의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 뒷골짜 : 덕현과 서리의 경계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망닥골 : 덕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 맹(미영)밭골(1) : 서리(西里, 서넙에)⁴⁸⁷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미영밭(목화밭)이 있었다 한다.
은현리 산125-5번지 일대로, '명박골'이라고도 한다.
- 미영밭골(2) : 은하에 있는 골짜기로, 목화밭이 있었다. 은현리 1268번지 일대이다.
- 모과나뭇골 : 은하에 있는 골짜기로, 모과나무가 많았다.
- 물똥골짜 : 서리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 문등골 : 쇠갓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산이 민등산이라 민등산→문등산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 밭골짜 : 신암에 있는 골짜기로, 큰밭골짜기와 작은밭골짜기가 있다.
- 배일나뭇골 : 신암에 있는 골짜기로, 삼동면과 경계지점에 있다.
- 북골 : 서리마을 뒷산에 있는 골짜기로, 햇빛이 처음 비치는 밝은 골짜기인 밝골→북골이 되었다.

484) 덕산은 은현리에 있는 마을로, '사곡(砂谷)', '사릿골'이라고도 한다.

485) 산티고개는 덕산 북동쪽에서 삼동면 작동리의 산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486) 강길부, <전계서>, 468쪽.

487) 서리는 은현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488) 중보는 서리 동쪽 한 북판에 있는 보(伏)이다.

- 붓골[湫谷] : 은현리 서리의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에 중보(中湫)⁴⁸⁸가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湫谷(銀下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불당골 : 은현리 북서쪽 산자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사릿골 : 덕산에 있는 골짜기로, 덕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뒷산에서 산사태가 자주 나서 불린 이름이다.
- 상보골 : 은현리 산201-1번지 일대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안골 : 덕산에 있는 골짜기이다.
- 새암골 : 은현리(덕산) 산97-1번지 동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선바위골 : 은하마을 뒷산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 선바위가 있다.
- 손골 : 은하에 있는 좁은 골짜기이다.
- 솔탁골 : 덕현⁴⁸⁹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좁고 깊다하여 ‘속탁골, 수탁골’로도 불린다. 덕산과 덕현의 경계지점에 있다. 은현리 148번지 일대이다.
- 영바골 : 은현리 산240-3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운암골 : 운암산 정상에서 서쪽 신암마을로 내려오는 골짜기이다.
- 은은골 : 은하⁴⁹⁰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지경골 : 덕산의 당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참새밧골 : 덕산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큰골 : 신암저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동면과 경계지점이다. 은현리 산191-1번지 일대이다.
- 행담골 : 은하 남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큰 돌로 쌓은 돌담이 있는데, 할미(할머니)가 쌓은 것이라 한다. ‘해미담울’이라고도 한다.
- 호분짓골 : 은하에 있는 골짜기로, 훤아비짓골이 호분짓골로 변했다.

[들판]

- 남끝들 : 덕산 남쪽 끝에 있는 들판이다.
- 너머등들 : 덕산마을 진입로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담띠(뒤)들 : 중보들 동쪽에 있는 들판이다.
- 당골들 : 은현리 1163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동녘들 : 은현리 548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뒷들 : 은현리 66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살구정들 : 은하의 앞에 있는 들판으로, 살구나무 정자가 있었다.
- 상보들 : 덕현 남쪽 위에 있는 상보(上湫)의 물을 대는 들판이다.
- 수반들 : 서리마을에 있는 들판이다.
- 오리숲들 : 오리숲⁴⁹¹ 근처에 있는 들판이다. 이곳에는 ‘오리숲들보’가 있다.
- 오만들 : 신암(新岩)⁴⁹² 서쪽에 있는 들판으로, 땅이 좋았다 한다.
- 용산들 : 상보들 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에는 ‘용산보(用山湫)’가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用山坪(德峴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489) 덕현은 은현리에 있는 마을로, ‘덕티, 큰마을’이라고도 한다.

490) 은하는 은현리에 있는 마을로, ‘은얹’이라고도 한다.

491) 오리숲은 덕현 동쪽에 있는 숲으로, 물오리들이 많이 와서 놀았다 한다.

492) 신암은 은현리에 있는 마을로, ‘운암’ 또는 ‘용산’이라고도 한다.

- 은현들 : 고연리의 북쪽 접경지에 있는 들판으로, 은현리 1284번지 일대이다.
- 중붓들 : 서리 동쪽에 있는 중보에 물을 대는 들판이다.
- 지경들 : 신암 북쪽, 산티고개 밑에 있는 들판이다.
- 하들 : 은현리 939번지 일대의 들판으로, 경지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다.

• 초천리 [椒泉里, 초정, 초천]

본래 울산(울주)군 웅촌면의 지역으로서 초정(椒井, 藥水泉)이 있으므로 초정 또는 초천(椒泉)이라 하였다. 조선 정조 때는 초정리(椒井里)라 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초정동과 내기동(內基洞)으로 갈라져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내기리를 병합하여 초천리라 하였다.

[골짜기]

- 뒷골 : 초천리 427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등잔골 : 열기빛등⁴⁹³⁾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지형이 등잔처럼 생겼다.
- 모구밭골 : 채봉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모구나마가 있었다.
- 밭골짜 : 모구밭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밭이 많다.
- 배나뭇골 : 불맷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배나무가 있었다.
- 복송나뭇골 : 안산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복송나무가 있었다. '봉송아골'이라고도 한다.
- 복송아골 : 초천마을 남쪽 끝집 옆에 있는 골짜기로, 복송아꽃이 맨 먼저 핀다.
- 붓갓골 : 숨은등⁴⁹⁴⁾ 남쪽, 붓갓에 있는 골짜기이다.
- 불맷골 : 초정⁴⁹⁵⁾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무쇠점이 있었다 한다. 초천리 313번지 일대이다.
- 불무골 : 소재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삼밭골 : 동산비알의 동네 쪽에 있는 골짜기로, 삼밭이 있었다.
- 소도독골 : 동산비알 밑에 있는 골짜기로, 소도독들이 숨어 살았다 한다.
- 소재골 : 소재등에 있는 골짜기이다. 소재등은 심나뭇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로, 모양이 소의 혀처럼 생겼다 한다.
- 심나뭇골 : 복송나뭇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쑤시밭골(1) : 복송나뭇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쑤시(수수)밭이 있었다 한다.
- 안골 : 초천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안산골 : 주치등골짜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용숫(소)골 : 초정 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로, 땅에서 물이 솟아난다.
- 윤을(들)밭골 : 자래등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자래등골 : 초정 동남쪽에 있는, 자래등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형이 자래등처럼 생겼다 한다.
- 주치등골짜 : 주치등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주치등은 화딱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로, 주치가 많았다 한다.
- 채봉골(1) : 큰골짜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채봉[假葬]을 했다 한다.

493) 열기빛등은 큰골짜 동쪽에 있는 등성이로, 지형이 열레빛처럼 생겼다.

494) 숨은등은 가늌등 남쪽에 있는 낮은 등성이이다. 가늌등은 너븐등 남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너븐등은 팽바웃골 동쪽에 있는 넓은 등성이이다.

495) 초정은 초천마을 동북쪽 냇가에 있는 약수터로, 맛이 매우 시고 매운데, 속병과 피부병에 좋다고 한다. '약물탕' 또는 '초정약수'라고도 한다.

- 채봉골(2) : 밭골짜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가장(假葬)을 했다 한다.
- 큰골(1) : 초천리 211번지 일대의 골짜기로, 이곳에 못과 재실이 있다.
- 큰골(2) : 초천리 산8번지 북쪽 일대의 골짜기이다.
- 팽바웃골 : 불무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팽풍바우(위)가 있다.
- 헤어진골 : 안경등⁴⁹⁶과 등잔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는 곳이다.
- 화딱(닥)골 : 내기(內基)⁴⁹⁷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벼슬한 이가 있어 화짓대를 세웠다 한다.

[들판]

- 덧들 : 초정 뒤에 있는 들판이다.
- 새봇들 : 초천들 아래쪽에 있는 들판으로, 초천리 51번지 일대이다.
- 상막들 : 초천들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들판이다.
- 수반들[水盤-] : 초천마을 진입로 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앞들 : 초정 앞에 있는 들판으로, '초천들'이라고도 한다. 초천리 109번지 일대이다.
- 쿡킹잇들 : 내기 서쪽에 있는 들판이다.

• 통천리 [通川里, 통새미, 통천]

본래 울산(울주)군 웅촌면의 지역으로서 통샘이 있으므로 통새미 또는 통천(桶泉)이라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는 통천동과 신리동(新里洞)이라 하였다. 1911년에 이르러 통천(通川), 자천(紫川), 신리(新里), 자암(紫岩)의 4개 마을로 갈라졌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리를 청량면에 넘겨 주고 자암리, 자천리를 병합하여 통천리라 하였다.

[골짜기]

- 건너밭골 : 통천 뒷동네 너머 노방들 가운데 길로 가면 회야강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절터골(1)'이라고도 한다. 이 골짜기의 오른쪽 맨 안골은 신개밭골, 왼쪽 맨 안골은 절터골, 절터골 밑이 불당골이다.
- 대밭골 : 통천 북쪽, 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통천리 331번지 일대이다.
- 더그내골 : 통천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못골 : 채봉비알 밑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못이 있었다.
- 불땅골 : 절랫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었다.
- 사기점골 : 모산[못산]⁴⁹⁸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사기점이 있었다.
- 샘골 : 통천리 산90번지 남쪽과 343번지 일대의 골짜기이다.
- 생이집골 : 못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상여집이 있었다.
- 송아지골 : 초천에 있는 골짜기로, 아기 손같이 아주 좁은 골짜기를 말한다.
- 신개(기)밭골 : 대밭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통천리 산44-3번지 동쪽 일대이다.

496) 안경등은 등잔골 동쪽에 있는 등성이이다.

497) 내기는 초천리에 있는 마을이다.

498) 모산은 통천리에 있는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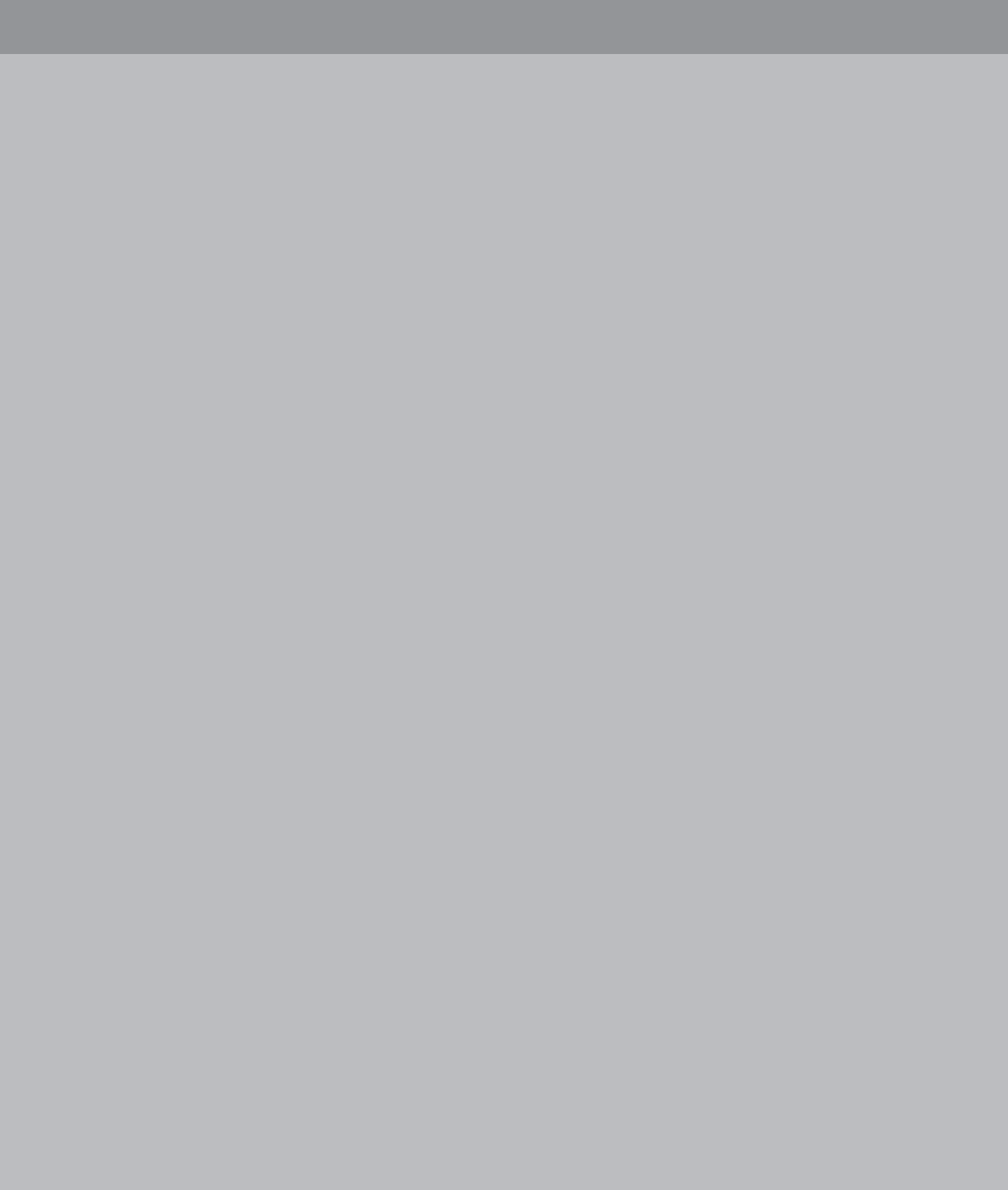
- 오장골 : 절댓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절터(땃)골(2) : 대밭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 통천리 산49-1번지와 산71번지 일대에 걸쳐 있는 골짜기이다.
- 찌구내골 : 더그내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들판]

- 건넌개들 : 통천 동쪽 내[川] 건너에 있는 들판으로, '건넌개'라고도 한다.
- 광터들[廣基坪] : 통천 서쪽에 있는 넓은 들판으로, 석천리와의 경계지점이다. 이곳에는 '광터보'가 있다.
- 노방들 : 통천 뒤, 노방산 밑에 있는 들판으로, 통천리 75번지 일대이다. 『조선지리지』에 路傍坪(桶川洞)으로 조사되어 있다.
- 모구밭골들 : 더그내골 서남쪽에 있는 들판으로, 모개나무가 있었다.
- 모룽지들 : 건넌개들 동쪽 모퉁이에 있는 들판이다.
- 모산들 : 통천리에 있는 마을인 모산 앞에 있는 들판이다.
- 못밑들 : 모산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통천리 760번지 일대이다.
- 못안들 : 통천리 822번지 일대의 들판이다.
- 보들 : 초천리 55번지, 66번지 일대에 있는 들판으로, '초정약수터'가 있다.
- 생쥐골짜들 : 광터 서북쪽에 있는 들판이다.
- 집앞들 : 통천 앞에 있는 들판이다.

원구
고려사기(와) 판
2

부록



야유(野遊)이다. 들놀음은 오광대와는 달리 가면극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길놀이’와 ‘덧배기 춤놀이’, ‘탈춤놀이’를 한데 묶어서 들놀음이라 하였다.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들놀음으로는 동래들놀음[東萊野遊; 1967.1.21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과 수영들놀음[水營野遊; 1971.2.26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의 2종이 있으며, 1930년대까지 전승되던 부산진들놀음[釜山鎭野遊]은 이제 인멸되어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⁵⁰⁰⁾

들밥

들밥은 농번기에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들로 날라다 주는 차림이다. 특별한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밥을 소담하게 담고 김치 나물 건어를 양념하여 찐 것, 구수하게 끓인 찌개 등을 위주로 한다. 강원도 농가에서는 들밥을 차릴 때 반드시 흰밥과 잡곡밥을 따로 지어 옆옆이 담아야 하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다. 들밥 차림에는 반드시 탁주(막걸리)를 곁들이고 하루에 네 끼를 하며, 점심과 저녁 사이의 밥을 새참이라 한다.⁵⁰¹⁾

새참은 주로 국수나 수제비 등을 많이 먹는다. 모심기 때는 가끔 비가 올 때도 있는데, 빨리 먹고 하던 일을 계속해야하므로 논두렁에 서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데나 걸터앉아서 먹기도 한다. 비가 올 때는 그릇에 빗물이 똑똑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물 반 빗물 반의 새참을 먹기도 한다. 70~80대의 노년층들에게 생생한 추억어린 향수로 다가 올 것이다.

골짜기와 들판 현황

〈표1〉 골짜기의 현황

읍 면별	마을별(곳)	골짜기(곳)
범서읍(10리)	구영(24), 굴화(23), 두산(20), 망성(13), 사연(13), 서새(41), 입암(4), 중리(9), 척과(118), 천상(43)	208
언양읍(15리)	구수(15), 남부(*), 다개(9), 대곡(21), 동부(*), 반곡(11), 반송(13), 반연(18), 반천(13), 서부(*), 송대(7), 어음(1), 직동(21), 태기(28), 평리(4)	161
온산읍(13리)	강양(14), 당월(3), 대정(8), 덕신(33), 방도(1), 산암(9), 삼평(14), 우봉(3), 원산(24), 이진(8), 처용(9), 학남(27), 화산(26)	179
온양읍(10리)	고산(23), 남창(1), 내광(22), 대안(9), 동상(20), 망양(22), 발리(26), 삼광(24), 외광(28), 운화(53)	228
청량읍(9리)	개곡(34), 덕하(48), 동천(34), 문죽(51), 삼정(50), 상남(18), 용암(25), 울리(73), 중리(46)	379
두동면(8리)	구미(47), 만화(46), 봉계(50), 삼정(21), 월평(46), 은편(13), 이진(8), 천전(21)	252
두서면(9리)	구량(12), 내와(54), 미호(31), 복안(46), 서하(19), 인보(20), 전읍(27), 차리(13), 활천(29)	251
삼남면(5리)	가천(22), 교동(17), 방기(10), 상천(6), 신화(12)	67
삼동면(7리)	금곡(33), 둔기(42), 보은(30), 작동(42), 조일(23), 출강(47), 하점(39)	256
상북면(13리)	거리(15), 궁근정(6), 길천(6), 덕현(9), 덕억(12), 명촌(12), 산전(18), 소호(21), 양동(22), 이천(16), 지내(19), 천전(7), 향산(4)	167
서생면(10리)	나사(14), 대송(6), 명산(15), 서생(10), 신암(17), 용리(7), 위양(33), 진하(1), 화산(32), 화정(35)	170
웅촌면(9리)	검단(19), 고연(55), 곡천(12), 대대(30), 대북(54), 석천(18), 은현(40), 초천(28), 통천(13)	269
5읍7면	118리	2,587

* 골짜기 없음

500) 『한국민속대사전』〈민족문화사〉편, 민중서관, 2002, 457쪽; 이두현,〈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1980; 심우성,〈한국의 민속극〉, 창작과 비평사, 1982.

501) 『한국민속대사전』〈민족문화사〉편, 민중서관, 2002, 457쪽.

〈표2〉 들판의 현황

읍 면별	마을별(곳)	골짜기(곳)
범서읍(10리)	구영(6), 굴화(10), 두산(8), 망성(3), 사연(10), 서사(6), 입암(13), 중리(5), 척과(11), 천상(13)	85
언양읍(15리)	구수(2), 남부(2), 다개(7), 대곡(4), 동부(8), 반곡(6), 반송(2), 반연(1), 반천(4), 서부(2), 송대(*), 어음(9), 직동(9), 태기(2), 평리(6)	65
온산읍(13리)	강양(5), 당월(*), 대정(2), 덕신(17), 방도(3), 산암(2), 삼평(10), 우봉(1), 원산(2), 이진(*), 처용(4), 학남(5), 화산(10)	61
온양읍(10리)	고산(10), 남창(4), 내광(5), 대안(10), 동상(8), 망양(7), 발리(11), 삼광(7), 외광(8), 운화(10)	80
청량읍(9리)	개곡(13), 덕해(9), 동천(6), 문죽(14), 삼정(10), 상남(13), 용암(10), 율리(17), 중리(10)	102
두동면(8리)	구미(14), 만화(15), 봉계(20), 삼정(9), 월평(14), 은편(16), 이진(19), 천천(11)	117
두서면(9리)	구량(9), 내와(18), 미호(16), 복안(14), 서하(9), 인보(9), 전음(10), 차리(11), 활천(11)	107
삼남면(5리)	가천(11), 교동(16), 방기(12), 상천(16), 신화(16)	71
삼동면(7리)	금곡(5), 둔기(9), 보은(7), 작동(9), 조일(12), 출강(17), 하잠(10)	69
상북면(13리)	거리(18), 궁근정(3), 길천(12), 덕현(9), 등억(4), 명촌(7), 산전(11), 소호(15), 양동(10), 이진(*), 지내(18), 천천(13), 향산(5)	125
서생면(10리)	나사(1), 대송(2), 명산(8), 서생(3), 신암(7), 용리(7), 위양(21), 진하(5), 화산(6), 화정(11)	71
웅촌면(9리)	검단(10), 고연(23), 곡천(8), 대대(17), 대북(25), 석천(12), 은현(16), 초천(6), 통천(11)	128
5읍7면	118리	1,081

* 들판 없음

울주군의 연혁

[삼한시대]

- 진한에 속함
- 웅촌에 우시산국(于尸山國)
- 범서에 굴아화촌(屈阿火村) 형성

[신라시대(BC57~935)]

※ 80~112년(파사왕 대)

- 범서지역에 굴아화현(屈阿火縣)
- 언양지역에 거지화현(居知火縣)
- 웅촌지역에 우화현(于火縣)
- 강동에 울포현(栗浦縣)
- 서생에 생서량군(生西良郡)⁵⁰² 등을 둠

※ 757년(경덕왕 16)

- 거지화현을 현양현(巘陽縣)으로 개칭하고, 그 치소(治所)를 지금의 언양으로 이전
- 생서량군을 동안군(東安郡)으로, 우화현을 우풍현(虞風縣)으로 개칭하여 동안군의 영현(領縣)으로 함
- 굴아화현을 하곡현[河曲縣, 일명 河西縣]으로, 울포현을 동진현(東津縣)으로 개칭하여 임관군(臨關郡)에 소속시킴

502) 『삼국사기』〈지리지〉(1145). 혹자는 생서량군을 서생량군(西生良郡)이라고도 한다.

※ 901년(효공왕 5)

- 계변성(戒邊城)을 신학성(神鶴城, 또는 皆知邊·火城郡)이라 칭함

[고려시대(918~1392)]

※ 940년(태조 23) : 하곡현·동진현·우풍현을 통합하여 흥려부(興麗府, 또는 興禮府)로 승격

※ 991년(성종 10) : 흥려부를 공화현(恭化縣)으로 격하하고 별호를 학성(鶴城)이라 함.⁵⁰³⁾ 얼마 후, 흥려부로 복구되었다고 함.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미상

※ 997~1011년(성종 16~목종~현종 2) : 이 시기에, 흥려부가 울주(蔚州)로 개편되었을 것으로 추정⁵⁰⁴⁾

※ 1018년(현종 9) : 흥려부(울주), 현양, 기장, 동래현을 합하고 울주에 방어사를 둠

※ 1143년(인종 21) : 울주에서 동래현, 기장현, 언양현으로 분리

[조선시대(1392~1910)]

※ 1413년(태종 13) : 울주(蔚州)가 울산(蔚山)으로 개칭

※ 1598년(선조 31) 12월 21일

- 좌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조정에 울산도호부의 승격을 요청⁵⁰⁵⁾

※ 1599년(선조 32) 5월 15일

- 울산도호부로 승격하여 경상좌병사(金應瑞)가 울산도호부사를 겸무함⁵⁰⁶⁾
- 울산군에 언양현을 통합

※ 1612년(광해군 4)

- 언양현을 울산군에서 다시 분리

※ 1895년(고종 32)

- 울산도호부를 울산군으로, 언양현을 언양군으로 개편

[근대]

※ 1906년 : 칙령 제 49호로 울산군 외남면(지금의 서생면 남부지역)과 웅상면을 양산군(당시)에 이속시키고 동시에 경주군 외남면이 울산군에 이속되면서 두북면으로 개칭

※ 1908년 : 국도 35호선(지금의 '반구대로')의 분계로 두북면을 두동·두서면으로 분면(추정)

※ 1910년 : 양산군에 이속된 외남면을 울산군으로 환속

※ 1914년 : 행정구역 개편 때 언양군을 울산군에 병합

[현대]

※ 1962.2.1 : 각령 제403호로 울산군의 울산읍, 방어진읍, 하상면, 대현면 전역과 농소면 송정리·화봉리, 청량면 두왕리, 범서면 무거리·다운리를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공포하고, 같은 해 6월 1일에는 위 지역을 시로 승격한 울산시에 편입하면서 울산군은 울주군으로 개칭

503) 『경상도지리지』(1425)에, “成宗代 淳化二年辛卯, 降改恭化縣. 統和九年, 以功臣朴允雄之鄉, 復號興麗府. 後改知蔚州事. 其年代未詳[성종 2년(991, 신묘)에 공화현으로 강등되었다가 통화 9년(991)에 공신 박윤웅의 고향이라 다시 흥려부로 하였다. 후에 지물주사로 고쳤다. 그 연대는 미상이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통화 9년은 글인[거란, 遼나라] 성종(聖宗) 9년(신묘, 991)을 말한다.

504) 추정 근거는, 성종 임금이 997년(성종 16) 8월에 동경(지금의 경주)에 행차하여 9월에 '대화루에서 잔치를 베풀고 큰 고기를 잡는 것을 구경했다.' 라는 기록과 1011년(현종 2)에 '울주에 성을 쌓았다.'라는 『고려사』 『병지(兵志)』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505) 『울산부여지도』, 《신편읍지》(1786), 《임진왜변사적》조.

506) 1599년 1월 23일 부임한 김응서(金應瑞) 경상좌병사가 동년 5월 15일부로 울산도호부사직을 겸직했다. 이후 판관을 두어 병사는 병무(兵務)를, 판관은 군무(郡務)를 담당했다. 그러다가 1617년(광해군 9) 10월에 도호부체제로 환원하여 울산도호부사(尹敬得)가 부임하였다.[박채은, 『통합울산선생안』(2016):〈광해군일기〉권120]

- ※ 1963. 1. 1 : 법률 제1175호(1962.11.21 공포)로 서생면을 동래군으로 이속하고(12면), 3월 1일에는 군 조례 제183호에 의거, 삼남면에 삼동출장소 설치(12면 1출장소)→1973.1.1 동래군이 양산군에 병합됨에 따라 서생면을 양산군으로 이속
- ※ 1973. 7. 1 : 대통령령 제6542호로 두서면 소호리를 상북면에, 삼남면 구수리를 언양면에 편입
- ※ 1975.10.1 : 대통령령 제7818호로 온양면 덕신리, 청량면 용암리 및 학남리를 온산면에 편입
- ※ 1979. 3.20 : 군 청사를 울산시 북정동 349번지에서 울산시 옥동 156-3번지로 신축·이전
- ※ 1983. 2.15 :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양산군 서생면 일원을 편입(13면 1출장소)
- ※ 1987. 1. 1 : 대통령령 제12007호로 온산면 용암리를 청량면에 편입
- ※ 1989. 4. 1 : 군 조례 제1065호로 삼남면 삼동출장소를 삼동면으로 승격(14면)
- ※ 1991. 1. 1 : 법률 제4274호로 울주군을 울산군으로 명칭 변경
- ※ 1992. 7.15 : 군 조례 제1260호로 온양면 동상리 일부를 온산면 덕신리에 편입
- ※ 1995. 1. 1 : 법률 제4801호에 의거 울산시·군 통합으로 울산군은 울주군으로 개편
- ※ 1995. 3. 2 : 울산시 조례 제152호로 농소면을 농소읍으로 승격(1읍 13면)
- ※ 1996. 1.15 : 행정구역 변경으로 범서면 굴화리 일부를 남구 무거2동에 편입
- ※ 1996. 2. 1 : 울산시 조례 제210호로 온산면과 언양면을 읍으로 승격(3읍 11면)
- ※ 1997. 5. 2 :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범서면 굴화리 일부를 남구 무거1동으로 편입하고 같은 해 7월 15일에는 울산광역시의 승격에 따라 울주군에서 울주군(자치군)으로 개칭되었으며, 농소읍과 강동면이 복구에 편입(2읍 10면)
- ※ 2001. 3. 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226호로 온양면과 범서면을 읍으로 승격하고(4읍 8면), 같은 해 10월 25일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243호로 상북면사무소 소재지 변경(상북면 산전리 549번지에서 동소 458번지로)
- ※ 2002. 8.30 : 울산광역시 남구와 울주군 간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692호)에 따라 범서읍 굴화리와 남구 무거동 간의 경계를 부분적으로 변경
- ※ 2017.12.26 : 울주군 청량면 울리 신청사 이전·업무개시
- ※ 2018. 1. 8 : 청량면이 읍으로의 승격 승인(행정안전부)
- ※ 2018. 1.16 : 신청사 개청식
- ※ 2018. 4. 1 : 군 조례 제1060호(2018.3.22.)로 청량면이 읍으로 승격(5읍 7면; 118리)
- ※ 2018. 4.13 : 울주정명천년선포식(蔚州定名千年宣布式) 거행.

참고문헌

- 《경상도지리지》(1425)·《삼국사기지리지》(1145)·《울산부신편읍지》(1786).
- 「두동면지」(2001), 두동면지편찬위원회.
- 「두서면지」(2001), 두서면지편찬위원회.
- 「땅이름 울산사랑」(2002), 강길부, 도서출판 정도.
- 「문화유적분포지도」(2003), <울주군>편, 울산광역시.
- 「밀양시지」(2006), 밀양문화원.
- 「밀양지명攷」(1994), 밀양문화원.
- 「범서읍지」(2002), 범서읍지편찬위원회.
- 「삼남면지」(증보판, 2002), 삼남면지(증보판)편찬위원회.
- 「삼남지」(1998), 삼남지방발간추진위원회.
- 「삼동면지」(2002), 삼동면지방발간추진위원회.
- 「상북면지」(2002), 상북면지편찬위원회.
- 「서생면지」(2001), 서생면지편찬위원회.
- 「양산하북면지」(1996, 2012), 하북면지편찬위원회.
- 「언양읍지」(2001), 언양읍지방발간추진위원회.
- 「온산읍지」(2002), 온산읍지편찬위원회.
- 「온양읍지」(2002), 온양읍지편찬위원회.
-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전2권, 1994), 배우리, 출판회사 토담.
- 「울산관광지도」(2008), 안효도, 울산지도센터.
- 「울산광역시사」(2002), 울산광역시.
- 「울산남구지명사」(2009), 울산남구문화원.
- 「울산의 고개 그리고 문화」(2016), 박채은,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 「울산중구지명사」(2014), 울산중구청·울산중구문화원.
- 「울산지명사」(1986), 이유수, 울산시·울산문화원.
- 「울주군지」(상·하)(2002), 울주군지편찬위원회.
- 「웅상읍지」(1998), 웅상읍지편찬위원회.
- 「웅촌면지」(2002), 웅촌면지편찬위원회.
- 「지명유래집」(1980), 건설부 국립지리원.
- 「청량면지」(2002), 청량면지편찬위원회.
- 「통합 울산선생안」(2015), 박채은 편저,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 「필사본(조선지리지자료)속 울산의 옛 땅이름」(2007), 박채은, 울산남구문화원 향토사연구소.
- 「한국민속대사전」(2002), <민족문화사>편, 민중서관.
- 「한국지명총람」(경남)편(II, 1980), 한글학회.
- 「향토와 지명」(1985), 강길부, 정음사.
- 국토포털사이트(www.land.go.kr), 「한국지명유래집」(울산광역시)편.
-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두피디아(http://www.doopedia.co.kr)

도움 주신 분들

이재극(73세, 온양읍), 박상홍(67세, 온산읍·서생면), 박원조(69세, 웅촌면),
박동호(74세, 청량읍), 김지권(70세, 언양읍·범서읍)

울산군 공생기(와)드림

발행일 2018년 9월

발행인 오 정 택

편저자 박 채 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발행처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전 화 TEL (052)283-7797

팩 스 FAX (052)289-7227

디자인 / 인쇄 디자인도담 (052)274-2230

ISBN 979-11-5501-195-9 (93910)

[비매품]

© 울산학 연구사업은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

사진 자료는 편저자가 직접 촬영하였으며,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